

■ 2014년 전문자료집 ■

사 례 연 구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4년 전문자료집 - 사례연구

■ 목 차 ■

◦ 14-01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 송현식 사회복지사	4
◦ 14-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의 효과성 연구(외부훈련을 중심으로) / 장성진, 정진옥 사회복지사	16
◦ 14-03	정신장애인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이론과 임파워먼트 모델을 중심으로) / 황수빈 사회복지사	43
◦ 14-04	사회적 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고광원 사회복지사	67
◦ 14-05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주말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서영 사회복지사	80
◦ 14-06	그룹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김효중 사회복지사	86
◦ 14-07	작업활동 프로그램 훈련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시설 적응력 향상/ 김지혜 사회복지사	101
◦ 14-08	집단미술치료가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류수진 사회복지사	110
◦ 14-09	지적장애인에게 운동 활동이 미치는 영향 / 양정현 사회복지사	124
◦ 14-10	직업훈련을 통한 작업능력향상과 작업정확도의 관한 연구 / 윤성호 사회복지사	142
◦ 14-11	자아존중감 증진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작업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보경 사회복지사	152
◦ 14-12	동요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 권윤해 언어치료사	161
◦ 14-13	뇌성마비 아동에게 ankle plantarflexors의 근력 강화 훈련 시 걷기에 미치 는 영향 / 김영화 물리치료사	171
◦ 14-14	구조화된 놀이치료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민소영 놀이치료사	177
◦ 14-15	정적강화가 전반적 발달지연 유아의 주의집중향상에 미치는 효과 / 이제현 특수교사	185
◦ 14-16	정적운동 프로그램과 동적운동 프로그램이 상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 임주성 작업치료사	191

◦ 14-17	수중에서 체중지지 훈련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전진영 물리치료사	201
◦ 14-18	행동치료를 통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행동 중재 / 김은숙 사회복지사	208
◦ 14-19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중증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이지원 사회복지사	221
◦ 14-20	사회적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임명호 사회복지사	231
◦ 14-21	레포트활동이 독거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고희식 사회복지사	241
◦ 14-22	여가프로그램의 참여가 재가장애인의 우울감 해소에 미치는 영향 / 윤혜림 사회복지사	251
◦ 14-23	사회적지지(사례관리가)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이건용 사회복지사	263
◦ 14-24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4년 지원고용 취업자를 중심으로) / 이주미 직업재활사	276
◦ 14-25	연극활동을 접목한 지적장애인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성 / 이지혜 사회복지사	296
◦ 14-26	된장, 고추장 담그기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최용수 사회복지사	311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 체중관리를 중심으로



팀 명	남동사회복지시설
연구자	송현식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 3. 17. ~ 2014. 10. 31. / 총 1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송현식

◎ 주 제 :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체중관리를 중심으로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윤O숙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59년 8월 6일				
장애명	정신장애	급수	3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 주공@ 216동 ○○○호				
전화번호	032) 471-○○○○		핸드폰	010-0806-○○○○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

가. 개인력

c't는 2남 4녀중 넷째로 출생 함.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자랐고, 자상한 父와 엄격한 母 사이에서 양육됨. 부모님은 일을 하시느라 자녀들을 한 명씩 주의 깊게 보살피며 양육하지 못하셨다고 함. 내성적인 성격의 c't는 형제들과도 절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고, 어려서부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남편께서 형제들에게 들었다고 하심.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한 c't는 1~2명의 친구와 어울리며 지냈고, 졸업 후 사회생활 없이 21세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여 23세에 결혼했다고 하심.

남편은 그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상한 행동으로 다투었고, 이웃과 이사한 말을 하여 큰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시며, 그 때부터 발병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심.

c't는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큰 아들이 안면마비 치료를 받아 c't가 과로하며 간병을 하는 시기에 발병했다고 말씀하심. 발병 당시 증상에 대해 c't의 남편은 환청,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국립병원에 1달동안 강제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심. 퇴원 후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졸리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으로 거절하여 약물복용이 중단되었고, 거절하는 c't와 c't 친정의 무심함으로 남편은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었고 증상이 남아있어 가족들은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다고 함. 남편은 c't의 행동이

자녀들 양육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1996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까지 결심했었다고 말씀하심(c't가 자녀를 훈계 시 화를 내고 혼을 내다가 갑자기 웃고 따뜻하게 대하는 등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여 이것이 자녀들에게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심)

2007년 2월부터 본 시설 적응기간을 가진 후 회원 등록하여 이용 중임. 2008년 상반기에는 직업재활에 지원하여 재활훈련에 참여하였음. 이후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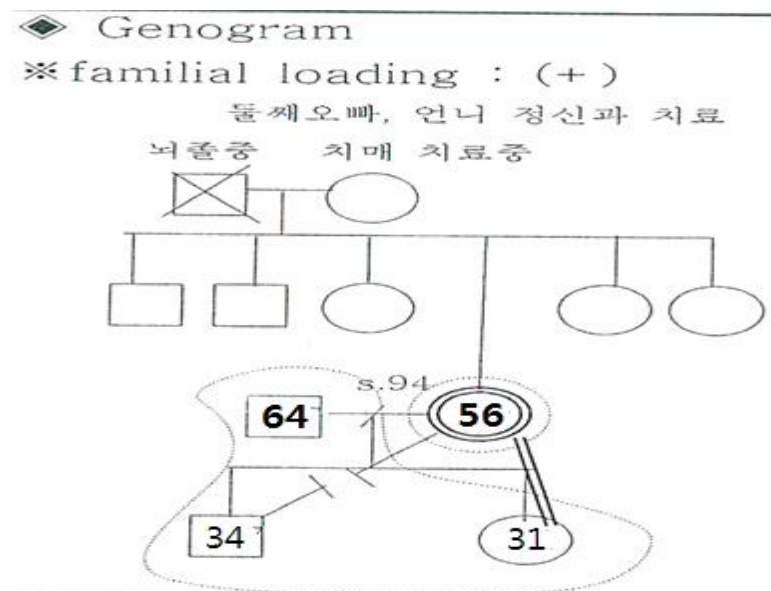


그림 1. c't의 가계도

(3) 주호소 내용

클라이언트 :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아요.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는데, 연골수술은 받기 싫어요. 체중감량해서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서비스 이용 현황

남동사회복지시설 등록일	2007년 1월 24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주간재활서비스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인천○○병원(정신과 외래치료)

3. 사례선정 사유



그림 2. c't의 체중변화



그림 3. c't의 체지방률 변화

- 건강 관리의 필요성 제기

운동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계속되는 체중증가와 무릎(관절)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인 식사 및 스스로 체중관리 하지 못함.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정신질환자의 비만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과잉 저장·축적된 상태로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즉 신체활동에 의해서 소비된 열량보다 음식물로 섭취된 열량 쪽이 많은 경우 여분의 열량이 지방 조직으로 몸속에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 비만이다(배진성, 2004).

비만의 원인에는 유전, 식습관, 활동량 부족,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있다. 유전은 비만의 중요한 원인으로 현재 비만 유전자 특성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몇 개의 유전자는 이미 확인되었다. 체질적으로 대사효율이 높은 사람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여도 보통 사람에 비해 체지방이 더 쉽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지방을 이용하는 능력도 낮아서 계속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하게 된다(차연수, 박현, 이경혜, 김연수, 2006).

식사의 서구화로 인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고지방식품의 섭취가 증가되었는데(국민 건강 영양 조사, 2005) 이는 다른 어떤 영양소에 비해 지방 조직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비만을 초래한다. 또한 섭취량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줄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은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비만이 온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안정하고 있어도 생명 활동을 위한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의 요구량도 감소하게 된다(오형연, 2001). 이 때 열량섭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체중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울, 스트레스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이 비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정서 상태는 정상인에게는 식욕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나 비만자에게는 섭

식행동으로 전가되어 식욕을 향진 시킨다. 따라서 과거에는 비만을 과식으로 인해 나타는 일종의 정신적 병리현상을 동반하는 행동장애로 여겨졌다. 또한 과에는 우울증, 불안 또는 불행감등이 비만의 유발요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대로 이들 감정 장애가 비만증으로 인하여 비만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오전희, 2007).

정신질환자의 경우 생물학적 이유, 자기관리 능력의 부족, 약물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인에 비해 비만 발생률도 높고(김명식, 2001)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비만은 자아 존중감과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수치심, 사회적 기능의 저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초래한다(오전희, 2007). 특히 조현병 환자인 경우 정상인보다 비만 유병률은 더 높고(임희수, 한금선, 정혜경, 2007) 의료 혜택의 접근도는 떨어져 순환계 질환, 당뇨병, 암 등과 관련된 이환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인홍, 박현주, 김은희, 2007). 정신치제의 경우에는 최종도에서 경로도 갈 수록 체지방 퍼센트가 높게 나타났고 정상인 보다 정신지체를 가진 집단에서 체지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Kelly 등, 1986). 이 것은 제한된 생활방식과 통제의 결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중복장애로 인해 기질적 대사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Fox, Rotatory, 1982).

2. 사례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반면에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습관,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08)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비만 유병률은 2007년 31.7%로 1998년 26.0%에 비해 지난 10년간 5.4% 증가율을 보고하였다.

비만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시키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WHO, 1997). 비만율의 증가는 각종 성인병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및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내분비계 문제, 통풍, 관절염 등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이요화, 김기난, 장남수, 2008). 특히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 보다 비만 유병률이 더 높으며(임희수, 한금선, 정혜경, 2006)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비만과 관련된 질환 이환률과 사망률이 높고 의료혜택의 접근도는 낮은상태이다(김인홍, 박현주, 김은희, 2007).

외모 가치를 중요시하고 상품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체중증가는 열등감, 우울감, 심리적 불안감 및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가져오고, 사회성의 저하로 인해 사회적응의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약물 복용 불이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병의 재발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정숙용, 2004).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체중관리가 중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 중에 하나인 약물치료는 그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비정형 약물 도입 이후 조현병의 약물치료에 가장 해가 되는 부작용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클로자핀(Clozapine), 올란자핀(Olanzapine), 리스페리돈(Risperidone)등의 체중증가는 임상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도파민/세로토닌 길항성 비정형 약물이 상대적으로 체중증가를 더 많이 야기시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상이나 자발성 운동장애, 항콜린성 부작용 등 기존에 주목 받던 부작용들이 많이 해결되었으며, 음성증상이나 인지적 증산 개선에 더 나은 효과를 보여 사회 복귀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대시킨 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 ① 지속적인 체중증가
- ② 체중증가에 따른 무릎관절 악화
- ③ 규칙적으로 물리치료 중이나 운동프로그램(헬스, 걷기동아리, 볼링 등) 및 외부 프로그램에 어려움 호소

4. 사례 개입 계획

가. 현상태 파악

건강관리(체중관리) 및 무릎관절에 대한 상담 내용 요약(상담일지 참조)

상 담 일 자	상 담 내 용
2013년 1월 31일	· 무릎 연골이 좋지 않아 연골주사를 맞으심. 이에 2월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함. 한 달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2kg정도씩 감량을 목표로 저녁 폭식 조절과 운동을 하기로 함.
2013년 2월 28일	·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관절 주사를 맞을 계획이라고 하시는 등 최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나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2013년 4월 12일	· 운동치료상담 받음.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 간식을 챙겨드셔서 3월 19일 체지방측정한 날 보다 몸무게가 1~2kg 정도 늘었음.
2013년 6월 11일	· 92kg→88kg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저녁식사를 조절하는 것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함. 금일 걷기동아리 참여할 때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 3바퀴 돌았다고 함.
2013년 12월 3일	· 체중 및 체지방량에 증가하고 있음을 안내. 내년 목표로 5kg 체중감량을 하려고 하고 있음,
2014년 1월 24일	무릎 통증에 지속적으로 호소함. 정형외과에서 월 2회 물리치료 받고 있고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걷기운동 하여 체중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함.
2014년 2월 21일	현재 체중 94kg정도 나가며 다리통증은 월 2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줄었으며, 자주 산책 나가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함. 저녁식사를 7시에 하고 있으나 이후 간식으로 빵, 과일 등을 챙겨드시고 게서서 저녁식사 이후에 간식은 자제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나. 진행 과정 계획

① 체중 관리 및 식사조절

- 매일 재발경고징후지 체크
- 시설 운동프로그램 외 개별 운동 진행
- 체지방 측정 격월 1회
- 식사체크를 통한 식사량 확인 및 조절

② 정기적인 상담

- 사례관리자와 주 1회
- 주치의 상담 월 1회

5. 사례 개입 목표

가. 장기 목표

체중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

나. 단기 목표

단기 목표	세부 목표	평가 지표
1.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하여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1. 운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식사를 조절한다.	1. 운동 프로그램 일지 2. 체지방측정표 3. 헬스 프로그램 일지(체중 확인)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다.	1. 사례관리자와의 월 2회이상 상담한다. 2. 월 1회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다.	1. 개별 프로그램스 2. 정형외과 치료 여부

6. 사례 개입 과정

1) 지속적인 체중관리에 따른 상담 내용

상 담 일 자	상 담 내 용
2014년 4월 1일	- 지속적인 운동 및 식사조절 확인 및 스스로의 자각을 위해 발경고 징후지 작성 시작함.(헬스, 걷기, 저녁식사)
2014년 4월 18일	- 무릎통증이 심해져 운동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함. 정형외과에서 월 2회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염증관련 무릎 조사를 맞으라고 했다고 함.
2014년 4월 22일	• <u>헬스프로그램 체중 측정</u> - 체중 : 93.4kg - 두 달전에 비해 0.6kg이 감량되었음. 체중변화는 크게 없으나 감량되고 있음에 지지해드립니다. 저녁식사 조절 및 운동의 필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4년 4월 24일	- 규칙적인 식사 및 조절을 위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이용 (기존 빵, 떡등의 간식을 그루터기 내에서 식사)
2014년 4월 30일	• <u>재발경고징후 확인</u> - 점심, 저녁 식사 확인 - 무릎 통증은 계속 있음.

2014년 5월 20일	• 체지방 측정 - 체중 : 94.1kg (골격근량 24.5kg, 체지방량 48.8kg) - 체중이 증가함. - 꾸준히 운동할 것 말씀드리고, 더불어 식사량 조절 확인함.
2014년 5월 30일	• 재발경고징후 확인 - 점심, 저녁 식사 확인 - 무릎 통증은 계속 있음. - 집에서 간간히 운동진행하나 무릎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음.
2014년 6월 24일	• 헬스프로그램 체중 측정 - 체중 : 91.8kg - 한달 전에 비해 체중이 많이 감소됨. 이에 지지해드립니다.
2014년 6월 27일	• 재발경고징후 확인 - 전에 비해 간식량 줄였다고 하심. 이에 지지해드리며 꾸준히 운동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형외과 동행 여부를 말씀드렸으나, 번거롭고 같이 가게되면 수술을 권유할 것이지 않냐는 등 부정적인 답변하심. 이에 주치의의 정확한 진찰이 수술이라면 수술을 진행해야된다고 말씀드렸으나 c't는 수술을 절대 원치않음. 이유는 수술 후 재활의 기간이 길고, 또한 수술한다고 100% 나을 거란 생각이 없음. 다이어트를 통해 통증완화하고 싶다고 말함.
2014년 7월 11일	• 체지방 측정 - 체중 : 91.8kg (골격근량 24.2kg, 체지방량 47kg)
2014년 7월 25일	• 재발경고징후 파일 확인 - 체중감소가 되고 있으나 근육량 감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무산소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함.
2014년 8월 15일	• 헬스프로그램 체중측정 - 체중 : 93.5kg - 무릎으로 인해 헬스프로그램 이용하지 못함. 최근들어서 볼링프로그램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
2014년 8월 19일	- 아침식사를 잘 챙겨드시고 있으며, 저녁 또한 든든히 먹고 계심. - 간식은 과일등으로 챙겨먹고 있음. - 집에서의 운동(산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4년 8월 27일	- 무릎 통증으로 인해 운동참여 어려움 호소함.

2014년 9월 2일	• <u>체지방 측정</u> - 체중 : 91.3kg (골격근량 24.2kg, 체지방량 47kg)
2014년 9월 25일	-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공원을 도는 횟수가 감소되었음. - 9월 동안 4회정도 운동 하신 것으로 확인됨.
2014년 10월 23일	• <u>헬스프로그램 체중 측정</u> - 체중 : 91.1kg
2014년 10월 30일	- 아침에 기상 후, 가장 무릎통증이 심함 - 저녁식사 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식사를 하고 있음.

7. 평가

1) 중간 평가 (8월)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체중이 급격하게 늘지 않은것 같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또한 매일 재발경고징후를 점검하며 식사관리, 운동 참여(걷기, 헬스), 무릎통증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확인하고 있으며,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체중감량을 위한 상호간의 동의와 노력의 과정에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적으로 체지방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및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2) 최종 평가

(1)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단기 목표	세부 목표	평가 지표	평가	달성률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하여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 운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식사를 조절한다.	· 운동 프로그램 일지 · 체지방 측정표 · 헬스 프로그램 일지(체중확인)	· c't상황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실시(등산→걷기대체 / 헬스→걷기대체 등) · 식사조절을 위해 복지관 식당이용 실시(4/24)	90%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프로그램 이용 어려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 사례관리자와의 월 2회이상 상담한다. · 월 1회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다.	· 개별 프로그램 · 정형외과 치료 여부	· 월 2회이상 개별상담 진행 → 상담 내용 기록 4월-5회/5월-2회 6월-2회/7월-2회 8월-3회/9월-2회 10월-2회 · 정기적으로 정형외과 진료 및 물리치료 실시	100%

(2) c't 평가 (11/18 진행)

- 무릎통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함.
-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함.
- 작지만 체중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만족함.

(3) 담당자 평가

- 독거를 하고 있어 집에서 c't를 챙겨주지 못함. 이에 외부에서 사먹는 음식이 많고, 군것질을 많이 함.
-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체중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됨.
- 무릎통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치의상담(정형외과)를 진행해야 하였으나, c't의 부정적인 답변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함. 이에 실제 무릎통증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완화가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결론 및 향후 계획

1) 결론

: 2014년 4월-10월로 개별 사례를 통하여 체중관리를 통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졌던 사례임. c't는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었

음. 지속적인 무릎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있음. 수술이 필요한 실정이나 c't는 체중감량으로 통해 무릎통증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음. 실제 사례관리를 통하여 체중이 감소되었고, 스스로 하려는 마음과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하지만 체중감량이 미약하고 잦은 무릎통증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줌. 체중변화가 미약하지만 서서히 감량이 된다면 일상과 삶이 변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c't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계획

(1) c't에게 맞는 운동법 제시

: 무릎이 좋지 않은 c't에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 c't가 실제 할 수 있고 무리되지 않는 선의 운동법을 c't에게 제시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식사조절 및 체중관리

: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간헐적으로 체지방측정을 실시하여 실제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및 근육량 등 확인

* 참고문헌

강현모(2001),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관 입원환자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경희, 정명실, 김정희(2010), 웰리스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영양과 식이저식, 운동과 중조절지식 및 체중감속에 미치는 효과

이선영(2004),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요인과 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술저널

김소희(1999), 여성지체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의 효과성 연구 - 외부훈련을 중심으로



팀 명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연구자	장성진, 정진옥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 01. 13. ~ 2014. 11. 14 / 141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장성진, 정진옥 사회복지사

◎ 주 제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의 효과성 연구 - 외부훈련을 중심으로

1. 사례연구의 필요성

1) 주제선정 배경

정신장애인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사회기술, 직업기능, 문제해결능력, 증상관리 등의 영역에서 안정된 행동양상을 보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연속적인 직업재활 과정이 필요하다.

본 시설에서도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시설이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업재활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욕구보다는 시설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직업재활훈련에 지원하는 회원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혹, 직업재활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감, 낮은 의욕과 부적절한 자기인식 등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취업 시도 보다는 내부훈련에만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장기화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훈련 참여 회원들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훈련 참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본 시설에서 내부훈련은 직업재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작업 및 훈련 상황에 적응하고 훈련비를 통해 직업재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직업재활의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업체상황을 경험하고 적응능력을 키우는 외부훈련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회원과 함께 직업재활훈련을 진행하며, 내부훈련만 참여하던 회원이 처음 외부훈련에 참여한 뒤로 자신감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 결과나 목표가 반드시 취업이 아니더라도 외부훈련 참여 자체가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 연구를 통해 외부훈련이 회원들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본 시설 이용회원들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 향상뿐 아니라, 자신감·자기관리능력·대인관계 등 역량강화 및 증상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시설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취업 전 훈련	· 내부훈련: 취업 전 내부 작업훈련 경험을 통한 현장 훈련에 대한 적응력 강화 · 현장훈련: 사업체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취업에 대한 동기유발, 작업 기능 및 취업상황에 대한 적응 확인의 기회로서 취업 가능성 확인
취업준비교육	취업준비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취업상황에서의 스트레스·증상관리,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
직업재활 네트워크	체계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내 정신장애인에게 본 시설의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경험제공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위탁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으로 사업체와 훈련생을 매칭하여 현장훈련 진행. 실무자의 직무지도로 업체 적응 및 작업능력 향상 도모
취업회원자조모임	취업회원 및 직업재활훈련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월1회 자조모임 진행. 모임을 통한 지지체계형성과 공통의 관심사 공유를 통한 취업유지 도모
취업지원서비스	전화상담 / 취업장 방문 : 취업회원 및 외부훈련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업체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취업유지 및 훈련지원

※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이 외부훈련에 해당

「사례연구에 적용되는 외부훈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현장훈련	- 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부훈련 - 본 시설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내부훈련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회원을 연결 - 일 4~8시간 동안 업체에서 취업상황과 동일한 직무수행 - 훈련비는 회원의 작업량에 근거하여 업체를 통해 지급 - 주1회 취업장방문을 통한 상담으로 사례관리 지원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위탁사업 (이하 지원고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으로 매년 위탁받아 사업 진행 -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내부훈련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를 개발하여 연계 - 사전훈련 1일, 현장훈련 15일로 총16일 훈련 진행 - 일 4~8시간 동안 업체에서 취업상황과 동일한 직무수행 - 훈련비는 일 12,000원으로 장애인공단의 사업비로 지급 - 훈련기간 16일 동안 매일 업체방문하여 업체 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지도 실시

2) 이론적 배경

①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조건(기질성 뇌증후군, 조현병, 반복적 우울증, 조울증, 망상장애, 기타 정신병)으로 인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장애는 질병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의 사회적인 기능의 파손까지 포함하여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문인숙&양옥경,1991).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신장애의 증상인 정신병의 증상, 무감동, 철수, 인지적 장애와 취업을 위한 학습이나 경험부족, 의사결정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업을 선택하여 현실적인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의 발병시기가 대체적으로 직업을 갖는 시기와 비슷하여 다양한 구직기술습득 및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병의 경과에 따른 주의력, 집중력, 인지기능의 악화로 인해 구직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셋째, 직장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더라도 작업수행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언어, 행동, 의존성, 문제해결의 부족,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능력, 증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으로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인지적인 장애와 다양한 상황에서 과도한 자극이 유입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효정,2004).

따라서 직업재활 과정 전반을 통해 취업 시도 및 유지에 필요한 적응기술(자기관리기술, 도구사용기술, 대인관계 기술, 작업기술 등)을 익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습득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홍성진,2005).

②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

이금진(2000, 재인용)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만성정신질환의 치료결과이면서 동시에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며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은 동기, 자기확신, 구조적 활동, 관계성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일은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실제적 성취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1996). 일은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향진시켜 너무 쉽게 ‘환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혹은 타인이 성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업적인 성공과 직업에 대한 만족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둘째, 증상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정신장애인이 일을 한 경우 재 입원률이 낮고 일에 대한 참여가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을 받는 일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재 입원률이 낮았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경우가 양성증상의 감소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1996).

셋째, 정신장애인의 총체적 기술의 척도가 된다.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게 광범위한 기술의 획득과 활용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기술 직업 기술 대처기술과 증상관리 기술 등 이다.(R. P. Liberman, 1998). 이런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재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주류(mainstream)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의 지표가 된다(R. P. Liberman, 1998). 직업이란 그 개인이 지역사회내의 생산적인 구성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기여자로 역할로 바꿀 수 있으며(이상,1998),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독립체로서 주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활과 치료에 기여하는 면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개입 계획

1) 대상

: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취업과 관련한 외부훈련의 경험이 없는 본 시설이용회원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유관기관 이용회원 5명

2) 개입방법

- ① 본 시설 이용회원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유관기관 이용회원 중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회원 모집 및 선발
- ② 모집 된 회원을 대상으로 내부훈련 진행
- ③ 내부훈련 참여회원 중 외부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회원모집 및 선발
- ④ 회원과 개별상담을 통한 욕구파악(직종, 업체위치, 훈련시간, 훈련형태 등)
- ⑤ 욕구에 따른 업체 개발 및 연계
- ⑥ 외부훈련실시에 대한 회원 및 가족상담 / 관련서류 준비 / 사전척도검사
- ⑦ 외부훈련 진행(직무지도,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훈련비지급 등) / 사후척도 / 만족도 평가
- ⑧ 외부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

3) 평가도구

- ①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사정 및 성과평가 척도
: 박병선(2012)이 ‘정신사회재활 서비스 사정 및 성과평가 척도개발연구-정신사회재활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한 110문항척도 중 임상관리영역 16문항,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대처) 31문항, 역할수행영역(직업) 14문항, 자기옹호영역(임파워먼트) 15문항 사용
※ 척도 중 일부 영역에 대한 척도점수만 확인하는 것은, 4개 영역이 그 외 영역에 비해(사회적 역할, 가족 내 역할, 낙인 및 차별대처) 직업재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준비되고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며, 외부훈련을 통해 가족 내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 차별 대처 등의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 ② 훈련참여에 대한 사후만족도 조사(시설 자체 설문)

4) 진행일정

진행내용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직업재활훈련참여회원모집 및 사업홍보											
사례연구 계획회의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외부훈련 참여회원 선발											
외부훈련 준비 및 진행 (회원·가족상담, 업체개발·연계)											
사전척도 검사											
사후척도 및 만족도 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간점검 및 보완·수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업무분장

업무내용	담당자
회원 및 가족상담, O.T	장성진 2 case, 정진옥 3 case
사업주 미팅	
외부훈련 진행관련 서류준비	
훈련 직무지도	
사전·사후검사	
개별인터뷰(만족도 평가)	
사전사후 척도 조사 결과 분석	정진옥
업체개발	장성진
사업홍보, 회원 모집 및 선발	공통업무
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3. 사례 개입 목표

- 장기: 참여회원이 정신질환의 증상적인 어려움과 습관화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단기

- 1)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관리, 증상관리)에 대한 척도점수가 사전대비 10% 이상 향상된다.
- 2)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대처)에 대한 척도점수가 사전대비 15% 이상 향상된다.
- 3) 임파워먼트영역에 대한 척도점수가 사전대비 10% 이상 향상된다.
- 4)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에 대한 척도점수가 사전대비 15% 이상 향상된다.

4. 진행사항

1) 진행과정

① 케이스 선정과정

일 시	내 용
1월 13일 ~ 1월 17일	- 1차 직업재활 훈련 참여회원 모집 : 내소회원 대상 - 면접 및 결과발표 → 김*순(F/54세) 선발 / 1 case
2월 10일 ~ 2월 27일	- 1차 직업재활네트워크 훈련 참여회원 모집 : 내소회원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유관기관 이용회원 대상 - 면접 및 결과발표 → 이*철(M/29세) 선발 / 2 case
5월21일 ~ 5월23일	- 2차 직업재활네트워크 훈련 참여회원 모집 : 내소회원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유관기관 이용회원 대상 - 면접 및 결과발표 → 선우*희(F/20세) 선발 / 3 case
8월 11일 ~ 8월 22일	- 3차 직업재활네트워크 훈련 참여회원 모집 : 내소회원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유관기관 이용회원 대상 - 면접 및 결과발표 → 박*희(F/36세) 선발 / 4 case

② 케이스별 진행과정

i) 1 case (기본사항)

이 름	김*순	성별	F	결혼여부	이혼
생년월일/나이	1960.10.15. / 54세				
장애명	schizophrenia	급수	장애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 무 ☒	종류	-	장애등록	유 ☒ 무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보호1 ☐ 의료보호2 ☐ 일반 ☐				

일 시	내 용
1월 20일	- 직업재활 협약서 안내 및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회원 동의 - 내부훈련 시작 : 주 5일 / 일 2시간 30분~7시간 훈련 참여 : 단순 하청작업 수행(세탁기 받침대 부품정리, 안경닦이포장 등)
1월 27일	- 직업재활 협약서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가족 동의
3월 13일	- 외부훈련 관련 상담(c't) : 외부훈련 참여 욕구 파악(직종, 직무, 위치, 근무시간 및 기간, 훈련비 등)
3월 24일	- 외부훈련 관련 상담(c't 가족) : c't 외부훈련 참여에 대한 의견 및 요청사항 확인(최근 c't의 증상에 대한 정보파악, 외부훈련에 대한 c't의 욕구 전달 등)
3월 25일	- 외부훈련 업체개발(다정테크) : c't 욕구에 따른 업체 정보 수집 및 연계 →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의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 고용주와 외부훈련 일정논의 및 훈련생에 대한 정보제공 - 외부훈련 형태 논의(c't, 사업체) : 지원고용 프로그램 안내 및 논의 : 지원고용 진행 관련 서류 작성(동의서, 신청서 등) : 면접 및 훈련 일정 논의
3월 31일	- 지원고용 진행에 따른 면접 실시 → 4월 1일부터 16일간 지원고용 실시결정(사전훈련 1일, 현장훈련 15일) - 지원고용 실시에 따른 사전직무지도(c't) → 업체 라운딩, 근무 및 점심시간 안내, 직무확인, 동료 소개, 대중교통 이용 등 - 지원고용 실시에 따른 가족상담 : 지원고용 실시 일정 및 업체 정보(위치, 직무 등) 안내, 지원고용 실시에 따른 c't의 증상변화 관찰요청 - 사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19점/25점, 약물 22점/25점, 증상관리 22점/30점 = 63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8점/35점, 대인관계 40점/60점, 문제해결 24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0점/20점 = 102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9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3점/70점

일 시	내 용
4월 1일	- 지원고용 훈련 시작 : 출·퇴근 방법 숙지 / 업체 오리엔테이션 / 작업(블렌딩작업)
4월 2일 ~ 4월 22일	- 지원고용 훈련 진행(15일 / 일 4시간 근무)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업체 방문하여 직무지도 수행 - 지원고용 후 추가 외부훈련 욕구 확인(c't, 업체) : 외부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 표현하여 4월 23일부터 지원고용 후 현장훈련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
4월 23일 ~ 5월 21일	- 현장훈련 진행(18일 / 일 6시간 근무) : 훈련기간 중 증상의 어려움(피해적 사고, 환후) 관찰되어 c't의 요청으로 현장훈련 종결
5월 2일	- 사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20점/25점, 약물 22점/25점, 증상관리 24점/30점 = 66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7점/35점, 대인관계 39점/60점, 문제해결 26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3점/20점 = 105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2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0점/70점
5월 22일	- 외부훈련 참여에 따른 개별인터뷰 : c't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나 수급자격 유지 보다는 외부훈련을 통한 취업으로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 표현함. 외부훈련 업체의 환경 및 근무시간, 직무,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감 나타내었고 지원고용 이후로도 지속적인 외부훈련 희망하여 현장훈련 연계됨. → c't의 경우 수급자격유지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제공받고 있어 취업으로 인해 탈수급이 될 경우 주거 상실의 어려움이 있어 현장훈련의 형태로 지속하기로 합의. : 훈련에 대한 만족도 표현하며 안정적으로 현장훈련 유지하였으나, 증상의 어려움(업체 건물 2층에서 음식 준비하는 냄새를 맡고는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 업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사장님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등) 관찰되었고 c't와 c't가족, 업체와 논의 후 외부훈련 종결함.

ii) 2 case (기본사항)

이 름	이*철	성별	M	결혼여부	미혼
생년월일/나이	1985.08.30 / 29세				
장애명	schizophrenia	급수		중복장애	asperger's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일 시	내 용
3월 3일	- 직업재활 협약서 안내 및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회원 동의 - 내부훈련 시작 : 주 5일 / 1일 5시~7시간 훈련 참여 : 단순 하청작업 수행(세탁기 받침대 부품정리, 안경닦이포장 등)
3월 13일	- 직업재활 협약서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가족 동의
3월 21일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훈련 3주차 적응정도 및 스트레스 상황 점검
3월 27일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훈련 적응정도 및 외부훈련에 대한 욕구 파악 : 외부훈련 참여 욕구 파악(직종, 직무, 위치, 근무시간 및 기간, 훈련비 등) : 외부훈련에 대한 욕구 확인되었고 c't가 자발적으로 업체정보를 찾고 구직문의 전화를 통해 취업준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4월 1일	- 외부훈련 업체개발(GS칼텍스) : c't 욕구에 따른 업체 정보 수집 및 연계 → 인천 논현동 소재의 Self-주유소 업체 고용주와 외부훈련 일정 논의 및 훈련생에 대한 정보제공 - 외부훈련 형태 논의(c't, 사업체) : 지원고용 프로그램 안내 및 논의 : 면접 및 훈련 일정 논의

일 시	내 용
4월 4일	- 현장훈련 면접 지원(c't) : 4월 7일(월)부터 외부훈련 시작하기로 함. (현장훈련을 통해 c't가 업체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응 후 취업 연계하기로 함) : 출·퇴근 방법 숙지 / 업체 오리엔테이션 / 직무(세차 및 손님응대) - 사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19점/25점, 약물 18점/25점, 증상관리 19점/30점 = 56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6점/35점, 대인관계 38점/60점, 문제해결 26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4점/20점 = 104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3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8점/70점
4월 4일	- 외부훈련 관련하여 c't의 담당사례관리자와 논의(해피투게더) : c't 외부훈련 및 취업연계 논의 및 최근 c't의 증상에 대한 정보 공유, 외부훈련에 대한 c't의 욕구 전달 등 : GS칼텍스 업체 정보 안내 (직종, 직무, 위치, 근무시간 및 기간, 훈련비 등) : 면접 일정 및 면접 후 추후 일정 안내 - 현장훈련 관련 상담(c't 가족) : c't 외부훈련 참여에 대한 의견 및 요청사항 확인(최근 c't의 증상에 대한 정보파악, 외부훈련에 대한 c't의 욕구 전달 등)
4월 7일 ~ 4월 18일	- 현장 훈련 진행(10일 / 주단위로 4시간, 5시간, 6시간 연장근무)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업체 방문하여 c't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 수행
4월 22일	- 현장훈련 종결 및 취업연계 (c't, 업체) : 현장훈련 종결 후 c't와 업체 고용주와 근로계약 관련하여 논의 함.(오전 9시 출근/ 일 7시간 근무/ 최저임금적용/ 직무(손님응대 서비스) : 근로계약서 작성 -c't의 취업연계 상환 전달 및 지원방향 논의(c't母, 해피투게더)

일 시	내 용
4월 22일	- 근로계약 내용 전달 및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 취업 후 c't의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2case의 경우 직업재활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3월~5월까지(3개월)이기 때문에 5월까지만 본 시설에서 사례관리하며 c't가 안정적으로 취업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월부터는 해피투게더 담당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하기로 합의함)
5월 13일	- 사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20점/25점, 약물 18점/25점, 증상관리 19점/30점 = 57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6점/35점, 대인관계 35점/60점, 문제해결 28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5점/20점 = 104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5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9점/70점
5월 13일	- 외부훈련 참여에 따른 개별인터뷰 : c't는 외부훈련 및 취업에 대한 c't의 높은 의욕과 성실한 태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짐. c't는 장애미등록으로 등록 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c't의 적극성 c't 가족의 지지, 본 시설과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실무자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약 1개월의 내부훈련 → 외부훈련 → 취업까지 단기간에 빠른 연계가 이루어졌음. 이는 외부훈련을 통해 c't의 목표를 이루는 성과로 나타남. : c't는 처음으로 직업재활훈련에 지원하였고, 그간 여러 차례 취업에 대한 실패경험으로 낮은 자존감 갖고 있었으나 이번 훈련을 통한 취업연계로 훈련에 대한 높은 만족도 표현. 훈련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취업성공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아 '이렇게 지내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고 표현하기도 함. 훈련을 통해 가장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높아진 것과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표현.

iii) 3 case (기본사항)

이 름	선우*희	성별	F	결혼여부	미혼
생년월일/나이	1994.11.3 / 20세				
장애명	schizophrenia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일 시	내 용
6월 2일	- 직업재활 협약서 안내 및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회원 동의 - 내부훈련 시작 : 주 5일 / 1일 5시~7시간 훈련 참여 : 단순 하청작업 수행(세탁기 받침대 부품정리, 고무링작업 등)
6월 5일	- 직업재활 협약서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가족 동의
6월 10일	- c't 의뢰서 접수(남동구청신건강증진센터)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적응사항 및 재발경고징후지 관련하여 상담 진행함. 훈련이 시작되고 적응과정 중에 있어 컨디션 및 증상관리 잘 하도록 지지함.
6월 12일	- 컨디션 및 작업 태도 관련 상담 진행(c't) : 작업량 및 불량 체크하였고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지지함.
6월 27일	- 훈련 참여한지 약 1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으로, 1개월 간의 훈련에 대해 c't와 상담 진행함. : C't 스스로는 '꾸준히 작업수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것, 성실하게 참여한 것, 다른 회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컨디션 조절을 잘 하지 못해 자주 쉬겠다고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을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이야기 함. 실무자도 c't가 성실하게 훈련에 잘 참여하고 근태 관련하여 지각이 예상되는 경우 실무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 꾸준히 작업수량이 증가한 것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지지하고,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는 7월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일 시	내 용
7월 11일	- 컨디션 및 재발경고징후지 관련 상담(c't) : 최근 별다른 스트레스 없으며 건강관리 및 컨디션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함. 7월 초 이후로 안정적으로 훈련 참여 및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임.
7월 25일	-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하계 방학 계획 확인함. : 방학기간 동안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패턴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외부훈련 진행할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 함. 처음 c't는 생산직에서만 외부훈련 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하며 다른 직무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함. 8월 3주 후 c't의 컨디션 고려하여 외부훈련 진행예정.
8월 12일	- 방학기간 중 생활점검(c't) : 7월 28일~8월 8일까지 회원 하계방학으로 8월 11일 시설 출근 규칙적인 생활은 유지되지 못했지만 다시 출근하니 보람있고 의미 있다며 긍정적인 표현함. - 외부훈련 관련 논의(c't) : 서비스직(GS칼텍스)과 생산직(다정테크) 각 업체의 장단점에 대해 안내하며 c't의 욕구 확인함. c't는 방학기간 중 c't父와 논의 하였었고, 서비스직은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 생산직을 추천했다고 함. 금일 본 실무자에게 각 업체의 장단점에 대해 들은 뒤에도 생산직이 나을 것 같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업체 관리자에게 연락드려 외부훈련 일정 논의하기로 함. : 외부훈련 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도록 당부
8월 13일	- c't 외부훈련 관련하여 업체 중간관리자와 논의(유진전장) : 현재 자동차제조업체들이 파업 중으로 유진전장에서도 지원고용을 진행할 만큼 작업량이 많지 않다고 함. 이에 9월이나 10월 중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외부훈련 관련하여 상담(c't) : C't에게 위의 내용 전달하고, c't가 지원한 2차 직업재활네트워크 프로그램이 6월~8월까지 진행이나 c't가 9월이나 10월이라도 외부훈련까지 참여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 적용 여부 논의 필요함 전달. : c't父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고, c't의 결정 이후 남동센터 실무자와도 논의 필요함 전달.

일 시	내 용
8월 14일	- 직업재활네트워크훈련 연장 관련 상담(c't) : c't가 직업재활네트워크훈련 연장에 대해 가족과 함께 논의 하였고 훈련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c't父가 다소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c't가 외부훈련 참여를 원해 가족들도 이에 대해 응원하기로 함.
9월 5일	- 컨디션 및 내부훈련 진행에 따른 상담(c't) : 컨디션관리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9월에 작업반장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힘든 것은 없고 나름 재미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다고 함. 최근 직업재활네트워크로 새로운 훈련생이 왔는데 c't가 작업반장의 역할로, 선배로서 잘 챙겨주는 것에 대해 감사인사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태도로 훈련 및 대인관계 하실 수 있도록 당부함. 9월 4주차에 취업회원캠프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로 업체에 연락 해서 외부훈련 진행여부 확인하고 논의해보기로 함.
9월 22일	- 외부훈련 관련하여 논의(c't) : 외부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외부훈련 가능한 생산직 업체가 속적으로 작업량이 부족하여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훈련이 너무 길어지고, c't 역시 내부에서는 충분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비스직(GS칼텍스)으로 지원해보는 것은 어떤지 여쭙봄. c't는 주유소는 혹시나 혼유 사고가 있을 수 있어 c't父가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해주었고, c't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심. c't가 맡을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고 c't父에게는 실무자가 연락드려 논의해보겠다 전달. c't父와 논의 후 업체관리자에게 연락드려 면접일정 조율예정.
9월 24일	- c't 외부훈련(GS칼텍스) 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c't父) : c't父는 c't를 통해 주유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함. c't가 장애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아 혹여나 혼유를 하거나 실수를 하진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되었다고 하심. c't의 직무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직무지도 실시됨을 말씀드리니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심. 9월 5주 중으로 업체와 일정 논의하여 면접 진행하고 면접 후 외부훈련 실시일과 훈련비 등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리기로 함.

일 시	내 용
10월 1일	- 외부훈련 관련 논의(c't) : c't 외부훈련 참여하기로 결정함. 관련하여 이력서 작성요령 안내해드립니다. c't가 먼저 작성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보완해야 할 부분만 다시 점검함.
10월 6일	- 외부훈련 면접 지원(c't) : 10월 6일(월) 면접 지원함. : 10월 13일(월)~11월13일(목)까지 외부훈련 진행예정 임. (지원고용프로그램을 통해 c't가 업체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응 후 취업 연계하기로 함) : 근무시간은 09:00~15:00까지 오전 조 : 주유차량 안내 / 음료대접 업무 : 면접 후 교통지도 함. - 사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17점/25점, 약물 19점/25점, 증상관리 19점/30점 = 55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6점/35점, 대인관계 36점/60점, 문제해결 23점/40점 - 스트레스 대처 11점/20점 = 96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49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49점/70점
	- 외부훈련 관련 상담(c't父) : c't 면접본 내용 및 결과, 외부훈련 진행과정에 대해 c't父에게 연락드려 전달함. 잘 되어서 좋다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였음. : c't 훈련직무 및 기간, 장소, 훈련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추후 문의사항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도록 전달함.
	- 외부훈련 관련 상담(남동구청신건강증진센터) : c't 외부훈련 면접 상황 및 결과, 외부훈련 진행일정 및 직무 등에 대해 담당사례관리자에게 전달.
10월 7일	- 외부훈련 준비(c't) : 지원고용동의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

일 시	내 용
10월 13일 ~ 11월 13일	- 외부 훈련 진행(c't)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업체 방문하여 c't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 수행
11월 12일	- 사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20점/25점, 약물 20점/25점, 증상관리 20점/30점 = 60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5점/35점, 대인관계 43점/60점, 문제해결 27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1점/20점 = 106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0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64점/70점
11월 13일	- 외부훈련 참여에 따른 개별인터뷰 : 직업재활네트워크는 3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c't의 적응정도 및 기능을 고려하면 3개월 내 외부훈련도 가능하였으나, c't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외부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 약 6개월간 훈련이 연장되어 진행됨. 그럼에도 c't는 내부훈련에 참여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고, 외부훈련이 진행되기까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며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의욕을 나타내기도 함. c't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외부훈련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목표를 정하고 직업재활훈련을 시작하였으나, 성실하고 적극적인 c't의 근무태도 및 우수한 직무능력 등을 인정받아 c't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업연계까지 이루어짐. 이는 c't가 직업재활훈련에 처음 참여하고, 외부훈련도 처음 시도해보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정적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취업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얻게 됨.
11월 14일	11월 14일자로 취업

iv) 4 case (기본사항)

이름	박*희	성별	F	결혼여부	미혼
생년월일/나이	1978.9.30 / 36세				
장애명	schizophrenia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 무 ☒	종류	-	장애등록	유 ☒ 무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보호1 ☐ 의료보호2 ☐ 일반 ☒				

일시	내용
9월 2일	- 직업재활 협약서 안내 및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회원 동의 - 내부훈련 시작 : 주 5일 / 1일 5시~7시간 훈련 참여 : 단순 하청작업 수행(세탁기 받침대 부품정리, 고무링 등)
9월 4일	- 직업재활 협약서 작성 : 직업재활 훈련 참여에 대한 가족 동의
9월 5일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c't 증상관리 및 새로운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 점검
9월 22일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c't 훈련 4주차로 접어들나 훈련태도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어 상담 진행함. c't의 작업태도(졸립다며 작업테이블에 아예 누워 잠을 자는 것,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가지 않고 있다가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 잦은 자리이동, 작업 중 빵을 먹는 것, 작업규칙을 지키도록 말씀드려도 수용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점검하고, c't가 처음 약속한 직업재활네트워크 협약서의 규칙 내용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설명함. c't에게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이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함. 그 이후에 훈련을 지속할지 종결할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떤 결정이든 c't가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함.

일 시	내 용
9월 29일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 / 미추홀하우스 담당사례관리자) : 주말동안 미추홀하우스 실무자와 상담을 했고 미추홀하우스 실무자도 c't가 준비되지 않으면 취업은 할 수 없음과 훈련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함. C't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보니 '다시 마음먹고 잘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음. : 1주일 동안 c't가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이에 대해 함께 점검하자 말씀드렸고, 상담 내용 미추홀하우스 담당사례관리자에게도 전달함.
	- 내부훈련 관련 상담(c't언니) : C't 언니는 지난주 미추홀하우스 실무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c't의 훈련태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c't가 훈련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다시 어깨동무로 보내야겠다는 이야기를 함. 이에 금일 c't가 상담을 통해 다시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도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음에 대해 전달함. C't 언니는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c't가 훈련에 대한 욕구 없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 어깨동무를 다니거나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고 함. 우선은 이번 주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려 상황에 대해 전달해드리겠다 안내함.
10월 2일	- 외부훈련 관련 논의(c't/미추홀하우스 담당사례관리자) : c't 일주일동안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c't의 성향 상 내부훈련 보다는 외부훈련 참여시 더 c't가 즐겁게 훈련할 수 있을 수 있다고 c't-담당사례관리자와 함께 논의 후 판단하여 외부훈련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관련하여 이력서 작성요령 안내해드림. c't가 먼저 작성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보완해야 할 부분만 다시 점검 이루어짐.
10월 6일	- 외부훈련 면접 지원(c't) : 10월 6일(월) 면접 지원함. : 10월 13일(월)~11월13일(목)까지 외부훈련 진행예정 임. (지원고용프로그램을 통해 c't가 업체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적응 후 취업 연계하기로 함) : 근무시간은 14:00~20:00까지 (오후 조) : 주유차량 안내 / 음료대접 업무 : 면접 후 교통지도 함.

일 시	내 용
10월 6일	- 사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12점/25점, 약물 21점/25점, 증상관리 22점/30점 = 55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9점/35점, 대인관계 43점/60점, 문제해결 27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2점/20점 = 111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5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4점/70점
	- 외부훈련 관련하여 c't의 담당사례관리자와 논의(미추홀주거시설) : c't 외부훈련 및 취업연계 논의 및 최근 c't의 증상에 대한 정보 공유, 외부훈련에 대한 c't의 욕구 전달 등 : GS칼텍스 업체 정보 안내 (직종, 직무, 위치, 근무시간 및 기간, 훈련비 등) : 면접 결과 및 추후 일정 안내
	- 외부훈련 관련 상담(c't 가족) : c't 외부훈련 참여에 대한 의견 및 요청사항 확인(최근 c't의 증상에 대한 정보파악, 외부훈련에 대한 c't의 욕구 전달 등)
10월 13일 ~ 11월 13일	- 외부 훈련 진행(16일 / 6시간 근무) :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업체 방문하여 c't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 수행
11월 12일	- 사후척도 검사 실시 ▶ 임상관리영역(병식, 약물, 증상관리) : 병식 17점/25점, 약물 19점/25점, 증상관리 20점/30점 = 56점/80점 ▶ 기능영역(일상생활,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 일상생활 24점/35점, 대인관계 43점/60점, 문제해결 21점/40점 스트레스 대처 14점/20점 = 102점/155점 ▶ 임파워먼트영역(자기결정, 긍정적사고, 권리, 자신감, 문제해결) : 54점/75점 ▶ 직업영역(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 적극성, 책임감, 자기인식) : 50점/70점

일 시	내 용
11월 13일	- 외부훈련 참여에 따른 개별인터뷰 : 훈련이 진행되면서 c't의 증상(머리를 흔드는 것, 약물복용에 따른 졸음)이나 성향(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훈련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훈련과 취업에 대한 c't의 욕구로 조금씩 노력하며 개선되는 모습 관찰되었고, 이에 외부훈련을 통한 취업연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c't는 발병 이후 처음 직업재활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니 c't 스스로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소 높고, 발병 전 c't의 능력이나 기능에 대한 기억으로 훈련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훈련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 이는 취업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관리자 및 선임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1월 14일	11월 14일자로 취업

5. 평가

1) 목표평가

① 단기목표 1.

「외부훈련을 통해 임상관리영역의 척도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다.」

case	사 전	사 후	증감율(%)
1 case	63/80	66/80	+ 3.75%
2 case	56/80	57/80	+ 1.25%
3 case	55/80	60/80	+ 6.25%
4 case	55/80	56/80	+ 1.25%
평 균			+3.13%

: 총 4명의 외부훈련을 진행한 결과, 임상관리영역이 단기목표 4개 중 모든 대상자에게 향상된 결과가 나타남. 외부훈련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약물 및 증상관리이며, 훈련에 따른 직무지도 시 약물이나 증상,

컨디션에 관한 것이 수시로 점검되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도 이에 대한 관리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던 것으로 생각됨.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화는 아니었으나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외부훈련이 임상관리영역에 있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② 단기목표 2.

「외부훈련을 통해 기능영역의 척도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다.」

case	사 전	사 후	증감율(%)
1 case	102/155	105/155	+ 1.94%
2 case	104/155	104/155	0.00%
3 case	96/155	106/155	+ 6.45
4 case	111/155	102/155	- 5.81%
평 균			+ 2.58%

: 기능영역에 대한 점수는 향상율의 폭은 낮으나 4개 단기목표 중 두 번째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4 case의 경우, 타 대상들에 비해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능력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관찰되는 객관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 외부훈련과정이 c't에게는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낮게 체크되는 결과가 나타남.

본 연구 설계 시, 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각 영역에 대한 사전·사후척도를 비교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4 case처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사후 척도결과에 대한 신뢰에 어려움이 있었음.

③ 단기목표 3.

「외부훈련을 통해 임파워먼트영역의 척도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다.」

case	사 전	사 후	증감율(%)
1 case	59/75	52/75	- 9.33%
2 case	53/75	55/75	+ 2.67%
3 case	49/75	50/75	+ 1.33%
4 case	55/75	54/75	- 1.33%
평 균			- 6.66%

: 4개의 평가 영역 중 임파워먼트는 가장 낮은 효과성을 나타냄. 임파워먼트는 자신감, 자기결정, 성숙, 긍정적인 성장, 자신의 권리주장 등에 있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이고, 이는 취업이나 재활과정 등 보다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점차 강화되며, 길러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대부분 단기간 진행된 외부훈련을 통해 임파워먼트 영역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연구 설계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였음.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임파워먼트 영역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후 참여 case들의 취업유지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임파워먼트 영역은 회복 과정의 핵심으로, 재활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것 인만큼, 이에 연구가 끝난 후에도 이번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된 case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파워먼트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자 함.

④ 단기목표 4.

「외부훈련을 통해 직업영역의 척도점수가 사전에 비해 향상된다.」

case	사 전	사 후	증감율(%)
1 case	53/70	50/70	- 4.29%
2 case	58/70	59/70	+ 1.43%
3 case	49/70	64/70	+ 21.42%
4 case	54/70	50/70	- 5.72%
평 균			+ 12.84%

: 직업영역의 경우, 단순 사전·사후 점수만 분석된 외의 자료와는 달리, 외부훈련의 결과가 취업 혹은, 미취업의 여부에 따라 사전·사후척도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외부훈련 이후 취업으로 연계된 2, 3, 4 case 중, 2, 3 case의 경우에는 비교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장애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도 외부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어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개별인터뷰 및 평가회에서도 각 대상자들의 자기보고를 통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예외적으로 4 case의 경우, 취업이 연계되었음에도 본 척도검사 직업영역에서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별인터뷰 및 평가회과정에서는 취업연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 나타내며 외부훈련 과정을 통해 책임감, 적극성, 동기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c't의 보고가 있었음. 이에, 단순 사전·사후 척도점수만으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질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타 연구 진행시에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됨.

⑤ 장기목표

「참여회원이 정신질환의 증상적인 어려움과 습관화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외부훈련-취업연계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규칙적인 생활과 책임감 및 증상관리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 및 사회적 지위향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생산적인 사회의 기여자), 가정 내에서 생산적인 가족 구성원(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 → 가족 경제활동 기여자)으로서의 역할전환도 회원의 회복과정에 있어 큰 변화로 생각됨. 또한, 회원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 측면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다, 집에서도 나를 너무 기특하게 생각한다,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졌다, 더 노력해서 독립도 시도해보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도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됨.

2) 과정평가

① 긍정적인 면

- i) 정신장애의 경우 편견으로 인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고용주가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외부훈련을 통해 해당 업체 고용주 및 동료들에게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정신장애인의 취업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음.
- ii) 본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중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노력을 통한 탈수급보다는 안정적인 자격유지를 위해 취업이나 외부훈련에 대한 욕구가 매우 낮고, 실제 취업시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1case의 경우에는 취업까지 연계되진 못했으나, 외부훈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와 장기적인 목표로 탈수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까지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고, 3case의 경우에는 탈수급이 이루어짐. 이는 수혜자적 삶을 유지하던 한 개인이 사회의 기여자로서 위치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iii) 본 시설 이용회원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내 정신보건유관기관을 이용하면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회원들에게 본 시설 프로그램(직업재활네트워크)을 통해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해당 기관 실무자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iv) 직업재활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 이용회원들의 본 시설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 및 이를 통한 취업연계의 과정은 본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도 취업이나 재활의 적극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함.
- v) 실무자 2인체제의 진행으로 외부훈련 시 직무지도에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 또한, 사례연구 진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서로에게도 역량 강화되는 계기가 됨.

② 보완 사항

- i) 본 시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외부훈련이 2주~3주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짧은 외부훈련 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파워먼트 영역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ii) 사전척도 검사 시에는 본 시설 내 안정적이고 통제된 상황에서 자가 체크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척도 검사 시에는 외부훈련 후 취업 된 상태로 근무 시간에 짬을 내어 체크가 이루어졌고, 이는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압박과 많은 문항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사전척도에 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음.
- iii)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했던 항목의 효과성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가 있어야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각 대상마다 외부훈련 기간이 다르고, 외부훈련 후 적응을 하는 것에도 회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하였음. 이에 추후에 비슷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전척도 검사 후 일정기간(약 2~3개월 정도)을 두고 동일하게 사후척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iv) 본 시설은 30인 이용시설로, 내소 인원의 약 74%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외부훈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 내 정신보건유관기관을 통한 참여회원 모집도 지원 대상이 적어 케이스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6. 결론 및 향후 계획

1) 결론

: 총 4명의 대상자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본 시설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 4명의 대상자 중 3명은 취업으로 연계되었고, 3명 모두 현재까지 취업을 유지하고 있음. 척도검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으나, 위의 장기목표에서 서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참여 회원이 외부훈련을 통해 취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경험하고, 일상과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전반, 회복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이후로도 취업유지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의 지속과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2) 향후 계획

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외부훈련을 통해 취업연계 된 3명의 대상자에게 주1회 정기적인 취업장방문과 수시 전화상담, 업체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월1회 취업회원 자조모임을 통해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② 가족지원

: 취업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가족모임을 통해 회원의 회복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유지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회원의 취업유지를 지원.

③ 대기자 대상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본 시설은 30인 정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2015년에는 체험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기자 중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내부훈련-외부훈련-취업연계)을 제공하여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참고문헌

- 김효정(2004),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전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원 석사논문
- 문인숙&양옥경(1991),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 박병선(2012), 정신사회재활 서비스 사정 및 성과평가 척도개발 연구: 정신사회재활모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금진(200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홍성진(2005),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사례연구 14-03

정신장애인 인지재구조화가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이론과 임파워먼트 모델을 중심으로



팀 명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연구자	황수빈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4.1. ~ 2014.11.19./ 3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남동사회복지시설 황수빈

◎ 주 제 : 정신장애인 인지재구조화가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 인지행동이론과 임파워먼트 모델을 중심으로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름	성○○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79.12.01				
장애명	조현병	급수	3급	중복장애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구 도화1동 ○○빌라 ○동-○○○호				
전화번호	032) 865-○○○○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① 과거력

c't의 어머니에 의하면 c't를 임신했을 때 유난히 입덧이 심했다고 함. c't의 아버지가 휴지코(?)회사를 다녔으나 부도가 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음. 이후 개인사업, 막일 등을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c't의 어머니도 파출부 등 일을 하면서 지냈음.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심. c't의 어머니에 의하면 c't가 유독히 c't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음. c't의 어머니가 없는 사이 c't를 내동댕이치기도 했었고 때리기도 했었다고 함.

c't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묻자 “친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 당하고 환청이 들리면서 샤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결근을 많이 했고 공부도 재미가 없었고 엄마한테 반항도 했어요. 결근하면서 학교를 못 가서 선생님이 시험만이라도 보라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함. 당시 c't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으며 c't가 일했던 공장에 와서 기다리고 집에도 찾아오는 등 적극적이었고, c't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음. 당시에는 c't가 그 남학생을 싫어했었다고 함.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c't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함. 2009년에 그 남자가 c't와 결혼해서 돌보며 살고 싶어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c't의 어머니가 전세

를 얻어주겠다고 했으나 그 남자가 거절함.

그 일이 있는 후, 그 남자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선원 생활을 지원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함. 현재 c't는 이에 대해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눈물을 글썽임.

c't가 고등학교 2-3학년때 일반 사업체에서 생산직 실습을 나갔고,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불량과 작업속도 저하로 주변에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야단을 많이 쳤고 c't도 이에 대해 힘들었으나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함. 이후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에서 뭔가 보이는 것”을 호소하면서 길병원에 한 달정도 입원하였음. 이 당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속적인 환청과 환시 등의 증상 호소로 장애등록을 했음. (정신 3급)

퇴원 후 길병원 소개로 “한인한”작업시설 이용함. 4-5년정도 이용했으며 월 8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c't의 어머니가 관리했음.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c't는 “그래도 거기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라고 말함. 이 당시 c't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하반신마비와 병간호로 c't를 돌보지 못 했고 c't가 혼자서 생활해야 되었고, 불규칙한 생활로 체중이 많이 감량되었다고 함. 당시 한인한에서 c't가 2회 정도 간질 발작을 했었다고 알려줬으나 어머니가 관찰 한 적은 없다고 함. 체중감량과 합병증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인한을 그만뒀다고 함. 수술 경과는 좋았고 2009년부터는 갑상선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03년 c't의 아버지의 건강악화와 c't와 c't의 여동생의 장애로, 수급권자 등록을 하였음. 이후 c't는 집에서 지냈으며, 2007년 c't가 환청과 환시등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해 길병원에 입원을 원했으나 수급자였기에 제한이 있었고, 이에 은혜병원에 입원함. c't의 어머니에 의하면 c't가 그 전에는 의사표현이 자유로웠는데 은혜병원에서 퇴원 후 자신의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으며, 길눈도 밝았는데 어두워졌다“라고 말함. 입원기간 중 c't의 면담시 c't의 이상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c't에게 조심스럽게 병원생활에 대해 물어보기도 한다고 함. c't는 병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무서웠어요“라고 말함.

남구 보건소에서 c't의 여동생 때문에 가정 방문 관리가 있었고, 그때 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남구정신보건센터를 알게 되어 2008년 9월부터 이용하게 되었다고 함. 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묻자 “거기서는 재미있었어요. 오빠와 언니들이 잘 해줬고, 마음도 편하고 같이 장난치고 어울렸어요”라고 말함. c't가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학교 친구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없다고 함. 이성친구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없어요. 남구 센터요? 친구들은 많은데 그 친구 만한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희를 거들떠 보시겠어요?”라고 말함.

본 시설은 2010년부터 이용하였으며, 주간재활반을 이용하고 있음. 본 담당자와의 사례관리는 2011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음. 2011년과 2012년에는 지속적인

자살사고로 인한 행동(옥상펜스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이루어진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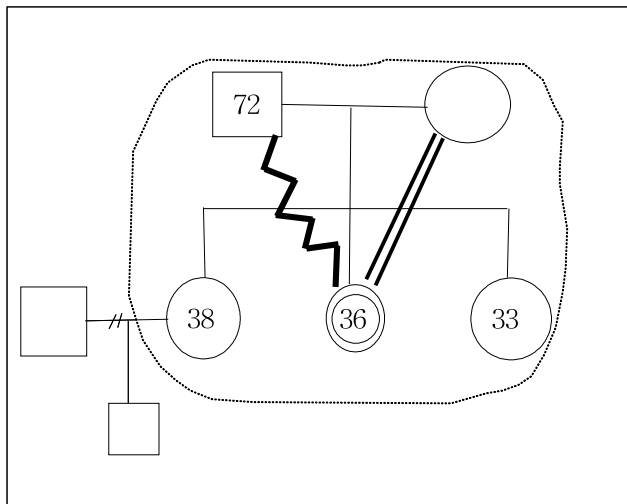
또한 c't는 이성 및 이성교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과거 교제했던 남자친구의 자살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통한 행동 제어 이루어지지 않는(프로그램 시간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행동을 함) 모습임.

최근 2011년 외부기관에서 직업재활훈련 회원을 교제-이별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c't 스스로 감정조절 잘 되지 않는 모습 관찰됨. c't 스스로도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다 하기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자와의 사례개입 이루어졌음. 이후 2013년엔 자살사고 및 행동제어 부분 상당수 감소된 것 관찰할 수 있었으며, 2013년 c't 시간 활용 및 이별 대처 방안으로 스스로 시설 내 직업재활반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 통한 외부 훈련에도 참여하기도 함. 이후에도 취업에 대한 욕구 지속적이나 c't의 스스로의 자존감 낮은 편으로 적극적이진 않음.

2014년에는 주간재활반을 이용하였으며, 2014년 시설 이용 목표로 부정적 사고 감소로 담당자와 합의함. 그러나 아직 자살 사고가 이어지며, 시설 내 한명의 회원과 지속적인 갈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이어지는 모습임.

② 가족력

i) 가계도



ii) 가족력

· 父: c't의 父(부)가 다니던 회사 후지스(?)부도 후 개인 사업등을 하면서 지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현재의 공공근로와 같은 일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일하기도 했었음.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되었고 허리가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기간도 길어졌었음. 현재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규칙적이게 일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임. c't와는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이며, c't를 밀치는 등 자주 때렸다고 함. c't

의 증상과 생활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이라고 함. c't의 표현에 의하면 다혈질에 욕하는 성질이 있다고 함.

· 모: c't의 주 양육자임. c't의 여동생과 c't의 치료와 함께 가게내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지고 있음.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원활한 모습이나 다소 c't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음.

· c't의 큰언니 : 7-8년전에 결혼했고 최근 이혼하여, 식당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c't의 여동생 : 고등학교 졸업 후 제빵훈련학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2-3군데를 하는 등 생활력 강하게 지냈음. c't의 어머니에 의하면 몸살기운이 있어 집 주변의 병의원에 입원을 했었다고 함. 입원 한 날 c't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걸음을 못 걷겠다. 서지를 못하겠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했고 길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하반신 마비됨. 5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효과 없었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손상되었음. 이 기간 동안 c't의 어머니가 상주하면서 병간호를 했고,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c't에게 소홀했었다고 함. 현재는 “다발성 경화증”이라 진단받았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중이며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음. 그러나 최근 증상이 악화되는 부분 관찰되기도 함. c't의 어머니에 의하면 c't보다는 똑똑하고 강한 성격이라고 함.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0년 3월 2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반 (현재)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은혜병원 Dr.오세만

- 본 사례관리자 변경 : 2011년 2월 21일 (본 실무자 입사 후 지속)

- 2013년 8월~12월 직업재활반 참여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외부훈련) 참여

3. 사례선정 사유

1) c't 사고의 재구조화 필요

① 스트레스 상황시의 부정적 사고

c't는 본 실무자와 사례관리지원 이후 (2011년~) 스트레스 상황시 부정적 사고가 이어지며, 이를 통한 부적절한 행동 (자살사고, 프로그램 중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으로 예민한 모습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성에 대한 부분 민감하며, 이성교제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며, 다른 회원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근 c't는 2013년 말~2014년 까지 이성 교제 이후, 이별을 겪으며 이에 대한 대

처 방법이 c't의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음. 2014년 1월의 경우 이를 통한 자살사고가 6회 이상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c't의 사회적지지 척도(자가체크)의 경우 67점으로 본 시설 내소 전체 회원 18명 대상 중 두 번째로 낮은 부분 확인할 수 있었음. 개별상담시 c't 스스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평가하며, 증상 및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알 수 있었음. 부정적 사고 및 영향에 대해 c't 스스로에 인지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사례관리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② c't의 객관적 인식 필요

c't 대상으로 정서조절 질문지 (ERQ)를 실시한 결과 c't는 사례관리자가 바라보는 c't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c't 답변 예시 (사례관리자와의 관점 차이)

점수 산정 ⇒ 강한부정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보통 (4점)-----강한 긍정 (매우 동의한다)		
질문	c't 점수	사례관리자 점수
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적게 느끼고 싶을 때 (슬픔이나 노여움 같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꿉니다	4점	2점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나를 평온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7점	2점

총 10가지 문항 중, c't와 사례관리자가 생각하는 c't의 정서조절에는 차이가 있었다. c't와의 개별상담시 c't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c't 스스로도 긍정적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하기에 이를 사례관리자와 c't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함.

2)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

c't는 담당자와의 2011년부터 개별사례지원이 이루어지며 문제 발생시 c't母子 사회복지사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다소 의존적인 모습이었으나 지속적인 담당자의 상담으로 c't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c't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사고 및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t 스스로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인지 및 변화에 대한 욕구 있음으로 변화 가능성 있다고 사료된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1) 정신장애인의 특성

① 정신장애인의 사고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Maher(1974,1988)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비합리적 사고는 편향된 추론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inderman & Kaney,1944). Tissot와 Bernard(1980)의 실험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추론방법은 정상인 보다 논리적, 실험적 추론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신질환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데 아주 적은 정보에 기초하며 정보를 구하더라도 자신의 사고에 확증하는 증거에 탐색을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정신분열증은 특히 Beck이 제시한 비적응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잘못된 정보처리 과정 중 개인적 귀인과 선택적 추출, 독단적 추론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Alford & Correia,1994;임기영,1996). 개인적 귀인이란 그런 결론을 내릴 기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사건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고, 선택적 추론이란 상황의보다 두드러진 측면을 무시하고 어떤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이 단편적인 부분에 근거해 전체 경험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독단적 추론이란 결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이 외에 과대 일반화, 과장화와 과소화, 절대적/이분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과대 일반화란 어떤 소수의 사건에 기초해서 내린 결론이나 규칙을 관련된 혹은 비관련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대화와 과소화란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과대 혹은 과소 평가함으로써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절대적/이분적 사고란 모든 경험을 상반되는 두 개의 카테고리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질환자들의 인지작용은 내적인 자원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의 비합리적 사고를 하는 데, 이는 자신의 사고를 뒷받침해주는 현실적인 증거를 고려해 보는 추론 과정이 생략된 역기능적 정보처리 과정으로 인해 유지된다. 이러한 사고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가정을 강화시켜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Hatfield, 1989: Wasylenki, 1992: Alford &Correia,1994;김소정,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재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대처할 만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스트레스 해소 전략

Lazarus와 Folkman(1980)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행동을 문제 지향적 대처와 정서 지향적 대처로 구분하며 문제 지향적 대처는 개인의 문제행동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을 회피하거나 억

압, 부정, 합리화, 반동 형성, 백일몽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사건의 의미를 왜곡해 버리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경험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기, 크게 웃어 버리기, 어떤일에 열중하기 등을 통해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처 능력이다(박민아,2002).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환경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의 문제중심적 대처,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스트레스와 관련 혹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정서 완화적 대처,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만으로 대처하는 소망적 사고 대처, 총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 해결과 같은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감정의 조절을 하는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를 묶어 소극적 지지로 보았다. 적극적 대처 행동은 좌절이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말하며, 소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희,1987). Billings.(1981),Mitchell.의 연구에서 문제해결적 대처는 심리적 안정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고 정서중심적 대처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정비호,2000). 김정희, 이장호(1985) 연구에서 우울감이 적극적인 대처방식과는 상관이 없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은 우울감 및 부정적 감정과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정윤선(1993)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 불행감의 관계를 보아 행복감과 불행감 모두 적극적 대처만이 유의미하였고, 소극적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대처를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행복감과 감정완화 대처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최영민 등(1996)은 우울과 불안수준과 대처방식간의 차이 연구에서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택하는 직장인이 우울과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은실,2005).

2) 인지행동이론과 임파워먼트모델의 절충 개입

① 인지행동이론

- 인지행동이론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구별하고 평가형, 자신의 생각에 좀 더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먼저 인지모델을 근거로 하는데, 인지모델에서는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의 반응은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고 가정한다. 즉, 그 사람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인지→감정→행동)
- 문제행동에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해석 (주로, 부정적 해석)이 존재한

다. 부정적인 상황해석은 왜곡되고, 비합리적이며, 역기능적인 사고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역기능적인 사고로부터 초래된 기분이나 행동은 또 다른 역기능적인 사고를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역기능적인 사고나 신념을 수정, 변화시키면 기분과 행동의 변화가 감소된다.

· 또한 개인의 행동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인지구조를 수정하고 기능과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양서원)

② 임파워먼트행동 이론

그동안 질병모델에 기반하여 접근해 온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은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며 사회적 낙인감이 높고, 사회적 역할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었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문제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패러다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병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데 일차적 초점을 둔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동반자적 관계형성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자원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양옥정 · 최명민, 2006).

- 주요 개념

· 임파워먼트 실천을 위한 기본전제로는 강점사정과 활용,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개발화, 상호협력적인 원조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박미은, 2001)

· 클라이언트의 병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는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능력, 자재력, 가치, 희망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Saleebey, 2005)

· 역량강화 접근으로 클라이언트가 지닌 능력을 강화하는 접근을 활용한다.

· 상호협력적 관계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호협력하며 함께 작업하는 관계로 구축한다.

③ 절충을 통한 두 이론의 보완

인지행동 이론에서의 역기능적 사고에의 행동수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이루어 내며, 이를 수정하는 방법이 c't 스스로 강점을 찾아내고 역량강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부정적 사고에의 긍정적 사고 전환과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해 c't 스스로 사고 및 방법 고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례 개입 계획

1) **현상태 파악** : 개별상담 및 정서조절설문지, 스트레스 척도 설문지, 사회적지지척도

2) 사례 개입 목표 및 평가 계획

- i. 장기 목표 :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c't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ii. 단기목표 및 평가방법

단기목표	세부목표	평가 방법
1. c't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 확인한다.	주기적인 상담(월2회 이상)을 통한 c't 스스로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 확인한다.	개별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2.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c't 스스로 전환할 수 있다.	·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 c't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정서조절에 척도에서의 사례관리자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점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 계획표 작성 정서조절 설문지 확인

3) 진행 과정 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정서조절 질문지 작성										
개 별 상 담	재발경고장후지- 자기점검표 작성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개별상담									
	핵심 믿음에 대한 수정									
	과제부여 -감정일기 작성									
	스트레스 대처방법 대처 행동전략 목록 작성									
	행동연습-역할극									
중간평가										
최종평가										

※ c't 스스로 사고하고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구체적 개입 방법**

-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날짜/ 시간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반응		반박사고 결과	향후재활 계획	비고
				맞는 증거	반대 증거			

- 자기지시 기법

개념화 단계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관계의 발달을 중요시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레스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배경을 파악한다 · 사정을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활용하여 문제와 스트레스 사건의 예를 들어 주도록 요청한다. ·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선행사건과 그 결과를 통하여 인지행동적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점검표나 스트레스 도표, 실제상황에서의 행동적 사정과 각종 설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술습득과 연습단계	· 다양한 대처기술을 배우고 이 기술을 훈련 상황뿐 아니라 실제상황에서 실천을 한다. ·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은 대처기술이 있는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내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고, 적절한 대처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 기술습득과 연습은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대처기술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전략 목록을 작성한다. · 이 단계에서는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와 감정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거나 문제해결훈련이나 자기지시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
적용과 유지 단계	· 이 단계는 학습된 대처전략을 활용하는 단계이다. ·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만남, 추후활동과 문제의 재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가상적인 연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고와 감정을 상상하고 대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 또한 행동연습, 역할극, 모델링을 통하여 대처기술을 실천해보고, 특정상황을 위한 대처 기술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 · 실제상황에서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점검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양서원)

※ 사례개입-진행과정 일련의 개입시 역기능적 사고에 대해 확인하고 자가지시 기법의 과정들을 활용해 개입 이루어질 예정임.

3. 사례 진행 사항

1) 자기점검표-재발경고징후지 (부정적 감정에 대한 체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재발경고 징후지 체크 (부정적 사고)									

2) 부정적 사고 및 행동에 대한 관찰 및 개별상담

※역기능적사고 기록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에도 지속적인 관찰

날짜	형태	내용
4/1	개별 상담	C't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c't 자신도 알고 있다 하심. 담당자는 특히 c't가 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감정조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c't 스스로 노력해야하는 부분을 전달 c't는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유가 자신이 정신과적 증상과 예쁘지도 않은 외모 때문이라 하심. 담당자는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며, c't와 담당자와 1년 동안 스스로 긍정적 사고 및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할 수 있음을 전달함. c't 동의하심.
	관찰	점심시간 소리를 지르고 프로그램실로 들어가는 모습 관찰됨. 담당자들 사무실에서 쉬고 있다 작업실로 나가니 변양미 회원이 '왜 그냥 쳐다본 것 가지고 그래'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보임. 정진옥 선생님이 가서 c't에게 이야기를 걸었으나 c't 감정조절 되지 않아 추후에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함.
4/7	개별 상담	전체회원 불링 활동으로 외부 나갔으며, c't가 담당자에게 다가와 아깐 미안했다며 사과하심. 아까 그리 행동한 이유를 묻자 점심시간에 다른 회원들과 삼삼오오 모여 자장면 먹으러 가는 것을 변○○ 회원이 봤고, 이에 대해 자신은 왜 데려가지 않느냐란 말씀을 하셨다 하심. 점심을 먹고 난 후, 변양미 회원이 혼잣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떨리는 것이 있나보지?'라고 말씀하셨다 하심-자활근로자 보고) <u>자신을 찌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u> 하심. c't가 먹을 것에 대해 민감하며, '사람과 빵이 물에 빠지면 변○○ 언니는 빵을 구할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심. 담당자는 c't가 기분이 상했던 부분에 대해 변○○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드림. 불링을 가지 않았으니 이후에 마음 정리 한 후에 전달하기로 합의함.

4/8	개별 상담	7일 있었던 일과 관련해 상담 진행함. C't가 변○○ 회원에게 기분 상했던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함. C't가 7일에 회원들과 자장면 먹으러 가는 모습 변○○ 회원이 보았고, 이에 대해 자신도 데려가 달라 라는 뜻의 말을 했다 함 (c't의 느낀 변○○ 회원의 말) c't는 자장면 값을 각자 내서 먹고, 같이 가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따로 변○○ 회원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함. 이후에 변○○ 회원이 자신을 짜려보는 것을 느껴 그 부분에 대해 기분이 상했다고 함.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선 c't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4/10	관찰	<u>클럽활동시간(14:00~15:00)에 소리 지르고 싶다하셔서</u> 상담실에서 잠깐 쉴 것 권유드림. 프로그램시간 끝나고 마침모임전에 <u>담당자에게 가위를 요청하셨고</u>, 담당자가 이유를 묻자 '무엇인가 자를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심. 담당자가 여러 차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물어봐도 답을 따로 안하시고 가위를 뺏어가듯 나가시는 모습임. 이후 담당자가 c't를 따라나섰고 <u>c't가 욕상으로 올라가더니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u> 보임. 담당자 저지하고 이유를 묻자 c't 부적절하게 웃으며 (기뻐서 웃는 모습이 아니었음) '행복하려고요. 행복해지려고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 보임. 이후 기쁘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관찰됨. 담당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c't 퇴근 요청하심. c't母에게 이와 같은 상황 전달. <u>*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부적절함 관찰</u>
4/18	전화 상담	실무자 금일 오전 외근 일정으로 사무실에 없었으며 오후 2시 복귀. 사무실로 2시반경 전화주셔서 집에 있으며, 실무자 부재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것 전달하지 못했다 하심. 감정 다운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을 잘하지 못하기에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함.
4/21	개별 상담	오전에 출근하자마 바로 잘못했다 이야기하셔서, 아침모임 이후에 상담하시는 것 이야기드림. 이후 상담 진행했으며, 김○○ 회원과의 마찰로 인해 누구한테도 위로 받고 싶지 않았으며, 집으로 바로 귀가했다 함. 실무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점심시간이어서 문이 잠겨 있었다 함. 이에 대해 c't母도 c't에게 크게 꾸중을 했다 함. 김○○ 회원과의 갈등관계에 해결방법에 대해 당분간 무시하며 지내겠다 이야기하셔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답은 없으며, c't 스스로 이러한 결정에 대해 행동하시도록 함. 다만 무단 귀가의 경우 똑같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같은 행동을 할것이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심. 담당자 부재중이었더라도 다른 회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전화하는 등의 모습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이야기드리며, <u>돌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이 있음을 전달함.</u>
5/12	관찰 + 개별 상담	오후 볼링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고 프로그램실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계셨으며, 담당자가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음. 이후 바로 <u>세면대에 물을 받고선 얼굴을 물에 넣는 모습 관찰됨.</u> 담당자 바로 물에서 얼굴 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건 등을 챙겨드림. 이유를 묻자 한참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셔서 뜨거운 물이었고, 옷을 입고 물에 얼굴을 넣는 것은 더워서 하는 행동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말씀드림. c't 스스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상담 요청하시도록 전달함. 이후에 c't 스스로 상담 요청하였으며, <u>변○○ 회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표현함.</u> 전○○ 회원과 함께 있었는데, 변○○ 회원이 '끼리끼리 논다', '날 헐뜯고 다닌다'라는 말을 해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심. ①끼리끼리 논다의 표현 표현이 비꼬듯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해행동을 할만큼의 스트레스 상황은 아닐 것이라 사료됨. 또한 함께 들은 전○○ 회원도 이에 대해 c't 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점 전달하니 자신도 이부분에 대해 예민했던 점 인정함. ②변○○회원 c't가 헐뜯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신은 그런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u>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표현하심.</u> 담당자는 화가 나는 상황이 '변○○ 회원이 날 헐뜯고 다닌다'라는 오해와 함께 c't의 의견인 '나쁜 사람으로 볼것 같다'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더욱더 큰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전달함. c't는 이에 대해 어느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모습 관찰됨. (감정적으로 정리되고, 담당자의 의견에 대해 수용되는 모습임) 이후 담당자와 함께 앞서 두가지 표현을 변○○ 회원이 했을 때, c't가 어떻게 자신이 기분이 상한 부분에 대해 전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방법 고민해보시도록 함. c't는 '남한테 내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때도 환청, 환시가 보여서 힘들거든요, 언니가 끼리끼리 놀게 행동 안하면 우리도 안할것 같아요'라고 답변하는 모습 보임. c't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긍정적인 모습 및 i-message에 대한

		부분 다시 설명드리고, 추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 또한 자해 행동의 경우 c't 스스로를 해하게 하는 행동임을 전달하며, 자제함을 전달함. 볼링 프로그램 이후, 변○○ 회원에게 '째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세게 치는 등의 모습 반복적인 행동 나타남. (이전의 자해행동보다 더 큰 액션으로 옆팀 직원 및 보람터 이용인이 나와서 확인하는 모습임) 담당자가 말려도 제어되지 않아 프로그램실로 이끌고 들어갔으며, 방금전 상담했던 상황들에 대해 확인함. C't는 알지만, 잘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미안하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임. 잘되지 않겠지만, 노력해야하는 부분 전달함. 이후에 귀가하심. <u>*c't 사고와 부적절한 행동의 연결이 관찰됨.</u>
5/12	가족 전화 상담	c't 母에게 이러한 상황 전달. C't 母는 c't가 지속적인 예민한 상황으로 인해 c't 母도 많이 지쳤으며, 이에 c't 보고 '죽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함. 이에 대해 담당자는 지지해드리며, 그렇지만 c't보고 죽으라고 하는 부분은 c't의 사고에 있어서의 위험함을 전달함. 최근 c't의 인지행동적인 접근에 대한 상담 이루어짐을 전달하며, 장기간의 개입을 통해 c't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 전달함. C't가 2시경 조퇴함을 요청하였으나 c't가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들에 대해 습관이 되는 부분 있기에 정규프로그램 마친 후 3시경 조퇴함을 안내드림.

3) 일시종결-과제 부여

※ c't 증상 불안정으로 인한 주치의 소견-시설 이용 일시 중단 신청

① 기간 : 4/25~5/6

② 과제 부여 : 재발경고징후지 체크, c't 계획작성 및 실천-일기 작성

③ 점검 및 체크 : 4/30(전화상담-중간점검), 5/9(개별상담)

날짜	형태	내용
4/30	전화 상담	*과제부여에 대한 체크 다소 힘이 없는 목소리이기에 이에 대해 물어보자 '누워있었다'라고 답변하심. 집에서는 c't 母의 일(설거지, 반찬 만들기 등)을 돕고 있다고 함. 과제(일기)는 작성 중이며, 어제는 따로 한일이 없고 휴식해서 적지 않았다고 함. 담당자는 이에 대해 <u>휴식 했을때에도 감정에 대해 적어주는 것 필요할 것 같다</u> 전달함.

		담당자 휴가 (2일)임을 알리며, 연휴 잘 쉬시고 7일에 출근하시도록 이야기 드립니다.
5/9	개별 상담	쉬는동안 감정에 대한 일기 작성 100%완료함. 이에 대한 지지. *일기 내용 (예시) ①긍정적인 부분 -4월 29일 휴식 : 편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4월 30일 방청소 : 아쉬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5월 3일 친구만나서 대화 : 편했다, 가끔씩 만나 대화하고 싶다 ②부정적인 부분 -5월 4일 밥했음 : 밥이 데어서 아쉬움, 앞으로 노력해야겠다 -5월 5일 동생하고 조금 대화 했음 : 스스로 불편한 감정, 앞으로 했던 말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재발경고징후지 환청, 집중력 저하, 예민함은 4월 28일, 29일 제외한 나머지 없었으며 불안, 자살사고는 5월 8일 현재까지 없었다 기록함. <u>일기 작성 이유 전달 : c't 스스로에 대한 감정 파악, 재발경고징후지 : 증상 확인에 대한 부분임을 전달</u> 앞으로의 사례개입 (부정적 사고에 대한 인지 및 재구조화) 방법에 대한 부분 전달.

4) 역기능적 사고 상담-인지 재구조화

날짜	형태	내용	담당자 의견
5/9	개별 상담	① 상황 : c't의 지인에게서 과거 교제했던 이성(이○○ 회원)이 c't와 헤어진 이유가 '감기때문에 c't母가 헤어지라고 했다'라고 들었다 함. ② 감정 : 화가남, 모욕감을 느낌 ③ 반응 -맞는증거 : c't母가 이○○ 회원에게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증거 : 상식적으로 감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화가 날 필요가 없음. ④ 향후재활계획 : 반대증거에 대한 인정, 따로 연락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겠음.	c't는 반대증거에 대한 부분 찾기 어려워해 이에 대해 사례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질문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함. 앞서 이성과의 관계상황에서는 상담 이후에 화가나거나 모욕감이 따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다는 부분 이야기하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상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개별 상담	조○○ 회원(과거 이용회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함. ①그 부분에 대한 감정 : 그저 그렇다 ②연락해야하는 이유 : 조○○ 회원이 외롭고, 친구가 없기 때문 ③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c't 母가 반대하기 때문. -연락해야하는 이유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고려했을때 하지 않아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에 이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 하는 것 필요함을 전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기능적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c't 스스로 사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됨.	며, 부정적인 감정 (분노, 우울, 예민, 짜증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반대증거를 찾아가는 작업으로 c't의 부정적 사고에 대한 인지 개입 됨을 전달함. 1-2주의 1회씩은 상담이 진행되며, 이에 맞춰 과제가 있음을 전달함.
6/16	개별 상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관련 상담 ① 상황 : 이성과의 헤어짐 (과거 c't 이성교제했던 사람의 자살) ② 감정 : 슬프다 ③ 자동적 사고 : 죽고싶다 ④ 반응 -맞는증거 : 보고싶은데 볼수 없어서 -반대증거 :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이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 ⑤ 반박사고 결과 : 반대증거 채택 ⑥ 향후재활 계획 : 동일상황 발생시(이별)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을 전달. <u>사고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c't 스스로 인식하게끔 함.</u>
6/27	개별 상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관련 상담 ① 상황 : 옆 직업재활팀(남동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이○○씨가 자신을 우울증이라 했음 ② 감정 : 기분이 상함 ③ 자동적 사고 :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소문이 나서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 같음. ④ 반응 -맞는증거 : 소문으로 인한 취업상황에서 어려움 예상 -반대증거 : 소문이 나지 않을 가능성 ↑, 소문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 실제로 c't에게 이야기하지 않음	c't의 부정적 사고의 연결 (소문의 확대→c't 취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취업상황에 대한 부정적 상황까지 고려)이 있음을 전달. <u>사고와 감정에 대한 부분 연결있음을 전달하며 긍정적 사고에 대한 당부</u>

		⑤ 반박사고 결과 : 결과 내리지 않음 ⑥ 향후재활 계획 : 기존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c't의 추측을 단정지어 생각하지 않기(부정적 사고의 연결)	
8/27	개별 상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관련 상담 ① 상황: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② 자동적 사고:'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③ 반응 -맞는증거: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반대증거:c't 주변 지지체계 확인 (부정적인 관계:변양미 긍정적인 관계: 김새현, 동생, 엄마, 그루터기 선생님들, 동생 보조 선생님, 권경숙, 박소현 등) ④ 반박사고 결과:반대증거 채택 (부정적인 관계의 사람보단 c't에게 긍정적인 관계인 사람이 더 많음) ⑤향후재활 계획 : 관계에서의 긍정적 사고	c't는 이에 대해 자신의 주변에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평가→사고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지지

5) 스트레스 해소 전략 구상+실천

날짜	형태	내용	담당자 의견
8/18	개별 상담	1) 역기능적 사고에 대한 상담 -최근 부정적 사고들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야기함. -이에 담당자 최근 c't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지지함 2) c't의 스트레스 관리 및 관심사에 대한 부분 확인 -c't 스스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불분명해 이에 대해 마인드맵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재미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에 대해 작성 -"c't는 없음, 없음, 시퀀시를 배우고 싶다, 친구들과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 낮잠자는 것, 가끔씩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작성함.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접근이나 <u>스트레스 상황 발생시의 대처 전략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u> . 이에 대한 <u>개입 및 지속적인 상담</u> 이루어져야 할 것임.

		-c't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취미활동'이라 답변해 현실적으로 c't가 할 수 있는 취미활동에 대해 찾아보기로 함. (스쿼시→요가) 3)이에 이번주까지 미션 ① 요가(주민자치센터) 알아보기 - 시간, 금액, 장소 등 ② 바느질 할 수 있는 곳 알아보기 - 국비지원 등 -또한 c't가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싶다면 이번 주까지는 신청서 접수를 해야하기에 이에 대한 고민도 이번 주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전달함.	
8/21	개별 상담	c't 미션 수행하지 않아 금일 쉬는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함. 수강비가 저렴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c't 스스로 정보 검색함. C't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요가(필라테스) 교실과 타 지역(용현 2동)노래교실을 작성하였으며, c't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라 말씀하심. C't가 먼저 자신이 오늘 집에가서 수강 정보에 대해 전화하여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심. 이에 담당자 수급이실때의 수강료 할인 등에 대해 여쭙보실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림. 담당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c't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c't는 "<u>나 스스로 바쁘게 살면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거 같아요</u>"라고 답변하는 모습 보임. '쓸데 없는 생각들의 억제'에 대한 부분은 아님을 전달하며, <u>c't 부정적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전달함.</u>	c't의 스스로 개입의 목적성에 대한 부분 인지하고 있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음. ('나 스스로 찾아본다')

6) 부정적 사고방식 + c't 스스로의 해결 방법 제시 (역할극 시연, 실제상황에서의 적용)

날짜	형태	내용	담당자 의견
10/7	개별 상담	부정적 사고-해결방법에 대한 상담 ① 상황:6일 c't가 박○○회원에게 파일 챙기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자활근로 선	c't에게 있었던 상황을 통해 역할극 시연 → 실제 c't 생활에 접근 가능

		생님이 '너도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나'라는 말투로 이야기함. ② 감정:기분이 좋지 않음. 화가남. ③ c't의 행동:그냥 속으로 삭힘. 이후 c't母에게 이야기했더니 c't母가 시설로 전화해서 확인하겠다고 함. *c't의 이와같은 상황에 돌아갔을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음. 이에 담당자 역할극을 통해 재연해봄. ① 자활근로자에게 표현했을 때 : c't의 생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게..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 부분인지를 차분히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함. ② 표현하지 못하고 집으로 왔을 때 : 이에 대해 생각할 것임. 나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함.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함) 다른 일들을 하며 잊으려고 노력함.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와 연습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10/13	개별 상담 / 가족 전화 상담	오전에 c't 출근하자마자 담당자에게 c't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심. C't는 c't母와 전화하여 상황 확인하기로 했으며 c't 알았다 하심. C't는 이후 자신의 일을 미리부터 이야기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될수 있기에 내일은 못나올것 같다, 아니면 내일 수술 상황 보고 출근하겠다) 상담실에서 우는 등의 불안도 높은 모습, 감정조절 잘 되지 않는 모습 관찰됨. 이에 담당자 개입하지 않고, <u>c't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함.</u> (담당자 개입 하지 않음) 이후에 c't 전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였음. - 걷기동아리, 볼링 참여도는 높지 않았으나 <u>끝까지 참석함.</u> (c't는 예전에 스트레스 상황일 때 프로그램을 아예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음) *14시경 c't 母로부터 전화가 왔었으며, c't의	<u>c't 우는등의 모습은 관찰되었지만, 기존 c't의 강한 감정 불안정시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행동, 프로그램 임의 중단 등)은 나타나지 않았음.</u> 또한 이후 c't가 스스로 이에 대해 조절하는 모습 관찰됨. c't가 귀가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상황 전달과 상담으로 <u>c't 스스로 감정 조절 이겨내는 부분 관찰할 수 있었음.</u> → <u>프로그램 마치고 귀가</u>

		여동생이 다리가 부러지고 붓는 현상이 있었으며, 사랑병원에 입원-수술 받을 예정이라고 함. c't 母가 c't 여동생의 병간호에 매달려야하기에 c't 일시종결 신청함. 이와 같은 상황이후 c't가 볼링 프로그램 끝나고 14시40분경 담당자에게 와서 다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귀가 요청함. 담당자는 c't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여 안정될 수 있게 하였으며, c't 母와 통화했던 상황에 대해 전달함. c't가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 불안도 높은 모습을 보이면, c't 母가 더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는 부분 전달함. c't 알았다 하시며 <u>정규 프로그램 마친 이후에 귀가함.</u>	
--	--	---	--

7) 이후 상황 - c't 상황 등으로 인한 개입 일시 중단 (10/28~11/19)

⇒ 가족전화상담 3회 / c't 개별 상담 4회

⇒ c't의 일시 종결 (약물 중단-가정내의 갈등상황) 으로 인해 사례관리자의 개입 어려움. 상기 보고서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c't는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하기에 인지재구조화 접근을 잠시 중단하고 약물관리-독립생활 준비에 대한 부분 먼저 점검 이루어짐 (10/28~11/19). → c't는 시설 이용이 지속될 예정이고,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있는 개념이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이후 지속할 예정이다.

4. 평가

1) 중간 평가 (8월)

① 긍정적인 부분

· c't의 부정적 사고 및 행동화의 연결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이를 기록지를 함께 작성함으로써 정리되는 부분 관찰됨.

· 인지재구조화에 대한 부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관찰→감정 일기 작성→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및 상담→스트레스 대처전략 작성→비합리적 사고에 대한 접근 및 수정→역할극을 통한 연습)

· c't의 자동적 사고에 대한 반박 증거를 함께 찾아봄으로써 c't의 사고의 전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② 보완해야 할 점 및 추후 계획

· 인지행동이론의 접근에 한계점(인지 기능 낮은 c't 대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음. c't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에 대해 어려운 부분 관찰됨. 특히 '자동적 사고',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담당자가 직접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부분 이루어짐.

· c't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와 믿음(ex-c't 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보다 기능적인 믿음에 대한 수정을 통해 c't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 필요할 것임.

· c't 스스로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2) 최종 평가

①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단기목표	세부목표	평가 방법	평가	달성률																
c't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 확인한다.	· 주기적인 상담(월 2회 이상)을 통한 c't 스스로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 확인한다.	· 개별 상담 횟수 및 상담 내용	· 9월 1개월 제외하고, 월2-4회의 개별 상담 진행 → 상담 내용 기록 <table border="1"> <tr> <td>4월</td> <td>5월</td> <td>6월</td> <td>7월</td> <td>8월</td> <td>9월</td> <td>10월</td> <td>11월</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	○	○	○	×	○	○	88% (9월 상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비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	○	○	○	×	○	○													
·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 4/3~10/13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사고를 확인하는 부분 이루어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c't 스스로 전환할 수 있다.	·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 c't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스트레스 대처 방법 계획표 작성	· c't의 스스로 스트레스 대처 방법 계획-요가(정보 검색 완료) · 이후 c't의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접근	90% (정보 검색은 완료하였으나 c't의 일시종결로 인한 실제 수행 지속 어려움)																
	· 정서조절에 척도에서의 사례관리자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점 차이를 줄일 수 있다.	· 정서조절 설문지 확인	· 사례관리자와 c't의 정서조절 점수차에서 최대 5점이 낮았는데 3점으로 낮아짐.	-																

② c't 평가 (11/19 진행)

-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정서조절척도에 대한 질문 해석이 어려웠음.
- 빨리 안정되어 취업과 요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음.
- 가장 생각에 남는 상담은 c't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때 임.

③ 담당자 평가

- 담당자 기존 업무와 c't의 일시종결로 인한 주기적인 상담의 어려움이 있었음.
- c't의 인지에 대한 부분으로의 어려움 (정서조절 척도지에 대한 문항의 해석 / 상담시 역기능적 사고기록지 작성의 어려움 /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조절 방법에 대한 접근 등)이 지속 되었음.
- 2011년부터 c't의 사례관리를 하며 막연하게 느끼던 c't의 부정적 사고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경험이 됨.
- c't 스스로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이 됨.
- 자살사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와 이어지는 자해행동은 감소된 부분 관찰할 수 있었음.
- 또한 c't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모습 (10/13 상담 일지 참고)을 관찰하며, 미비하게나마 c't의 스스로 조절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됨.

Ⅲ. 결과 및 제언

1. 결론

1) 본 사례관리(보고서)의 개요

2014년 4월~11월로 개별 사례에 대한 인지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던 사례연구임. 개입 전 c't는 지속적인 자살사고와 자해행동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음. 담당 사례관리자는 이에 대해 c't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으나 사실 명확하게 c't에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였음. 이에 따라 c't 스스로가 c't의 사고를 이해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들을 담당 사례관리자와 함께 찾아봄으로써 c't의 스스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부분이 주 목적이었음. 현재에도 c't는 지속적인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있으나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사료됨.

본 보고서에서는 보고서 제출일로 인해 개입이 11월로 마치지만, 사례관리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임.

2) 본 보고서의 효과성

- 사고와 행동과의 연결 부분 확인 : c't는 역기능적 사고 방법의 기록을 통해 c't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이를 통한 행동의 연결을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c't 스스로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됨. 또한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과 직접 기록을 통해 c't와 담당자가 합의하는 과정 등을 함께 볼 수 있었음.

- c't의 스스로의 대처 방법에 대한 습득 : 미비하게나마 c't 스스로가 감정 조절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해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스트레스 해소 전략에 대해 c't 스스로 사고하고,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 경험이라 사료됨.

3) 보완사항

- 인지가 낮은 회원을 대상으로 이해하게끔 진행(사고 기록지의 수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보고서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해 평가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보완 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임.

2. 제언 및 향후계획

1) c't의 개입 방법의 다각화 모색

- 현재 c't는 일시중결 이후,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이용 이루어질 예정임. 그러므로 현재 중단된 역기능적 사고 과정 확인, 역할극,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 등에서도 지속되는 부분 필요할 것임. 또한 개별 사례에 맞는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인 다각화에 대한 부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전체 회원 대상으로의 상담 방법 확대

- 인지행동이론의 정확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에서의 방법 (사고→반박증거 탐색→결정→재활 계획논의)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이에 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 중, 인지가 너무 낮지 않은 회원 대상으로 이와 같은 개입 방법으로 지속하고자 함.

※ 참고 문헌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엄명용 외, 학지사, 2009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양서원

정서조절방략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21-841, 이지영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정신질환자들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정다희, 2010

인지치료 이론과 실제, Judith S. Beck, Ph D, 1999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회복요인을 중심으로, 이수희, 2010

사회적 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연구자	고광원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06.16.~ 2014.10.31. / 46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고광원

◎ 주 제 : 사회적 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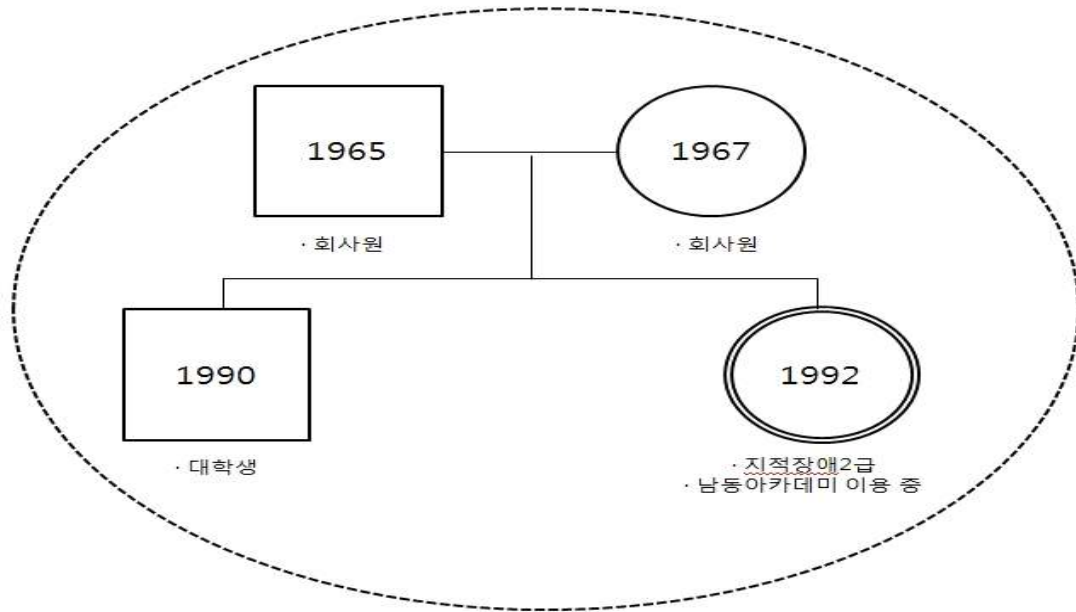
이 름	최O름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2.12.24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2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78-3, 나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4850-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클라이언트는 1992년에 태어났으며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사원이며 오빠는 대학교에 재학 중임.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회사 및 학교를 다니고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또한,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빠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 유아기 때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2002년 장애판정을 받았음.

중·고등학교는 학습도움실을 이용하였으며 2012~2014년 예림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정보를 알아보던 중 남동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1일현장체험과 면접 후 2014년 2월부터 이용을 시작하였음.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 함.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편임. 타인의 칭찬을 어색해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3) 주호소 내용

c't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룹원들과의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03-025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아카데미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클라이언트는 타 그룹원들과 교류하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담당자의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자신감 및 자존감이 낮아 프로그램 참여 시 도전적인 자세보다는 자신은 할 수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함.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 피드백이 많아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의 질문에 대부분 “네”, “아니오” 등 단답으로 대답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촉구 및 격려 없이는 수업 참여가 어려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II. 사례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 주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질병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 표현, 인정, 도움의 제공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대인적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 기타 사회의 지지가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담당자 및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클라이언트의 사회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클라이언트의 경우 타 그룹원에 비해 기능이 뛰어나지만 자존감이 낮아 수업참여도 및 과제수행도가 낮은 편임. 하지만 담당자 및 타 그룹원들의 지지가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제수행도가 높아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례 개입 계획

1) 현 상태 파악

- ① 자존감 척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존감 상태를 파악한다.
-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를 파악한다.

2) 진행 과정 계획

- ① 주 2회 이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 ② 주 1회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사회적지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기록한다.

3) 사후 평가 계획

- ① 월 1회 자존감 척도를 활용하여 자존감 변화정도를 수치화 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 ①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향상 시킨다.

2) 단기목표

- ① 주 1회 개별상담을 실시하며, 주 2회 이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 ②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수업참여도를 향상 시킨다.

4. 진행상황

c't는 본 프로그램을 이용한지 9개월이 되었음. 프로그램 초반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룹원들과 라포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중임. 또한,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해짐. 자존감 측정 시 스스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가 문항을 재설명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답에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사회적지지 및 개별상담

기간	구분	날짜	내용
6/16 ~ 6/20	자존감 측정	6/16	측정결과 40점 중 17점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였음.
	사회적지지	6/17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댄스 수업이 진행되었음. 동작을 따라하지 않고 바닥을 보고 있어 담당자가 함께 팔을 잡고 안무를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또한, 바닥만 보고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함께 조금씩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격려해주었음.
		6/18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새싹 자르기 활동의 방법을 빠르게 이해하고 수행하였지만 다른 그룹원에 비해 집중력이 짧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담당자와 짝을 이루어 지속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c't가 자른 새싹들을 다른 그룹원들에게 보여주며 새싹 자르기 방법의 습득 및 완성도를 칭찬해주었음.
	개별상담	6/20	최근 아카데미 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목소리가 작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목소리는 작지만 정OO씨와 친하다고 말하며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싶다고 하였음. 담당자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으며 말을 할 때 고개를 들고 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해주었음.
6/23 ~ 6/27	사회적지지	6/24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댄스 수업이 진행되었음. 동작을 잘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들고 강사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주었음. 칭찬을 받은 후에는 팔을 활용하여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6/23 ~ 6/27	사회적지지	6/26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바리스타양성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속도는 느리지만 에스프레소 추출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 다른 그룹원 앞에서 칭찬해주었으며 최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그룹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음.
	개별상담	6/27	최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야기해주며 앞으로도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또한, 댄스 실력과 바리스타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고 칭찬해주었음.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답은 없었지만 고개를 들고 웃는 모습을 보였음.
6/30 ~ 7/4	사회적지지	7/2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댄스 수업이 진행되었음. 지난주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팔동작이 활발해지고 발동작도 따라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강사에게 부탁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7/4	지역사회관계론 수업으로 여가기술론 수업이 진행되었음. 4명씩 조를 이뤄 조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c't와 친한 정OO씨를 같은 조에 배치하여 자발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였음. 처음에는 정OO씨하고만 교류를 하였으나 점차 다른 조원들과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음.
	개별상담	7/4	오늘 여가기술론 수업 시 진행된 조별활동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자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대답하였음. 수업 뿐 만아니라 점심시간, 쉬는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해주었으며 개별상담 시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 칭찬해주었음.
7/7 ~ 7/11	사회적지지	7/8	점심시간 시 다른 여자 그룹원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이에, c't를 포함하여 소그룹을 형성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인간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c't는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타 그룹원과의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7/7 ~ 7/11	사회적지지	7/9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자신과 친하지 않은 그룹원과 짝이 되었을 때도 담당자의 지도를 잘 따르며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칭찬해주었음. 또한, 짝의 옷을 챙겨주는 등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 앞으로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개별상담	7/10	여자 그룹원과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자 그룹원과의 교류는 미비하여 이유를 물어보자 쑥스럽다고 대답하였음. 이에,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그룹원 과도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7/14 ~ 7/18	사회적지지	7/16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남자 그룹원과의 교류를 위해 양OO씨와 짝을 이루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평소 양OO씨는 타 그룹원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어 c't의 짝으로 선정하였음)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였으나 점차 양OO씨와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타 그룹원과 대화하고 교류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칭찬해주었음.
		7/17	문화예술론 수업으로 가족공예 수업이 진행되었음. 만들기 활동 시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또한, 작품 완성 후 작품완성속도보다는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칭찬해주었음. 담당자의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뒷정리 시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음.
	개별상담	7/18	최근 아카데미 생활에 대해서 문자 낮은 목소리지만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였음. 또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수업태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어 칭찬해주었으며, 다른 그룹원 과도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다른 그룹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음.(母와 전화상담 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온 날은 항상 자랑을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칭찬을 부탁하셨음. 이에, 가정에서도 c't에게 사소한 것에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렸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7/14 ~ 7/18	자존감 측정	7/18	측정결과 40점 중 22점으로 1회기보다 5점이 향상되었음.
7/21 ~ 7/25	사회적지지	7/22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댄스 수업이 진행되었음. 최근 점점 능동적인 수업태도를 보였으나 오늘은 안무를 따라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 등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음. 이에, 이유를 물어보자 “어려워요”라고 대답하였음. 처음 배우는 곡이어서 선생님과 다른 그룹원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도 충분히 잘 따라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해주었음.
		7/23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G.X수업이 진행되었음. 복근운동 시 타 그룹원에 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담당자가 옆에서 개인지도를 해주며 지속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해주었음. 이후, 뛰어난 운동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지지를 받기 전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음.
	개별상담	7/25	오늘 수업 준비물을 스스로 준비하여 어머니께 칭찬을 받았다고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자주적인 모습을 칭찬해주었으며 방학기간동안 방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또한, 집안일을 하면 어제처럼 어머니와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음. 프로그램 이용 초반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칭찬과 지지를 해주었으며, 2학기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해주었음.
7/28 ~ 8/8	남동아카데미 하계방학		
8/11 ~ 8/15	사회적지지	8/11	문화예술론 수업으로 난타 수업이 진행되었음. 수업 전 라포형성이 된 그룹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먼저 장난치는 모습도 관찰되었음. 난타실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초반보다 동작이 커져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개별상담	8/11	방학기간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고 하였으며 빨리 학교에 나오고 싶었다고 하였음. 2학기 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충분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지해주었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8/11 ~ 8/15	사회적지지	8/14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바리스타양성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에스프레소 추출이 숙달되어 심화과정인 라떼를 만드는 연습을 하였음. 어려워하였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 수업에 큰 관심을 보였음. 꾸준히 연습하면 라떼도 만들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배우기 위해 연습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칭찬해주었음.
	자존감 측정	8/14	측정결과 40점 중 25점으로 2회기보다 3점이 향상되었음.
8/18 ~ 8/22	사회적지지	8/18	2학기 반장선거를 실시하여 양OO씨의 추천을 받아 반장 후보가 되었음.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였음. 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포부를 밝히면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반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해주었음.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포부를 그룹원들에게 잘 전달하여 반장으로 선정되었음.
	개별상담	8/19	반장이 된 소감을 묻자 너무 어렵다고 하였음.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또한,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반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해주었음.(부모상담 시 c't가 반장이 된 것을 가정에서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음.)
	사회적지지	8/21	특별활동으로 코엑스 아쿠아리움 관람이 진행되었음. 이동 시 같은 조였던 이OO 이용인이 그룹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식사 시 같은 식탁에 있던 그룹원들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칭찬해주었음.
8/25 ~ 8/29	사회적지지	8/26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직업적응훈련 고무링 홀수구 작업이 진행되었음.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빠르게 완료하여 정리 후 반장의 역할로 그룹원들이 사용한 작업도구를 모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작업이 종료되자 그룹원들의 작업도구를 모아 작업도구 보관함에 정리를 하여 앞으로도 반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칭찬해주었음.
	사회적지지	8/27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컴퓨터실용학습 수업이 진행되었음. 수업 전 교실 책상 위에 있던 관찰일지를 본인이 직접 챙겨 강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음. 담당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칭찬해주었으며 앞으로도 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8/25 ~ 8/29	개별상담	8/28	2주간 반장을 해본 소감에 대하여 상담하였음. 반장의 역할이 재미있다고 말하며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좋다고 하였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앞으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실한 모습으로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칭찬해주었음.
9/1 ~ 9/5	사회적지지	9/3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생태교육 수업장소로 이동 10분전까지 그룹원들이 복도에 줄을 설 수 있도록 반장의 역할을 부여하였음. 대체로 줄을 잘 세웠으나 몇 명의 그룹원들이 줄을 서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처음해본 역할이지만 잘 해냈다고 격려해주었으며 다음에는 줄을 서지 않는 그룹원에게는 언어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사회적지지	9/4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바리스타양성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에스프레소 추출 시 평소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실수가 잦아지자 위촉된 모습을 보였음. 이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격려해주었음.
	개별상담	9/5	최근 친한 그룹원의 이름을 묻자 평소 친하지 않던 손OO이용인과 맹OO이용인의 이름을 말하며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였음. 새로운 친구들과도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또한, 지금보다 조금 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친구들과도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음.
9/8 ~ 9/12	추석 연휴 및 결석		

기간	구분	날짜	내용
9/15 ~ 9/19	사회적지지	9/15	문화예술론 수업으로 난타 수업이 진행되었음. 연말공연을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음. 안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동작이 수업초반보다 활발해져 실력 향상과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주었음. 또한, 공연 시 앞자리에서 공연 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해주었음.
	사회적지지	9/17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9/3에 부여한 역할과 마찬가지로 생태교육 수업장소로 이동 10분전까지 그룹원들이 복도에 줄을 설 수 있도록 하였음. 줄을 잘 서지 않는 그룹원에게는 언어표현을 하며 줄을 설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개별상담	9/19	아쿠아피트니스 수업 후 그룹원들이 놓고 간 수영가방을 다 챙겨서 교실에 가져다 놓는 모습을 보여 칭찬해주었음. 최근 아카데미 생활에 대하여 묻자 재미있다고 말하며 반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표현하였음. 반장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지금처럼 열심히 반장 역할을 수행하면 선생님들과 그룹원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음. 또한, 남은 학기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음.
9/22 ~ 9/26	사회적지지	9/23	건강과 자기관리론 수업으로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었음. 발차기 수업 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강사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이에, 놀이형 체육 수업 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음. 적극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사회적지지	9/24	직업준비론 수업으로 생태교육 수업이 진행되었음. 새싹자르기 활동 시 속도는 느리지만 꼼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칭찬해주었으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도와 채소 씻기 및 다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지해주었음.

기간	구분	날짜	내용
9/22 ~ 9/26	개별상담	9/25	반장을 맡은 이후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해주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또한, 반장역할을 통해 다른 그룹원들과도 라포형성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음.
	자존감 측정	9/26	측정결과 40점 중 30점으로 3회기보다 5점이 향상되었음.

5. 결론 및 향후 계획

1) 결론

클라이언트가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눈치를 보며 눈 맞춤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이 많이 낮다는 생각을 했다. 클라이언트가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낮은 환경, 낮은 사람, 본인의 욕구, 의지, 가족관계,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등 내·외부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사회적 지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유무가 불확실했지만 가정에만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자존감이 낮아질 것 이라고 생각했고 프로그램 이용이 확실해진만큼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6월~9월까지 진행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는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물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 이유를 사회적지지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개별상담, 부모상담, 수업태도, 강사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장의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 수행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주었을 때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존감 척도 측정 결과 1회기 17점이던 자존감 점수가 30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태도 및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졌지만 역량개발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실시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2) 향후 계획

반장의 역할이 끝나면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담당자의 사회적지지 뿐만 아니라 그룹원 및 가족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부모상담을 실시하여 학

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학부모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일관된 사회적지지 및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참고문헌

- 정유광(2013)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부경희(2012)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현진(2013)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 이은진(200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일(2013)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조집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주말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연구자	김서영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3.~2014.11. / 15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 보고서

◎ 제 출 자 : 김 서 영

◎ 주 제 :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주말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사업명

(1) 사업개요

주말 여가·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시간, 공간적,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어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증가되고, 장애청소년들은 주말여가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장애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동길, 2013)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애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은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2년부터 “신나는 토요일”의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정에서의 주말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과 지역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2) 대상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10명

(3) 추진기간

2014년 3월 22일 ~ 12월 20일 / 연 18회 (2,4주 토요일)

(4) 목적 및 목표

① 목적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증가되고 장애청소년들은 주말여가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퇴행하는 등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청소년이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건전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② 목표

- 목 표 1. 자발적인 대중교통활용능력 향상
- 목 표 2. 독립적인 지역사회시설이용능력 향상

(5) 세부사업내용

회차	월	일	활동내용	교통수단
1	3	22	개강식 및 석고방향제만들기 체험	대중교통
2		29	송도센트럴파크 관람	
3	4	12	부평기후변화 및 손수건물들이기체험	대중교통
4		26	창조자연사박물관 관람 및 체험	
5	5	10	프로방스 및 고양꽃박람회 관람	34인승
6		24	서울랜드	대중교통
7	6	14	도자기체험(토너도예공방)	
8		28	국립생물자원관	34인승
9	7	12	곤지암 화담숲	
10		26	영화관람 및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대중교통
11	9	13	쌈지길 관람 및 초만들기 체험	
12		20	인천 아시아음식문화축제	
13	10	18	북촌8경 및 공예체험	
14		25	뮤지컬 관람 및 청계천 산책	34인승
15	11	08	남양주 촬영소 관람 및 체험	

2. 사례선정 사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신체적·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지역사회적응, 자기결정, 독립적인 생활기술 등의 요인들을 모두 성취해야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을 이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능 및 사회적응능력에서 장애를 지닌 지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절한 기능훈련(우체국, 자판기, 공공서이용 등)이 이루어져야만 통합 환경에서의 적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주말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사례를 선정하였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연구의 목적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의 주말 여가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 및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2. 사례연구 목표

- 1)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이용을 통한 독립적인 지역사회시설 이용능력 향상
- 2) 대중교통을 활용한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능력 향상

3. 사례연구 방법

연 18회 2,4주 토요일을 활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 내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한다.

4. 평가방법

발달장애 아동의 개별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실증적 연구(임준구, 2001)의 논문이 기재된 사회적응능력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2회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사회적응능력척도를 측정한다.

III. 진행사항 및 중간평가

1. 진행사항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7시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장애 청소년에게 총 15번의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평가방법

1) 사전 척도지 검사

－ 발달장애 아동의 개별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실증적 연구(임준구 2011) 외 논문자료에서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능력 체크리스트 문항을 발췌하여 개강식날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인의 사회적응능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다.

－ 체크리스트는 20문항으로 100점만점으로 1점부터 5점척도로 되어있으며 5점으로 갈수록 자발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2) 프로그램 이용인 장애유형

이름	장애명(등급)	이름	장애명(등급)
박O영	자폐성(1)	윤O석	지적(2)
서O호	뇌병변(2)	양O수	자폐성(2)
이O철	지적(1)	오O훈	지적(3)
이O욱	지적(1)	오O환	지적(2)
이O은	지적(3)	원O빈	지적(2)

3. 사전/사후검사 결과

영역 이름	이동기술능력		사회성능력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박O영	38	40	24	26
서O호	44	47	23	25
이O철	41	43	20	21
이O옥	38	42	21	25
윤O석	55	58	36	39
양O수	38	39	24	25
오O훈	46	50	34	38
오O환	38	40	21	23
원O빈	38	40	19	21
이O준	41	43	28	30
총계	417	442	250	273
평균	41.7	44.2	25.0	27.3

4. 프로그램 내용

회차	일자	활동내용	세부내용
1	3월22일	개강식 및 석고방향제만들기	• 사회적응능력체크리스트 작성
2	3월29일	수상택시 및 뷰티박람회관람	• 대중교통 및 수상택시이용 • 송도 컨벤시아 박람회 관람
3	4월12일	부평기후변화체험	• 대중교통이용 • 음식점 및 샐러드바 이용
4	4월26일	창조자연사박물관 관람 및 화석발굴체험	• 대중교통이용 • 박물관 관람(올바른 관람방법 교육)
5	5월10일	프로방스 및 고양 꽃 박람회 관람	• 지역사회시설이용 • 관람예절교육
6	5월24일	서울랜드	• 대중교통이용 • 올바른 놀이시설 탑승교육
7	6월14일	도자기체험	• 대중교통이용
8	6월28일	국립생물자원관 관람	• 대중교통이용
9	7월12일	곤지암 화담숲 체험	• 대형버스 이용 / 모노레일 탑승방법 • 관람예절교육
10	7월26일	영화관람 및 노래방이용	• 대중교통이용 • 관람예절교육
11	9월13일	인사동 쌈지길 관람 및 초만들기 체험	• 대중교통이용 • 쌈지길관람 및 초만들기체험
12	9월20일	아시아음식문화축제 및 음식만들기체험	• 대중교통이용 • 아시아음식문화축제 관람 및 음식만들기 체험
13	10월18일	북촌한옥마을	• 대중교통이용 • 북촌8경 탐방 및 공예체험
14	10월25일	뮤지컬 관람	• 대중교통이용 • 뮤지컬 관람 및 청계천 산책
15	11월08일	남양주종합촬영소	• 대형버스이용 • 다양한 촬영소 체험 참석

5. 결과

1)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능력 향상

- 사회적응능력 체크리스트에서 이동기술능력에 대한 체크리스트 문항을 통해 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 총평균 41.7점에서 사후검사 44.2점으로 2.5점 향상되었다. 총 15회동안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및 대형 버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사전에 버스노선, 이동경로, 승차장소, 하차장소,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동하면서 장애청소년에게 질문을 통해 올바른 이용방법과 이동경로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장애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외부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장애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독립적인 지역사회시설 이용능력 향상

- 지역사회시설 이용능력에 대한 체크리스트 문항을 통해 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전검사 총평균 25점에서 사후검사 총평균 27.3점으로 2.3점이 향상되었다. 총 15회동안 서울/경기/인천 내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였고 사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역사회시설 이용방법에 대해서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동하면서 외부 공중시설(화장실,휴게실)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음식점 이용을 통해서도 공동장소에서의 식사예절지키기와 편의점이용을 통해서도 구입할 물건을 찾아서 계산대로 가져가기 등의 교육을 통해 독립적인 지역사회시설 이용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지역사회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장애청소년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스스로 자립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룹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연구자	김효중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03.01. ~ 2014.11.21. / 총 33회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김효중

◎ 주 제 :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신○○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4. 03. 30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금호@ 101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5474-○○○○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94년생으로 생후 황달로 길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1개월간 이용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습도움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담임교사의 권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됨. c't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로 4명으로 모두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누나는 대학교 재학 중임.父가 엄한편으로 c't는 성인남성을 무서워하여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게 들어남. 온순한 편으로 초등학교 때 친구의 지시로 도둑질을 하여 경찰서에 간 경험도 있을 정도로 강자로 인식되는 사람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음. 가족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다'라고 표현하며, c't가 직접 저녁식사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 c't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임.

(3) 주호소 내용

남동대학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인의 자기관리·가정생활·지역사회생활·여가생활·직업생활에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다양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c't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 습득과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3. 11. 28.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대학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남동대학 소개

남동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4세미만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바리스타·마술 특화교육, 지역사회통합훈련, 일상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성인기를 준비하고 대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문화 향유와 건전한 성인기 준비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직업인식 및 준비론, 지역사회관계론, 생활체육과 건강, 문화예술의 이해, 특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공교육 학교운영형태를 도입하여 2년 과정 학년제로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6:00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3. 사례선정 사유

c't는 말을 더듬고, 지나친 손 떨림으로 인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 긴장 상황에서 발 떨기, 담당자에게서 눈치 보는 행동, 실수에 대하여 '나는 안되'라며 머리를 박고 과잉으로 자책하는 등의 매우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음. 또한 큰 목소리는 무조건 적으로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고, 햇볕으로 인한 눈 찡그림에도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음. 이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대상자로 선정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대부분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각자의 삶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그룹 미술치료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술매체를 통해 좀 더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함. 또한 능동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미술치료의 과정은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정서적 지원의 효과 및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 사례 개입 내용

구 분	기간	세부내용
현 상태 파악	3월 5일	-대상자 선정 및 현 상태 분석
사전검사	3월 6일	-K-HTP 검사를 통한 심리적 상태 확인 -K-CPM 레이븐 지능검사를 통한 사회적 연령 확인 -BGT 검사를 통한 정서 확인
미술치료 진행	3월6일 -11월13일	-주 1회(매주 목요일, 13시- 15시) 그룹 미술치료 진행
관찰일지 작성	3월6일 -11월13일	-주 1회 c't의 미술치료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찰일지 작성
사후검사	11월 13일	-K-CPM 레이븐 지능검사를 통한 사회적 연령 변화 확인
결과보고	11월 14일-21일	-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그룹 미술치료를 통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존감향상.

(2) 단기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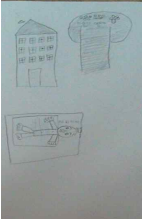
1. 미술치료 수업을 통한 사회적 연령 0.5세 향상.
2. 주 1회 미술치료 수업 시, 자기표현의 과제물 완성.

Ⅲ. 진행사항 및 평가결과

1. 사례 진행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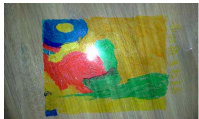
-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8명 그룹원으로 미술치료 수업이 진행됨.
- 3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8회가 진행되었음.

2. 관찰 내용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1	3/6	내 이름으로 나 표현하기	- 눈치를 보며 작업에 임하고 표현하는 태도 주저하는 모습이 있음. 치료자의 눈빛을 쫓는 모습이 여러차례 보임. -이름표현하기 : 이름이 부정확하게 보이자 다시 시도함. 김*모의 방법을 모방하지만 정확한 모방은 안됨.	
2	3/13	나를 닮은 동물, 친구를 닮은 내마음 표현하기	- 본인(강아지), 김*모(쥐)로 표현함. 사진을 화지위에 붙인 구성력과 집단원의 그림을 보며 잘 그린다고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무서운 누나 매를 많이 맞은 누나를 그렸으며 상하구별이 잘 안됨. - 집단원 중에 가장 눈치를 많이 보며 '못하겠어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함. 제목은 강아지로 정함.	
3	3/20	나의 얼굴 만들기를 통하여 자기정체감 확인하기	- 점토를 길게 늘어뜨려 지렁이라고 표현함. - 간단한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일찍 멈추고 어렵다는 말을 반복함. 항상 자신 없어하고 다른 집단원의 작품을 보면 감탄을 하는 모습이 자존감이 낮아보임. 일찍 끝내고 조금씩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기도 함. 승은이가 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자 자신감을 보이며 만들어 주기도 함. 얼굴의 표정을 '멍한 표정'이라고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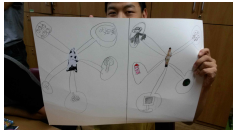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4	3/27	우리가족 얼굴 그리기, 가족 이야기 나누기	- 가족 4명을 작게 전신상으로 표현해 tape 작업이 오래 걸렸음.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였고 채색과정 중에서도 tape위에 물감을 칠하는 모습 나타남. tape가 경계선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임. tape 작업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채색이 부족하더라도 그림 완성도가 높아보이자 오늘은 어렵다는 단어 사용은 하지 않음. 가족모두 산책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부모님보다는 누나를 먼저 그리고 누나이야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가족 안에서 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5	4/3	천사점토로 꾸미기	- 모양틀 한가지 형태만 나열해 놓았다가 하트 두개를 이용한 나비를 만들. 나비 모양에 근접하기 위해 몸과 더듬이 무늬 작업도 함. 지금까지 활동한 작업 중에서 가장 계획력 있고 만족도도 높아 보임. 제목은 '나비꽃'으로 정함.	
6	4/10	봄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협동화 그리기	- 봄 : '구름 그려도 돼요' 라고 먼저 묻고 그리기 시작하며 그릴 때마다 묻고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반응은 빨라 보임. 규칙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이고 가장 빨리 끝냄. 구름 밑에 검은색 해바라기를 그림. 꽃대를 너무 약하게 그려 불안해 보임. - 협동화 : 4명의 가족을 그림. 색의 대비로 선명한 그림이 됨.	
7	4/17	기쁨, 슬픔, 화남의 감정 그리고 표현하기	- 감정표현하기 : 미술작업의 속도가 빨라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부족한 표현 횟수도 줄어드는 모습이며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도 보임. 얼굴 형태인 동그라미를 직접 그리지는 못하지만 도구를 사용하여 그릴 수 있음. - 기쁨 : 맛있는 것 먹을 때 - 슬픔 : 가족이 싸울 때(부모님이 싸울 때 울기만 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함) - 화남 : 친구들과 싸울 때	

구 분		주 제	관찰내용	작 품
8	4/24	그릇 만들기	- 집단원과 중복된 색(빨강색)을 선택하자 스스로 다른 색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물을 떠오고 정**을 도와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김*엽이 이** 이야기를 자주하자 이**을 좋아해서 사귀었고, 엄마가 반대를 했고 이**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경위를 표현함. 이제 그 일로 별로 힘들지 않지만 김*엽이 이**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난다고 함.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면 모든 게 편안 해 질수 있다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표현함. 집단원 중 가장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임.	
9	5/8	만다라 채색하기와 만다라를 응용한 정원꾸미기	- 만다라 : 눈에 띄는 강한 색 위주로 선택해 겉에서 안으로 칠하는 내향적인 성격임.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질문도 자주하며 작업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보임. 완성하기 위해 꽃잎이 몇 개 필요하고 나뭇잎이 몇 개 필요한지 스스로 찾기는 어려웠고, 작품 중간 중간에 무조건 하**의 작품은 칭찬부터 하는 모습이고 김*아의 도움요청은 무시함.	
10	5/15	난화를 통한 이미지 찾기, 찾은 이미지를 통한 이야기 꾸미기	- 난화 : 참여와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가 많이 보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보이려는 모습이 많아지고 작업하면서 집단원들에게 유머도 사용하지만 김*아에게만은 쌀쌀하게 대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임. - 찾은 이미지 : 기린, 풍선, 올챙이 - 이야기 : 기린은 서 있고, 풍선은 올라가고, 올챙이는 꼬불꼬불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이야기를 꾸미는 것에서도 보임.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인식, 재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임. 스스로가 '두려움이 많구나'라는 인식이라도 표현 가능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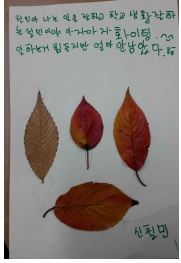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11	5/22	명화 따라그리기	- 명화 :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라고 질문하며 집단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과정이 옳은지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남. 지난주 일을 기억해 오늘은 누가 반장을 할건지 먼저 물어보고 반장 역할을 함. 작업을 하면서 왕** 작품에 관심을 두고 보면서 '나도 예쁘게 해야지'하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지만 테두리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결국은 모든 밑그림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완성함. 제목은 아영의 제목을 모방해 '알록달록한 밤 세상'으로 정하고 아영의 눈치를 봄.	
12	5/29	석고 손 만들기	- 석고봉대에 물을 묻히면 봉대가 꼬이는 일이 자주 발생해 초조함을 나타냄. 손으로 봉대를 잡는 방법을 여러 번 알려주었지만 실수가 자주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빨리 완성함. 초록색 바탕으로 장식한 우드락에 손을 붙이고 장지 손톱과 팔목 부위에 작은 장식을 하고 완성함. 글루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 사용법을 알려주고 기다려주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에 치료자가 개입함.	
13	6/5	색소금 화분 만들기	- 색소금 화분 : 가장 먼저 질문하는 모습, 가장 먼저 매체에 접근하는 모습, 김*엽이 색소금을 투명컵에 늦게 담고 색소금이 부족해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모습 등은 집단의 긍정적인 역동성을 불러일으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고 적은 자원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임. - 장점 : 스스로 장점 찾기가 어려워 김**가 '양보를 잘해요'를 찾아줘 앞으로는 자신의 장점을 '양보를 잘해요'로 정하기로 함.	

구 분	주 제	관 찰 내 용	작 품
14	6/12	의사소통 유형알기(원수같은 말, 멀어지는 말, 다가가는 말) - 풍경화 : 김*엽의 테두리를 모방해 마음 모 형태를 그리고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해 테두리 밖에도 그림을 그리기도 함. 스케치 는 양호하게 그리지만 채색은 한 가지 색으 로 통일해서 칠해버려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 지고 필압은 많이 흔들려 있는 모습이 경 직된 대상으로 보임. - 의사소통 유형 원수같은 대화 : 헤어지자는 말, 욕 멀어지는 대화 : 요금 데이터 문자 전화 다가가는 대화 : 친하게 지내자 → 자신의 삶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음. 주로 가족 특히 母로부터 들은 내용이 많음. 욕을 듣는 것이 가장 싫 고 특히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잦은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요금이 16만원 이 넘는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이 정도의 금 액이면 많이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기도 함. 스스로도 요금을 조절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임.	 
15	6/19	나의집 만들기, 우리동네 꾸미기 - 나의 집 만들기 :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다친 손가락을 보여줌. 다친 이유는 타인을 의식하고 말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함. 하**이 살짝 김**와 싸웠다고 귀뜸해주지만 아무말 없이 받아들이고 같이 살고픈 친구를 떠올리 게 하자 시선이 바로 아영에게 가기도함. 잘 게 자른 빨대로 일렬로 붙이다가 곧 집중력 이 떨어지고 지치자 보이는 대로 가로세로 무시하고 붙이는 모습도 나옴. 김*모와 금방 이웃집으로 설정해 자신의 위치를 잡고 혼자 떨어진 김*엽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집단 에서 역할을 해주기도 함. 동네 이름은 '우리 마을'이라고 함.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16	6/26	부채 꾸미기, 부채 만들기	- 부채그림 : 집단원중에 가장 질문을 먼저 하고 자신의 작업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대상임. 작업 속도가 빨라져 가장 먼저 완성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과정은 스스로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모습이며 끝내고 나서 여유롭게 즐기기도 함. 자유그림에서는 '남동대학 파이팅'으로 정함.	
17	7/3	모빌 만들기	- 모빌 만들기 : 평행사변형 대칭으로 자른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만함. 직접 해결해주어야 작업이 가능했고 작업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정도만 해야지'하며 쉽게 완성하고픈 마음을 보임(미완성으로 끝내지는 않음). 물고기의 아가미 표현은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음이 보임. 느낌은 후배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철사로 끼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함.	
18	7/10	소망 나무	- 주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만 표현함. 음악에 관심도 많고 실제로 부르는 것도 좋아함. 처음 정**과 짝이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시도하면서 잘 이뤄지지 않자 치료자를 보며 힘들다는 제스처를 보여줘 짝을 바꿈.	
19	7/17	과자집 만들기, 롤링페이퍼	- 롤링페이퍼 : 친절하고 착한 내용이 나옴. 자신의 롤링페이퍼만 빠져있어서 급 쓰게됨. 자신의 것이 빠진 것을 알자 서운해 하기도 하지만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 과자집 : 처음 시작을 치료자가 알려준 그대로 함. 규모 없이 무조건 올리는 과정을 해 윤**이 감옥 처럼 보인다고 하자 제목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감옥'으로 정해버림.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20	9/4	여름방학 이야기	- 언어로는 방학 때 알바 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표현하고 싶어하면서 그림에서는 TV화면을 크게 그려 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는 모습이 나타남. 오랫동안 고심한 내용은 TV화면 속을 그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었고, TV리모콘, TV 시청하면서 먹는 콘 프로스트 그리고 알바하면서의 청소 도구를 그림. 채색도 파레트에 있는 파랑색을 열게 간단하게 채색하고는 끝냄.	
21	9/11	바다 풍경 꾸미기	- 치료자와 가까이 앉아 쉽게 작업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어 빨리 완성하는 모습임. 점토를 눌러 붙이기를 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찍기로도 함. 물고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자 한 마리는 비슷하게 표현되지만 한 마리는 형태가 모호한 형태로 표현됨. 제목은 '물고기 바다'로 정함.	
22	9/18	사진으로 표현하기	- 7세때 사진을 준비해왔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궁금해 함. 부모님께 여쭙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기대하는 모습임. 주제에 맞춰 작업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에 마인드맵처럼 관련된 이미지를 찾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자 그대로 표현함. 과거는 찾기가 어렵다며 현재 먼저 작업함. 현재는 집, tv, 알바도구, 어린시절과 관련된 이미지는 교회, 동네, 과일, 나무라고 함. 부분 부분적인 기억으로 보이고 기억의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움.	

구 분		주제	관찰내용	작품
23	9/25	화병 만들기	-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미술과정을 해내려는 모습이 보이는 편임. 우유box가 안으로 구부러진 특성 때문에 ㉠의 모양 살리기가 어려웠고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음. 하지만 ㉠의 개념은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는 있었고 한지를 붙이는 과정을 더 어려워함. 이유는 손에 풀이 묻은 상태로 한지를 누르면 box에 붙은 한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음. 문제 해결력이 낮다보니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면 급긴장하고 경직되고 얼어붙는 모습임. 늘 결과가 틀리고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늘 상 해오던 실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자신감도 결여되어 보임.	
24	10/2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	- 오늘은 질문하지 않고 참여함.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입도 삐죽거리기도 함. 화지에 모아놓은 것은 주로 먹는 것들이지만 일관성이 없고 이불과 좋아하는 만화를 거꾸로 붙여놓았음. 주제를 이해 못한 것으로 보이고 화지 한쪽만 붙이고 끝냄.	
25	10/16	만다라 협동화	- 개인만다라 : 김*엽의 웃음에 유일하게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모습임. 채색은 겉→안으로 채색하였고, 노랑색으로 전체적으로 별을 표현하고 남은 공간은 마음이 가는대로 규칙 없이 채색함. 제목은 '아름다운 별'로 정함. - 집단만다라 : 집단작업에서는 남동대학글씨체만 쓴 채 색도 입히지 않은 모습 나타남. 편*민과 나란히 앉아 집중하는 게 흐트러졌고 김*엽의 웃음만 집중하는 모습임.	
26	10/29	신체본뜨기	- 무엇을 해야할 지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고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도 다녀오기도 함. 반지를 네일아트처럼 10개의 손가락에 다 표현하고 두 다리가 대칭이 맞지 않지만 발견하지는 못함.	

구 분		주 제	관찰내용	작 품
27	11/6	자신에게 쓰는 편지, 점토그림	- 나에게 쓰는 편지 ; c't는 일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한다고 격려하는 내용과 현재의 스트레스나 긴장도도 보이고 그림에도 노력을 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함. - 점토그림 ; 화지 왼쪽 1/2만 붓으로 채색하고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 오래 고심함. 그리다가 우연한 효과에 대한 결과에 '와플'에 소스 바른 것'으로 정함. 일찍 끝났지만 그림을 추가하는 작업은 하지 않음.	 
28	11/13	무인도 탈출하기	- 김*엽과 손으로 치는 반복적인 모습이 나옴. 그러면서 기분은 나빠져 있고 관심이 김*엽의 행동에 가있어 작업에 집중은 어렵게 시작됨. 지점토 봉투를 자르는 작업정도 참여하였고 그 작업에서도 손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김*엽과 분리해서 안정되자 물감으로 바다를 채색하는 과정과 모양틀로 과일 종류를 찍어내기도 함.	

3.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사전검사 결과

- K-HTP 검사 : 소통을 원하는 간절함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음
- K-CPM 레이븐 지능검사 : 39-44개월 수준(3.5세)
- BGT 검사

발달적 점수	4점 (8.0~8.5 세 수준)
정서적 점수	성인에서 대시가 나타남은 정신질환이나 지능이 낮을 경우 또는 가정폭력의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가능성일 수 있음. 충동성, 공격성이 있음.

(2) 사후검사 결과

- K-CPM 레이븐 지능검사 : 45-50개월 수준(4세)

4. 평가결과

(1) 목표 1.

[미술치료 수업을 통한 사회적 연령 0.5세 향상]

내용	사전 검사	사후 검사
K-CPM 레이븐 지능검사	39-44개월 수준 (3.5세)	45-50개월 수준 (4세)

-사회적 연령을 검사하기 위한 3월 6일에 실시한 K-CPM 레이븐 지능검사 사전 검사 점수는 3.5세였으나, 11월 13일에 실시한 K-CPM 레이븐 지능검사 사후검사 점수는 4세로 0.5세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함.

(2) 목표 2.

[주 1회 미술치료 수업 시, 자기표현의 과제물 완성]

-28회기에 걸쳐 진행된 미술치료 수업에 100%에 참석하였으며, 관찰 내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든 미술치료 수업의 과제물을 완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미술치료 초반에는 과제물의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집단원의 눈치를 보며 ‘나는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음. 회기가 진행 될수록 집단원의 과제물을 모방하거나 치료사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과제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또한 개별 작품보다는 그룹 작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성인지적장애인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낮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다.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남동대학’ 이용인 중 낮은 자존감을 가진 1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불안, 긴장, 부적절한 자기인지에 대하여 미술치료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 안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c’t도 미술활동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직되어 있어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미술매체를 통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였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미술치료로 진행된 사례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과정에서 보다 정서지원이 이루어 지면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표현하여, 작품의 완성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존중하게 되는 모습이 보였다.

둘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에 사회적 연령이 K-CPM 레이븐 지능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연령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성인지적장애인의 각자가 자신의 제반 능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심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룹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인지적장애인들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게되는 ‘좌절’로 오는 자존감 감소를 돕는 차원에서 상호지지적이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룹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증가의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 14-07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설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김지혜
연구기간	2014.○.○. ~ 2014.○.○. / 총 개입횟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김지혜

◎ 주 제 :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설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름	최○옥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5. 2. 13				
장애명	뇌병변	급수	1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금호A ○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95년 출생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로 뇌를 다쳐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음. c't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다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사고가 난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휴학중인 상태였음. 사고 당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큰 사고였으나 1년 반의 병원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함.

c't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와 남동생 2명이 있으며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남동생들은 필리핀에서 유학하다가 최근 귀국하였음. c't의 부모님은 c't가 사고 이후 c't 지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에서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 보호적인 편이고, 사고로 인해 시야도 좁아서 매일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동생들과는 몇 년간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 형제 간의 관계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3) 주호소 내용

c't는 중도 장애로 인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바르고 긍정적이나 시설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이고, 소변 실수를 자주 하며, 거짓말을 쉽게 하는 등 성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3. 04. 01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미술학원

3. 사례선정 사유

c't는 2013년 4월 1일에 입소하여 1년여 동안 시설을 이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작업 시간 지키기 등이 어려워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에서 소변실수를 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이 어려워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유대관계는 거의 없으며 동료를 무시하거나 교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때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함. 또한, 자판기 재료로 사용하는 음료수를 몰래 꺼내서 먹거나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을 누르고, 현관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도 자주 보이고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짐. 이에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로 선정하였음.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는 중도장애를 입고 본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적응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입소초기부터 작업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소변을 참지 못해 작업 중 계속 화장실에 가거나 작업장에서 소변실수를 하는 등의 부적응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변실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고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함. CCTV를 통해 자신이 한 행동임이 확인되자 인정함) 교사 등에게는 예의바른 모습을 보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무시하거나 이유 없이 때리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음. c't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어머니와 상담한 결과 c't의 동생이 귀국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기게 될까봐 염려하여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나 c't는 입소초기부터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었고 최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작업 부분에 있어서도 작업에 대한 의욕 및 욕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의 전반적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 사례 개입 계획

진행 과정 계획 : c't 및 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 사회기술훈련

사후 평가 계획 : 근로자 선정평가를 사전, 사후 실시

3. 사례 개입 목표

- 1) 장기목표 : c't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시설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다.
- 2) 단기목표 : 심리·정서적인 안정감 향상을 통해 근로자 선정평가 점수가 5% 향상될 수 있다.

4. 사례 진행 사항

- 1) 개별상담 및 부모상담

일시	구 분	상담 내용	상담 후 관찰 및 개입
3/20	개별상담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동을 보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음. 비상벨의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고, 작업장이 2층이므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음.	상담 이후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잠그는 행동은 더 이상 보이지않았으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눈치를 보는 모습은 많이 관찰되었음.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3/24	개별상담	c't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서 문을 잠겼다고 함. c't는 안전을 위해 한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면 불편하므로 잠그지 안도록 하였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교사에게 알리도록 하였음.	
3/24	부모상담	c't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잠그는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c't父는 c't가 사춘기인지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심. c't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정에서도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하였음.	

일시	구 분	상담 내용	상담 후 관찰 및 개입
3/26	개별상담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자판기 재료인 음료수를 몰래 꺼내서 먹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용돈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상담 이후 자판기 음료수를 꺼내 먹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를 보면 음료수를 먹지 않는다고 본인이 먼저 말하는 모습을 보임.
3/28	부모상담	c't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고, 충동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생이 필리핀에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엄마의 관심이 동생에게로만 갈 것 같아 미리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함. c't가 동생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c't 및 가정의 변화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도록 하였음.	
5/23	개별상담	c't가 프로그램실에 있는 간식용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음. 이전에 자판기 재료로 사용되는 음료수를 먹은 후 자기의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하였는데, 다시 허락없이 음료수를 먹는 행동을 하여 상담함. 교사 몰래 2개의 음료수를 한 번에 먹어 용돈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c't가 3월 이후다시 음료수를 몰래 먹는 행동을 보여 자신의 용돈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도록하니,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음료수를 먹지 않음. 아버지는 c't가 약속을 기억못한다고 하나 상담을 통해 c't는 자신의 행동 및 교사와 한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충동적으로 음료수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임. 음료수 보관 장소를 옮겨 c't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였음.
5/29	개별상담 부모상담	c't가 외부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프로그램실에 있는 음료수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행동을 함.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음료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먹도록 하였고, 자신의 용돈으로 음료수를 사먹도록 하였음. 아버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것이 아니면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켜지지 않음을 말씀드리니 c't가 기억을 잘 못하므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심.	

일시	구 분	상담 내용	상담 후 관찰 및 개입
6/18	개별상담	c't가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사서 한 번에 모두 먹고, 아이스크림을 몇 개씩 사서 녹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커피와 음료수도 그 자리에서 몇 개씩 한 번에 먹는 행동이 나타남. 이렇게 한 번에 먹을 경우 소변실수 등이 발생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였고, 용돈이 있을 경우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용돈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교사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 받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의 용돈 관리를 실시하였음.
7/21	개별상담 부모상담	오후 작업 중 소변실수가 있었음. 점심 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커피나 음료를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으며 물과 음료를 줄이며 작업장에서 소변실수를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아버지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변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니 c't가 커피를 계속 마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심.	작업장에서의 소변 실수와 청소도구함에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작업장과 청소도구함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였고 당분간 계속 청소하도록 하였음. 공동 사용 공간에 대한 에티켓 및 성인으로써의 바른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음.
8/4	개별상담	c't가 오후 작업 중 배란다에 있는 청소도구함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였음. C't가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셔서 교사가 커피를 먹지 않도록 하였는데, 화장실가면 괜찮다고 하면서 마셨음. 오후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도 안되어 소변을 본 것임. 화장실에 가고싶을 때는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퇴근 후 30분 동안 작업을 하기로 다시 약속하였음. c't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어른이 소변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도록 하였음.	

일시	구 분	상담 내용	상담 후 관찰 및 개입
8/27	개별상담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본관에 가서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함. 3층에는 남자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C't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단순히 3층에 남자화장실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남녀공용 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음. 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절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외부 프로그램 참여 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훈련하였음.
11/21	개별상담	C't가 8월 4일 이후 소변실수를 하지 않았고, 작업 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었음을 칭찬해주고, 교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 C't는 돈이 없어서 음료수와 커피를 사먹지 않았고, 물도 한컵씩 먹고, 쉬는시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함. c't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소변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음.	8월 4일 이후 소변실수와 작업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행동을 비롯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작업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강화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 사회기술훈련

훈련주제	훈련목표	훈련내용	c't 개입 내용
용모관리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기	-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 알기 - 개인위생 관리하기 (머리손질, 치아 및 손톱 관리) - 청결한 옷차림하기 - 계절과 장소에 맞는 옷차림하기	- c't는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훈련을 통해 화장실 이용 후 옷을 다 입고 손을 씻은 후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및 규칙알기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알기	- 동료 및 관리자의 개념 알기 - 동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고 지키기	- 나이가 많은 동료에 대한 바른 호칭을 사용하지 못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여 동료의 나이를 알려주고 맞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훈련규칙을 준수하여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	- 훈련시간과 휴게시간 지키기 - 바른 작업태도 알고 지키기 - 지각, 조퇴, 결근에 관련된 규칙 알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기	- c't는 화장실 이용이 빈번하여 점심시간이 지난 후 작업장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작업 시작시간 10분 전에 화장실에 다녀와서 작업장에 착석하도록 훈련하였음.
감정 다루기 및 자기 통제하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 알기 - 적절하게 감정표현하기 -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 및 대처방안 알기	- c't는 정서적인 안정감의 부족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였고, 문제행동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음. 교사와의 상담을 좋아하고, 자신의 속마음이나 가족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었음.

5. 평가

총 3회의 근로자 선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분기에 88점(180점 만점)으로 시작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개입을 한 2분기에는 98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사례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3분기에는 104점으로 평가되었음. c't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소변실수와 문제행동이 많이 소거되는 시점인 3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 점수가 16점이나 상승하였음. 근로자 선정평가가 총점 180점인것에 비하면 c't의 점수는 매우 낮은편이나 점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Ⅲ.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설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연구기간이 짧았고, 작업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c't는 사고로 인해 중도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해 c't와 가족이 c't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 안에는 많은 상처와 갈등 요인들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

c't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타인에게는 매우 바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동료에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평가하여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작업 중에 소변실수를 자주하고, 음식에 대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음.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도 문제행동을 보여 개별상담 및 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기술훈련을 통해서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규칙 및 감정조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하였음. 이러한 지속적인 상담과 훈련을 통해서 5월 이후에는 충동적인 행동 및 음료수를 몰래 먹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고,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변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업 수행에 있어서도 집중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음. 이러한 c't의 변화는 근로자 선정평가 점수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 2014년 1분기 첫 평가에 비해 3분기 평가 점수가 16점이나 상승하였음.

c't가 2013년 4월에 입소하여 1년 6개월 정도되었는데, 입소 초기에 c't의 부모님은 c't의 장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c't의 현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c't도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 그로 인해 작업장에서 부적응한 모습을 많이 보였음. c't가 심리·정서적으로 입소초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2015년에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리·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c't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것으로 사료됨.

집단미술치료가 보호작업장 이용자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류수진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3.13. ~ 2014.10.28 / 6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 보고서

◎ 제 출 자 : 류수진

◎ 주 제 : 집단미술치료가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사례연구의 필요성

1) 열린일터 이용인의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며 그러한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이 미분화되고 경직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미분화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적응능력으로 나타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와 고립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이러한 관계 갈등으로 인해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고 실패감과 좌절감에 익숙하며 능동적인 자기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성인기에 접어든 지적장애인은 좀 더 넓은 사회와 환경에 노출되는 반면 의미 있는 사회 관계망 형성이 힘들어 자신의 심정을 터놓고 말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 및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하며 자발적 자기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일터 이용인 중 많은 수가 지적장애라는 장애에 의해 공존되는 2차적인 심리적 문제로 인해 본 시설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열린일터 이용인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부적응 문제 유형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스트레스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 위축, 충동적인 행동 등이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단체생활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업적인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보호고용 전이 및 유지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이용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정서 지원 방향

가. 직업훈련교사와 상담교사의 협의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성인지적장애인의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요구분석(김성영, 2011)’에 의하면 직업훈련교사와 심리상담치료 자격을 가진 인력의 협의를 통한 지원이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바람직한 심리상담치료 방향이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시설에서도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하면서 이용인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있는 직업훈련교사와 심리상담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치료에 따른 변화정도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여 이용인들이 보이는 변화 정도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적응훈련 방법 및 훈련 내용을 조정해 나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 보이는 부적응행동을 소거하고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적응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나. 성인 지적장애인의 집단미술치료 효과

이주희(2005)는 직업적응훈련과정 중의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개별사례를 진행하여 감정분출과 자기인식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였고,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한 적절한 관계맺기의 경험이 직업적응훈련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개인과 집단의 조화의 과정은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관계적 측면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부적응행동의 감소를 가져왔고, 나아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윤영아, 2008) 이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부적응행동에 대한 지원방법인 대화의 방법을 넘어 성인지적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 미술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제안하였다.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매체를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치료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대상

직업훈련교사의 관찰 및 근로자선정평가를 통해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이용인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6명 (보호고용 근로자 3명,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3명)

부적응행동이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구 분		근로자 선정평가*		현 상 태	부적응행동이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원 후 기대효과
참여자		평균 점수	순위			
A 그 룹	웅*	179.5	6	보호고용	대인관계 갈등이 잦음. 부적절한 감정 표현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u>보호 고용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u>	보호고용 유지
	미*	176.0	10		<u>선택적 합구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u> 비언어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함. 쑥스러움이 많고 위축되어 본인의 직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선*	178.0	7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사소한 일에 화를 자주 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동료관계에서 갈등이 잦음. 이에 작업태도와 유지력에 방해를 받아 본인이 가진 직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B 그 룹	성*	163.0	14	작업활동 훈련생	지각이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불안이 높음. 새로운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으로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위축되어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근로자 선정평가 평균점수 6% 향상
	준*	108.0	29		길고 중얼거리듯 말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화패턴을 보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불안, 위축, 강박행동으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u>직업능력평가 결과상 지역사회 고용이 가능한 수준이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낮아</u> 직업의욕 및 작업수행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열린일터에서 <u>작업생산성과 태도는 최하위그룹임.</u>	
	운*	162.5	17		부모 사망 후 15세에 생활시설에 입주함.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절절한 감정표현과 충동적인 행동이 있음. 동료와의 갈등으로 작업장 분위기 및 작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열린일터에서 2013년도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점수 200점)’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이용인 31명 중에서 근로자 10명을 선정함. 즉 상위 10위 이내가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목적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1. 부적응행동이 있는 보호작업장 이용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직업적응능력 향상	1-1. 집단미술치료 A그룹 3명 × 28회기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보호고용 유지 3명
	1-2. 집단미술치료 B그룹 3명 × 28회기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근로자선정평가 평균점수 7% 향상 (보호고용 전이 1명, 평가점수 6% 향상 2명)

2. 개입 계획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보호고용 유지 3명	미술치료 A그룹	주1회 외부강사를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3
		담당자간 진행과정 및 개입 방안 논의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2
		사례회의	6월 9월	전 직원 6명	6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근로자선정평가 평균점수 7% 향상 (보호고용 전이 1명, 평가점수 6% 향상 2명)	미술치료 B그룹	주1회 외부강사를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3
		담당자간 진행과정 및 개입 방안 논의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2
		사례회의	6월 9월	전 직원 6명	6

3.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보호고용 유지 3명	관찰일지를 통한 변화도 평가	HTP검사	사전사후평가	3월, 10월
		관찰일지	관찰일지	회기별 작성
	근로자선정평가	체크리스트	전직원 평가	6월, 9월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근로자선정평가 평균점수 7% 향상 (보호고용 전이 1명, 평균점수 6% 향상 2명)	관찰일지를 통한 변화도 평가	HTP검사	사전사후평가	3월, 10월
		관찰일지	관찰일지	회기별 작성
	근로자선정평가	체크리스트	전직원 평가	6월, 9월

Ⅲ. 사례연구의 진행사항

1. 프로그램 과정

기간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미술치료사 계약	●								
참여자 상담		●							
세부프로그램 조정		●							
기본재료준비		●							
미술치료 진행		●	●	●	●	●	●	●	●
담당자간 협의 (개입방안 조정)			●	●	●	●	●	●	●
사전사후평가		●			●				●

2. 미술치료 세부프로그램

회기	주 제	기대효과
1	K-HTP 및 자기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친밀감 형성
2	물감 흘리기, 물감붓기	친밀감 및 흥미유발
3	함께하는 즐거움. 사포협동화	동료 간 상호작용 및 라포 형성
4	돌려 그리기	상호작용
5	물감찍기, 데칼코마니	감정해소 및 발산, 긍정적 부정적 감정표출
6	꽃다발 만들기	성취감
7	손바닥 찍어 카드 만들기	자기인식 및 상호작용
8	감정카드. 감정 찾아 색지에 표현해 보기	내면의 감정(즐거움, 기쁨, 분노 등)표현, 자기인식
9	소중한 것(얼굴에 몸을 붙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 붙이기)	자기인식 및 자아표현
10	나의 10년 후 모습 나타내기	자발성, 동기유발, 자기인식
11	나만을 위한 밥상 만들기	촉감 자극, 스트레스 해소
12	나의 화단 만들기	부정적 감정 해소 및 창의적인 자기표현
13	나의 아홉 가지 표정	자기인식 및 감정 알기
14	액자 꾸미기(골판지로 액자를 만든 후 가족 및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타인에 대한 감정표현
15	호일 협동화	상호작용을 통한 수용과 자기표현 촉진
16	버리고 싶은 것 만들기	감정표현, 자기인식
17	자화상 만들기	자기이해 향상, 자기 존중, 성취감 향상
18	DIY표현활동	만족감 및 성취감
19	협동 만다라 그리기	자기인식 및 자아존중감
20	나에게 주는 선물	자기존중, 성취감
21	희망나무 만들기	자기 존중감. 성취감 향상
22	친구(가족)에게 주는 선물	의사표현 및 상호작용, 자존감
23	DIY 표현활동 I	성취감 및 만족감
24	DIY 표현활동 II	성취감 및 만족감(석고붕대)
25	협동손수건	긍정적 변화와 함께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26	인형만들기	긍정적 자아상 갖기
27	K-HTP	사후검사
28	새로운시작(케익만들고 촛불켜기)	긍정적 미래상 갖기, 자기존중감, 성취감

IV. 사례연구의 결과

1) 집-나무-사람 검사에 의한 변화

미술치료 참여자의 미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HTP 검사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전 · 사후검사 결과 비교
A 그룹	응*	사전 그림에서는 불안정, 위축, 불안 등으로 인해 강박적 성향이 강하고 고립된 자아감 등을 보였으나 사후그림에서는 좀 더 크게 표현되어진 그림이나 내용 등을 통해 강박적 성향의 감소와 자아인식, 욕구 등이 생겼으며 사회적 교류에서도 미약하게나마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여짐. 사전 그림보다 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정서적 자극이나 관계 맺기에 있어 조금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박적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여전히 성적 관심이나 정신통제의 불안 등이 있음.
	미*	사전 그림에서는 가정에서의 불안, 퇴행적 성향과 함께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유아수준의 인지발달을 보였으나, 사후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팽창되어진 자아상태와 함께 자신에 대한 욕구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예민하게 다루어졌던 정서적 문제도 상호작용을 통해 조금은 개선되어졌다고 보여짐. 신체문제에 대한 자각도 함께 보여 지나 회피의 성향도 보임.
	선*	사전 그림에서는 위축, 불안, 낮은 자아감, 사회 상황에서의 불안감 등의 특징을 보였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상승된 자아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를 보임. 정서적으로도 위축되고 불안으로 인한 긴장 상태가 조금은 이완되어져 있음. 그러면서 애착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 속에는 자아욕구, 인식 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사전 · 사후검사 결과 비교	
B 그룹	성*	사전 그림에 비해 그림의 크기가 상당히 커진 것은 자기존중감, 자기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강박적 그림의 표현을 통해 여전히 무언가 통제에 대한 불안과 내적 인지과정에서의 불안감이 보여 지고 있으나 사전에서와 같이 시작도 안 해 보고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대처 능력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짐. 사전그림에서는 5~6세 수준의 자아상과의존적 성향이 매우 강하였으나 사후 그림검사에서는 조금씩 자기에 대한 개념과 욕구를 드러냄. 대인관계에서도 위축, 소극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으나, 어느 정도는 대인관계에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불안, 위축 등이 줄어들고 있음. 가정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인지적, 생활적, 사회적인 면에서 능동적이고 의존적,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좀 더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길 것으로 사료됨.
	준*	사전, 사후 그림에서 형태의 기괴함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며 이는 현실접촉의 상실,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루어짐. 사전에 자신에 대해 위축되고 불안이 있으나 표현되어지지 않고 억압되어져 있던 것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표현되고 드러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사후 그림에서는 팽창된 자아상을 보임.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서는 공격성, 적대감, 반항의 의미로 올라올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불안과 자아붕괴의 요소로도 보여 지고 있어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운*	사전 그림에서는 충동적인 요소들과 힘에 대한 욕구, 자신의 부적절감, 내적인 위축, 미성숙함 등이 보였으나 사후 그림에서는 적절한 크기나 위치 등 안정감과 자아에 대한 인식, 성장 등이 보이며 특히 그림의 구성력이 좋아진 것은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 이외 힘에 대한 욕구로 억압되어 있던 애정(사랑)의 욕구가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주변에서의 따뜻한 배려가 정서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됨. 안정적이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나 성적인 부분과 남성적 경향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보여 지고 있음. 의존성이 보이는 것은 집이 자신과 멀리 있다는 표현 속에서 외로움이 있어 자신과 함께 미술치료를 한 동료애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으로 볼 수 있음.

2) 집단미술치료 회기 관찰을 통한 변화

구분		초기	후기
A 그 룹	웅*	전형적인 자폐적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이슈나 TV연예인, 운동 등 고립된 관심영역에 대한 것만 표현하며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함께 하면서도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어 교류하기가 어렵고, 동료에 관심이 없고 자기 것 만하는 등 대인관계 상호성 맺기가 쉽지 않았음.	중반 이후부터는 주말에 가족과 외출했던 일이나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함. 함께 하는 작업에서도 다른 동료가 해놓은 작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도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 자폐이지만 소통하는 부분이 좋아짐. 동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만들 때는 그 동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고 이유를 말할 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함.
	미*	잘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정계가 있고 위축과 함께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보이고 반복된 모양과 패턴을 그리거나 만드는 모습을 보임. 처음부터 미술치료를 흥미 있어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동료에 관심이 있거나 그들이 하는 얘기에 반응이 많지 않고 주어진 자신의 활동에만 신경을 쓰며 더 잘하려거나 욕심을 내지 않고 끝마치는데 더 목표를 둠. 모든 제목에 열린일터나 선생님을 표현함으로써 애착과 의존도를 보임.	중반이후부터 자기 작업에만 흥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작업에도 반응을 보며 도움을 주거나 해주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하지만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고 행동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인식해야 함이 꼭 필요함.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인식이나 욕구가 드러나면서 차츰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미래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열린일터, 선생님에서 자신으로 관심도가 바뀌어감.
	선*	처음 미술활동을 할 때는 긴장되고, 경직되어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하거나 처음만 신경써서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나머지는 형태나 모양을 없애고 하나로 칠하거나 뭉쳐버림으로써 의욕이나 잘 해보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음. 지기 표현 능력도 반향어 수준으로 긴장이 수준이 높아 해야 할 말이나 순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대부분의 생각이나 느낌에 부정적 정서를 많이 투사하였으며 불만이 많았음(스트레스가 많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들이 초반에는 자주 보였음.	후반으로 갈수록 미술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내려는 의욕을 보이고 잘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임. 작업 후 완성품을 통해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많이 느끼는 듯했음.(엄마에게, 조카에게 주겠다는 표현을 함) 부정적 피드백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고 불만 보다는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됨.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표현을 함.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된 부분에서 지금은 괜찮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음. 또한 미술활동을 하고 뒷정리를 해주거나 자신의 감정을 긴장하지 않고 표현하며, 미술활동에서 만큼은 주의 집중하는 지속 시간이 길었음. 일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힘들다는 것에서 꼭 근로자로 남아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도 되었음.

구분		초기	후기
B 그룹	성*	쑥스러워하고, 위축되어 있으면서 불안감을 많이 보임. 특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손의 움직임이 많았음(손가락 물기, 머리 긁기, 책상 손으로 닦기 등). 모든 미술활동 소개에 '난 못해요, 난 몰라요'라는 말로 활동을 시작하며, 실수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움츠리는 경향이 많았음. 자신에 대해 물어볼 때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의존적 성향이 많았음. 가장 적게 표현하고 빨리 끝내려고 해서(불안을 통제하는 방식인 듯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최소화하여 표현되어짐.	중반이후 부터는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미술활동에 대해 모른다거나 못한다거나 하는 표현 없이 일단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시작하는 등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임. 자기에 대한 표현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종결 즈음에는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음. 의존적인 성향에서 스스로 하려는 행동이 습관화 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믿고 기다려 준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사료됨.
	준*	말투가 느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얼거림이 많고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 동료들이 힘들어 했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치료사에 의해서만 대화를 주로 함. 작업주제 보다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기이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았으나 이런 표현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듯했음. 미술치료를 통해 단조로운 생활에 대한 표현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 등이 드러났으며, 자신보다는 동료들에 대한 현실 인지능력이 훨씬 좋기도 했음. 현실 접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나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음.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이 답답함을 표현하고,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부분에서의 성취감, 만족감이 있었음. 중반부터는 지리멸렬했던 사고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도 하였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 반복된 상태를 보임. 집중하고 미술활동을 할 때와 풀면서 할 때의 차이가 크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말을 할 때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야기 할 때의 언어 전달력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났음. 단혀있던 사고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동료들과 함께 하려는 욕구도 표현하는 시점에 있으나 지금-여기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해 작업장에서의 태도는 변화가 낮을 것으로 보임. 대화를 통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운*	남성적인 힘을 많이 강조하고, 말투가 거칠고 크게 표현함.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 현저히 떨어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행동화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임. 그럼에도 미술활동을 할 때는 기능도 좋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동료에게 거칠거나 투박하게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치료사의 행동수정이 있었음.	치료사가 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대한 행동수정 후 종결 때 까지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임. 치료사가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임. 동료에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화 하면서 작업장에서의 갈등이 줄어들음. 성준씨와 동료애가 생긴듯한 행동들(화이팅, 작은 스킨쉽 등)을 많이 보임. 동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언어적으로 빨리하라는 표현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짐.

3) 집단미술치료 참여자들의 작업장 내 부적응행동 개선 효과

3월부터 매주 1회 미술치료가 실시되면서 집단미술치료 참여자들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술치료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잘 못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서 불안하지 않다’, ‘상담선생님과 이야기해서 마음이 편안하다’, ‘속상한 일들에 대해 대처방법을 알게 해주어서 좋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집단안에서 개인이 이해되고 수용받는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하며 언어적 표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의 욕구 및 감정이 표출되면서 부적응행동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투의 수정으로 갈등의 횟수가 감소되고,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못해도 괜찮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미술치료 참여자들의 부적응행동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가. 집단미술치료 참여자들의 작업장 내 부적응행동 개선 효과 평가

구분 참여자		미술치료 참여 전 부적응행동	부적응행동 개선 효과
A 그룹	응 *	대인관계 갈등이 잦음.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보호고용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상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과정계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동이 줄어들어 대인관계 갈등의 빈도가 감소됨.
	미 *	선택적 함구로 인해 비언어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여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직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지필로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는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음. 치료 중 담당교사에게 2번의 전화통화를 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함. 언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 필요함.
	선 *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동료관계에서 갈등이 잦음. 이에 작업태도와 유지력에 방해가 받아 본인이 가진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부모코칭상담을 통해 가족의 지원 방식에 변화가 있으면서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경감되었다고 보고됨. 또한 작업장 동료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의 표현이 증가되면서 갈등의 빈도가 줄어들음.

구분 참여자		미술치료 참여 초기 부적응행동	부적응행동 개선 효과
B 그룹	성*	지각이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불안이 높음. 새로운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으로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신감 부족과 위축으로 인해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동료관계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보며 대화하는 등 위축되고 소심한 행동과 처음 접해보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으나 현재는 눈맞춤을 하며 이야기하고, 새로운 직무에 대해 못해도 괜찮다는 표현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
	준*	길고 중얼거리듯 말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화패턴을 보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불안, 위축, 강박행동으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직업능력평가 결과상 지역사회 고용이 가능한 수준이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낮아 직업의욕 및 작업수행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미술치료 중 치료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나 불만 등을 표현하며 내면적으로 조금씩 편안함을 느낀다고 함. 정신분열증상으로 혼란된 언어사용과 지리멸렬한 사고를 보이고 있어 대화하는 방법과 사람들과 소통할 때의 행동에 대해 수정을 하고 있음.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수준임.
	운*	부모 사망 후 15세에 생활시설에 입주함.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절절한 감정표현과 충동적인 행동이 있음. 동료와의 갈등으로 작업장 분위기와 작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지시적이고 비난하는 말투를 수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거나 동료의 말을 받아들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 동료와의 갈등이 줄어들음.

나. 근로자선정평가 사전·사후 비교

구 분		사전		사후		
		근로자 선정평가		2014년	근로자 선정평가	
참여자		평균점수	순위		평균점수	순위
A 그룹	웅*	179.5	6	보호고용	182.0	1
	미*	176.0	10		176.2	12
	선*	178.0	7		165.5	14
B 그룹	성*	163.0	14	작업활동 훈련생	165.0	15
	준*	108.0	29		111.0	27
	운*	162.5	17		176.0	1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작업장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부적응행동을 개선하여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열린일터 근로자 및 훈련생 중 직업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6명을 대상으로 3명씩 2개 그룹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주 1회 총 28회기를 진행하였다.

미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욕구 표출, 평소에 못했던 언어적 자기표현 등 미술치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치료자와 라포 형성을 통해 미술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져졌다. 미술치료 초기에 친밀감과 집단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솔직한 감정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작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모습이 확대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작품 완성을 통해 성취감과 집단원 간에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하였다. 구체적으로 HTP 사전·사후 검사와 회기별 관찰을 통한 변화 분석, 근로자선정평가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부적응행동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목표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그룹의 목표인 보호고용 유지는 3명 중 1명만 유지되었다. 근로자선정평가는 상대평가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술치료 참여자의 직업적응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직업능력이 높은 신규 훈련생들이 입소하거나 기존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들이 능력향상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의 보호고용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B그룹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보호고용 전이는 못하였지만 참여자 3명 모두 근로자선정평가점수 향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계획하였던 보호고용 유지 및 전이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집단미술치료가 본인의 직업능력을 방해하는 부적응 행동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다양한 변수가 통제되지 않는 근로자선정평가 순위에 따른 보호고용 유지 및 전이를 성과목표로 계획하였던 점은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적합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에게 운동 활동이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양정현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4.1. ~ 2014.11.12. / 89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양정현

◎ 주 제 : 지적장애인에게 운동 활동이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남O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88.08.24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주공A 706동 000호				
전화번호	032)461-0000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88년에 출생하였으며, 예화여고 애견미용과를 졸업 후 6개월 동안 동물병원에 취업을 하였으나 낮은 월급과 야근, 주일업무 및 동료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취업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8년 11월 직업재활팀 직업적응훈련반 이용 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먹거리 종합 식품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고, 2011년 3월부터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c't는 현재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는 가정주부 언니는 대학 졸업을 하였고, 현재는 무직상태임. c't는 어머니보다는 언니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으며, 서로 관계가 좋다고 함.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1994년 직장암으로 사망을 하심.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악화(역류성 식도염, 관절염)가 찾아오셨고, 현재는 당뇨병을 앓고 계심.

(3) 주호소 내용

ct의 어머니가 현재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그로 인한 걱정과 자신의 비만한 몸 때문에 운동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직 08-15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열린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c't는 평소 이용인들과 원만한 관계 및 밝은 모습을 보이는 편이지만 정서적인 불안정감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비만한 몸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음. ct는 작년 근로자 선정결과에서 떨어진 후 운동 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들어내고 있으나, 평소 식습관 및 간식을 자주 섭취하여 ct의 자신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본 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c't의 욕구(운동 활동)를 지지해줌으로써 ct가 현재 받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지원을 통하여 자존감 향상 및 본 시설에 이용 및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홍양자(1996)는 신체활동이 지적장애인들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신체적 움직임의 활동은 외부환경을 인지하는 기능인 감각기능과 지각 기능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선중(1994)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스포츠 활동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건이며, 또한 재활수단으로써 기능회복과 건강보호유지 및 신체기능 퇴화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지적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미숙(2008)은 신체놀이(활동)은 신체기능 향상 및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듯 지적장애인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운동 활동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들에 대한 해소 및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c't 스스로 운동 활동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함.

2. 사례 개입 계획

1)현 상태 파악

- ① c't와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운동 활동에 대한 의지 및 욕구를 파악한다.
- ② 설문지를 통하여 c't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정서적 상태를 파악한다.

2)진행 과정 계획

- ① 주 3~4회 디딤돌 운동실 및 공원을 이용한 운동 활동을 실시한다.
- ② 스스로 식습관 및 간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 ③ 월 1회 체지방측정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다.
- ④ 두 달에 한번 설문지를 통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3)사후 평가 계획 등

- ① 매월 체지방측정을 통하여 목표달성률을 평가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1)장기

- ① 운동 활동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및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 ② c't의 몸무게가 5kg 이상 감량할 수 있다.

2)단기

- ① c't 스스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c't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Ⅲ. 진행사항

1. 운동 활동 전 체지방 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 파악

I.D. 27		연령 27	신장 163cm	성별 F	측정일자 2014. 4. 1/11:47 (3202)	남동성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	--	-------	----------	------	------------------------------	---	--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측정치 Value	체지방량 Fat Mass	체중 Weight	표준범위	평가
체수분 (L) Total Body Water	35.0	47.6	90.1	28.4 ~ 34.7	☐ 양호 ☐ 부족	
단백질 (kg) Protein	9.4			7.6 ~ 9.3	☒ 양호 ☐ 부족	
무기질 (kg) Mineral	3.22			2.63 ~ 3.21	☐ 양호 ☐ 부족 ☒ 적다	
체지방 (kg) Body Fat Mass	42.5			11.2 ~ 17.9	☐ 표준 ☐ 과체중 ☐ 과체중	
						☐ 근육량 ☐ 표준 ☐ 부족 ☐ 과체중 ☐ 체지방 ☐ 표준 ☐ 부족 ☒ 과다

▶ 무기질은 주점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	UNIT%	표준범위
체중 (kg) Weight	90.1	45 70 100 115 130 145 160 175 190 205	90.1	47.4 ~ 64.2	☐ 표준 ☐ 과체중 ☒ 과체중	
골격근량 (kg) Skeletal Muscle Mass	26.2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26.2	21.2 ~ 25.9	☐ 표준 ☐ 과다비만 ☐ 과다비만	
체지방량 (kg) Body Fat Mass	42.5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42.5	11.2 ~ 17.9	☐ 표준 ☐ 과다비만 ☐ 과다비만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	표준범위
B M I (kg/m ²) Body Mass Index	33.9	10 15 16.5 21 23 30 35 40 45 50 55	33.9	18.5 ~ 23.0	
체지방률 (%) Percent Body Fat	47.1	5 15 20 25 30 35 40 45 50 55	47.1	18.0 ~ 28.0	
복부지방률 Waist-Fat Ratio	0.90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0.90	0.70 ~ 0.80	

체중조절 Weight Control		적정체중 62.0 kg
체중조절	- 28.1 kg	
지방조절	- 28.1 kg	
근육조절	0.0 kg	
신체발달	56Points	
기초대사량		1400cal

임피던스 Impedance		Z	RA	LA	TR	RL	LL
20kHz	314	338	28.3	207	208		
100kHz	283	306	25.3	185	186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일에 실수가 많다.	0				
2. 말하기 싫다.		0			
3. 가슴이 답답하다.		0			
4. 화가 난다.				0	
5. 안절부절못한다.	0				
6. 소화가 안된다.	0				
7. 배가 아프다.	0				
8. 소리를 지르고 싶다.		0			
9. 한숨이 나온다.	0				
10. 어지럽다.	0				
11. 만사가 귀찮다.	0				
12. 잡념이 생긴다.	0				
13. 쉽게 피로를 느낀다.	0				
14. 온몸에 힘이 빠진다.	0				
15. 자신감을 잃었다.	0				
16. 긴장된다.		0			
17. 몸이 떨린다.	0				
18.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0				
19. 의욕이 떨어졌다.	0				
20. 울고 싶다.		0			
21.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0				
22. 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0				
23. 멍하게 있다.	0				
24. 누군가를 미워한다.	0				
25. 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0				
26. 목소리가 커졌다.	0				
27. 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0				
28. 행동이 거칠어졌다.	0				
29.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0			
30. 말이 없어졌다.	0				
31.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0				
32. 가슴이 두근거린다.		0			
33.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0			
34. 지루하다.	0				
35. 참을성이 없다.	0				
36.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0				
37.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0				
38. 움직이기 싫다.	0				

→ InBody(체지방측정) 검사결과 C't의 운동 활동 전 몸무게는 90.1kg으로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백질·무기질·근육량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이 과다하고 심한 과체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MI(신체질량지수)로 측정 해봤을 때에도 33.91(고도비만)로 나왔다.

스트레스 척도를 통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4번 문항인 ‘화가 난다’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볼 수 있다. 이는 C’t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Body(체지방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 파악 후 상담한 결과 C’t 현재 자신의 비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작업 활동 시 이동 및 작업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또한, “C’t는 운동 활동을 통하여 현재 작업 활동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 될 수 있고, 신체적 기능 향상으로 인하여 피곤감이 줄고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상담 후 4월 2일부터 디딤돌 운동실을 이용하여 운동 활동을 진행함.

<4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4/2일	4/3일	4/7일	4/8일	4/9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1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18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6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5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6
4/10일	4/14일	4/15일	4/16일	4/17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km Kcal소모량: 134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1km Kcal소모량: 144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19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7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3
4/18일	4/22일	4/25일	4/28일	4/29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2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3km Kcal소모량: 154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3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2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km Kcal소모량: 135

→ 4월 한 달 총 15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4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4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5분
평균 이동거리	1.9km
평균 Kcal소모량	128kcal

2. 4월 운동 활동 후 2차 체지방측정을 실시함.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	27	163.5cm	F	2014. 5. 8/12:19	(3274)

남동 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 성분 분석	측정치	체지방량	체중	표준범위
체수분 (L)	35.7	48.5	87.3	28.6 ~ 34.9
단백질 (kg)	9.5			7.7 ~ 9.4
무기질 (kg)	3.31			2.65 ~ 3.23
체지방 (kg)	38.8			11.2 ~ 18.0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	UNIT%	표준범위
체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160 175 190 205	87.3	47.7 ~ 64.6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26.7	21.3 ~ 26.1		
체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38.8	11.2 ~ 18.0		

비만진단	표준이하	표준	표준이상	표준범위
B M I (kg/m ²)	10 15 18.5 21 23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32.7	18.5 ~ 23.0	
체지방률 (%)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44.4	18.0 ~ 28.0	
복부지방률	0.50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0.89	0.70 ~ 0.80	

영양평가	단백질	무기질	지방질
☒ 양호	☐ 부족	☐ 부족	☒ 과다

체중관리	체중	근육량	체지방
☐ 표준	☒ 많음	☐ 부족	☒ 많음

비만진단	B M I	체지방률	W H R
☐ 표준	☒ 저체중	☐ 경도비만	☒ 복부비만

체중조절	적정체중	현재체중	증체	체지방조절	현재체지방	증체	신체발달	기초대사량
	63.1	87.3	24.2		44.4	24.2	61	1418

임피던스	Z	RA	LA	TR	RL	LL
20kHz	330	349	26.1	207	201	
100kHz	298	316	22.8	187	181	

→ 운동 전과 시작 후 체지방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운동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과다하고 심한 과체중인 것을 볼 수 있지만 C't의 본인의 식사량조절 및 주기적인 운동 활동을 통하여 몸무게 2.8kg, 체지방 3.7kg이 감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MI(신체질량지수)에서도 33.91(고도비만)에서 33.86(고도비만)으로 0.05kg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교사는 C't의 4월 운동 활동 과정에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으며, C't도 자신의 체중감량을 통하여 작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초기 운동 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C't였지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운동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더 갖게 될 수 있었고, 5월 운동 활동부터 자발적으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였음.

→ 운동 활동 초기 단계이지만 체중감량을 통하여 C't의 자신감 향상 및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5/2일	5/7일	5/14일	5/16일	5/19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2km Kcal소모량: 145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7km Kcal소모량: 181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5km Kcal소모량: 102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79
5/20일	5/21일	5/22일	5/26일	5/27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5km Kcal소모량: 102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21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8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5km Kcal소모량: 105

→ 5월 한 달 총 10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5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5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5분
평균 이동거리	1.7km
평균 Kcal소모량	131kcal

3. 5월 운동 활동 후 3차 체지방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 파악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7 163.4cm F 2014. 6. 9/12:18 (3350)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체수분 Total Body Water (%)	36.6	49.6	86.6	28.6 ~ 34.9
단백질 Protein (kg)	9.7			7.7 ~ 9.4
무기질 Mineral (kg)	3.32			2.64 ~ 3.23
체지방량 Body Fat Mass (kg)	37.0			11.2 ~ 18.0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체중 Weight (kg)	64.5	47.7 ~ 64.5
골격근량 Skeletal Muscle (kg)	27.2	21.3 ~ 26.0
체지방량 Body Fat Mass (kg)	37.0	11.2 ~ 18.0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BMI Body Mass Index (kg/m²)	32.4	18.5 ~ 23.0
체지방률 Percent Body Fat (%)	42.8	18.0 ~ 28.0
복부지방률 Waist-Fat Ratio	0.87	0.70 ~ 0.80

체중조절

Weight Control

적정체중 Ideal Weight	64.5 kg
체중조절 Weight Change	- 22.1 kg
지방조절 Fat Change	- 22.1 kg
근육조절 Muscle Change	0.0 Points
신체발달 Physical Development	64 Points

기초대사량 1440 kcal

압파런스

Impedance

Z	RA	LA	TR	RL	LL
20kHz	310	321	25.3	194	187
100kHz	281	293	22.5	175	169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일에 실수가 많다.		0			
2. 말하기 싫다.		0			
3. 가슴이 답답하다.		0			
4. 화가 난다.		0			
5. 안절부절못한다.	0				
6. 소화가 안된다.	0				
7. 배가 아프다.	0				
8. 소리를 지르고 싶다.		0			
9. 한숨이 나온다.	0				
10. 어지럽다.	0				
11. 만사가 귀찮다.	0				
12. 잡념이 생긴다.	0				
13. 쉽게 피로를 느낀다.	0				
14. 온몸에 힘이 빠진다.	0				
15. 자신감을 잃었다.	0				
16. 긴장된다.		0			
17. 몸이 떨린다.		0			
18.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0			
19. 의욕이 떨어졌다.	0				
20. 울고 싶다.	0				
21.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0				
22. 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0				
23. 멍하게 있다.	0				
24. 누군가를 미워한다.	0				
25. 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0				
26. 목소리가 커졌다.	0				
27. 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0				
28. 행동이 거칠어졌다.	0				
29.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0				
30. 말이 없어졌다.	0				
31.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0				
32. 가슴이 두근거린다.		0			
33.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0				
34. 지루하다.	0				
35. 참을성이 없다.	0				
36.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0				
37.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0				
38. 움직이기 싫다.	0				

→ 4월과 5월 체지방측정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몸무게 0.7kg, 체지방1.8kg, BMI(신체질량지수)측정에서도 33.86(고도비만)에서 32.47(고도비만)으로 1.39kg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과 마찬가지로 몸무게 및 체지방이 감량이 되었지만 4월과 비교하였을 때 체중감량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운동 횟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단기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여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여야만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5월의 경우 4월과 비교하였을 때 규칙적인 운동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식사량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4월의 경우 점심식사 시 담당교사가 C't의 식사량을 조절하면 운동을 하였지만 5월의 경우 C't스스로 식사량조절을 하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결과 C't스스로 식사량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운동전과 마찬가지로 식사량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식사량이 많은 날이 더 많았기에 체중감량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정도 파악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운동전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및 작업 활동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결과 C't는 4월과 비교하여 체중감량이 덜 되어 6월 운동 활동 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운동 활동을 통하여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답하였음. 또한, 운동 전에는 점심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놀기만 하였는데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없고 시간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답변을 하였음.

→ 6월 운동 활동 시 규칙적인 운동 활동 및 식사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운동 활동을 통하여 C't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6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6/2일	6/4일	6/10일	6/11일	6/12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18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9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6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6km Kcal소모량: 110
6/16일	6/17일	6/18일	6/19일	6/24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5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4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6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7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1
6/26일	6/27일	6/30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25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18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0		

→ 6월 한 달 총 13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6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6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5분
평균 이동거리	1.8km
평균 Kcal소모량	124kcal

4. 6월 운동 활동 후 4차 체지방측정을 실시함.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7	163.7cm	F	2014. 7. 4/11:46	(3425)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측정치	표준	표준범위
체수분량(L)	36.2	49.1	84.8
단백질(kg)	9.6		
무기질(kg)	3.29		
체지방량(kg)	35.7		11.3 ~ 18.0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측정치	표준	표준범위
체중(kg)	70	84.8	47.8 ~ 64.7
골격근량(kg)	27.0		21.4 ~ 26.1
체지방량(kg)	35.7		11.3 ~ 18.0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측정치	표준	표준범위
BMI (kg/m²)	31.7		18.5 ~ 23.0
체지방률(%)	42.1		18.0 ~ 28.0
복부지방률	0.84		0.70 ~ 0.80

체중조절			
Weight Control	측정치	표준	표준범위
적체중조절	63.9 kg		
지체중조절	20.9 kg		
근육조절	0.0 kg		
신체발달	65 Points		
기초대사량	1431 kcal		

임피던스			
Impedance	측정치	표준	표준범위
Z	320		
RA	324		
LA	26.5		
TR	189		
RL	184		
LL	166		

→ 5월과 비교하였을 때 몸무게 1.8kg, 체지방 1.3kg이 감량되고 BMI(신체질량지수)측정 결과에서도 32.47(고도비만)에서 31.92(고도비만)로 0.55kg 감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과 6월 평균운동량을 비교하였을 때 운동 횟수가 3회 늘었지만 평균운동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식사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6월에는 담당교사가 C't의 식사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7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7/3일	7/7일	7/8일	7/9일	7/10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Kcal소모량: 118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9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6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6km Kcal소모량: 110
7/14일	7/18일	7/21일	7/22일	7/23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5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4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26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7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1

→ 7월 한 달 총 10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7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7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5분
평균 이동거리	1.8km
평균 Kcal소모량	125kcal

5. 7월 운동 활동 후 5차 체지방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 파악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27	163.6cm	M	2014. 8. 8/15:05 (3459)		

체 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측정치	체지방량	체중	표준범위
체수분 (L) Total Body Water	35.9	48.8	85.7	33.1 ~ 40.5	
단백질 (kg) Protein	9.6			8.9 ~ 10.8	
무기질 (kg) Mineral	3.29			3.06 ~ 3.74	
체지방 (kg) Body Fat Mass	36.9			7.1 ~ 14.1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표준범위	표준범위
체중 (kg) Weight	85.7	50.1 ~ 67.7	
골격근량 (kg) Skeletal Muscle Mass	26.9	25.0 ~ 30.5	
체지방량 (kg) Body Fat Mass	36.9	7.1 ~ 14.1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표준범위	표준범위
B M I (kg/m ²) Body Mass Index	32.0	18.5 ~ 23.0	
체지방률 (%) Percent Body Fat	43.0	10.0 ~ 20.0	
복부지방률 Waist Hip Ratio	0.92	0.75 ~ 0.85	

영양평가		☒ 양호 ☐ 부족	
단백질	☒ 양호 ☐ 부족	☐ 파다	
무기질	☐ 양호 ☐ 부족		
지방질	☐ 양호 ☐ 부족		
체중관리			
체중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근육량	☐ 표준 ☐ 많음 ☐ 부족		
체지방	☐ 표준 ☐ 부족 ☐ 많음		
비만진단			
B M I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체지방률	☐ 표준 ☐ 경도비만 ☒ 비만		
W H R	☐ 표준 ☐ 경계 ☐ 복부비만		
체중조절			
Weight Control	59.0 kg		
적정체중	- 26.7 kg		
체중조절	- 27.9 kg		
지방조절	+ 1.2 kg		
근육조절	51		
신체발달	1425 Points		
기초대사량	kcal		
임파던스			
Impedance	RA LA TR RI LL		
20kHz	330 328 27.1 198 191		
100kHz	298 298 23.7 178 172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일에 실수가 많다.		0			
2. 말하기 싫다.		0			
3. 가슴이 답답하다.		0			
4. 화가 난다.		0			
5. 안절부절못한다.	0				
6. 소화가 안된다.	0				
7. 배가 아프다.	0	0			
8. 소리를 지르고 싶다.		0			
9. 한숨이 나온다.	0				
10. 어지럽다.	0				
11. 만사가 귀찮다.	0				
12. 잠념이 생긴다.	0				
13. 쉽게 피로를 느낀다.	0				
14. 온몸에 힘이 빠진다.	0				
15. 자신감을 잃었다.	0				
16. 긴장된다.		0			
17. 몸이 떨린다.	0				
18.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0				
19. 의욕이 떨어졌다.	0				
20. 울고 싶다.	0				
21.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0				
22. 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0				
23. 멍하게 있다.	0				
24. 누군가를 미워한다.	0				
25. 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0			
26. 목소리가 커졌다.	0				
27. 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0				
28. 행동이 거칠어졌다.	0				
29.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0				
30. 말이 없어졌다.	0				
31.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0				
32. 가슴이 두근거린다.		0			
33.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0				
34. 지루하다.	0				
35. 참을성이 없다.	0				
36.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0				
37.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0				
38. 움직이기 싫다.	0				

→ 6월과 비교하였을 때 몸무게 0.9kg, 체지방 1.2kg이 증가하였다. BMI(신체질량지수)측정에서도 31.92(고도비만)에서 32.26(고도비만)으로 0.34kg 증가하였고, WHR(복부지방률)또한 경계에서 복부비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측정에서도 4월, 6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결과 C't는 몸무게가 증가한 이유로 식사량조절 실패 및 하계휴가를 원인으로 뽑았으며, 몸무게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다음 달 식사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함.

<8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8/4일	8/5일	8/6일	8/7일	8/8일
운동시간: 22분 이동거리: 1.4km Kcal소모량: 94	운동시간: 23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2	운동시간: 20분 이동거리: 1.4km Kcal소모량: 90	운동시간: 20분 이동거리: 1.3km Kcal소모량: 91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28
8/21일	8/22일	8/25일	8/26일	8/27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Kcal소모량: 13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1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0km Kcal소모량: 138	운동시간: 20분 이동거리: 1.3km Kcal소모량: 88	운동시간: 20분 이동거리: 1.7 Kcal소모량: 107
8/28일	8/29일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2.0km Kcal소모량: 140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9km Kcal소모량: 139			

→ 8월 한 달 총 13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8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8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1분
평균 이동거리	1.5km
평균 Kcal소모량	108Kcal

6. 8월 운동 활동 후 6차 체지방측정을 실시함.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7 163.2cm F 2014. 9. 12/11:09 (3528)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체 수 분 Total Body Water (%)	35.6	48.2	84.3	28.5 ~ 34.8
단 백 질 Protein (kg)	9.4			7.6 ~ 9.3
무 기 질 Mineral (kg)	3.23			2.64 ~ 3.22
체 지 방 Body Fat Mass (kg)	36.1	11.2 ~ 17.9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표준										비율															
Muscle-Fat Analysis																																			
체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160	175	190	205																							
										84.3										47.5 ~ 64.3															
골격근량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Skeletal Muscle Mass		26.5										21.2 ~ 26.0																							
체지방량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Body Fat Mass	(kg)	36.1										11.2 ~ 17.9																							

비 만 진 단										표 준										표 준 외 상										표 준 외 상									
Obesity Diagnosis																																							
B M I (kg/m ²)										Body Mass Index																													
0 5 10 15 18.5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18.5 ~ 23.0										23.0 ~ 25.0										25.0 ~ 27.0									
31.6																																							
체 지 방 률 (%)										Percent Body Fat																													
8 13 18 23 28 33 38 43 48 53 58										18.0 ~ 28.0										28.0 ~ 30.0										30.0 ~ 32.0									
42.9																																							
복 부 지 방 률										Waist-Hip Ratio																													
0.50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0.70 ~ 0.80										0.80 ~ 0.85										0.85 ~ 0.90									
0.85																																							

영양평가	단 백 질 ☒ 양호 ☐ 부족	
무 기 질	☒ 양호 ☐ 부족	
지 방 질	☐ 양호 ☐ 부족 ☒ 과다	

체중관리	체 중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근 육 량	☒ 표준 ☐ 많음 ☐ 부족	
체 지 방	☐ 표준 ☐ 부족 ☒ 많음	

비만진단	B M I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 심한과체중	
체지방률	☐ 표준 ☐ 경도비만 ☐ 비만	
W H R	☐ 표준 ☒ 경계 ☐ 복부비만	

체 중 조 절 Weight Control				
적 정 체 중	62.6	kg		
체 중 조 절	- 21.7	kg		
지 방 조 절	- 21.7	kg		
근 육 조 절	0.0	kg		
신 체 발 달	63	Points		
기 초 대 사 량	1410	kcal		

임 피 던 스 Impedance					
Z	RA	LA	TR	RL	LL
20kHz	317	319	27.3	199	191
100kHz	286	291	24.7	179	172

→ 체지방측정 결과 7월과 비교하여 몸무게 1.4kg, 체지방 0.8kg의 감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월과 비교하여 평균운동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몸무게가 감소된 이유로는 꾸준한 운동 활동 및 식사량조절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담결과 C't는 매월 꾸준한 체중감량을 통하여 운동 초기보다 자존감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의 이동이 수월해진 것에 큰 만족감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작업장의 특성상 작업물품이 쌓이게 되면 이동경로가 좁고 불편해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체중감량으로 해결됐다고 상담 시 답하여 운동 활동에 큰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9월 운동 활동 후 7차 체지방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 파악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7 163cm F 2014. 10. 13/10:31(3597)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체 수 분	33.7	45.7	81.6	28.4 ~ 34.7
단 백 질	8.9			7.6 ~ 9.3
무 기 질	3.12			2.63 ~ 3.21
체 지 방	35.9	11.2 ~ 17.9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표준 이하				표준				표준 이상				
체중 (kg)	55	70	85	100	115	130	145	160	175	190	205		
	81.6												47.4 ~ 64.2
골격근량 (kg)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25.0												21.2 ~ 25.9
지방량 (kg)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35.9												11.2 ~ 17.9

비 만 진 단													비 만 진 단										
Obesity Diagnosis													Obesity Diagnosis										
표준 이하													표준		표준 이상		기준 범위						
B M I	10	15	18.5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30.7	18.5 ~ 23.0
Body Mass Index (kg/m ²)																							
체 지 방 률 (%)													체 지 방 률 (%)		기준 범위								
Percent Body Fat (%)	8	13	18	23	28	33	38	43	48	53	58	44.0	18.0 ~ 28.0										
Percent Body Fat (%)																							
복 부 지 방 률													복 부 지 방 률		기준 범위								
Waist-Hip Ratio	0.50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0.85	0.70 ~ 0.80								
Waist-Hip Ratio																							

영양평가	단 백 질 ☒ 양호 ☐ 부족	
무 기 질	☒ 양호 ☐ 부족	
지 방 질	☐ 양호 ☐ 부족 ☒ 과다	

체중관리	체 중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근 육 량	☒ 표준 ☐ 많음 ☐ 부족	
체 지 방	☐ 표준 ☐ 부족 ☒ 많음	

비만진단	B M I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 심한과체중	
체지방률	☐ 표준 ☐ 경도비만 ☐ 비만	
W H R	☐ 표준 ☐ 경계 ☐ 복부비만	

체 중 조 절 Weight Control				
적 정 체 중	59.4	kg		
체 중 조 절	- 22.2	kg		
지 방 조 절	- 22.2	kg		
근 육 조 절	0.0	kg		
신 체 발 달	60	Points		
기 초 대 사 량	1357	kcal		

153

임 피 던 스 Impedance					
Z	RA	LA	TR	RL	LL
20kHz	341	355	28.8	211	209
100kHz	308	323	25.7	190	188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일에 실수가 많다.		○			
2. 말하기 싫다.		○			
3. 가슴이 답답하다.	○				
4. 화가 난다.	○				
5. 안절부절못한다.		○			
6. 소화가 안된다.	○				
7. 배가 아프다.	○				
8. 소리를 지르고 싶다.	○				
9. 한숨이 나온다.	○				
10. 어지럽다.	○				
11. 만사가 귀찮다.	○				
12. 잡념이 생긴다.	○				
13. 쉽게 피로를 느낀다.	○				
14. 온몸에 힘이 빠진다.	○				
15. 자신감을 잃었다.	○				
16. 긴장된다.		○			
17. 몸이 떨린다.	○				
18.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				
19. 의욕이 떨어졌다.	○				
20. 울고 싶다.	○				
21.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				
22. 내가 하는 일에 전망이 없다.	○				
23. 멍하게 있다.	○				
24. 누군가를 미워한다.	○				
25. 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				
26. 목소리가 커졌다.	○				
27. 마음이 급해지거나 일에 쫓기는 느낌이다.	○				
28. 행동이 거칠어졌다.	○				
29.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				
30. 말이 없어졌다.	○				
31.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				
32. 가슴이 두근거린다.	○				
33.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				
34. 지루하다.	○				
35. 참을성이 없다.	○				
36.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				
37.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				
38. 움직이기 싫다.	○				

→ 9월의 경우 추석연휴 및 작업량이 많아 점심시간 작업하는 날이 많아 전월에 비하여 운동 횟수가 줄었지만 체지방측정 결과 몸무게 2.7kg, 체지방 0.2kg 감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결과 C't는 점심시간 운동실 활용을 하지 못하여 퇴근 후 개별적으로 운동을 하고, 가정에서도 식사량 조절 및 간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체중이 감량된 것으로 생각됨.

스트레스측정에서도 이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임. 향후 지속적인 운동 활동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체중감량 및 자존감·개인유지발달 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9/15일	9/17일	9/22일	9/23일	9/24일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8km	이동거리: 1.9km	이동거리: 2.0km	이동거리: 2.0km	이동거리: 2.0km
Kcal소모량: 138	Kcal소모량: 138	Kcal소모량: 137	Kcal소모량: 136	Kcal소모량: 139
9/26일	9/29일			
운동시간: 17분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3km	이동거리: 2.1km			
Kcal소모량: 88	Kcal소모량: 144			

→ 9월 한 달 총 7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9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9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3분
평균 이동거리	1.8km
평균 Kcal소모량	131Kcal

8. 10월 운동 활동 후 8차 체지방측정을 실시함.

I.D. 연령 신장 성별 측정일시

27 163cm F 2014. 11. 12/12:22(3665)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
Tel : 032) 472 - 0340

체성분분석
Body Composition Analysis

체수분 (L) Total Body Water	33.9	28.4 ~ 34.7
단백질 (kg) Protein	9.0	7.6 ~ 9.3
무기질 (kg) Mineral	3.20	2.63 ~ 3.21
체지방량 (kg) Body Fat Mass	34.9	11.2 ~ 17.9

▶ 무기질은 추정치입니다.

골격근-지방
Muscle-Fat Analysis

체중 (kg) Weight	81.0	47.4 ~ 64.2
골격근량 (kg) Skeletal Muscle Mass	25.3	21.2 ~ 25.9
체지방량 (kg) Body Fat Mass	34.9	11.2 ~ 17.9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B.M.I (kg/m ²) Body Mass Index	30.5	18.5 ~ 23.0
체지방률 (%) Percent Body Fat	43.1	18.0 ~ 28.0
복부지방률 Waisting Ratio	0.88	0.70 ~ 0.80

영양평가
Nutrition Evaluation

영양평가 ☒ 양호 ☐ 부족
단백질 ☒ 양호 ☐ 부족
무기질 ☐ 양호 ☐ 부족
지방질 ☐ 양호 ☐ 과다

체중관리
Weight Management

체중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근육량 ☐ 표준 ☐ 양음 ☐ 부족
체지방 ☐ 표준 ☐ 부족 ☒ 많음

비만진단
Obesity Diagnosis

B.M.I ☐ 표준 ☐ 저체중 ☐ 과체중
체지방률 ☐ 표준 ☐ 과다
W.H.R ☐ 표준 ☐ 경계 ☐ 복부비만

체중조절
Weight Control

적정체중	59.9 kg
체중조절	- 21.1 kg
지방조절	- 21.1 kg
근육조절	0.0 kg
신체활동	62 Points
기초대사량	1366 kcal

임피던스
Impedance

	RA	LA	TR	RL	LL
20kHz	359	354	27.6	224	220
100kHz	325	321	24.7	200	196

→ 전월과 비교하여 몸무게 0.6kg, 체지방 1.0kg이 감량된 것을 볼 수 있다. 10월의 경우 작업, 휴일, 여행 일정으로 전월에 비하여 운동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상담결과 C't는 전월에 비하여 개별적인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지난 운동 활동 때와 다르게 체중감량이 더딘 것을 확인한 후 복지관 운동실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향후 복지관 운동실 이용 외에도 개별적인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월 운동 활동 결과>

디딤돌 운동실 런닝머신 이용				
10/1	10/2	10/6	10/7	10/8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운동시간: 25분
이동거리: 1.7km	이동거리: 1.8km	이동거리: 2.1km	이동거리: 1.6km	이동거리: 2.2km
Kcal소모량: 133	Kcal소모량: 136	Kcal소모량: 138	Kcal소모량: 121	Kcal소모량: 149

→ 10월 한 달 총 5일간 운동 활동을 진행함. 10월 평균 운동량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0월 평균 운동량>

평균 운동시간	25분
평균 이동거리	1.8km
평균 Kcal소모량	135Kcal

IV. 최종평가

1) 목표평가

- 매월 운동 활동 결과 당초 목표였던 5kg 많은 9.1kg 감량에 성공하였음.
- 초기 운동 활동 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운동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주기적인 운동 활동을 통하여 C't 스스로 운동실 이용 및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2) 과정평가

- 당초 목표였던 주 3~4회의 운동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당초 목표였던 5kg 이상 감량되었음.
- 체중감량을 통하여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작업 등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V. 결론 및 향후계획

운동 활동을 통하여 C't 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3월~10월 까지 총 7개월의 운동 활동을 실시하였고, 매달 운동 활동 후 체지방측정 및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운동 활동 결과 당초 목표였던 5kg 감량보다 9.1kg 감량에 성공하였고, 체중감량을

통하여 C't는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작업장 등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초기 상담 시 나타났던 C't의 고심 이었던 고혈압 문제도 체중 감량을 통하여 초기보다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기적인 운동 활동으로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운동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향후 지속적으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스트레스반응척도 개발(고경봉, 박중규, 김찬형)
-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자존감, 신체적 자아효능감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정복자,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산소성 운동이 지적장애학생의 기초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대구대학교, 김희수, 학위논문(석사))
- 유산소 운동이 지적장애인의 혈중호르몬 변화에 미치는 영향(가야대학교, 강병일)

직업 훈련을 통한 작업정확도와 작업지속력에 관한 연구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윤성호 직업재활사
연구기간	2014.03.10. ~ 2014.11.21. / 126회



노동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윤성호

◎ 주 제 : 직업훈련을 통한 작업정확도와 작업지속력의 관한 연구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백 ○ ○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77.08.19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2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20-33 해창아파트 3-○○○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1-216-○○○○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적이 있음. c't는 영화 중학교(일반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로 진학하였으나 외모에서 장애가 나타나 친구들이 싫다고 하고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중퇴를 결정함. 고등학교 2학년 중퇴 후 직업훈련이나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집에서 시간을 보냄. 집에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너무 긴 형향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출되는 것을 두려하며, 잠재적인 능력도 개발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짐. 인천 장애인복지관에서 평가를 받았으나 본인이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음. c't는 보호작업시설 이용 욕구가 있었음.

누나의 집에서 매형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조카와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어있음. 열린일터에는 2010년 4월 12일에 입소하였고 2011년 8월 19일에 서비스 종결 되었으나 2012년 3월 19일 열린일터에 재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c't는 작업에 관한 이해도는 높으나 작업에 관한 의욕과 집중력이 낮아 불량률이 매우 높고 작업량이 저조하며, 작업지속력이 낮음. 작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활기차지만 아침 작업 활동을 하는 도중과 점심식사 후 작업 활동도중 앉아서 조는 경우가 자주 보임.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0년 4월 12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열린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3. 사례선정 사유

c't는 열린일터에서 2011년 8월 서비스 종결 후 2012년 3월에 다시 열린일터 재입소를 한 경험이 있음.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작업에 집중도와 의욕이 떨어지고 작업 지속력이 떨어짐. 작업 활동 전에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만 작업 활동이 시작되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뒤 앉아서 조는 경우가 자주 보임. 이로인하여 작업량이 매우 적고, 적은 작업량 안에서 작업 불량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c't의 작업량 향상도 중요하지만 적은 작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작업 활동으로 불량률을 줄이면서 업체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c't의 작업능력(불량률 감소 와 작업량 증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례를 선정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는 열린일터에서 2011년 8월 서비스 종결 후 2012년 3월에 다시 열린일터 재입소함.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열린일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업능력이 늘지 않고 적은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음. 불량 제품이 열린일터에서 업체로 인계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업체에 큰 불이익을 줄 수 가 있음. 이로 인해 업체로 인계 전 제품 불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량검사로 인하여 다른 제품들의 작업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업체의 제품 인계기간에 맞추주기 매우 촉박함. c't의 작업량 향상도 중요하지만 적은 작업량 속에서도 정확한 작업으로 불량률이 감소하게 되면 불량검사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다른 제품의 작업량도 향상시킬 수 있음. c't의 불량률 감소 훈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작업량 향상 훈련도 병행이 필요할 것임.

2. 사례 개입 계획

- (1) 현상태 파악 : c't의 1일 작업량과 불량률 체크
- (2) 작업의 목표량 달성도를 체크하고 달성한 작업량에서 불량률을 확인
- (3) 계속적인 관찰로 불량률 확인과 작업의 집중력과 지속력의 상승 훈련 실시
- (4) 작업 활동 도중에 조는 행동을 감소시키며 작업량 향상 훈련 실시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 직업 훈련으로 작업의욕과 작업에 대한 집중력, 작업 지속력을 향상시키며 보호작업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

-단기 : 제품의 불량률 감소와 적은 작업량 속에서 작업정확도 향상.

4. 진행상황

c't의 1일 작업량을 바탕으로 불량률 파악과 작업시간 도중 졸지 않고 작업 활동에 집중하면서 작업지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c't와 정한 1일 작업 목표량 달성도여부를 확인하였음.

1) 진행상황

일 시	구 분	내 용
4/1~4/25	c't 작업량 및 불량률 조사	한 달 동안 c't의 1일 작업량 및 불량률을 조사하였음.
4/30	상담 실시	한 달 동안 c't가 수행한 1일 작업량 및 불량률을 알려 준 뒤 c't와 같이 1일 목표 작업량을 결정하였음.
5/7~5/29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5/30	상담 실시	c't에게 한달동안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횟수를 알려준 뒤 목표 작업량을 수정하였음.
6/2~6/27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6/30	상담 실시	c't에게 한달동안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횟수를 알려준 뒤 목표 작업량을 수정하였음.
7/1~7/25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8/4~8/22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8/29	상담 실시	c't에게 한달동안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횟수를 알려준 뒤 목표 작업량을 수정하였음.
9/1~9/29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10/1	상담 실시	c't에게 한달동안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횟수를 알려준 뒤 목표 작업량을 수정하였음.
10/1~11/20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 조사	c't의 작업량과 불량률, 목표 작업량 달성 유무를 조사하였음.

2) 작업량 및 불량률 확인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불량	불량률	작업량 달성유무
4/1	미 실시	389	25	0.064	미 실시
4/2	미 실시	361	24	0.066	미 실시
4/3	미 실시	323	25	0.077	미 실시
4/4	미 실시	349	27	0.077	미 실시
4/7	미 실시	334	30	0.089	미 실시
4/8	미 실시	348	29	0.083	미 실시
4/9	미 실시	318	28	0.088	미 실시
4/11	미 실시	342	20	0.058	미 실시
4/14	미 실시	357	22	0.061	미 실시
4/15	미 실시	356	28	0.078	미 실시
4/16	미 실시	339	23	0.067	미 실시
4/17	미 실시	369	31	0.084	미 실시
4/21	미 실시	378	23	0.061	미 실시
4/22	미 실시	389	27	0.069	미 실시
4/24	미 실시	365	35	0.095	미 실시
4/25	미 실시	386	30	0.077	미 실시
평균	미 실시	356	26	0.074	미 실시
5/2	350	360	20	0.055	달성
5/7	350	369	28	0.075	달성
5/8	350	344	34	0.098	미달성
5/9	350	354	36	0.101	달성
5/12	350	378	30	0.079	달성
5/13	350	389	31	0.079	달성
5/14	350	352	35	0.099	달성
5/15	350	361	26	0.072	달성
5/16	350	320	29	0.091	미달성
5/19	350	361	25	0.069	달성
5/20	350	341	21	0.061	미달성
5/22	350	351	34	0.096	달성
5/23	350	368	36	0.097	달성
5/26	350	390	30	0.076	달성
5/27	350	384	28	0.072	달성
5/28	350	340	29	0.085	미달성
5/29	350	324	33	0.101	미달성
평균	350	358	29	0.082	달성12회/미달성5회
6/2	380	368	21	0.057	미달성
6/3	380	361	29	0.08	미달성

6/9	380	370	30	0.081	미달성
6/10	380	362	25	0.069	미달성
6/11	380	386	39	0.101	달성
6/12	380	375	21	0.056	미달성
6/16	380	380	34	0.089	달성
6/17	380	369	20	0.054	미달성
6/18	380	357	26	0.072	미달성
6/19	380	370	25	0.067	미달성
6/23	380	377	29	0.076	미달성
6/24	380	386	38	0.098	달성
6/25	380	371	29	0.078	미달성
6/26	380	368	32	0.086	미달성
6/27	380	362	22	0.061	미달성
평균	380	370	28	0.075	달성3회/미달성12회
7/1	370	369	25	0.067	미달성
7/2	370	371	21	0.056	달성
7/3	370	375	30	0.08	달성
7/4	370	364	27	0.074	미달성
7/7	370	368	29	0.078	미달성
7/8	370	361	22	0.06	미달성
7/9	370	379	31	0.081	달성
7/10	370	382	37	0.096	달성
7/11	370	372	33	0.088	달성
7/15	370	364	27	0.074	미달성
7/17	370	350	18	0.051	미달성
7/18	370	361	24	0.066	미달성
7/19	370	366	22	0.06	미달성
7/21	370	375	27	0.072	달성
7/22	370	372	20	0.053	달성
7/23	370	379	26	0.068	달성
8/4	370	386	38	0.098	달성
8/5	370	380	39	0.102	달성
8/6	370	367	28	0.076	미달성
8/7	370	360	24	0.066	미달성
8/12	370	375	30	0.08	달성
8/13	370	379	26	0.068	달성
8/14	370	365	27	0.073	미달성
8/18	370	369	30	0.081	미달성
8/19	370	354	21	0.059	미달성

8/20	370	367	27	0.073	미달성
8/21	370	370	36	0.097	달성
8/22	370	377	34	0.09	달성
평균	370	369	27	0.074	달성14회/미달성14회
9/1	380	379	30	0.079	미달성
9/2	380	381	25	0.065	달성
9/3	380	385	29	0.075	달성
9/4	380	380	24	0.063	달성
9/5	380	375	27	0.072	미달성
9/11	380	370	31	0.083	미달성
9/12	380	377	33	0.087	미달성
9/15	380	381	27	0.07	달성
9/16	380	383	26	0.067	달성
9/17	380	380	24	0.063	달성
9/18	380	375	29	0.077	미달성
9/19	380	381	30	0.078	달성
9/22	380	383	31	0.08	달성
9/23	380	386	27	0.069	달성
9/24	380	380	28	0.073	달성
9/25	380	377	33	0.087	미달성
9/26	380	381	30	0.078	달성
9/29	380	389	28	0.071	달성
평균	380	380	28	0.074	달성12회/미달성6회
10/1	385	386	30	0.077	달성
10/2	385	385	26	0.067	달성
10/7	385	384	33	0.085	미달성
10/8	385	380	34	0.089	미달성
10/13	385	379	30	0.079	미달성
10/20	385	387	27	0.069	달성
10/21	385	386	30	0.077	달성
10/22	385	385	31	0.08	달성
10/24	385	380	33	0.086	미달성
10/27	385	377	34	0.09	미달성
10/28	385	375	32	0.085	미달성
10/29	385	379	30	0.079	미달성
10/30	385	387	29	0.074	달성
평균	385	382	31	0.08	달성6회/미달성7회
11/3	385	386	27	0.069	달성
11/4	385	385	29	0.075	달성
11/5	385	383	30	0.077	미달성
11/7	385	382	28	0.072	미달성
11/10	385	379	28	0.072	미달성
11/18	385	387	30	0.077	달성
11/19	385	388	31	0.08	달성
11/20	385	386	27	0.069	달성
평균	385	385	29	0.074	달성5회/미달성3회

5. 평가

1) 목표평가

- 한 달 동안 c't의 1일 작업량을 파악하여 c't와 상담으로 다음 달 작업 목표량을 결정하고 c't의 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조금씩 작업집중력과 의욕이 저하 되면서 작업시간 도중 조는 경우가 많아 목표 작업량 미달성 횟수가 달성 횟수보다 많음.
- 작업시간 도중 졸지 않도록 작업집중력과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작업 생산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작업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었음. 그러나 빨라진 속도와는 반대로 작업정확도는 떨어져 목표 작업량을 달성한 불량률이 미달성한 불량률 보다 근소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하청업체로 부터의 작업 물량확보가 어려웠으나 c't의 작업활동으로 장기적 목표였던 보호작업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c't의 작업 집중력 및 지속력을 근소하게 향상 시킬 수 있었음.

2) 과정평가

- 초기계획 한 것에 맞게 1일 작업량과 불량률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2번째 상담에서 목표 작업량을 c't의 작업능력보다 너무 높게 수정하여 작업시간 도중 c't의 작업집중력과 의욕이 저하되어 작업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미달성 횟수가 많이 측정되었음.
- 작업시간 도중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c't에게 점심시간동안 잠깐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청업체로부터 작업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c't의 1일 작업량을 매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3)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사례연구는 직업훈련이 지적장애인의 작업지속력과 작업정확도 향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하청업체로 부터 작업물량이 확보되지 않았고 작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일 c't의 1일 작업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결과 c't의 1일 작업목표량 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달성 횟수가 총 52회 미달성 횟수가 총 47회 관찰할 수 있었으며 c't의 현재 작업량이 초기 작업량보다 근소하게 증가 하였으나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고 7%~8%를 계속 유지 하였다. 작업 목표량 미달성이 이루어진 날에는 c't가 작업시간 도중 조는 행동이 많았고 그에 따라 집중력도 크게 떨어져 작업속도 및 작업활동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c't와 상담을 통해 1일 목표량을 정하여 목표량 도달을 위해 작업속도를 근소하게 증가시켜 현재 c't의 작업량을 향상시켰으나 정확한 작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량률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적은 수치여서 감소했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이번 사례연구로 직업훈련을 통해 c't의 작업능력과 속도를 근소하게 높일 수는 있었으나 불량률을 낮추기 힘들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업훈련으로 작업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증진이 정신분열증을 가진 이용인의 작업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이보경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4.1. ~ 2014.10.30. / 23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이보경

◎ 주 제 : 자아존중감 증진이 정신분열증을 가진 이용인의 작업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조준희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0.12.27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3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간석4동 229-1 청실A ○○○				
전화번호	032) 561-○○○○		핸드폰	010-7757-○○○○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2남 중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아버지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엄격한 편이고 어머니와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동암초, 상인천중, 인제고 특수학급 졸업 후 미추홀 전공과 졸업하였음. 미추홀에서 수건, 환자복 접기 등의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었으나 힘들어하여 20일만에 종결함. 고교 졸업 후 결벽증상이 나타나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중이고 보호작업장 이용 시작 즈음 화장실에서 오래 서있거나 한 곳을 응시하는 이상행동이 나타남. 보호작업장 이용 중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은 바가 있음.

(3) 주호소 내용

ct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아카데미를 다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작업장 이용을 희망함. 현재 작업능력은 최상위 그룹이나 작업의욕이 낮고 정서적 불안으로 인하여 작업생산성 및 태도는 최하위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직업 훈련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한 작업량 및 기능의 향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욕구가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직업12-06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보호작업장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클라이언트는 작업 능력 평가 결과 직업적인 수준은 준 기능직 수준이며 작업 능력 및 이해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이나 정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냄. 정서적 불안 및 위축, 강박행동 그리고 작업에 대한 의욕이 낮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작업량과 기능을 나타내고 있음.

클라이언트가 근로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아존중감 증진과 함께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통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정신분열병증을 겪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서적 고립과, 위축 열등감이 내재된 상태임. 이로 인해 적극적인 지지와 올바른 칭찬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함.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능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위축, 불안, 작업에 대한 낮은 의욕으로 인해 작업생산량과 기능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 하고자 함.

2. 사례 개입 계획

1) 현상태 파악

- ① ct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작업생산성 및 태도를 파악한다.
- ② ct의 자아존중감 상태를 파악한다.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2) 진행 과정 계획

- ① 주1회 이상 작업장에서의 ct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② 격월로 자아존중감 및 작업능력상태를 파악하여 변화를 확인한다.
- ③ 월1회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사후 평가 계획 등

- ① 격월로 작성한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증진 변화를 측정한다.
- ② 개입 전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의 점수를 비교하여 작업능력 및 생산성, 태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

- ① ct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작업능력을 향상시킨다.

2) 단기

- ① ct의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가 월 2점 이상 향상 될 수 있다.
- ② ct의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 점수가 10점 이상 향상 될 수 있다.

4. 진행상황

날짜	내용
4/1	-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통한 작업능력 파악 (1회) -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한 자아존중감 상태 파악 (1회)
4/8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1)</u> - ‘나의 자랑’ 이라는 활동명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소 깨닫지 못했던 자랑할 점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3~4분간 자신의 장점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한 뒤, 크고 작은 긍정적 부분들을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ct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많이 웃으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고 이야기함. ct가 생각하는 장점 외에도 담당자가 생각하는 ct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ct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직장 동료나 선생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지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4/9	<u>*방송댄스 참석 및 개별상담</u> - 주1회 방송댄스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소극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보여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 후 전보다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프로그램 종료 후 ct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잘하고 있다는 지지와 함께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함. ct 또한 방송댄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으며 밝은 모습을 보임.

날짜	내용
5/13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2)</u>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활동명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사람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짐. ct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답함. 혼자 살아가면 외롭겠지만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함.
6/11	-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통한 작업능력 파악 (2회) -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한 자아존중감 상태 파악 (2회)
6/26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3)</u> - ‘내 얼굴의 시간표’라는 활동명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초기보다 ct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해 본 후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함. 지난 주말의 일과 중 좋았던 일을 생각해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으니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함. 그 때의 ct의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해 물으니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함. ct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ct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7/22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4)</u> - ‘애칭짓기’라는 활동명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자신의 부정적 모순에서 탈피해 자신이 좋아하는 애칭을 지어 이야기하도록 지원함. 애칭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흐뭇하고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함. ct가 생각하는 자신의 애칭으로 구름이라고 이야기함. 구름이라고 답한 이유를 묻자 구름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고, 집으로 돌아가면 구름을 볼 수 없어 아쉽다고 이야기함. 상담을 통한 결과 ct는 직장동료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하반기 계획에는 ct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1회기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좋을 것으로 생각됨.

7/26	<u>*동아리활동(노래교실) 참석 및 개별상담</u> - 동아리 활동으로 노래교실에 참여하여 노래연습장을 이용함. 자신의 순서가 왔을 때 머뭇거리고 작은 목소리로 불러 앞에 나와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함.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임. 점수가 높게 나와 담당자와 이용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하자 ct 또한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8/12	-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통한 작업능력 파악 (3회) -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한 자아존중감 상태 파악 (3회)
8/19	<u>*개별관찰 및 상담(작업태도 관련)</u> -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ct의 작업태도와 관련해서 별다른 변화를 관하지 못함. 금일도 ct가 작업시간에 다른 이용인들과 떠돌고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개별상담을 실시함. ct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업적인 능력은 최상위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 ct도 알았다고 답함. ct또한 근로자로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작업적인 부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2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5)</u> - ‘감정인식 및 감정조절법’이라는 활동명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속에서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이야기함. ct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감정들을 억압하고 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속적으로 ct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17	<u>*개별관찰 및 상담(작업 불량 관련)</u> - 작업 불량과 관련하여 개별상담 실시함. 작업 중 집중력이 낮고 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업량과 작업능력은 보임. 금일도 충분히 ct가 할 수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량으로 인해 상담을 실시함. ct에게 불량이 계속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자신이 집중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함.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고 수정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담당자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자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함. ct의 작업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더 집중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7	<u>*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진행(6)</u> -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새마음 새기기’라는 활동명으로 진행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정리하고 이전과 이후의 자신을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 나에게 도움이 된 점, 잘한 점 등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ct가 즐거웠고 자신의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함. 수치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지만 ct가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은 변화된 것 같고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장에서도 집에서나 즐겁게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ct도 웃으며 알았다고 이야기함.
10/15	-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통한 작업능력 파악 (4회) -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한 자아존중감 상태 파악 (4회)

5. 중간평가

(1) 목표평가

- ① ct의 자아존중감 측정은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점 40점임. 초기선 측정 포함 4의 측정이 이루어졌음.

1회(초기)-4월	15점으로 37.5%의 자아존중감 상태를 나타냄.
2회-6월	16점으로 40.0%의 자아존중감 상태를 나타냄.
3회-8월	19점으로 47.5%의 자아존중감 상태를 나타냄.
4회-10월	18점으로 45.0%의 자아존중감 상태를 나타냄.

4번의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7.5%의 점수 향상이 나타남.

초기에 ct의 자아감 증진 및 작업장에서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작업 상황 및 외부 상황들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② ct의 작업적 능력은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총점 80점임.

1회(초기)-4월	46점으로 57.5%의 작업적 능력을 나타냄.
2회-6월	47점으로 58.8%의 작업적 능력을 나타냄.
3회-8월	49점으로 61.3%의 작업적 능력을 나타냄.
4회-10월	46점으로 57.5%의 작업적 능력을 나타냄.

근로자선정체크리스트를 통한 ct의 작업적 능력 변화는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점수의 폭이 오르다 마지막 측정 시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자아존중감 점수향상에 비해 작업적 능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음. 작업장에서의 개별관찰에서도 초기와 비교하여 작업적 태도 및 생산성 부분에서 기대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2) 과정평가

- 월 1회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ct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자존감 및 자신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작업장에서의 ct에 대한 작업 능력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작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능력부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ct의 작업적인 능력을 파악하기에 개별관찰 및 지원이 부족하여 작업적인 능력을 판단하고 수치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ct가 현재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미술치료를 주1회 함께 하고 있어 자존감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됨.

3) 결론 및 향후계획

- 총 23회기에 걸쳐 정신분열증을 가진 이용인의 자아존중감 증진이 작업적인 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6회기에 걸쳐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격월로 자아존중감측정과 작업적능력을 측정하였다. ct가 사례연구 기간 본 시설에서 진행되는 미술심리치료를 함께 병행하여 자아존중감증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술심리치료라는 변수로 인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자아존중감과 작업적능력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사례 연구의 타당성도 낮다고 사료된다.

사례 연구 결과 ct의 자아존중감증진이 작업적능력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며 두 개의 변수의 연관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ct의 작업능력향상을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좀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관찰이 요구되지만, 본 사례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들어가 작업능력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ct의 작업능력이 우수한 편이므로, 작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장에서의 체계적인 개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작업능력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ct의 우울감 및 낮은 자존감이 증진된다면 작업능력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요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재활치료2팀
연구자	권윤희 언어치료사
연구기간	2014.3.5. ~ 2014.11.11. / 총 44회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권윤희

◎ 주 제 : 동요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김**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1.02.15				
장애명	미등록	급수	-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전화번호	032) 〇〇〇-〇〇〇〇		핸드폰	010-〇〇〇〇-〇〇〇〇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2011년생으로 인하대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소견 받음. 제왕절개로 3.3kg로 출산하였고 신체, 언어 전반적인 발달지체를 보이고 있음. 너무 어려서 8개월 정도 후에 발달검사예정이었으나 현재 장애진단 받지 않음. 2014년 3월부터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음.

c't는 40세의 아버지와 33세의 어머니, 6세의 형이 있음.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 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형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가족모두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c't에게 관심이 많고 다정다감 하신편임. 형도 c't와 잘 놀아주고 아낀다고 함.

(3) 주호소 내용

-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가 낮고 언어발달이 늦음
- 최근 언어표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단어, 문장 끝만 따라 말하고 자발발화 하는 경향이 많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11.06.29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미술치료, 감각통합, 언어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통합 어린이집 이용

3. 사례선정 사유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성장속도와 행동발달 느린데 그 중 언어발달이 가장 늦다. 사례 선정한 아동도 다른 발달 수준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고 있다. 현재 1~2음절 수준 또는 음절수가 늘어나면 첫음절 또는 마지막 음절만 말하거나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발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언어발달이 꾸준히 필요하여 동요를 통한 언어발달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다운 증후군 아동의 특성과 동요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아동은 현재 신체발달 및 인지적인 부분에서 향상을 보이고 있고 얼마전부터 언어표현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으나 첫음절 또는 마지막 음절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님과도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사례 개입 계획

평가는 부모님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도구인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로 평가하여 향상정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표현언어를 확장시킨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수용어휘를 확장시킨다.

-단기

동요를 통해 모음 및 다양한 음 모방과 동작모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놀이를 통해 동작 모방 및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일상사물의 명칭을 알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례 진행 사항

c't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수업시간마다 동요를 들려주고 아동의 언어상태 및 반응 정도를 파악하고 기록하였음. 또한 부모상담 시 c't의 반응을 설명 드리고 가정에서의 반응을 듣고 체크함. 객관적인 평가는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비교함.

일자	4/1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예쁜아기곰' 듣기 - 울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울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 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4/4
치료내용 및 소견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 검사 결과 전체언어 64점/18개월, 수용언어 35점/20개월, 표현언어 28점/16개월로 나타남
부모상담	표현언어보다 수용언어가 높고 언어표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다양하지 않고 한정적임
일자	4/8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똥보아저씨' 듣기 - 노래에 익숙치 않았으며 따라할 의도는 있으나 어려워함
부모상담	음이 반복되거나 흉내내는 말에서는 자신감이 높음
일자	4/11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그대로 멈춰라' 듣기 - 울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울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발화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동요를 듣고 즐거워 했으며 연음으로 정확하게 따라하진 않지만 억양과 음을 따라함
일자	4/15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나처럼 해봐요' 듣기 - 울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울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요' 발화 여러번 하나 끝음만 따라함.
부모상담	점차 동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차량 이동 시 동요 듣기를 선호한다고 함

일자	4/18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코끼리와 거미줄’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코끼리’ 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4/2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동물홍내’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물홍내’ 노래에 잘알고 있고 ‘따당따당’ 부분을 좋아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4/25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 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 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4/29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뽀뽀뽀’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뽀’ 발화 여러번 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5/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옹달샘’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토끼’ 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익숙한 동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동요를 따라한다고 함.
일자	5/9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옹달샘’ 복습 - 율동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함 - ‘토끼’, ‘물’ 등 단어 따라함
부모상담	익숙한 단어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따라함

일자	5/13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동물홍내’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빠약빠약’, ‘음메’, ‘따당따당’ 발화 여러번 하고 홍내내는 소리에는 발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부모상담	동물홍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관심도가 높고 자발발화 하는 횟수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내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
일자	5/16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 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요즘 겨울왕국 ost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하는 횟수가 많다고 하심. 다음시간에 겨울왕국 ost를 듣기로 함.
일자	5/20
치료내용 및 소견	겨울왕국 ‘Let it go’ 듣기 - 박수치며 관심있어하고 ‘go’를 따라하며 다음 구간을 기다림
부모상담	익숙한 노래에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일자	5/23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옹달샘’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끝음만 따라함
부모상담	1음절, 끝음만 따라함
일자	5/27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5/30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6/3~6/27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계로 복지관 치료가 당분간 어려움

일자	7/1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동물흥내’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빠약빠약’, ‘음메’, ‘따당따당’ 발화 여러번 하고 흥내내는 소리에는 발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부모상담	동물흥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관심도가 높고 자발발화 하는 횟수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흥내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
일자	7/4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엄마돼지 아기돼지’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의성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따라함
일자	7/8
치료내용 및 소견	겨울왕국 ‘수박파티’ 듣기 - 박수치며 관심있어하고 반복되는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고 따라하며 다음 구간을 기다림
부모상담	익숙한 노래에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일자	7/11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옹달샘’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끝음만 따라함
부모상담	1음절, 끝음만 따라함
일자	7/15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7/2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7/28~8/8까지 복지관 방학

일자	8/1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간다간다’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뛰뛰빵빵’ 발화 여러번 하고 흥내내는 소리에는 발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부모상담	흥내내는 말을 잘 따라하고 발화가 점차적으로 늘어남
일자	8/19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고래와 코끼리’ 듣기 - 처음 들어보는 동요라 적응이 필요함 - 치료사의 반응을 살피고 음을 따라함
부모상담	처음 듣는 노래라 익숙하지 않아 음만 따라함
일자	8/22
치료내용 및 소견	겨울왕국 ‘나랑 눈사람 만들래?’ 듣기 - 박수치며 관심있어하고 반복되는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고 따라하며 다음 구간을 기다림
부모상담	익숙한 노래에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일자	8/26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짤랑짤랑’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끝음만 따라함
부모상담	1음절, 끝음만 따라함
일자	9/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9/5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율동과 함께 익숙한 단어에서는 정확하게 따라하고 잘함
일자	9/12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코끼리 아저씨’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발화 여러번 하고 흥내내는 소리에는 발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부모상담	동물흥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관심도가 높고 자발발화 하는 횟수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흥내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

일자	9/16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예쁜 아기곰’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홍내내는 말, 1음절 수준의 따라할 수 있는 단어에서는 정확하고 자신있게 따라 부름
일자	9/19
치료내용 및 소견	겨울왕국 ‘나랑 눈사람 만들래?’ 듣기 - 박수치며 관심있어하고 반복되는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고 따라하며 다음 구간을 기다림
부모상담	익숙한 노래에서는 좋아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일자	9/23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옹달샘’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끝음만 따라함
부모상담	1음절, 끝음만 따라함
일자	10/7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동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곰’발화 여러번 하나 연음으로 발화하진 못함
부모상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물노래에 관심도가 높음.
일자	10/14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반복적으로 학습된 동요에서는 노래 전체를 잘 따라하고 자신있는 단어에서는 큰 소리로 부름
부모상담	발화에 더 자신감이 생겼고 단어 또는 문장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경우 발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일자	10/21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반복적으로 학습된 동요에서는 노래 전체를 잘 따라하고 자신있는 단어에서는 큰 소리로 부름
부모상담	단어 또는 문장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경우 발화가 점점 많아짐

일자	11/4
치료내용 및 소견	동요 ‘곰세마리’ 듣기 - 율동을 잘 따라하고 스스로도 율동 가능함 - 반복적으로 학습된 동요에서는 노래 전체를 잘 따라하고 자신있는 단어에서는 큰 소리로 부름
부모상담	발화에 더 자신감이 생겼고 단어 또는 문장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경우 발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일자	11/11
치료내용 및 소견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검사 결과 전체언어 75점/21개월, 수용언어 43점/23개월, 표현언어 32점/18개월로 나타남
부모상담	4월 4일에 평가했을 때 보다 전체언어 3개월 정도 향상됨을 보이고 모방, 자발발화 또한 향상되었음

5. 평가

다운증후군 아동을 언어치료하면서 성격이 밝고 사교성이 좋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귀엽고 매력을 느꼈다. 사례연구 대상 아동 또한 성격이 온순하고 사교성이 좋아 수업 시간에 밝고 적극적이다.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동요를 통해 언어적 자극을 주었고 그에 따라 아동의 반응 또한 매회기마다 달라졌다. 처음엔 발화가 거의 없거나 1음절 이상 표현하지 못하였는데 점차 1~2음절 이상 모방하거나 자발발화가 많아지고 발화에 흥미를 느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표현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았다. 평가결과 상으로도 4월 4일 평가 결과보다 3개월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 하지 못했던 1개 이상의 사물이름 대답하기, 다양한 의성어 사용하기, 사물이름 스스로 말하기, 3~4음절의 새로운 낱말 모방하기 등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아동의 언어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과 치료실에서의 연계와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어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ankle plantarflexors의 근력 강화 훈련이 걸기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재활치료1팀
연구자	김영화 물리치료사
연구기간	2014.4.4. ~ 2014.○.○. / 총 개입횟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김영화

◎ 주 제 : 뇌성마비 아동에게 ankle plantarflexors의 근력 강화 훈련 시
건기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이 * *	성별	F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5.04.25				
장애명	뇌병변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SLB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부평구 십정2동				
전화번호	032) 529 - 0000		핸드폰	010-9662-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이 름	고 * *	성별	M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6.06.19				
장애명	뇌병변	급수	4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부평구 삼산동				
전화번호	-		핸드폰	010-4642-○○○○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1)이**

c't는 출생 후 무호흡증으로 인하여 운동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현재 잡고 일서기가 가능하나 잘 안하려고 한다고 하심.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상담 중 상담자 하는 말이나 엄마의 말을 모방해서 아동에게는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추후 심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08.08.13)

2)고**

c't는 외동으로 34주에 조산하여 1.92kg으로 출생하였으며 3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음. 출생 후 갑상선 미발달로 14개월까지 약물을 복용함. 신체발달은 전체적으로 3개월 정도 지체되었으며 언어표현은 가능하나 발음이 부정확함. 신

변치리 80%정도 스스로 해결가능하고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함.

(3) 주호소 내용

1)이** : 아동이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고** : 아동이 바른 자세로 서 있고, 한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7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물리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학교 이용 중

복지관 등록일	2009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물리치료, 수중물리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학교 이용 중

3. 사례선정 사유

두 아동은 spastic diplegia이다. 이**은 독립적으로는 걷기가 힘들며, 보조기를 착용하고는 치료사의 감시 하에 천천히 걸을 수 있고, 4-pointed cane을 잡고는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 고**은 독립적으로 걷고, 뛰고, 달리기가 가능한 아동으로 이**과 같은 spastic diplegia이나 경한 타입이다. 같은 타입의 아동이나 중증도가 다른 아동에게 같은 강화 훈련을 시켰을 때 똑같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 두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뇌성마비 아동들은 spasticity, contracture, reduced coordination, selective voluntary motor control, and muscle weakness 와 같은 신경발달학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근육 약화가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주된 문제이다.

비록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이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이의 정상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하지 전반적 근육에서 최대 수축 힘(maximum contractile force)이 52% 이거나 더 작다. 특히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이 plantarflexor에서 약화를 보이고 있고, 정상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36%나 약하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들에게서, 하지의 먼 쪽 근육은 몸 쪽 근육보다 고유수용성적인 면에서 더 적고 약하다. plantarflexor 근육은 뇌성마비 아동의 하지 근육의 키 포인트가 된다. 정상적인 걷기에서, plantarflexor 근육은 몸을 지지하는데 필요하며, 특히 midstance와 late sta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뇌성마비 경직형 아동에게 plantarflexor 근육 강화를 통해 걷기의 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례 개입 계획

현상태 파악

1)이** 평가

- Ability : independent standing position, 4-point cane gait, gait wear SLB in indoor(minimal assist), dorsiflexion(Rt.>Lt.)
- Disability : independent gait, separate activation of gluteus m.
- Postural tone : spasticity(U/E>L/E,Rt<Lt.)
- Hand function : good
- Postural pattern : pelvic ant tilted, knee flexion, ankle inversion

2)고** 평가

- Ability: independent standing, walking, jumping, one leg standing(Rt.), rope skipping(100개 이상)
- Disability: maintain good alignment during gait, independent one leg jumping one leg standing(Lt.)
- Posture tone: near normal, L/E spasticity (Lt.>Rt.)
- Hand function: normal
- Posture pattern: both hip internal rotated, both knee limited full extension, ankle valgus

2) 진행 과정 계획

1회/1주 시행

- plantar flexor m. stretching(30s, 5times)
- maintain standing position on slopeway (3min.)
- heel raise-up(5s) & rest - 10times

3) 사후 평가 계획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3번 측정 후 평균 값)
-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3번 측정 후 평균 값)

3. 사례 개입 목표

1)이** 평가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과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감소

2)고** 평가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과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감소

4. 사례 진행 사항

1회 1주 실시하고 있음

- plantar flexor m. stretching을 30초 동안 5번하기
- 경사로에서 서 있는 자세 유지하기(3분)
- heel raise-up 5s하고, 쉬는 것을 1 set로 하여 10번 반복

고**아동과 이**아동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고**아동은 경사로에서 서 있는 자세 유지하기, heel raise-up 운동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이**아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아동은 4-pointed cane을 잡고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과 step 수 측정 시에도 이**아동은 4-pointed cane을 잡고 측정하였다.

pre-test

1) 고** 아동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 - 00:05:88
-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 8.6

2) 이** 아동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 - 01:26:08
-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 28

post-test

1) 고** 아동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 - 00:04:37
-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 7.4

2) 이** 아동

- 3m 거리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 - 01:25:07
- 3m 거리를 걸을 때 step 수 - 28

5. 결론

뇌성마비 경직형 아동에게 plantarflexor 근육 강화를 통해 걷기의 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총 15회차 적용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plantar flexor m. stretching을 30초 동안 5번하기, 경사로에서 서 있는 자세 유지하기(3분), heel raise-up 5s하고, 쉬는 것을 1 set로 하여 10번 반복하기를 하루씩 15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중증도가 다른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었으나 경한 아동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한 아동이 독립적으로 걷는 것이 힘들어 cane을 잡고 한 것이 다소 제한점으로 보여지고, 또한 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 다소 제한점이 있었다.

***reference**

- 1) Gormley ME: Treatment of neuromuscular and musculoskeletal problems in cerebral palsy. *Pediatr Rehabil*, 2001,4:5-16.
- 2) Ross SA, Engsberg JR: Relationships between spasticity, strength, gait and the GMFM - 66 in persons with spastic diplegia cerebral palsy. *Arch Phys Med Rehabil*, 2007, 88: 1114-1120.
- 3) Damiano DL, Kelly LE, Baughn CL: Effects of quadriceps femoris muscle strengthening on crouch gait i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Phys Ther*, 1995, 75:658-667.
- 4) Lampe R, Grassl S, Mitternacht J, et al.: MRT-measurements of muscle voluntary contractions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astic cerebral palsy. *Dev Med Child Neurol*, 2006, 48: 789-796

구조화된 놀이치료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재활치료 1팀
연구자	민소영 놀이치료사
연구기간	2014.3.3 ~ 2014.11.14 / 총 57회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민소영

◎ 주 제 : 구조화된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정00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5.08.22				
장애명	자폐성장애	급수	1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104동 1104호				
전화번호	032-210-9003		핸드폰	010-3242-3514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임신 당시 뱃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 숨을 쉬지 못하고 울지 못하였다고 함. 또한 아이가 뱃속에서 반응이 없어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고 함. 1살에는 다지증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는 별 질환없이 자랐음. 장애판정은 5세에 받았음.

부와는 좋아하지만 무서워하기도 하며 잘 놀아주시는 편이라고 함. 동생은 아동을 조금 무시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교육은 관악복지관에서 조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중이라고 함. 본관에서는 놀이치료, 특수체육, 음악치료 이용하고 있음.

(3) 주 호소 내용

- 1) 혼자놀이와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2) 규칙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려한다.
- 3) 자발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3. 03. 12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놀이치료, 특수체육, 음악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타 기관 언어치료이용

3. 사례선정 사유

자폐성장애 아동들이 나타내는 특징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의 질적인 결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개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 놀잇감을 혼자서 탐색하는 놀이를 주로 한다. 또한 통합능력의 결함으로 자신의 의사표현과 사회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조화된 놀이치료를 통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결함을 완화하고 아동의 상호작용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조절과 의사소통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혼자놀이의 성향이 강하고 특히 손으로 섬유재질의 놀잇감을 탐색하거나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을 혼자만지며 돌아다니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스로 감정이나 놀이하는 것에 대해 조절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이외의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사례 개입 계획

1) 현 상태 파악 : 부모 상담과 접수면접의 주관적 평가와 사회성숙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를 통해 아동의 현재 사회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객관적 평가 : 사회성숙도 평가

*주관적 평가 : 관찰평가, 부모상담.

2) 진행 과정 계획

(1) 초기 평가

① 객관적 평가

-사회성숙도검사

단기목표	1.치료사와의 신뢰감있는 관계형성하기 2.자발적 활동과 언어사용 유도하기
평가일	2013년 3월 5일
평가결과	
SMS검사	SQ: 71.4 CA: 7.53, SA: 2.68 (전반적 영역에서 모두 약점을 나타냄)
사전평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또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임. 입실 시 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붙어서 앉아있으려 함. 한가지 장난감에 몰두해서 놀이를 함.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건드리거나 장난감의 부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임. 모는 아들과 둘째 동생을 출산했을 때와 다지중 수술할 때를 제외하고 한번도 떨어져 있어본 적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같이 있었다고 하심. 동생과는 함께 놀이를 하지 않고 각자 좋아하는 놀이가 다르다고 함. 그리고 동생은 말이 많은 편이어서 형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심. 여러가지 치료를 하면서 언어가 많이 발달되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함께 섞여있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심.

② 주관적 평가

-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아동에게 제공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니 아동에게 시키면서 자발성을 유도하기보다 거의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제공해주는 양육을 제공하고 계셨음. 이에 구조화프로그램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아동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연습과정을 통하여 사회성의 향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치료 적용

- ① 자기노출과 신뢰감 향상위한 프로그램 적용
- ② 자기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
- ③ 의사소통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3) 치료 후 평가 : 8 주, 16주 평가

- ① 객관적 평가
- ② 주관적 평가

3) 사후 평가 계획

- ① 객관적 평가
- ② 주관적 평가

3. 사례 개입 목표

- 장기 : 구조화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가
- 단기 : 치료사와 신뢰감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자발적 활동과 언어의 사용 유도하기

4. 사례 진행 사항

2013년 3월 12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115회 진행중)

◎ 내 용

초기단계	아동과 초반에는 신체탐색놀이를 제공하며 아동이 감각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또한 아동과 거울을 보며 스티커로 탐색하기를 유도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진행함. 충분히 감각놀이와 신체탐색을 통하여 자기인식을 유도한 뒤 거울과 코끼리공을 치료사의 몸에 붙이고 아동이 직접 떼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풍선을 직접 불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안마놀이와 마사지놀이로 자극을 받는 것과 주는 것 등 상호 자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
중기단계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성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동이 장애물을 직접 넘어보고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자기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으로 목표물 맞추기와 직접 옮겨 담는 활동을 유도하여 자기 유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아동과 나무쌓기 활동과 구슬 넣고 찾는 활동을 유도하여 집중력과 상호작용을 유도하도록 함. 이렇게 제공하니 아동은 초반에 비해 좀 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려 하였으며 직접 찾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진 듯 보였음. 구슬을 아동이 직접 넘어보고 숨겨보며 활동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니 그런 활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음. 아동과의 상호활동을 위해서 제공한 공을 모아 뿌려주는 활동과 공을 옮겨 목표지점에 담아주기 활동에서는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것보다 같이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것에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기차놀이에서의 장애물넘기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이번에는 아동이 스스로 선반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보고 규칙을 적절하게 지키는 활동을 통하여 자기유능감과 자기조절력을 길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처음에는 규칙 지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잘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지속적인 연습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간단한 규칙 활동에 대해서 지키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다리는 시간도 어느 정도 길어진 모습을 보였음.

5. 평가

1) 구조화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놀이과정		
초기(1~20)	중기(20~100)	말기(101~112)
- 거울 보고 스티커붙이기놀이를 통한 신체인식 확장 - 코끼리공놀이를 붙이고 떼는 활동을 통한 관심유도 -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자기자극이 심함 - 안마놀이 마사지놀이를 상호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심을 다양하게 전환함	- 장애물넘기와 목표물맞추기 활동을 통하여 자기성취감이 향상되도록 함 - 나무쌓기와 구슬넣기 등 집중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치료실에서 규칙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아동이 안정감을 가지고 활동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	- 치료실에서의 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 모습을 보임 - 스스로 해보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활동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모습보임 -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고 잘 안되어도 다시 도전해보려는 노력을 함

2) 주 호소문제와 행동의 변화

주 호소내용	주 호소 문제의 변화
• 혼자놀이와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치료사의 활동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어졌다.
• 규칙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려한다.	•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자발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 과제수행과 집중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놀이치료 프로그램 회기마다 치료적인 개입을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변화는 사회성숙도 검사와 행동관찰평가를 통하여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성숙도 검사를 통하여 아동이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실시하였으나 중증 아동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검사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과 검사상의 연관성이 적어 실질적인 행동의 변

화를 관찰하고 부모상담을 진행하며 아동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으로는 거울보고 스티커붙이고 상호놀이하기, 코끼리공 놀이로 타인에 대한 관심 유도하기로 초반에 타인에 대한 관심유도를 하였으며 나무쌓기와 구슬넣고 찾기활동을 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우선 구조화된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면 혼자서 놀이를 하며 자기자극만을 제공하고 특히 구강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고 뜯는 행동을 했던 아동이 정해진 놀잇감으로 자극을 주게 되었고 수건을 같이 잡아끌거나 공을 옮겨 활동하는 등의 상호활동을 하며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모와의 상담에서도 일반화하여 아무거나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으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아동이 조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여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 드렸다.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도막을 쌓는 활동을 하고 빼는 활동을 하면서 지시를 따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통 안에 구슬을 넣어 그것을 찾아보면서 집중하여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룰렛게임으로 다양한 규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회기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회기에 걸쳐 진행하여 아동이 다시 해보면서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습득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모와의 상담에서도 일상에서 기본적인 자조활동에 대한 규칙(손씻기, 세수하기, 머리빗기, 수저놓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이 일상에서 몸에 규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렸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씻는 것이나 배변활동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과제를 집중하고 수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풍선을 스스로 불어 날리기와 선따라 목표지점 도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울 때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경험과 집중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놀잇감을 영역별로 배치함으로써 아동이 정해진 공간에서 한 가지 주제로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아동이 좀 더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놀이의 연속성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모와의 상담에서도 일상적인 선택의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목표의 과제를 제공하여 성취감 및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렸다.

연구를 통하여 아동이 변화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정에서도 아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의 양육방식과 일상적인 행동에서 일관적인 통제와 과제수행을 통한 성공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아동이기에 지속적인 일상적 개입과 모의 양육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실에서도 지속적인 구조화된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아동의 행동양식에 있어서 좀 더 유의미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참고문헌

- 구조화된 집단놀이 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2008),대구 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성 유아의 자폐행동, 음성행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2001),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정적강화가 전반적 발달지연 유아의 주의집중향상에 미치는 효과



팀 명	재활치료 2팀
연구자	이제현 특수교사
연구기간	2014.03.10.~10.31 / 총 30회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이제현

◎ 주 제 : 정적 강화가 전반적 발달지연 유아의 주의집중향상에 미치는 효과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조은찬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11.04.18				
장애명		급수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남동구- ○○○				
전화번호	032-○○○-○○○○		핸드폰	01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이란성쌍둥이로 태어났으며, 2.3kg으로 출생하여 약 한달간 인큐베이터 사용하였음. 출생 후 황달 증세와 관련된 광선치료 받았으며 등뼈 돌출 수술, 수두 증 수술 받았었음. 아놀드키아리증후군, 이소성고환, 수막척수류 진단받았으며, 현재 하지마비 증세 보이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 인지 및 언어발달지체
- 짧은 집중력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1.10.05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모자그룹특수교육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작업치료, 물리치료

3. 사례선정 사유

학습 능력, 인지 능력에 비해 주의집중능력이 떨어지며 학습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본 아동은 전반적인 인지 능력에 비해 주의집중을 하여 학습을 시도하려는 것이 어렵고 하지 않으려고 함. 여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동기유발이 힘들. 특히 다리가 불편하여 그에 맞는 교육적 욕구가 필요함. 활동 중에 자신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 있기 어려움. 본 아동과 같은 발달지연유아들은 일반 유아들과는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놀이 중에 언어나 사회성, 인지 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이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정적강화로 보상하여 학습태도 형성 및 주의집중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례 선정함.

2. 사례 개입 계획

- 1)진행 일정 : 총 30회기
- 2)현상태 파악 : 부모님과의 면접 및 설문지, 주의집중 관찰, 현 상태 분석 등
- 3)진행 과정 계획 : 주의집중에 도움이 되는 구체물을 파악하고 아동의 수준 및 흥미를 파악하여 과제 수행의 즐거움을 주며 정적강화를 조금씩 제공하여 활동 제공
- 4)사후 평가 계획: 주의 집중 시간과 학습태도 및 인지능력을 비교 후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쓰기활동 방향 제시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 가. 활동에 대한 주의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나. 정적강화를 통해 활동의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단기

- 가-1 정적강화를 제공할 때 착석하여 활동 할 수 있다.
- 나-2 착석하여 5~10분 주의집중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4. 사례 진행 사항

ct를 기초선 설정으로 수업 중 주의집중 행동 및 정적 강화를 기초선을 설정하였다.

1) 수업 중 주의집중 행동

본 연구에서 수업 중 주의집중 행동이란, 수업 중에 자신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 있기 이다. 수업 중에 주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나 주의집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의집중은 직접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내리기 어렵다. 때문에 명백한 주의집중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이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관찰을 할 수 있었다.

한기정(1984)은 주의집중이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감각이나 근육적 운동능력과 결합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감각, 즉 근육운동의 훈련이 아동의 주의집중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의집중이 어려운 정서장애 아동이나 인지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주의집중 훈련을 교육현장에서 시킨다면 주의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집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과잉행동, 즉 자리를 이탈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등은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인지발달 지체 아동에게는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과잉행동은 아동의 주의집중능력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 정적 강화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수정의 기법은 아동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상을 정적 강화라고 한다. 즉 미래에 행동 발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속자극을 모두 정적 강화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과자(소모적 강화), 선호하는 행동(행동 강화), 미소(사회적 강화) 등을 모두 정적강화물이라고 규정한다.

5. 평가 및 제언

1) 기초선평가 및 과정평가

본 연구에 앞서 기초선과 중재를 나눠서 설계하였다.

기초선을 잡고 중재 1과 중2를 적용하였다. 강화물은 중재1 과자나 중재2 사회적 강화 및 강화물 교체를 하였다. 실험처치기간 1, 실험처치기간2로 나눠 실험한 것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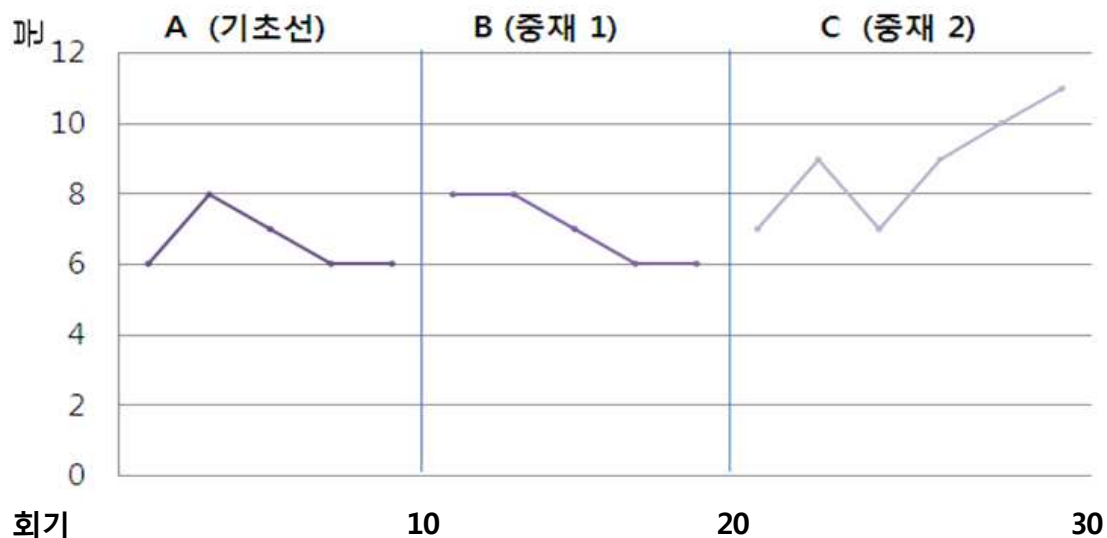
실험처치기간에서의 환경적변수를 고려하여 (아동의 컨디션, 수업의 난이도 등등) 일관성있게 아동에 맞는 개별화된 환경 및 자료를 준비하였다.

① 실험 처치 기간 1

이 기간은 10회기 동안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때 아동이 선호하는 과자를 제공해주었다. 물리적 강화물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강화와 칭찬을 함께 제공해주었다.

② 실험 처치 기간 2

이 기간은 10회기동안 강화물을 물리적 강화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행동을 제공해주는 강화물로 바꾸었다. 이 기간에도 사회적 강화와 칭찬을 함께 제공했다. 가능한 행동으로 제공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표적행동은 “수업 중 자리착석”으로 두고 이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웠다.

표적행동의 조작적 정의

표적 행동	조작적 정의
수업 중 자리착석	자신의 의자의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20분의 수업시간 동안 앉아 있는 행동.

기초선 기간부터 처치 2의 기간 동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 아동이 활동 중 주의산만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었다. 본 아동이 정적 강화를 통한 행동 수정으로 인해 행동상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리착석

의 지속시간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아동의 자리착석 지속시간은 기초선 기간에는 지속시간이 매우 평균 6.4분으로 매우 짧았다. 10회기로 나눠 총 30회기를 실시하였다. 처치1을 시작했을 때는 자리착석지속시간이 평균 7분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강화물(음식물)로 인해 수업 중 다른 아동이 이 강화물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동이 잠시 주의집중을 하지 못했다. 자리이탈 문제도 조금 증가했다. 처치1을 사용 후 다음으로 처치2에서는 선호하는 행동으로 사회적강화물로 변경하였다. 두 번째 처치기간동안은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리착석의 시간이 평균 9분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리적강화물과 사회적강화물은 아동의 자리착석 지속시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회기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100%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강화를 줘야 한다.

참고문헌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교육개론서 2013 - 학지사
유아특수교육 2009 - 학지사
행동수정 2013 - 시그마프레스

정적운동 프로그램과 동적운동 프로그램이 상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팀 명	재활치료 2팀
연구자	임주성 작업치료사
연구기간	2014.4.1 ~ 11.21 / 총 26회

사례연구 중간 보고서

◎ 제 출 자 : 임주성

◎ 주 제 : 정적운동 프로그램과 동적운동 프로그램이 상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 내 용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유○○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7년 06월 30일				
장애명	뇌병변장애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AFO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서구 가좌2동 217번지 신현대아파트 411호				
전화번호	032-571-9873		핸드폰	011-9190-3721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남 2녀 중 막내로 2.7kg 순산하여 출생하였음. 출생 후 피부에 수포가 생겨서 5일간 입원하였음. 신체발달은 전체적으로 지체되었고 현재 AFO 보조기 사용하고 있음. 신변처리 도움 요함. 현재 본관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용 중에 있음

(3) 주 호소 내용

- 1) 왼쪽 상지가 굴곡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2) 왼쪽 손가락의 분리된 움직임이 어렵다.
- 3) 일상생활에서 왼쪽 상지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8. 11. 11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타 기관 물리치료 이용

3. 사례선정 사유

뇌병변 아동으로 편마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좌측 상하지의 운동기능 손상이 있으나, 우측 상하지 및 인지 기능은 손상 받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현재 비장애아동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일반학급 재학 중이다. 현재 아동의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적 중재를 통해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 선택적 적용을 통한 상지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을 선정하였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좌측 편마비의 특성을 보이며, 평소 활동 시, 좌측 상지의 Flexor pattern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인 근력 수준은 F+ 정도이며, 현재 원활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상하고자 Compensation을 보이고 있다. 손 기능의 경우, Gross grasp & release, Thumb-3rd opposition이 가능하며, 분리된 움직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향상 및 좌측 상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절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었다.

2. 사례 개입 계획

1) 현 상태 파악 : 부모 상담 및 치료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주관적 평가와 상지 ROM 및 장악력 측정,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아동의 현재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알아보도록 한다.

*객관적 평가 : 상지 ROM 및 장악력 측정,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주관적 평가 : 관찰평가, 부모상담.

2) 진행 과정 계획

(1) 초기 평가

① 객관적 평가

② 주관적 평가

(2) 치료 적용

① 치료사와의 1:1 도수 치료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② 아동의 활동을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3) 치료 후 평가 : 8주, 16주 평가

① 객관적 평가

② 주관적 평가

3) 사후 평가 계획

- ① 객관적 평가
- ② 주관적 평가

3. 사례 개입 목표

- 장기 :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좌측 상지기능의 향상
- 단기 : 정적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정상적 움직임 경험하기
동적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상지 사용하기

4. 사례 진행 사항

Ct.를 대상으로 정적운동 프로그램으로 Normal movement 강화, Selective movement 경험, ROM 증진 및 Bi-hand movement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동적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상지의 기능적 사용 촉진, 양손 사용시 보조적 왼손 사용, 적절한 운동조절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날짜	제공 프로그램	내용
03/03	계획서 작성	"정적운동 프로그램과 동적운동 프로그램이 상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비교" 계획서 작성
03/07	정적운동 프로그램	도수 치료를 이용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3/14	정적운동 프로그램	자가 스트레칭 및 PROM exercise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3/21	정적운동 프로그램	Thera-band stretching 및 도수 치료를 이용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3/28	동적운동 프로그램	왼손 사용 증진을 위한 풍선 치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4/04	동적운동 프로그램	초기 측정 (ROM, 장악력,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04/11	정적운동 프로그램	U/E stretching exercise 및 Reverse synergic pattern movement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4/18	정적운동 프로그램	각 관절에 대한 자극 및 Grasp pattern에 따른 움직임 유도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4/25	정적운동 프로그램	Isometric exercise 및 Weight bearing을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5/02	정적운동 프로그램	손가락의 AAROM을 이용한 Selective movement 경험을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5/09	정적운동 프로그램	Modulated grasp activity 및 release & opposition guided movement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5/16	정적운동 프로그램	Slow movement 및 자가 스트레칭을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5/23	정적운동 프로그램	Full extension 및 sensory stimulation을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5/30	정적운동 프로그램	Normal movement 경험 및 치료사의 cue에 따른 AAROM exercise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6/13	중간측정	1차 측정 (ROM, 장악력,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06/20	동적운동 프로그램	풍선 치기 및 퓨티 만들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6/27	동적운동 프로그램	동전 넣기 및 줄다리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7/04	동적운동 프로그램	농구 활동 및 종이접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7/11	동적운동 프로그램	Ipsilateral activity 및 공 받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7/18	동적운동 프로그램	왼손을 사용한 구슬 옮기기 및 권투 활동을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7/25	동적운동 프로그램	종이 자르기 및 스티커 찾아 떼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8/18	동적운동 프로그램	가위바위보 게임 및 왼손 체중부여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9/05	중간측정	2차 측정 (ROM, 장악력,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09/12	동적운동 프로그램	물건 던지기와 야구 놀이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9/19	정적운동 프로그램	Lt side weight bearing 및 Joint full ROM 경험을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09/26	동적운동 프로그램	종이 찢어 만들기 및 맨손체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10/17	정적운동 프로그램	Scapular isometric movement 및 Stretching exercise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10/24	동적운동 프로그램	줄다리기 및 공 던져 맞추기를 통한 동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11/07	정적운동 프로그램	손가락의 slow movement 경험 및 unilateral movement를 통한 정적운동 프로그램 적용
11/14	최종측정	최종 측정 (ROM, 장악력,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11/21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5. 평가

1) 목표평가

Ct.의 평가 시에 상지의 ROM, 장악력, 수지기능검사로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진행하였으며, 치료 진행 중의 치료사의 관찰을 통한 관찰 평가도 진행하였음.

초기 측정
(14/04/04)

① 관절가동범위(ROM)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Impaired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② 장악력

	Rt.	Lt.
Power Grasp	3.0	1.0
Pinch	3-Jaw	0.5
	Lateral	0.5
	Tip	—

③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Rt.	Lt.
글씨쓰기	36.71	—
카드 뒤집기	6.02	42.96
작은 물건 옮기기	8.54	41.17
먹는 흉내 내기	10.63	97.00
장기말 쌓기	5.73	26.03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4.21	48.05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5.51	—

1차 중간
(14/06/13)

① 관절가동범위(ROM)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Normal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② 장악력

	Rt.	Lt.
Power Grasp	3.0	1.0
Pinch	3-Jaw	0.5
	Lateral	0.5
	Tip	—

	③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글씨쓰기</td><td>22.06</td><td>—</td></tr><tr><td>카드 뒤집기</td><td>8.16</td><td>38.02</td></tr><tr><td>작은 물건 옮기기</td><td>8.09</td><td>42.21</td></tr><tr><td>먹는 흉내 내기</td><td>12.58</td><td>—</td></tr><tr><td>장기말 쌓기</td><td>3.26</td><td>24.96</td></tr><tr><td>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td><td>5.08</td><td>53.17</td></tr><tr><td>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td><td>4.37</td><td>—</td></tr></table>		Rt.	Lt.	글씨쓰기	22.06	—	카드 뒤집기	8.16	38.02	작은 물건 옮기기	8.09	42.21	먹는 흉내 내기	12.58	—	장기말 쌓기	3.26	24.96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5.08	53.17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4.37	—																															
	Rt.	Lt.																																																						
글씨쓰기	22.06	—																																																						
카드 뒤집기	8.16	38.02																																																						
작은 물건 옮기기	8.09	42.21																																																						
먹는 흉내 내기	12.58	—																																																						
장기말 쌓기	3.26	24.96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5.08	53.17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4.37	—																																																						
2차 중간 (14/09/05)	① 관절가동범위(ROM)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Shoulder</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Elbow</td><td>Normal</td><td>Normal</td></tr><tr><td>Forearm</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Wrist</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Finger</td><td>Normal</td><td>Impaired</td></tr></table> ② 장악력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Power Grasp</td><td>4.0</td><td>1.0</td></tr><tr><td rowspan="3">Pinch</td><td>3-Jaw</td><td>0.5</td></tr><tr><td>Lateral</td><td>0.5</td></tr><tr><td>Tip</td><td>—</td></tr></table> ③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글씨쓰기</td><td>21.94</td><td>—</td></tr><tr><td>카드 뒤집기</td><td>7.65</td><td>60.14</td></tr><tr><td>작은 물건 옮기기</td><td>9.57</td><td>—</td></tr><tr><td>먹는 흉내 내기</td><td>14.13</td><td>—</td></tr><tr><td>장기말 쌓기</td><td>7.27</td><td>28.73</td></tr><tr><td>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td><td>4.64</td><td>50.23</td></tr><tr><td>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td><td>5.17</td><td>—</td></tr></table>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Normal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Rt.	Lt.	Power Grasp	4.0	1.0	Pinch	3-Jaw	0.5	Lateral	0.5	Tip	—		Rt.	Lt.	글씨쓰기	21.94	—	카드 뒤집기	7.65	60.14	작은 물건 옮기기	9.57	—	먹는 흉내 내기	14.13	—	장기말 쌓기	7.27	28.73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4.64	50.23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5.17	—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Normal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Rt.	Lt.																																																						
Power Grasp	4.0	1.0																																																						
Pinch	3-Jaw	0.5																																																						
	Lateral	0.5																																																						
	Tip	—																																																						
	Rt.	Lt.																																																						
글씨쓰기	21.94	—																																																						
카드 뒤집기	7.65	60.14																																																						
작은 물건 옮기기	9.57	—																																																						
먹는 흉내 내기	14.13	—																																																						
장기말 쌓기	7.27	28.73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4.64	50.23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5.17	—																																																						
최종 측정 (14/11/14)	① 관절가동범위(ROM)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Shoulder</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Elbow</td><td>Normal</td><td>Normal</td></tr><tr><td>Forearm</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Wrist</td><td>Normal</td><td>Impaired</td></tr><tr><td>Finger</td><td>Normal</td><td>Impaired</td></tr></table> ② 장악력 <table><tr><td></td><td>Rt.</td><td>Lt.</td></tr><tr><td>Power Grasp</td><td>4.5</td><td>1.5</td></tr><tr><td rowspan="3">Pinch</td><td>3-Jaw</td><td>—</td></tr><tr><td>Lateral</td><td>0.5</td></tr><tr><td>Tip</td><td>—</td></tr></table>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Normal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Rt.	Lt.	Power Grasp	4.5	1.5	Pinch	3-Jaw	—	Lateral	0.5	Tip	—																								
	Rt.	Lt.																																																						
Shoulder	Normal	Impaired																																																						
Elbow	Normal	Normal																																																						
Forearm	Normal	Impaired																																																						
Wrist	Normal	Impaired																																																						
Finger	Normal	Impaired																																																						
	Rt.	Lt.																																																						
Power Grasp	4.5	1.5																																																						
Pinch	3-Jaw	—																																																						
	Lateral	0.5																																																						
	Ti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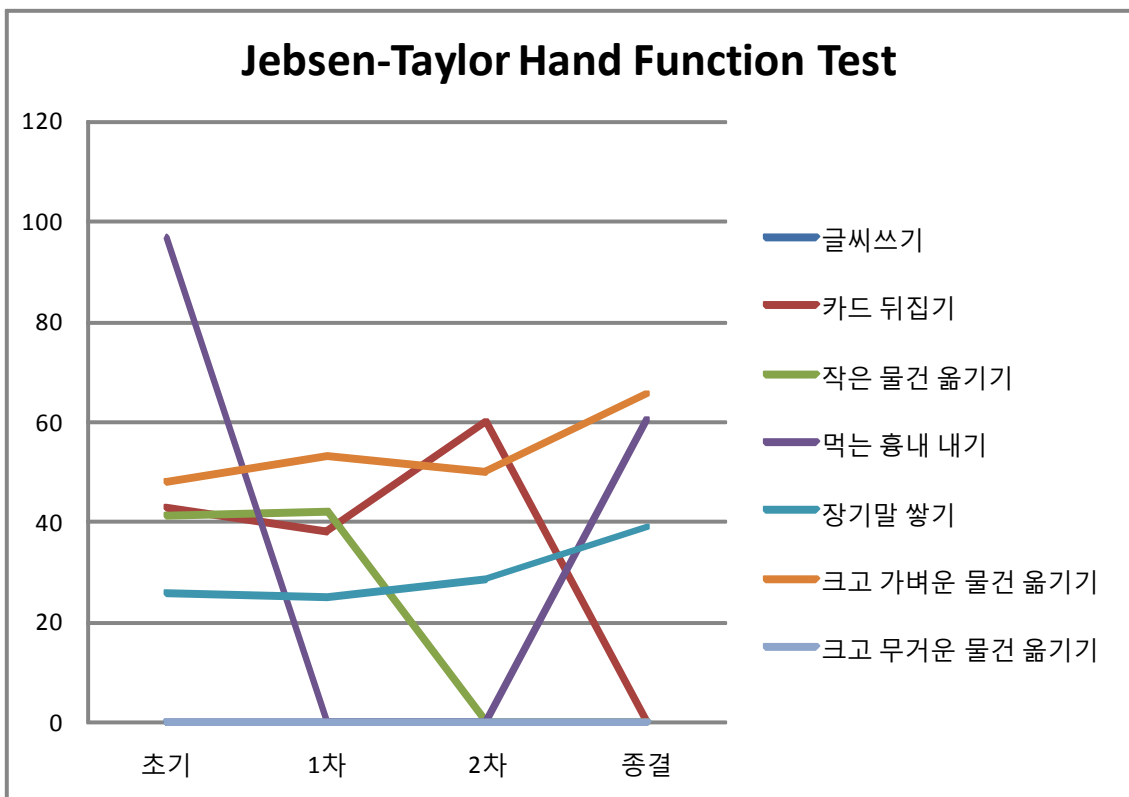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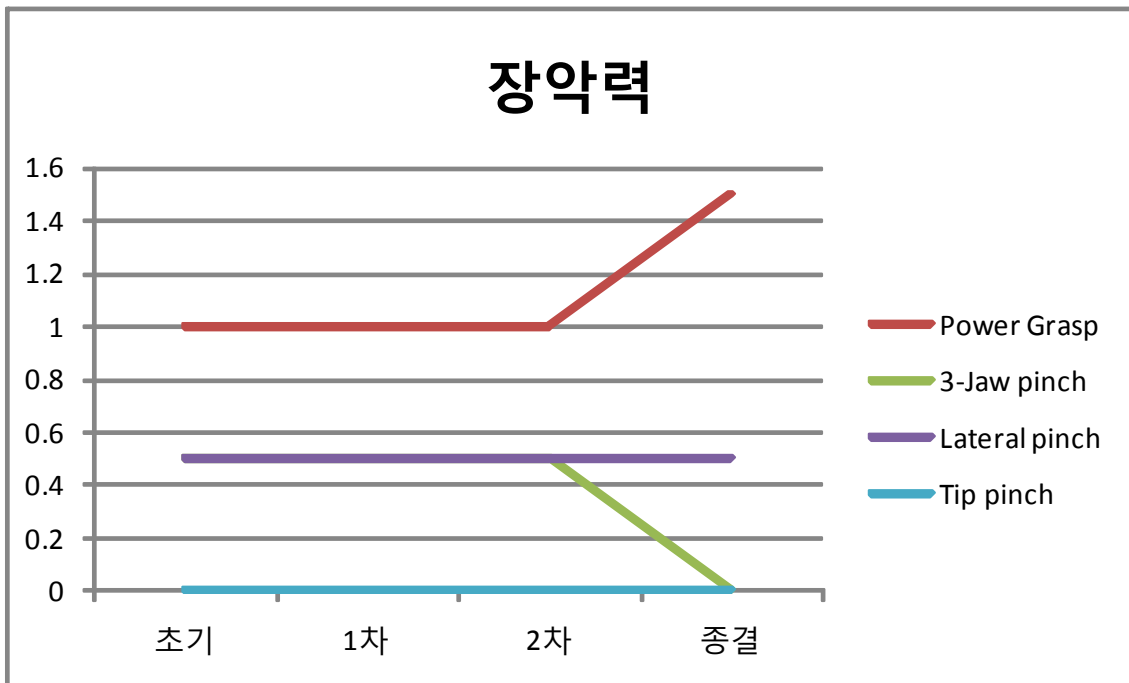
③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Rt.	Lt.
글씨쓰기	19.16	—
카드 뒤집기	5.16	—
작은 물건 옮기기	6.59	—
먹는 흉내 내기	11.88	60.21
장기말 쌓기	7.93	39.01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3.81	65.66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6.02	—

— 기초선 설정을 위한 초기 측정(4/4) 이후, 정적운동 프로그램 8주간 적용하고 1차 중간평가(6/13) 실시하였음. 이후 동적운동 프로그램 8주간 적용하고 2차 중간평가 실시하여야 하나 본관 하계가정학습 기간으로 인해 7주 적용, 2주 휴식 이후 2차 중간평가(9/5) 실시하였음. 동적운동 프로그램과 정적운동 프로그램의 6주간의 교대 적용 이후 최종 측정(11/14) 실시하였음.

— 1차 측정 시, 초기 측정과 비교하여 관절가동범위에서 Elbow 관절에서의 정상 범위로의 증진을 보이며 장악력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수지기능검사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에서는 전반적인 오른손의 시간 감소를 보이며, 왼손에서는 ‘먹는 흉내 내기’에서 도구의 쥐기 어려움으로 초기 측정 시 가능했던 부분의 어려움을 보임.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에서는 근력의 부족으로 평가 도구를 들지 못하여 어려움을 보임. 전반적으로 왼손에서의 시간 소요가 증가됨을 보임.

— 2차 측정 시에는 이점과 비교하여 ROM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장악력에서의 오른손의 증가를 보이나, 왼손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음. 수지기능검사에서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시간 소요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작은 물건 옮기기’ 항목에서 3번째 물건 시도 시에 포기함을 보였음. 하지만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항목에서는 시간의 단축을 보임. 아동의 컨디션 자체는 좋았으나, 2주간의 휴식 이후의 첫 시간으로 동기가 크게 저하된 모습을 보임.

— 최종 측정 시에는 장악력의 증가를 보이나, 보상작용의 증가로 3-Jaw pinch의 실시에 어려움을 보임. 수지기능검사에서는 오른손의 지속적인 시간 단축을 보이나, 왼손에서는 어려움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카드 뒤집기’ 항목에서 포기함을 보였으며, ‘작은 물건 옮기기’ 항목에서는 시간초과로 실패함을 보임. 2차 중간 평가시에 실패했던 ‘먹는 흉내 내기’항목의 수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임. 입실 시부터 아동의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으며, 수행하는 내내 아동이 방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과정평가

- 사례진행 시에 대상자가 정적인 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저하됨을 보이며, 동적인 활동 시에는 보상작용을 많이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임.
- 연구기간 중 대상자의 프로그램 중재가 주 1회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사례연구에 대한 타당성 있는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간평가 시에 대상자의 당일 컨디션 및 내관 전 활동의 변화로 균일한 환경에서 일관된 평가에 어려움을 보이며, 대상자의 연령이 어린 관계로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 자세 유지 및 정확한 지시 수행에 어려움을 보임.
- 프로그램 진행 중 타기관에서의 치료를 시작함으로 현 프로그램의 연계성 저하 및 보호자와의 프로그램 적용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수행에 어려움을 보임

3) 향후계획

- 주당 1회 30분간의 치료시간으로 인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숙제를 통한 아동의 가정연계에도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흥미에 따른 지속성의 변화가 있어 연구 주제의 타당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됨.
- 대상의 어린 연령과 더불어 병식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저하로 프로그램 시와 평가 시에 아동의 컨디션에 따른 프로그램 및 평가 참여도가 일관됨을 보이기 어려움.
- 프로그램 진행시, 대상의 치료 적용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변인(가정, 학교, 타기관 치료 등)들이 많이 발생하여 연구의 목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료됨.
- 연구 목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른 대상자의 효과성 비교가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보다 대상자의 컨디션 등 외적요인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연구의 신뢰도가 저하됨을 보임.
- 사례연구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나 연구 목적에 대한 변동이 필요하거나, 치료 프로그램 이외의 연구 목적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중재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수중에서 체중 지지훈련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재활치료 1팀
연구자	전진영 물리치료사
연구기간	2014.3.27.~2014.11.21/36회

사례연구 중간 보고서

- ◎ 제 출 자 : 전진영
 ◎ 주 제 : 수중에서 체중지지 훈련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
 ◎ 내 용

※작성 시 유의사항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유○○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7년 6월 30일				
장애명	뇌병변	급수	1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서구 가좌 2동 217번지 신현대@411호				
전화번호	571-9873		핸드폰	010-919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남 2녀중 막내로 2.7kg 시 탯줄을 목에 감고 자연분만하여 출생하였음. 출생 3개월 후 신체발달 지체로 내원하여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전반적인 원편의 발달이 지체되었고 현재 보조기 사용하고 있음.. 현재 중구복지관 물리,작업 주2회, 인하대병원 물리, 작업 주1회 받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원편의 편마비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강직으로 손의 기능이 저하되어있으며, 보행 시 절룩거리며 걷고, 원편 다리를 지지한 점프가 되지 않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2년 10월 8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중구 복지관 물리, 작업치료

3. 사례선정 사유

본 아동은 왼편 편마비로 인하여 수중물리치료와 물리치료로 의뢰되어 치료 중이었으나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 인하여 비 장애 아동과의 일상생활 시 인지적 부분에서는 뒤처짐이 없으나, 신체 기능 상 비정상적 보행 및 상지의 작업 수행능력의 제한으로 통합반에서의 활동 시 균형감각의 저하 및 체육 활동 시 보행 및 달리기에서 전반적인 지체가 있음으로 모와 함께 아동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됨. 이에 아동의 신체 기능향상을 위한 수중물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편측으로의 체중 지지를 통한 균형감각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사례로 선정하였음.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신체활동의 전반적 부분에서 지연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편측에 대한 기능적 제약으로 인하여 신체 무시 및 작업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초등학교 통합반 활동 시 균형감각의 저하 및 체육 활동 시 보행 및 달리기에서 전반적인 지체가 있음으로 모와 함께 아동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충분히 있으리라 사료됨.

이에 아동의 신체 기능향상을 위한 수중물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편측으로의 체중 지지를 통한 균형감각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례 개입 계획

현상태 파악 : 인터뷰, 현 상태 분석, 대근육 운동평가

*객관적 평가 : MMT, Fonctional reaching test

*주관적 평가 : 관찰평가

진행 과정 계획 : 모델링 제시 후 체중지지 프로그램 적용

사후 평가 계획 : 인터뷰, Fonctional reaching test, Fonction test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1. 10센티미터 폭에서 한발 씩 교대로 앞으로 걷기

-단기

1. 수중에서 왼편으로 체중 지지하여 걷기

2. 수중에서 교차하여 걷기

3. 교차하여 걷기

4. 사례 진행 사항

1) 치료

- (1) Muscle strengthening : trunk oblique M. upper extremity (shouler extensor m.), lower extremity (hip, knee, ankle joint extensor m.)
- (2) Articulation compression : shoulder, hip의 큰 관절 위주의 압박훈련으로 관절의 안정성 강화
- (3) Movement : sit to stand, standing, walking
- (4) balance training & weight support standing
- (5) TRC : 10회 실시
- (6) SRC : side trunk elongation
- (7) one leg support in water

5. 평가

1) 객관적 평가 :

(1) MMT :

Muscle	before (rt)	before (lt)	8weeks(rt)	8weeks(lt)
Shoulder fl. ex. ab, ad.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Elbow fl. ex.	G, G,	G-, G-	G, G,	G, G
Abdominal rectus, external, internal, transverse	G,	F-, F-,	G,	F+, F+,
Hip fl. ex. ab, ad.	G, G, G-, G-,	F-, F-,	G, G, G, G	F+, F
Knee fl. ex.	G	F+, F-	G	F+, F+
Ankle dorsi fl. plantar fl.	G,	F-, F	G,	F-,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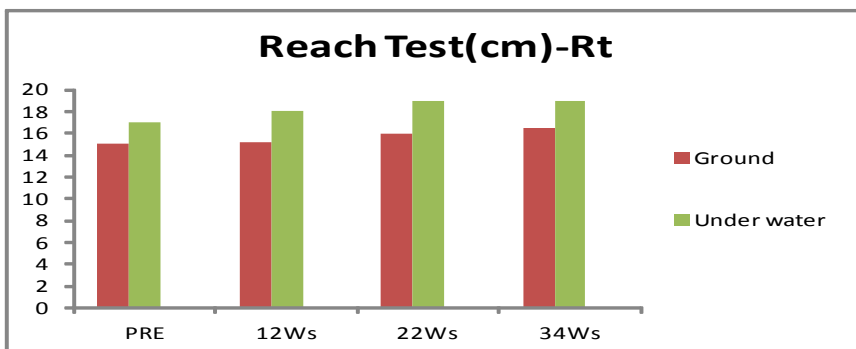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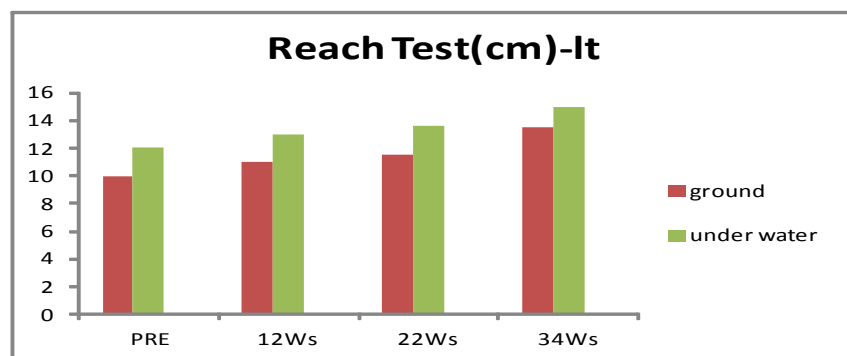
Muscle	22weeks(rt)	22weeks(lt)	34weeks(rt)	34weeks(lt)
Shoulder fl. ex. ab, ad.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Elbow fl. ex.	G, G,	G, G	G, G	G, G
Abdominal rectus, external, internal, transverse	G+	F+, F+,	G+	F++, F++
Hip fl. ex. ab, ad.	G, G, G, G	F+, F	G, G, G, G	G, F++, F++
Knee fl. ex.	G	F+, F+	G	F+, F+
Ankle dorsi fl. plantar fl.	G,	F-, F	G,	F, F

(2) 운동성 :

Movement	before	8weeks	22weeks	34weeks
One leg standing(lt)	2sec.	5sec - mild support	10sec - mild support	10sec - mild support
Walking	2step (양손 보조, 양발의 보폭 20cm, 양발의 너비 28cm.)	2step (양손 보조, 양발의 보폭 15cm, 양발의 너비 20cm.)	2step (한손 보조, 양발의 보폭 10cm, 양발의 너비 20cm.)	2step (보조 없음, 양발의 보폭 10cm, 양발의 너비 20cm.)

Movement(in water)	before	8weeks	22weeks	34weeks
One leg standing(lt)	2sec.	5sec.	10sec.	15sec.
Walking	2step (양손 보조, 양발의 보폭 20cm, 양발의 너비 28cm.)	2step (양손 보조, 양발의 보폭 20cm, 양발의 너비 20cm.)	2step (보조 없음, 양발의 보폭 25cm, 양발의 너비 15cm.)	2step (보조, 없음) 양발의 보폭 25~30cm, 양발의 너비 10cm.)

(3) Functional reach test :



2) 주관적 평가 :

(1) Alinement

- sitting : 좌우 체간의 asymmetric이 존재하지만, 초기상태보다는 asymmetric pattern이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sit to stand : 하지에 발을 충분히 지지하고 일어서지만 일어서는 과정에서 lt knee extension이 가장 먼저 일어남. ankle과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필요함. 그에 따른 발목에서 앞으로 체중이동을 유도하며 knee extension과 ankle motion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 standing : transverse abdominal m. & oblique m. 의 약화로 asymmetric pattern으로 정렬이 떨어짐. 하지의 근력 또한 asymmetric 하여 하지 근력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walking : hip adductor와 knee flexor의 약화와 움직임의 거부, 움직임 제한으로 보행의 stumble gait & circumdutor gait pattern 형태를 나타냄.

(2) 관찰평가

- general impressions : 치료 시작 시점과는 달리 수중환경에 적응이 되어 완전하지는 않으나 두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나타남.
- abilities : transverse rotation $90^{\circ} \uparrow$, sagittal rotation 45° , one leg standing with minimum support (와류에도 균형 잡기) 2sec $\rightarrow$ 5sec $\rightarrow$ 10sec $\rightarrow$ 15sec $\rightarrow$ 10sec, one leg jump walking with both hands support $\rightarrow$ change up one hand support
- disabilities : jump with both feet together on the ground, jump on one leg
- postrural patterns : lt side muscle weakness, grading movement(-), locomotion-walking $\downarrow$

6. 고찰 및 결론

수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Rotation control 및 weight support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아동의 체간의 안정화에 균형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증상이 전형적인 hemiplegia로 증상과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었다. 각각의 평가 방법은 체간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력 측정 및 reach test를 하였으며, 체간의 활성화는 체간의 안정성의 향상으로 사지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 긴장도를 낮추는 효과와 체중지지의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아동의 체간 안정성 증가여부에 따라 수중에서의 체중지지 훈련이 균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동의 체중지지능력은 초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유지 및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아동의 균형기능과 관련된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량적인 측정 방법으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객관적 평가로 Reach test 와 MAS, 등의 변화는 체간의 안정성의 향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측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체간 근육 활성도가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균형능력의 기능적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연구의 특성상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변화의 추의만으로 치료의 유의성을 증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 방향제시와 함께 균형능력과, 기능적 운동성에 수중치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해 볼 만한 대상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중 치료에 따른 효과성을 증명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치료를 통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행동 중재



팀 명	주간보호팀
연구자	김은숙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년 4월2일~10월 31일/28회 개입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출자 : 김 은 숙

◎ 주 제 : 행동치료를 통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행동 중재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류 ○ 모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4.3.8				
장애명	발달장애	급수	1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향촌휴먼시아@ 204동 ○○○호				
전화번호	032) 469-○○○○		핸드폰	010-2684-○○○○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 생육사 및 병원기록

- 94년 3월 8일 출생
- 태어나서 3~5일 후 황달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이후 이상을 느낌
- 2012년~ 현재 분노조절로 서울신경 정신과 약물 복용 중

■ 교육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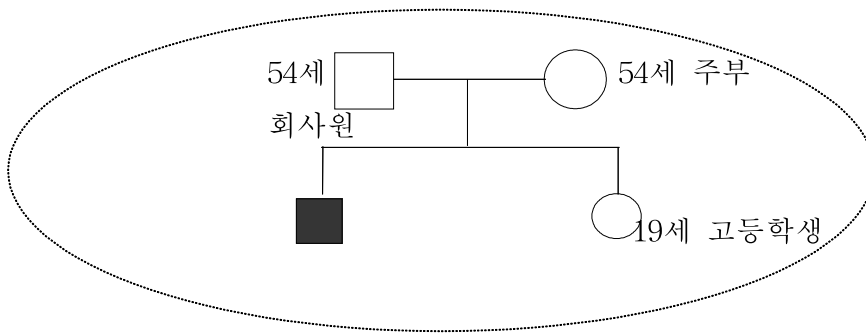
- 2013년 11월 3일 본 센터 초기면접 및 사회진단 실시
- 2013년 11월 11일~15일 본 센터 적응기간 실시
- 2013년 11월 18일~현재 본 센터 이용 중
- 현재 특수체육(송내동 운동발달센터 주 4회)
언어인지(바우처 이용), 방송댄스(만수2동 주민센터 주 1회),
장구(청소년 수련관 주 1회)

■ Life-story

c't의 모는 원하는 임신으로 임신 시 약물복용·질환·충격 등이 없었으며, 출생 시 3.4kg으로 순산였다. c't의 신체발달은 정상이었으나 3세 후 언어 및 신변처리 영역에서 퇴행되어졌다고 한다. 현재 c't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다.

c't는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본 센터내의 운동활동은 매우 싫어한다. 프로그램이 하기싫은 경우 자신의 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들을 물거나 때리는 행동이 관찰되어졌다.

■ 가족사항



c't를 포함하여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주 양육의 역할은 모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의 경우 c't에게 매우 다정하며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고 한다. 모에 따르면 여동생은 오빠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준다고 한다.

(3) 주호소 내용

ct 모는 초기 접수상담 시 ct가 가정에서만 있으면 퇴행되고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니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함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3년 11월 18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늘푸른동산 주간보호

3. 사례선정 사유

c't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본 센터에 약 12개월 정도 이용중이다. 초기 이용

시 c't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턱을 치는 정도의 자해행동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 그러나 올해 2월을 기점으로 c't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턱을 치는 행동 외에 다른 복지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자해행동과 공격행동은 현재 본센터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나, 위 ct로 인해 본인 및 다른 이용인들의 자해 및 공격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c't의 자해 및 공격행동이 본 센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행동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행동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에 본 사례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4명의 장애인 중 중증 자폐성장장애인은 7명으로 전체 이용인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 상 자발적으로 주변과 교류하지 않고 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데, 본 센터 자폐성 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특성 상 두드러진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된다. 또한 장애인 특성 중 하나로 모방이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장애인이 보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장애인도 발생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해 및 공격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해보고자 한다.

2. 사례 개입 계획

1) 이론적인 배경 -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공격행동, 자해행동, 자기자극 행동 등 여러 행동 문제는 가족이나 임상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심한 장애가 있을수록 행동수정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해결해 가는 데 분석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

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수정 기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바람직한 행동 증진 전략

가. 원칙

- ① 행동조정에 앞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습득시켜 대치행동을 가르치도록 한다.
- ② 가장 선호하는 활동 중 약간의 노력만 가지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친다.
- ③ 가정에서 쉽게 가르칠 만한 놀이나 과제를 가르치는 것이 쉽다.
- ④ 보상계획을 적절히 세워 자극과 반응간의 연합과정을 습득시킨다.
- ⑤ 장기적으로 보아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토큰경제를 실시한다.

나. 적용되는 행동수정 기법

- ① 행동형성법
- ② 행동연쇄법
- ③ 촉진법
- ④ 용암법
- ⑤ 강화
- ⑥ 토큰 경제
- ⑦ 자기조절법
- ⑧ 3단계 지시따르기 훈련

(2)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소거전략

가. 원칙

- 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분석한다.
- ②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정하여 문제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 ③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지 살펴본다.
- ④ 발생한 문제행동을 조정하기 전에 문제행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놀이활동이나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한다.
- ⑤ 소거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 지의 지침을 간략하게 준다.
- ⑥ 처벌을 사용할 때는 혐오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⑦ 일반화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적용되는 행동수정 기법

- ① 강화소거
- ② 무시
- ③ 권리박탈
- ④ 차별강화(DRO)
- ⑤ 상반행동 강화
- ⑥ 간접상황 제시
- ⑦ 고립(time-out)
- ⑧ 정적 연습
- ⑨ 조건부 운동(계약운동)
- ⑩ 과잉정정, 부가교정

2) 사례 진행과정 계획

방 법	내 용	비 고
초기관찰 (4/1~4/30)	공격행동 및 자해행동이 나타나는 요인을 A-B-C분석을 사용하여 관찰	
문제행동 개입 (5/1~10/30)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소거방법의 행동 수정기법을 통한 문제행동 개입	
결과보고 (10/31)	기록 및 관찰내용 통해 결과보고 작성	

3.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ct의 문제행동(자해 및 공격행동)을 줄일 수 있다.

2) 단기목표

- (1) c't의 자해행동을 언어적 지시만으로 제지할 수 있다.
- (2)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을 소거할 수 있다.

4. 평가방법

직접적인 관찰법을 통해 자해행동 및 공격행동 발생빈도수 파악

Ⅲ. 진행과정요약

ct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관찰 및 행동치료기법을 통해 개입을 하였으며 이를 관찰일지로 정리하였음.

1) 초기관찰(4/1~4/30)

날짜	개별 관찰	소견
4/2	ct는 미술활동 시간에 색칠하기를 하였으나 색칠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턱을 침. 임0호 복지사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복지사의 눈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함. 다른 이용인들과 분리하여 사무실에서 약 10분정도 흥분상태를 보이다가 가라앉음	ct는 하기 싫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 않고 있다가 하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자신의 턱을 치는 자해행동을 하였으며 모와의 상담결과 옆에서 제지를 할 경우 더 흥분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함.
4/7	ct는 내관하자마자 현관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지 않으려 함. 담당복지사가 들어오라고 하자 약 3분정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옴. 이 후 임0호 복지사를 보며 자신의 턱을 치는 자해행동을 보임.	ct는 주말을 가정에서 쉬고 복지관에 나오는 첫날 특히 교실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저번주부터 임0호복지사를 쳐다보며 자해행동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함. 연구자 판단에는 임0호 복지사에게 한번 공격행동을 보인후부터 계속적으로 공격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4/9	ct는 물소리, 화장실소리, 박수소리, 노랫소리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소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다른 이용인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자신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손가락을 툭툭 치는 행동을 보임.	ct는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른 이용인이나 교사들이 내는 소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며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함.
4/14	ct는 내관 시 활동보조인과 같이 내관을 하는데 오늘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앉아있으려고만 함. 연구자는 ct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약 1분정도 가만히 있다가 내림. 자해행동은 전혀 없었음.	ct는 연구자를 좀 두려워하고, 지시에 대해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짐. ct가 자해행동을 보일 경우 연구자가 그만 하라고 하면 하다가 멈추고 가만히 있는 행동을 보임.
4/15	ct가 어제 저녁 활동보조인과 산책 중 활동보조인의 손가락을 물고 놓질 않아 고생했다고 함. 활동보조인의 손가락은 붕대로 감겨있었으며 연구자는 활동보조인에게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활동보조인은 본 센터 귀가 후 인천대공원을 한바퀴 돌고 가려고 했으며 손을 잡고 가자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물고 놓지 않으려했다고 함.	ct는 4/14 활동보조인과의 본 센터 내관문제도 있었고, 인천대공원을 가고 싶지 않더라는 표현으로 활동보조인의 손가락을 물었던 것으로 판단됨. ct는 본 센터 처음 이용후부터 최근 3월까지 자신의 턱을 치는 자해행동만 쪽 보였었는데 이번달부터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해 모와 상담을 해야 할 것이며 시급히 행동수정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날짜	개별 관찰	소견
4/21	금일 ct의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 결과 청각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병원검진과 현재 본 센터 이후 진행하고 있는 체육 및 장구프로그램을 줄여 청각적인 자극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인력적 지원이 될 경우 주 1회 1시간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옴.	통합사례회의 결과를 모에게 전달하였으며 모는 4월 26일 병원진료를 다시 받겠다고 함. 또한 ct의 센터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했으며 모는 각 담당 강사들과 ct부와 상담 후 천천히 체계적으로 줄인다고 함) 주 1회 한시간 정도 산책의 경우 현재 본 센터 프로그램 중 등산활동 프로그램으로 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꾸준히 등산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발산 및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4/23	ct는 신0훈씨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교사들의 소리와 신0훈씨의 소리에 매우 흥분을 함 자신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름. 한 교사가 ct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이제 괜찮다고 하자 흥분을 가라앉힘.	ct는 소리에 매우 민감해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ct와 분리해야 할 것임.
4/30	ct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소리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자해행동도 매일 한두차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선생님들에게 “코”라고 말하며 자신의 코를 누르는 장난을 보임.	ct는 저번주와 달리 자해행동이 확 줄어들었으며 대신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짐. ct모는 26일 병원에 다녀왔으며 약을 새롭게 바꿨다는 말을 함.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고, 부작용으로는 밥을 많이 먹으려한다고 말함. 일단 약으로 인해 일일 1~2회 보인 자해행동은 확실히 줄어들음.

2) 문제행동개입(5/1~10/30)

날짜	개별 관찰	소견
5/8	ct는 이0원복지사만 보면 “코”라고 하며 자신의 코를 만지는 장난을 침. 이0원복지사는 이에 대해 “하지 마세요”라고 반응을 하였으며 다른 복지사에게는 전혀 그런 장난을 안침.	ct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코”라고 말하며 실실 웃음.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장난을 침. ct는 정신과 약이 바뀌면서 확실히 짜증을 덜 내고 자해행동이 거의 없어짐. 그러나 장난이 너무 심해져서 프로그램에 집중을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13	외부 활동 중 ct는 이0원 복지사에게 자신의 코를 만지며 “코”라고 말하고 도망을 감. 이0원 복지사가 따라가자 너무 재미있어 하며 계속 앞으로 달려감. 이0원 복지사는 뛰면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장난만 치려는 행동을 보임.	ct의 장난치는 행동으로 인해 사례회의를 하였으며 교사들은 ct가 장난치는 것에 대해 무관심적인 태도를 보이자고 합의를 함. ct가 선생님의 반응에 더 재미있어하는 것으로 판단됨.

날짜	개별 관찰	소견
5/16	ct는 이0원복지사에게 장난을 쳤으나 전혀 받아주질 않자 다른 선생님들에게 가서 “코”라고 말하며 자신의 코에 손을 갖다댐.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자신의 손으로 턱을 치는 행동을 보임. 그래도 반응을 안 보이자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앓음.	ct의 장난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산만하게 행동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무관심 행동을 보였으며 ct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없자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앓는 모습을 보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함.
6/13	ct는 방송댄스 시간을 매우 즐거워 함 강사님의 댄스에 맞춰 추지는 못하고 노래소리가 나오자 신이 나서 혼자 같은 자리에서 뛰는 행동을 보임.	ct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흥겨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리에서 뛰는 행동을 보임. 그러다가 중간중간 생각나면 선생님들을 보며 “코”라고 말하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다른 행동으로 전환함.
6/26	ct는 헬스 시간에 런닝머신을 하다가 힘들었는지 담당자에게 “힘들어”라는 말을 함. 조금만 더하고 쉬자는 담당자의 말에 ct는 아무 반응없이 런닝머신을 계속 함.	ct는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면 바로 자해행동을 보였으나 지금은 전혀 그런모습이 없음. 물론 중간중간 장난을 치려는 모습이 보여지나, ct는 많이 웃고 활기참이 느껴짐.
7/28 - 8/8	2주간 여름방학 실시	
8/11	ct는 내관하자마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소리를 냄. ct모가 들어가라고 하자 가만히 서있었으며 담당자가 들어오라고 하자 바로 들어옴.	ct가 2주 정도 가정에서 편히 있다가 제시간에 본센터에 내관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으로 판단됨. 하반기 프로그램이 적응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19	ct는 내관해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흥분을 하고 자신의 턱을 치는 자해행동을 보임. 담당자가 제지를 하자 더욱더 흥분을 하여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하고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지켜봄. 이내 담당자에게 “잘못했어 안했어”라는 말과 함께 손바닥을 내밀며 자로 자신을 때리라고 함. 약 1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었으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으면 교실로 가라고 하자 바로 문열고 나감. 이후에는 잘 참여함.	ct모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으며 모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한 자해행동을 보이면 선생님이 자로 때렸다고 함. 이후 이 행동이 고착이 되어 자로 자신을 때리라는 표현으로 자를 가져온다고 함. ct는 방학 중 가정에서 거의 ct가 원하는데로 밖에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TV만 봤다고 함. 이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다가 센터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날짜	개별 관찰	소견
8/20	ct는 펜글씨 시간에 임0호 복지사가 쓰라고 하자 자해행동을 하며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고 사무실에 들어감과 동시에 흥분을 가라앉힘. 이후 점심시간에 다시 흥분을 하였으며 복지관 앞에서 드러누워 일어날 생각을 안함. 남자 복지사들이 양쪽에 손을 잡고 교실까지 가도록 하였으며 가는 도중 임0호 복지사 손을 무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ct의 흥분강도가 매우 세졌으며 힘으로 선생님들을 제압하려는 모습이 보임. 식사시간에는 다른 이용인들과 식사가 다 마친후 같이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느끼고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임0호복지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보여짐. ct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ct의 행동이 매우 강해졌으며 가정에서는 어떤지 물어봄. 모는 집에서 전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함.
8/21	ct 점심 짹을 임0호복지사에서 본 연구자로 바꿔 진행함. ct는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올라오는 길에 연구자의 머리를 잡고 공격행동을 보이려 함. 힘으로는 전혀 제압이 안돼 바로 이0원복지사가 공격행동을 하지 않도록 뒤에서 잡음. 한참을 그러다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힘.	ct는 지금까지 연구자를 무서워하고 전혀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연구자에게도 달려들고 공격적인 행동이 보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ct스스로 자신의 힘에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흥분상태에서는 신체가 매우 크고 동작이 커서 행동수정기법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모에게 ct 약이 내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병원과 다시 상담이 필요함을 전달함.
8/22	ct는 점심 짹을 다시 이0원복지사와 하게 되었으며 이0원복지사에게는 별 어려움없이 잘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함. 연구자를 쳐다보며 소리를 내며 연구자의 반응을 기다림. 이에 대해 연구자가 반응을 안보이자 몇차례하다가 그만 둠.	ct는 이0원복지사에게는 힘으로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연구자에게는 한차례 공격행동을 보였을 때 위축되는 반응을 보이자 연구자를 계속 자극했던 것으로 판단됨. 하반기 프로그램 시작 이후 2주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 봐야 할 것임.
9/11	8월 말, 모와의 상담을 통해 ct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모는 병원에 상담을 의뢰, 정신과 약을 조절해야겠다는 말을 함. 이후 공격적인 행동은 줄기는 했으나, 부작용으로 식탐이 늘고 선생님들과 장난치려는 행동을 많이 함.	모와의 상담 시 ct가 초기 때 보였던 복지관을 안 가려는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지관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며 가자고 재촉한다고 함. 복지관에서는 계속 웃으며 장난을 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에 일단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봐야 할 것임.
9/18	ct는 선생님들 앞에서 장난을 치며 소리내어 웃음. 장난 방법은 선생님을 친다음 자신을 잡아보라는 시늉을 함.	이0원 복지사가 몇 번 장난에 응해주었으나, ct는 장난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프로그램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치려는 행동이 보임.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그러한 장난을 칠 때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합의함.

날짜	개별 관찰	소견
10/2	ct가 장난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ct는 얼굴을 들이내밀고 장난을 치려함. 연구자는 ct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내 혼자서 자리에 앉아있음.	ct는 장난을 치면 선생님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재미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바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함.
10/15	ct 귀가조치 후 활동보조인이 약 3분후 뛰어와서 도와달라고 함. ct가 활동보조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너무 놀라 복지관으로 돌아왔음. 이에 담당복지사에게 혼이 났으며 벌을 받음.(손을 들고 서 있음) 활동보조인을 때리면 안된다고 하자 죄송하다는 말을 함.	ct는 담당복지사들에게는 공격적인 행동하는 것이 줄었으나 담당 활동보조인에게 몇일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이에 대해 활동보조인이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이렀는데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ct가 활동보조인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모와 상의를 하였고 모는 따금하게 혼내야 한다는 말만 함.
10/22	ct가 간식시간에 장난을 치려고 하자 선생님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보임. 복지사들은 바로 쫓아갔으며 ct는 재미있다며 웃음. 이러한 행동은 안전에 위험한 행동이기에 이에 대해 크게 꾸짖음.	외부로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할것임. 바로 뛰어나가다가 차도에 부딪힐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10/30	ct는 간식시간에 간식을 먹고 난 후 문쪽으로 가서 소리를 냄. 선생님이 “문 열지 마세요”라고 하자 웃으며 문을 열려고 함. 그러나 바로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자 자리에 와서 앉음. 크게 반항을 하지 않음.	ct는 선생님이 오라고 하자 바로 오고 자리에 앉는 행동을 보임. 선생님의 지시에 대해 바로 반응을 하고 크게 반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아는 것으로 판단됨

IV. 분석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ct모와의 상담을 통해 본 담당자와 ct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한 다음 그 방법을 가정 환경과 복지관에서 ct에게 적용했을때에 ct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였다.

1.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의 변화정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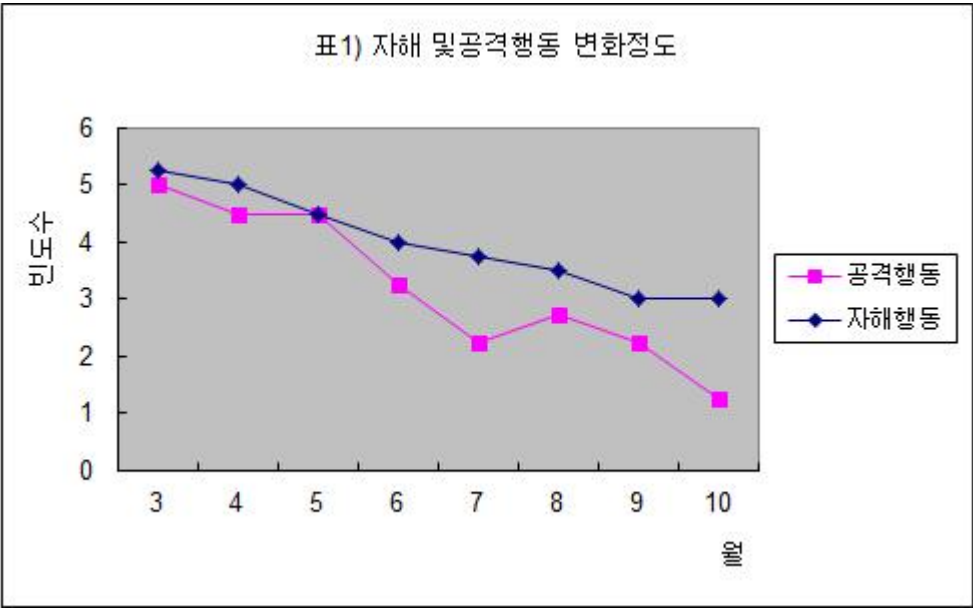


표 2)

분류	자해 및 공격행동(주/빈도수)								평균횟수	
	1주		2주		3주		4주			
	자해	공격	자해	공격	자해	공격	자해	공격	자해	공격
3월	5	5	6	5	5	5	5	5	5.25	5.0
4월	5	5	5	4	5	4	5	5	5	4.5
5월	5	5	4	5	5	4	4	4	4.5	4.5
6월	4	3	4	4	4	4	4	3	4	3.25
7월	4	3	4	3	3	2	4	2	3.75	2.25
8월	4	3	3	2	3	3	4	3	3.5	2.75
9월	3	3	3	3	3	2	3	2	3	2.25
10월	3	2	3	2	3	1	3	1	3	1.25

* 2분 이상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손등을 무는 자해행동을 할 경우 체크를 함

2. 제언

위의 표 1)에서 볼 때 ct의 자해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은 초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감소원인은 첫째로, 늘푸른동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공격 및 자해행동을 보일 경우 부적강화(프로그램 시간 분리)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약물치료가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에서의 자해행동에 대한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정환경에서의 행동과 늘푸른동산에서의 행동이 일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t는 현재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소거가 된 행동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은정, 자폐성장애 연구, 한국자폐학회, 2001

김정권, 정신지체아 교육과 지도의 실제, 2001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중증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주간보호
연구자	이지원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05.05.~ 2014.11.21. / 23회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이지원

◎ 주 제 :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중증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조O준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3.09.11				
장애명	발달장애	급수	2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190-00 7단지 719동 000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9186-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93년 9월에 출생하여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어린 시절에는 장애에 대한 특별한 징후가 없어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ct가 7살 되던 해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발달장애(자폐성장애)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 ct의 아버지는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ct의 문제행동들(상동행동, 음식에 대한 집착, 통제가 안 되는 행동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을 하고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현재는 다툼은 거의 없다고 함. ct의 모는 가정주부로 ct의 어린시절부터 주 양육자로써 가장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호해오고 있음. ct의 모는 ct의 욕구를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허용해주는 편이며 ct와 매우 가까운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ct의 누나는 현재 대학생으로 ct의 모에 따르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친 적 없이 매우 반듯하게 자랐고 ct의 영향으로 철도 빨리 든 편이라고 함. ct와의 관계는 가까우나 ct가 누나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함. ct는 인천 학익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늘푸른샘 시설에서 6개월 정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던 중 본 센터를 이용하게 됨. ct의 가족은 전반적으로 관계가 좋으며 ct에 대한 관심 및 애정도 높은 편이라고 함. 하지만 ct의 누나는 ct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어린시절부터 ct

에게 쏠린 부모의 애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함.)을 가지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ct는 본 관 내관 시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가생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기술 및 사회성의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주보 13-06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이전 조O영씨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종결로 인해 현재 ct를 선정하게 됨. ct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인적이 없었지만 학습능력이 타이용인들에 비해 매우 좋고 담당자의 지도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통합활동을 통한 봉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하고자 하여 선정하게 되었음.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1) 필요성

대인관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사고 및 행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인관계는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의 결함과 기타 특성들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이 매우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기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 수동성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기도 한다.(정유진, 2005)

이처럼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도 어린시절부터 주양육자 또는 가족들과 한정된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지적 수준이나 대화능력은 다른 이용인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으로 매주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통합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사례연구 하고자 한다.

2) 개념설명

통합활동 : 매주 1회 진행되는 사회적응훈련 및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인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전원이 돌아가며 회당 6명이 프로그램 보조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평소 가족과 본 센터의 담당자 및 이용인들을 대상으로만 관계형성을 해왔던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 : 등산활동, 배드민턴, 문화활동 등이 있으며 이용인과 봉사자가 일대일로 매칭되어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2. 사례 개입 계획

1) 현 상태 파악

- ① ct의 대인관계능력 현 상태를 파악한다.
- ② ct와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대인관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진행 과정 계획

- ① 대인관계능력을 3회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한다.
- ② 통합활동 후 ct와 봉사자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 한다.

3) 개입방법

- ① 주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일대일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 동안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봉사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ct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 1) 장기목표 : ct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어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 2) 단기목표 :

- ① ct의 대인관계기술 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될 수 있다.
- ② ct가 통합활동 봉사자들의 이름을 5명 이상 암기할 수 있다.
- ③ ct가 봉사자들과 문장 형식으로 대화 할 수 있다.

4. 진행상황

1) 프로그램 세부관찰 내용 및 대인관계 능력 측정

날짜	프로그램	관찰 내용
5/8	사례연구 사전 대인관계 능력 측정 (1차)	
5/14	관모산 등산	금일 통합활동 프로그램으로 시설관리 공단 봉사자들과 이용인들이 일대일 매칭이 되어 인천대공원 관모산 등산을 실시함. ct는 젊은 남자봉사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등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하는 동안 봉사자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임. 봉사자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기도 하여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음. 등산 중반에 힘들어 하였으며 봉사자에게 매달리듯이 등산을 함. 담당자의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올라가라는 지도에 봉사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등산함.
5/22	봄나들이	봄나들이 프로그램으로 강화도 자연체험학습장을 다녀옴, ct는 중년 남성봉사자와 짝을 이루어 체험을 실시함. 동물먹이주기, 마차타기, 활쏘기, 승마, 보트타기, 머드체험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을 실시하는 동안 봉사자의 지도에 따라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동물을 무서워하는 ct는 승마하는 것을 무서워하였지만 봉사자가 계속해서 안정을 시키고 잘 타일러서 결국 승마를 할 수 있었음. 소견 - 봉사자와 짝을 이루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봉사자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처음만난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금방 관계를 형성하는 하는 모습을 보임.
6/11	산책 및 배드민턴	통합활동 프로그램으로 일부는 인천대공원 산책을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등산활동을 실시함. ct는 배드민턴활동이 가능하여 봉사자와 함께 배드민턴활동을 함. 봉사자와 함께 배드민턴 네트를 설치하고 40분간 배드민턴을 실시함. 봉사자의 지도로 배드민턴 서브, 셔틀콕넘기기 등을 배우면서 집중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임. 쉬는시간에도 혼자앉아있지 않고 봉사자 바로 옆에 앉기도 하며 봉사자와 함께 있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소견- 함께 활동을 했던 봉사자가 대화도 많이 시도하고 친절하게 배드민턴 치는 것을 지도해 주어 ct가 좀 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6/18	인천대공원 산책	통합활동 프로그램으로 시설관리공단봉사자들과 함께 복지관부터 인천대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옴. ct는 남자 봉사자와 짝을 이루었음. 봉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묵묵히 걷기만 하였지만 봉사

		자의 손을 산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 잡고 있었으며 손을 놓친 경우 옆에 가서 잡으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소견: ct는 대화하는 방법이 서툴러 봉사자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봉사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봉사자와 함께 활동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임.
6/26	아쿠아플라넷	일산아쿠아플라넷 아쿠아리움 관람을 실시함. ct는 남자봉사자와 짝을 이루어 개별관람을 실시하였음. 봉사자의 친절한 설명에 다양한 수중동물들을 구경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직접 동물을 만질 수 있는 장소에서는 봉사자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만져보기도 하였음. ->소견: 평소 동물을 무서워하는 ct가 동물을 만진 것은 봉사자들의
7/02	인천대공원 산책	봉사자들과 짝을 이루어 인천대공원 까지 산책을 진행함. 이번 봉사자는 ct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임. ct역시 봉사자와 주변 풍경도 구경하며 산책을 실시함. 공원으로 가는 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ct는 강아지가 옆으로 오자 봉사자의 등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며 봉사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
7/16	인천대공원 산책	금일은 인천대공원 내부에서 담당자 및 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산책 및 운동을 실시하였음. 봉사자와 함께 동물원도 구경하고 산책도 하는 시간을 가짐. ct는 봉사자와 단 둘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냄.
8/20	시화조력발전소 문화관 방문	통합활동으로 시화조력발전소 문화관 관람을 다녀옴. 버스에서 봉사자와 대화하면서 이동할 수 있었음. 하지만 단답형식의 대화만을 하였고 봉사자의 일방적인 질문에 ct가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음. 조력발전소에 도착하여 25층 높이의 타워에서 아래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ct는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겁내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었음. ->소견 : 체험을 다녀와 ct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재밌었다고 이야기함. 외부활동을 좋아 하는 ct에게 바다도 보고 이것저것 관람도 할 수 있는 통합활동이 즐거웠을 것으로 보임. 출발 전 이용인들에게 조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외부활동 할때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지 ct에게 물었는데 봉사자선생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
8/20	대인관계 능력 측정 (2차)	
09/03	배드민턴 및 산책	봉사자 6명 이용인 14명이 함께 청소년수련관에서 배드민턴 및 산책 활동을 실시하였음. ct는 남자 봉사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 배드민턴 활동을 함. ct 는 본 센터 프로그램실에서 봉사자와 짝을 이루고 인사를 나눈 후 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하였으며 이동하는 동안 봉사자와 특별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음. 봉사자의 지도에 따라 네트를

		설치하고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함. ct는 봉사자의 지도에 라켓을 가지고 공을 맞추려는 시도를 여러번 반복하고 공을 스스로 줍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열심히 배드민턴을 쳤음. 20분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의욕이 없어 보였으며 처음에 비해 봉사자의 대화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대답도 잘하면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통합활동 시간 내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드민턴을 쳤. 쉬는 시간에는 평소 혼자 앉아 있었지만 봉사자의 옆에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09/17	관모산 등산	금일은 ct 포함 이용인 13명과 봉사자 3명, 담당자 3명이 함께 관모산 등산을 실시함. 봉사자가 적게 참여하였으나 ct에게 짝공을 시설관리공단 봉사자로 지정해 주었음.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도 봉사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려주고 반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봉사자의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하였음. ct는 봉사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주자 스스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등산을 하는 동안에는 봉사자의 손을 잡고 다니도록 하였으며 봉사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등산을 하였음. 처음에는 봉사자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하다가 담당자의 지도로 대화를 할때는 봉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을 하였음. 정상에 올라 봉사자에게 “물”,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천천히 문장으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자 “물 먹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임.
09/24	아시안게임관람 (세팍타크로)	봉사자 6명과 이용인 14명이 함께 부천종합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세팍타크로)을 관람하였음. 본센터를 이용하고 처음으로 가는 커다란 경기장에서 ct는 봉사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이동하였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며 함께 화장실을 다녀옴. 통합활동이 끝난 후 봉사자의 이름을 물어보자 ct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헤어지면서도 잘가라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임.
10/01	아시안게임관람 (여자하키)	아시안게임 여자하키 경기를 관람하러 봉사자6명과 이용인 14명이 함께 다녀왔음. ct는 남자 봉사자와 짝을 이루었으며 경기장에서 짝을 정하였는데 남자봉사자가 먼저 인사하자 답인사를 하며 옆으로 가서 손을 잡는 행동을 보임. 함께 입장하여 ct와 봉사자는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였으나 경기관람하는동안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경기를 관람하였음.
10/08	관모산 등산	금일은 봉사자들과 함께 인천대공원 뒤에 있는 관모산을 등산하였음. 담당자의 소개로 봉사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등산을 시작하였음. ct는 봉사자의 옆에서 1m이상 벗어나지 않고 항상 옆에 있었으며 봉사자가 특별히 말을 걸지 않는 한 말을 하지 않았음. 하지만 “화장실에 가요,” “물먹을꺼예요.”라고 욕구를 표현하며 봉사자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임.
10/15	관모산 등산	ct는 봉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등산을 함. 2회 휴식을 가졌는데 쉬는 시간에는 봉사자에게 계속 시선을 향하며 봉사자의 얼굴을 지속해서

		쳐다봄. ct에게 상대방의 얼굴을 계속쳐다보고 있는 것은 실례라고 지도하였으며 ct에게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좋아서” 보고 있었다고 함. ct는 다른사람들과의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호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10/22	대인관계 능력 측정 (3차)	

5. 최종평가

1) 목표평가

① ct의 대인관계기술 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될 수 있다.

1차(사전)	측정결과 55점 중 27점으로 49%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를 보임.
1차(관찰)	평소 ct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음.
2차(중간)	측정결과 55점 중 26점으로 47%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를 보임.
2차(관찰)	사전 측정 이후부터 ct를 관찰한 결과 통합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담당자의 지도에 의한 부분일 수 있지만 봉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손을 잡거나 욕구가 있을 시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힘들 때 매달리는 등의 모습)
3차(사후)	측정결과 55중 30점으로 55%의 대인관계 능력 점수를 보임.

총 3회 측정결과 1회와 2회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3회 측정에서는 1회에 비해 3점 정도 향상된 점수를 나타내었음. 대인관계 변화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5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7,8,9번은 담당자가 ct를 관찰하고 대신 작성함.

사전 측정에 비해 1차 측정 이후 5점 이상 향상이라는 단기목표를 정하였지만 최종 측정 결과 단기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함.

② ct가 통합활동 봉사자들의 이름을 5명 이상 암기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면서 짝꿍을 정하는데 ct에게 자신의 짝꿍 봉사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도록 실시하였음. 통합활동이 끝나고 함께 했던 봉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음. 하지만 매주 봉사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활동했던 봉사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함.

③ ct가 봉사자들과 문장 형식으로 대화 할 수 있다.

매회 통합활동이 진행 될 때마다 봉사자들과 1번 이상 문장형식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봉사자들에게 요청을 하였음. 봉사자의 적극성이나 담당자의 유도에 따라 문장형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는 모습을 보임.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면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매 회 통합활동마다 봉사자들과 문장형식의 대화를 하지는 못하였음.

2) 과정평가

- 등산활동을 통해 봉사자와 이용인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안전상의 이유로 통제를 자주하는 담당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들(욕구표현, 도움요청 등)을 봉사자들에게 보이기도 하였으며 봉사자들과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임.
- 봉사자와 1대1 매칭을 통해 ct에게 매번 다른 봉사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
- 봉사자와 함께하는 외부 활동(등산, 배드민턴, 산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활동을 하는 동안 봉사자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하기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봉사자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른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봉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관계를 형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함.
- 목표 설정에 있어 다양한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지만 반복적이지는 않았던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5명의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하여 목표설정이 잘 못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및 향후계획

- 본 사례연구는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ct의 대인관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 ct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지하도록 하여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하고자 함. 또한 사례연구가 끝난 후에도 단답형식의 대화를 구사하는 ct에게 문장형식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하고자 함
- 봉사자의 적극성 및 성향, 통합활동 프로그램 내용, ct의 기분등의 변수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 통합활동 프로그램이 ct의 대인관계 능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 하지만 사례연구를 하는 동안 ct는 봉사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금의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확인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는 ct에게 이번 사례연구를 실시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매번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의 중요성,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또한 프로그램

- 을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의지하기도 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른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함.

참고문헌

- 김수연.(2012). 장애인의 대인관계 특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한상미(2006). 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정연(2009)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 김윤례(2012) 원예치료프로그램이 1급 지적장애인의 사회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회적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팀 명	주간보호
연구자	임명호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07.01.~ 2014.10.31. / 26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임명호

◎ 주 제 : 사회적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름	류O모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4. 3. 8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남동구 만수2동 1115-1 향촌 휴먼시아 1단지 133동 104호				
전화번호	-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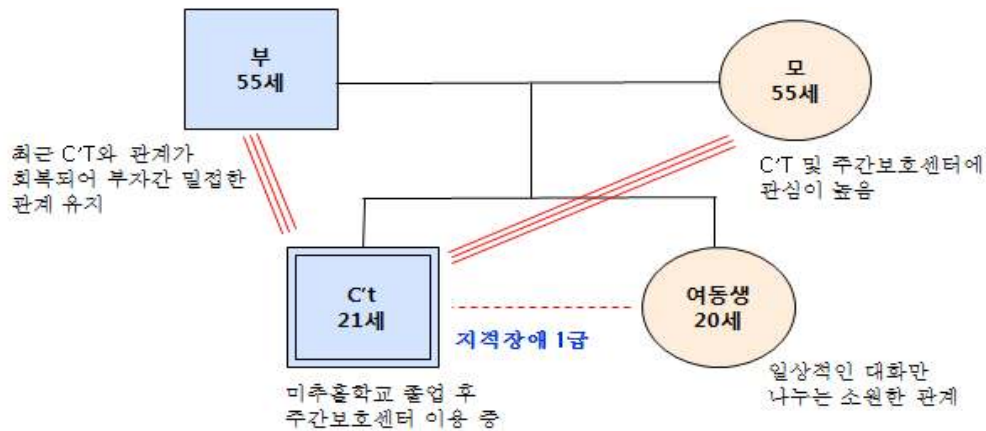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94년 3월 8일에 출생하였으며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음.

일반학교에 재학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찾아 미추홀 고등학교로 전학(1학년 2학기) 및 졸업 후 현재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

주간보호센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임. 프로그램 진행 시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수동적이고, 사회복지사 및 강사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짝음.

양육자인 모는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는 전업주부임. 부의 경우 C't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직업적 특성으로 전주에서 파견근무 진행으로 약 10년(~2011년)동안 떨어져 지냄으로서 당시에는 부자간의 애착정도가 매우 부족하였음. 부의 회사에서 파견근무 종결 시 추가적인 파견근무를 또다시 요청하자 자진사퇴를 하였고, 이직을 결심하게 됨(현재 그린에너지 개발 재직 중). 이에 인천에서 함께 모든 가족이 생활하게 됨. 하지만 10년간의 벽이 있었고, 부자간 사사로운 것에도 부딪치게 되었지만, 계속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현재는 원만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 모가 없어도 부자끼리 외식 등의 외출을 종종 즐길 정도로 관계가 돈독함.



(3) 주호소 내용

ct는 본 관 내관 시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가생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기술 및 사회성의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주보13-08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클라이언트는 신체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인지 능력 역시 위 내용을 수행하기에 무리는 없으나 감정에 기복이 커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지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사회복지사 및 부모 등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호감이 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자원봉사자의 지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중 의 하나인 샤워 후 의복 입기와 편식하지 않고 식사하기 등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지지(정서, 정보적지지, 긍정적상호작용)를 통하여 감정 컨트롤을 하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최종 목표중 하나인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으며. 가정 이외에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사회적지지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강화 할 수 있다 판단되어짐.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자립생활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인 장애인의 사회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자립생활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들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본적 틀이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 수행능력을 좀 더 향상 할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현재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지지 혹은 물질적지지 등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시 다른 지시가 없어도 몇 가지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샤워 후 환복)을 수행함에 따라 좀 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자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 하고자 함.

2. 사례 개입 계획

1) 현 상태 파악

- ① ct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파악한다.(ADL평가지 활용)

2) 진행 과정 계획

- ① 월 1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여 변화를 확인한다.
- ② 주 1회 ct를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 한다.
- ③ 주 1회 이상 사회적지지를 제공한다.

3) 사후 평가 계획

- ① 출석부 및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의사소통의 빈도수를 측정한다.
- ② 월 1회 작성하는 ADL 평가지를 토대로 전 월과 비교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2) 단기목표

- ① ct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2점 이상 하향 될 수 있다.

4. 진행상황

ct를 대상으로 7월 7~9일간 최초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특징 상 담당자가 항목을 확인 후 체크하였음.

1) 사회적지지 제공

날짜			내용
7/7~9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1)
7/14~ 7/18	사회적지지 제공	7/16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화장실을 이용 후 손에 물을 조금 물인 후 나가려는 행동을 함. 이에 ct에게 손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물을 조금 물인 손을 옷는 행동과 함께 닦도록 유도 후 깨끗이 닦아 멋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지지해 줌.
7/21~ 7/25	사회적지지 제공	7/23 식생활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ct는 점심 식사 시 식사를 하지 않고 반찬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행동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골고루 식사를 해야 건강해진다고 정보적지지 후 반찬을 입에 가져가 씹는 순간 너무 맛있다고 정서적 지지를 함.
7/25~ 8/8			주간보호 하계방학
8/11~ 8/14	사회적지지 제공	8/13 식생활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점심 식사 도중 소리 지르며 흥분하고 밥을 먹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임. 이에 ct에게 제제를 하지 않고 옆에 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한 후 식사를 하면 너무 맛있고 예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정서적 지지를 함.
8/19~ 8/20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2)
9/03~ 9/05	사회적지지 제공	9/04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본인의 발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담당자를 쳐다보다 담당자가 다가가자 손가락을 본인의 입으로 가져가며 옷는 행동을 보임. 이에 ct의 옆자리에 앉아 발로 손가락을 가져갈 시 발을 만지고 그것을 입에 가져가면 아플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라며 이야기 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맛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함.
9/10~ 9/12	사회적지지 제공	9/11 식생활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점심 식사로 자장면을 먹으며 젓가락으로 먹기가 힘들자 손으로 면을 집어 먹으려는 행동을 보임. 식사 시 담당자가 ct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먹으면 얼굴과

			손과 얼굴에 자장면이 묻고 배가 아플 수 있다고 정보적지지 및 젓가락으로 먹으면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인다고 정서적 지지를 함.
9/15~ 9/19	사회적지지 제공	9/16 식생활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간식으로 나온 토마토를 먹은 후 헛 구역질을 하며 담당자를 쳐다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가 ct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며 토마토라는 채소라 이야기 하며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라 정보적 지지를 한 후 이것을 다 먹으면 조금 더 맛있어질 것이라는 정서적 지지를 함.
9/22~ 9/26	사회적지지 제공	9/26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수중운동 후 샤워 시 가만히 서있는 행동을 보이며 담당자만 쳐다보는 행동을 함. 샤워 방법으로 샤워기 사용 법 및 거품을 내는 등의 정보적 지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샤워기를 사용하여 몸에 물을 묻히는 행동을 보여 너무 너무 멋있다며 정서적 지지를 함.
9/26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3)		
9/29~ 10/02	사회적지지 제공	9/30 식생활관리	정보적 지지 식사 시 반찬을 스스로 담는 곳에서 아주 조금씩만 담고 지나가는 행동을 보여 본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가 먹으면 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10/06~ 10/15	사회적지지 제공	10/14 개인위생 관리	정보적 지지 양치 시 칫솔을 들고 담당자를 쳐다보며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치약을 칫솔 바른 후 양치를 해야 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10/20~ 10/24	사회적지지 제공	10/24 식생활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간식으로 나온 포도를 입에 넣고 껍질째 삼키는 행동을 하여 포도는 껍질을 뱉고 먹는 것이라는 정보적 지지를 한 후 행동을 따라 하자 담당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최고 라는 이야기를 함.
10/24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최종)		

2) 개별관찰

날짜	개별 관찰	소견
7/17	식사 시 밥과 반찬을 따로 먹으며 남은 반찬과 밥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손가락으로 집는 행동을 하여 언어적 지시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교사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행동을 보여 다시 한번 더 식사에 집중하고 밥과 반찬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이야기 하여 식사를 마침.	지속적인 식사 교육으로 ct의 행동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복지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본인이 욕구대로 식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적 장애인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같은 교육 및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됨.
7/23	프로그램 시간 도중 본인의 머리를 긁	ct는 위생의 개념이 현재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고 코를 만진 후 그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행동 및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손바닥 위를 휘젓는 등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복지사가 ct옆에 앉아 정보적 지지로 위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복지사의 얼굴을 보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다시한번 더 손을 잡고 웃으며 정서적 지지를 함. 그러자 만지는 행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임.	판단되어져 지속적인 위생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ct스스로 싫어 할 경우 턱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임. 이에 ct가 싫어하지 않도록 복지사가 강압적인 말투를 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수행할 것이라 사료됨.
8/22	ct는 아침 내관 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과 턱을 치는 등 흥분한 상태였으나 본인이 좋아하는 수중운동 시 스스로 의복을 벗고 샤워실에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복지사 및 봉사자가 긍정적 피드백으로 정서적 지지를 해 주자 평소와 다르게 샤워 후 본인의 의복을 스스로 입으려는 행동을 함.	ct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는 경향이 있음. ct는 평소 기분이 좋을 때 웃으며 복지사와 장난을 하는 행동 및 스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보임. ct의 기분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어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9/5	식사 전 손을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턱을 치며 자해를 하는 행동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화장실 물건들을 사용하여 자해를 하지 않도록 옆에 같이 있으니 약 2분 후 자해를 멈추고 담당자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임.	ct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복용하던 약을 바꿈에 따라 더욱 민감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에서 이야기 함. 이에 따라 화장실에서 다른 이용인들이 손을 씻고 떠드는 소리에 흥분을 했다고 판단하여 화장실 이용 시 다른 이용인이 사용을 끝낸 후 혹은 사용 전에 이용토록 지도할 계획임.
9/11	프로그램 시간과 쉬는 시간동안 ct는 본인의 머리와 코를 만진 후 입에 가져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 담당자가 옆에 앉아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마다 비위생적인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함. 이에 ct는 담당자가 옆자리에 앉으면 행동을 멈추었다 담당자가 이동하면 다시 같은 행동함.	ct는 화장실 이용 시 손을 닦지 않고 대변을 본 후 휴지를 잘 닦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관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한 번의 이야기로 행동의 변화가 되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보일 시 담당자 이외 다른 복지사들 역시 언어적 제제를 하여 행동의 변화를 꾀어야 할 것임.
9/18	프로그램 도중 갑자기 일어서는 행동을 하며 출입구로 다가가는 행동을 하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행동을 하여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 하자 몸에 힘을 주며 움직이지 않으려 함. 이후 약 1분이 지나자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조그마하게 하여 화장실에서 대변	ct는 평소 주간보호센터에서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담당자가 화장실을 가자는 말을 해야 이동하여 용변을 보는 행동을 함. 그러나 이번 행동을 보아 본인이 용변에 욕구를 가질 시 용변실수를 하지 않고 출구 앞에 서있는 다는 행동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는 그러한 욕구가 있을 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휴지로 닦지 않고 나오려는 행동을 하여 휴지로 닦은 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함.	계획임.
9/22	수중운동 후 샤워 시 가만히 서있는 행동으로 보여 언어로 부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니 샤워기를 사용하여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함. 이 후 비누를 사용하여 거품을 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비누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며 담당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임.	ct는 샤워 및 세면, 손 씻기 등 위생관리가 언어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고 언어적 도움을 주더라도 언어적 도움을 준 대상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던지 혹은 살짝 물을 물인 후 대상을 쳐다보며 의지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임. 이는 위생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이에게 의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언어적 지도 시 그 지도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려 함.
9/29	프로그램 및 쉬는 시간, 점심시간 종례 시간 등 모든 시간에 그 시간에 있는 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였으며 담당자들이 앉아 있자 담당자들을 쳐다보며 프로그램실 문을 열며 나가려는 행동을 보임.	최근 약이 바뀌어 몸이 가라앉고 감정 표현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가족들의 말과는 달리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행동을 보임. 이에 따라 가족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교육 방안을 기획하려 함
10/7	집에서 복지관을 올 때부터 표정을 굳이고 몸에 힘을 주며 움직이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담당자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프로그램실 본인 자리에 앉아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ct의 어머니가 근무를 하지 않아 직접 데려다 줄 시 고집을 부리고 흥분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에서 이야기 하여 아침 이동 시 아버님이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어머니가 쉬는 날에도 복지관에는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육 하려 함.
10/22	본인의 간식을 다 먹은 후 담당자를 찾아와 간식을 더 달라는 욕구 표현을 하고 아직 간식을 다 먹지 않은 이용인들의 간식에 손을 대려 함.	ct는 평소 식탐을 보이지 않고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복용하던 약이 바뀐 후 식탐을 부리는 모습을 보임. 이에 본인의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하려 함.

5. 중간평가

1) 목표평가

- ① ct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는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 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대소변, 식사, 복장, 몸치장, 보행, 목욕하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1회(초기)	측정결과 30점 중 13점
2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3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최종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총 4회 측정결과 1회에 비하여 최종으로 1점이 하향(하향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 한 것으로 함)한 것으로 나타남.

2점 이상 하향 이라는 단기목표를 정하였으나 현재 목록 부분에서 1점이 하향 이후 변화값이 없어 단기목표에서 실패하였다 판단되어짐.

2) 과정평가

- 초기계획 한 것에 맞게 적절하게 주 1회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 1회 관찰을 할 수 있었음.
- 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례연구기간을 너무 짧아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측정 내용이 목록 과 외부활동 이동이 있기에 수중운동이 들어 있는 날에 맞추어 변화값을 측정함.

3) 총평

- 평가 결과 사회적지지(정보적, 정서적, 구체적지지 등)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작은 값이지만 향상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개인의 기분이나 가정의 환경 등의 변수들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향후 좀 더 많이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증 지적 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측정값의 2점 하향이라는 단기 목표에는 실패하였다 할 수 있으나 현재 변화가된 능력이 유지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ADL 평가도구

	구 분	점수	내 용	점수
1	대소변	① ① ② ④ ⑤	-화장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금 현상이 전혀 없다.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하며 가끔은 실금 현상이 있다. -1주일에 1회이상 수면중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1주일에 1회이상 낮시간에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대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2	식 사	① ① ② ④ ⑤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식사중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사 후 위생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중등고의도움을 받아 식사하며 지저분하게 식사한다. -모든 식사를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는 식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 한다.	
3	복 장	① ① ② ④ ⑤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 -옷을 미리 골라져 있다면 입고 벗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옷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다. -전혀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주어야 한다.	
4	몸 치 장 (단정 함, 머리손 튕, 얼굴)	① ① ② ④ 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항상 단정하게 옷입고 몸치장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몸치장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면도 같은 것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치장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규칙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몸치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단 몸치장을 한다음에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몸치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5	보 행	① ① ② ④ ⑤	-시내를 걸어 다닐수 있다. -집안이나 동네를 걸어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walker,wheelchair등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루의 반이상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낸다.	
6	목욕하 기	① ① ② ④ ⑤	-스스로 도움 없이 목욕할 수 있다. -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 혼자 목욕할 수 있다 -얼굴과 손은 쉽게 씻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씻지 않는다. -스스로 씻지는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목욕시킬 때 협조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씻어주려해도 저항한다.	
총 점				

레포트활동이 독거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지역복지
연구자	고형식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4.8.~2014.11.20 / 총 4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고희식

◎ 주 제 : 레포츠활동이 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내 용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이○원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47.1○.0○				
장애명	지체	급수	5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70○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7○06-0○○6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 c't는 배우자와 성격차이의 문제로 20년 전 이혼을 함.
- 이혼 후 자식과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고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친척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 첫째 아들의 진로문제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셨음.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낌.
-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다리의 힘이 자주 풀려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였고.
- 또한 주변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여 술자리를 피하기 힘들어 자주 과음을 하신다고 하셨으며 최근 간 건강이 많이 나빠 지셨다는 표현을 하였고.
- 주변에 7단지 근처 사는 친구들 이외에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였고, 친구들이 술을 강요하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디딤돌운동실의 아침운동과 무료급식소의 점심식사 이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TV시청을 주로 하신다고 함.
- 낮에 TV를 보다 잠이 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하시며,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시며 우울감을 다소 많이 나타내심.
- 밤에 자주 드라마, 프로그램을 보며 자주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시며, 또한 자신이 집에서 독거사를 하였고 경우 백골이 되도록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과 함께 두렵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함.

(3) 주호소 내용

이용인은 독거노인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13.11.05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재가서비스, 디딤돌운동실, 무료급식소

3. 사례선정 사유

c't는 독거 남성장애인으로써 가정활동, 여가, 모두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인 물론 정서적 고립감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 또한 c't의 지인은 모두 알코홀릭이 의심되어 의지와 도움받을 대상이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에 레포츠프로그램에 참여 시켜 타 이용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유도 하며, 또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독거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왜 우울증상 수준이나 유병율이 높을까라는 물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울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동배, 손의성, 2005; 김기정, 표갑수, 2008; 강상경, 부가청, 2010).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나 사회적 차별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 또는 유지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기회에서 소외되고 이러한 소외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전지혜, 2010). 우울의 증상적 특징은 정서적인 슬픔이나 자살의 위험 외에도 삶에 대한 동기나 목적의식의 약화를 포함하고 있다(APA, 2004; Radloff, 197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장애로 인한 차별과 더불어서(Scheid, 2005), 장애인의 우울은 이들의 재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활의 근간이 되는 우울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우울의 특징 및 예측요인을 다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우울감을 레포츠활동과 접목하여 우울감 요소를 감소시켜보자 한다. 이에 해소 방안으로 레포츠활동과 접목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레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논의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레포츠활동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조직적·규칙적인 스포츠활동은 정신적, 정서적, 감각적, 신체적 겸함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인과 동등한 운동수행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환경에서 경험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부자유나 부적응을 극복하여 성취감이나 극기, 자아실현과 같은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성향을 내면화 시킴으로써 건강 및 사회적응력 향상시키는 사회 통합수단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고 한다.

레포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결단력, 인내력,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기여하며, 자유로운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의 체내 에너지를 발산시킴으로서 정서적 긴장, 불안감, 피로를 해소시켜 정서적, 정신적 안정과 적응을 높여준다고 한다.(홍양자 1996)

이에 레포츠활동을 통하여 남성독거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사례 개입 계획

1) 개입장소와 시간

본 연구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복지팀의 사회심리재활사업인 레포츠활동(부제: 레포츠의 맛을 아는 남자들)을 통하여 연 5회기의 레포츠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장소는 사전 섭외한 구월동에 위치한 포켓볼 장소에서 진행되며, 1박2일 캠프는 추후 결정 후 진행될 예정임.

2) 진행 과정 계획

연구기간은 4월8일부터 ~ 8월26일까지 진행되며, 횟수로 5회 개입하며 프로그램 시 척도 검사를 진행한다.

회기	날짜	목적	활동
사업설명회	2/11	사업설명회	자주적 레포츠 프로그램 선택
1회기	4/8	레포츠활동	레포츠활동 진행 및 우울감 척도 검사
2회기	5/13	레포츠활동	레포츠활동 진행 및 우울감 척도 검사
3회기	6/3	레포츠활동	레포츠활동 진행 및 우울감 척도 검사
4회기	7/15	레포츠활동	레포츠활동 진행 및 우울감 척도 검사
5회기	8/26	1박2일 캠핑활동	1박2일 캠핑활동 우울감 척도 최종 검사

3) 사후 평가 계획

주어진 우울감 척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를 통하여 총5회 c't의 우울감을 체크하여 평가할 계획임.

- 우울감 척도-

	질문	체크란
1.문항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문항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문항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문항	나는 전과 같이 일상 생활속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일상 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문항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가끔 느낀다.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6.문항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 어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문항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문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문항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문항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나는 요즘 항상 운다.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문항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이 아니다.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문항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문항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 봐 걱정한다.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문항	나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문항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문항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문항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 없다.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문항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전보다 몸무게가 3Kg가량 줄었다.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문항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한다.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문항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사례 개입 목표

- 장기 : 레포츠활동이 독거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검증
- 단기 : 1. 연 4회 레포츠 활동에 참여한다.
2. 연 1회 1박2일 캠핑활동에 참여한다.
3. 매회기 우울감 측정지를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4. 진행사항

c't를 대상으로 2014년 남성장애인프로그램 레포츠활동에 참여시켜 사업설명회 1회 및 총5회기 중 4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우울감척도 조사지를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음. c't의 건강 문제와 문제행동으로 인한 서비스종결로 인하여 마지막 회기의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하였음.

1) 프로그램 진행사항

구 분	내 용
사업설명회	① 일시 : 2월 11일(화) 10:00 - 11:00 ② 세부내용 • 레포츠활동 사업참여 접수 • 레포츠활동 종목 선정
사회설명회 (progres)	-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접수를 하였음. 또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타 대상자들과의 의견나눔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 C'T가 의견낸 포켓볼에 대하여 종목이 정해져 기쁜 표현을 나타내었음.
1회기	① 일시 : 4월 8일(화) 10:00 - 14:00 ② 세부내용 • 선택 레포츠활동 • 점심식사 • 척도 조사지 작성
1회기 (progres)	- 처음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이 속해있는 조원들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함께 디딤돌운동실(본관 운동실)을 다니고 있는 타 대상자(지적/청각 복합장애) 적극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음.
2회기	① 일시 : 5월 13일(화) 10:00 - 14:00 ② 세부내용 • 선택 레포츠활동 • 점심식사 • 척도 조사지 작성
2회기 (progres)	- 프로그램 중 자신의 조가 아닌 다른조와 어울려 레포츠활동(포켓볼)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점심식사 시 우리는 한식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음. 프로그램 구성원에게 정감섞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3회기	① 일시 : 6월 3일(화) 10:00 - 14:00 ② 세부내용 • 선택 레포츠활동 • 점심식사 • 척도 조사지 작성
3회기 (progres)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타대상자들의 나이와 이름을 외우는 모습을 보였음. 사석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며 친근함을 과시함.
4회기	① 일시 : 7월 15일(화) 10:00 - 14:00 ② 세부내용 • 선택 레포츠활동 • 점심식사 • 척도 조사지 작성
4회기 (progres)	- 프로그램 진행 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프로그램 중간에 담당사회복지사 밖에 없다는 표현을 자주 섞어 쓰시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임
5회기	① 일시 : 8월 26일(화) ~ 8월 27일(수) ② 세부내용 • 1박2일캠프 • 척도 조사지 작성
5회기 (progres)	- c't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본 복지관에서 종결됨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함.

5. 평가

1) 목표평가

C'T는 사전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1회 및 레포트활동 프로그램 4회에 전부 참여 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후 우울감척도 조사를 통하여 C'T의 우울감을 파악하여 현재의 우울감 상태를 파악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1회기에 52점으로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었으며, 독거사에 대한 두려움을 표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2회기에는 다소 낮아진 점수로 45점을 나타냈음, 미비하게 하향된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3회기에는 오히려 우울감이 더 높아진 모습이 관찰되었음. 2회기보다 11점이나 높아진 56점을 나타냈으며, 프로그램시에는 타이용인에게 친근함을 보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표현을 함. 4회기에는 우울감이 많이 해소된 모습이 관찰되었음. 39점을 나타내었음. 프로그램시 기분이 좋아보이며, 웃음을 많이 보였음. 하지만 c't의 문제행동 발생으로 인하여 본관 재가서비스에서 종결됨에 따라 나머지 5회기프로그램과 척도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최종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1회기에서~ 4회기간에 우울감에 관한 척도조사로 하향된 모습이 보였음. 하지만 c't의 연구 중단이탈로 인하여 완벽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우울감 척도지로 매회기의 척도결과를 살펴 보았을 경우 1회기~4회기동안 결과적으로 우울감이 많이 해소된 모습을 보였으나, 3회기에는 가장높은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였음, 이에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함.

- 우울감 척도지 사료첨부-

① 1회기 (4/8) 총점-52점

1회기 - 레포트 활동 (4/8)		
구분	내용	점수
1회기	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2점
2회기	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2점
3회기	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회기	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2점
5회기	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회기	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1점
7회기	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2점
8회기	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회기	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0회기	1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1회기	1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2회기	1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3회기	1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4회기	1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5회기	1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6회기	1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7회기	1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8회기	1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9회기	1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0회기	2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1회기	2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2회기	2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3회기	2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4회기	2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5회기	2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6회기	2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7회기	2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8회기	2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29회기	2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0회기	3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1회기	3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2회기	3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3회기	3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4회기	3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5회기	3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6회기	3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7회기	3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8회기	3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39회기	3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0회기	4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1회기	4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2회기	4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3회기	4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4회기	4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5회기	4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6회기	4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7회기	4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8회기	4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49회기	4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0회기	5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1회기	5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2회기	5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3회기	5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4회기	5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5회기	5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6회기	5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7회기	5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8회기	5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59회기	5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0회기	6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1회기	6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2회기	6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3회기	6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4회기	6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5회기	6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6회기	6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7회기	6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8회기	6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69회기	6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0회기	7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1회기	7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2회기	7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3회기	7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4회기	7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5회기	7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6회기	7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7회기	7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8회기	7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79회기	7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0회기	8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1회기	8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2회기	8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3회기	8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4회기	8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5회기	8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6회기	8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7회기	8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8회기	8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89회기	8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0회기	9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1회기	91.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2회기	92.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3회기	93.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4회기	94.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5회기	95.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6회기	96.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7회기	97.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8회기	98.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99회기	99.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100회기	100.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가족관계)	3점

[illegible][illegible]

- 우물쭈문 제로 -		정답	
	나는 솔로다? 옳다?	정답	비고
1번항	나는 솔로다? 옳다?	✓	2
	나는 솔로라고 자기를 댕구 읊다?	✓	
2번항	나는 솔로라고 불려서도 내가 기뻐할 수 없다?	✓	2
	나는 솔로에 대해서 솔로 낙인을 찍는다?	✓	
3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가 나뉘지 않는다?	✓	2
	나는 솔로에 대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4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불쌍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	1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5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6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7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8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9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0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1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2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3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4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5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6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7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8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19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0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1번항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나는 솔로라고 해서 솔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과정평가

- 1~4회기간에는 C'T의 적극적인 참여로 척도지에 대한 거부감 없이 연구에 임할 수 있었음.
- 우울감 척도지 작성시 프로그램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감정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여 척도지결과가 프로그램진행 후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남.
 - 초기 계획된 프로그램에 일정에 맞추어 4회기가 적절히 진행되었으며, C'T의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나, c't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종결됨에 따라 최종5회기를 진행하지 못함.

3) 결론 및 향후계획

- 본 레포트활동이 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남성장애인에게 레포트활동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총 5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c't의 자발적인 참여로 4회기까지의 진행이 되었으나, 프로그램 마지막에 c't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본관 재가서비스에 종결이 됨으로 더 이상 레포트활동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음에 따라 4회기에서 연구가 종료되었음. 1~4회기까지의 연구 결과로 레포트활동이 남성장애인의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4회기간 c't의 긍정적인 변화는 발견되었다. 프로그램참여로 인한 c't의 감정의 변화의 추이가 발견됨에 따라 미비하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 향후 프로그램 진행의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며 c't의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c't에게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여가 프로그램 참여가 재가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지역복지팀
연구자	윤혜림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년 3월 3일 ~ 11월 21일/ 총 31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윤 혜 림

◎ 주 제 : 여가프로그램의 참여가 재가장애인의 우울감 해소 및 자아존중감 개선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황○숙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 미혼□
생년월일	1965. 09. 26.				
장애명	지체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전동휠체어	장애등록	유 ■ 무□
주 소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주공아파트 7○○-○○○				
전화번호	032) 467-○○○○		핸드폰	010-7652-○○○○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3) 주호소 내용

C't는 2005년 초기상담 당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밑반찬서비스지원과 현물지원을 요청하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음. 최근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C't의 지속적인 우울감호소, 낮은 자아존중감을 표출하여 잠재된 욕구를 발견,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5. 05. 17.(화)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생태교실, 문화탐방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뜨개교실

3. 사례선정 사유

- 16세때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거의 완치되었으나 결혼 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장애발생 하였음. c't는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위한 임신중절을 권유하였으나 출산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서 더 악화됨. 현재 1남 2녀의 자녀와 함께 거주중임
- c't의 남편은 10년 전 가출하였으며 가끔 연락이 왔었지만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임. 장애와 생활고에 의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음.

- 남편과는 이혼하고 싶으나 남편을 찾을 수 없어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댁에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c't는 친정에서도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친척이 없다고 함.
- c't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감호소, 낮은 자아존중감을 표출하는 등 사례개입이 필요한 상태임. 관내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자아존중감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례 선정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시대로서 노동시간의 단축,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의 확대에 의하여 여가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2009,이중섭 재인용)

여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가활용은 단순히 자유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우리생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며 여가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만족을 얻기도 한다. (2011,장재형)

또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폭이 넓어지고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인해 생활만족이 향상되며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되고, 여가활동은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증대되는 '감정공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연구결과들도 발표되었다.(2013, 전영록 재인용)

제가 대상자인 C't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감호소, 낮은 자아존중감을 표출하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다. 작은일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우울감 해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사례 개입 계획

1) 현상태 파악

-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 C't의 기분, 자아에 대해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진행 과정 계획

- 주1회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고 관찰일지에 C't의 변화를 기록한다.
- 월1회 C't 가정방문을 통해 변화된 상담 내용을 기록 한다.

3) 사후 평가 계획 등

- 출석여부와 프로그램 참여 및 의사소통 빈도수를 측정한다.
- 우울감 해소 및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척도를 통해 목표량을 측정한다.
-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도 향상 유·무를 판단한다.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 1) C't의 우울감 해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

-단기

- 1) C't의 우울감 척도 10% 향상
- 2) C't의 자아존중감 척도 10% 향상

4. 사례 진행 사항

2월 21일 개강으로 리폼아트교실, 천연비누교실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탐방은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음. 8월 22일c't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종결하였음.

5. 평가

1) 출석부, 생태교실 운영일지

c't 대상으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척도지를 통해 c't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졌음.

날짜	출석여부	프로그램 내용	비 고
4/3	—	개입 전 측정	
4/4	○	스팸통 재활용 하여 꽃을 넣어 화초로 마무리	
4/11	○	폐식용유를 이용해 세탁세제 만들기	
4/18	○	양초에 냅킨을 붙여 소품장식 만들기	
4/25	○	버무리 만들기	
5/2	○	버려지는 커피용기에 아로마오일로 방향제 만들기	
5/9	○	환경을 보호하는 화장품, 스킨로션 만들기	

5/16	○	버려지는 유리병을 이용하여 목욕소금 만들기	
5/23	×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바스봄 만들기	
5/30	○	생수 펌프병 리폼하여 화분만들기	
6/13	×	헌옷을 이용한 브로치 만들기	
6/20	○	천연 섬유유연제 제작	
6/27	×	CD를 이용한 시계만들기	
7/4	○	천연재료를 이용해 모기퇴치제 제작	
7/11	○	버려지는 스티로폼을 이용해 문패만들기	
7/18	○	정제수, 이왁스, 호호바를 이용해 천연 선크림 만들기	
7/25	○	원두찌꺼기의 유용성을 알고 각질제거제 만들기	
8/1	○	헤어에센스 만들기	
8/22	-	개입 후 측정	

1) 자아존중감 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검사는 황○숙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음. 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남.

[표1] 자아존중감 만족도 결과

구분	자아존중감 만족도 측정 점수	사전대비 향상률
사전	53점	7.54%
사후	57점	

측정결과 사전조사 4점의 차이로 점수 대비 7.54%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냄.

● 자아존중감의 만족도 사전척도

번호	문 항	매우그렇다 ← 보통 → 전혀그렇지않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		
3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준다.			●		
4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	
5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	
6	나에겐 친구가 없다.				●	
7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8	내가 원하는 만큼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	
9	나는 망설이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		
10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		
11	나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		
12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	
13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				
14	내 문제를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		
15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16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				●	
17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		
18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		
19	나는 사회생활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		
20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	

● 자아존중감의 만족도 사후척도

번호	문 항	매우그렇다 ← 보통 → 전혀그렇지않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	
3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준다.			●	
4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
5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
6	나에겐 친구가 없다.				●
7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8	내가 원하는 만큼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
9	나는 망설이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	
10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	
11	나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		
12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
13	나는 회사 또는 모임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	
14	내 문제를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	
15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16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			●	
17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	
18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	
19	나는 사회생활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	
20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	

2) 우울감의 만족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우울감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는 황○숙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음. 결과는 [표2]과 같이 나타남. 측정결과 사전조사 5점의 차이로 점수 대비 23.8%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냄.

[표2] 우울감 척도 결과

구분	우울감 측정 점수	사전대비 향상률
사전	21점	23.8%
사후	26점	

측정결과 사전조사 5점의 차이로 점수 대비 23.8%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냄.

● 우울감의 만족도 사전척도

1. 지난 일주일간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2.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3. 지난 일주일간 동안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6. 지난 일주일간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없이 생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 우울감의 만족도 사후척도

1. 지난 일주일간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2.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3. 지난 일주일간 동안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6. 지난 일주일간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없이 생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이틀정도)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정도)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정도)

6. 결론 및 향후계획

(1) 결론 및 향후계획

c`t는 생태교실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검사를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더니, 측정결과 사전조사 42점에서 사후조사 결과 52점으로 10점 차이로 점수 대비 14.28%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우울감 사전, 사후검사는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측정결과 사전조사 13점의 차이로 점수 대비 25.49%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황○숙씨는 처음 생태교실 프로그램 중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뜨개교실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체참석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c`t가 살고 있는 지속적인 권유끝에 생태교실의 리폼아트교실, 천연비누교실, 환경행사, 환경영화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의 즐거움과 집단활동의 이점을 느끼고 더욱 환해진 얼굴로 변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개인사정으로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우울감의 변화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등 보다 높은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현된 욕구 뿐만 아니라 내재된 욕구까지 파악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는 등 밀접한 접근을 통해 개인별 맞춤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으로 재가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지지(사례관리)가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지역복지팀
연구자	이건용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4. 2. 4. ~ 2014. 10. 31. / 60회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연중 계획서

◎ 제 출 자 : 이진용

◎ 주 제 : 사회적지지(사례관리)가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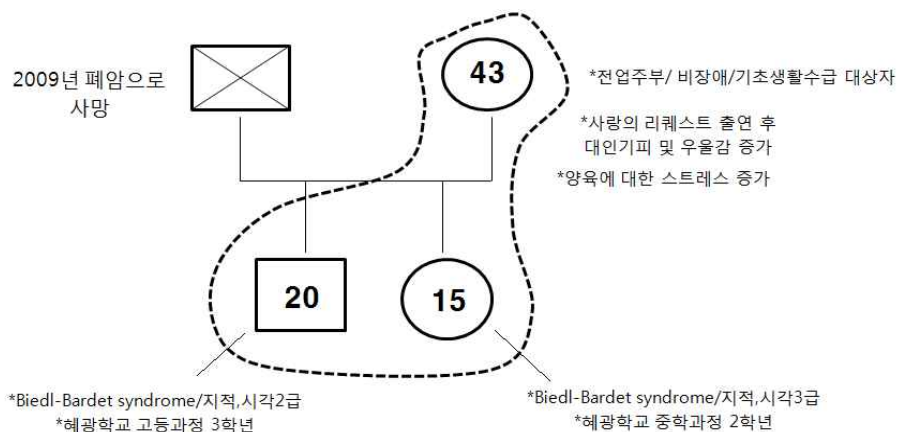
(1) 기본사항

이름	박○○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사별■
생년월일	1972. 12. 03				
장애명	-	급수	-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번지 ○○빌라 ○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7732-○○○○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두 자녀 모두 난치성 희귀병인 Bardet-Biedl Syndrome¹⁾을 갖고 태어났다. 정확한 병명은 4년 전 알게 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선천적 기형과 시력장애로만 알고 있었다. c't의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c't의 자녀들은 현재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맹이 되어가고

< 가 계 도 >



1) *Biedl-Bardet syndrome: 상염색체 열성이 유전되는 병, 추상체-간상체 이영양증, 몸통 비만증, 손가락과 발가락의 기형, 인지장애, 신부전증 증상이 나타나는 병

있는 과정중이다. c't는 자녀들의 출생 후 Biedl-Bardet syndrome의 증상인 구개열, 다지증, 외사시 등 여러 치료들을 위해 많은 지출들이 있었고 양육의 집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었다.

5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양육을 전담하게 된 c't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2012년에 c't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된 대학병원에서는 c't의 가정을 사랑의 리퀘스트 추천하게 되었고 c't의 가정은 방송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출연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았지만 방송출연의 부작용으로 c't는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었다. 동시에 자녀들이 비장애학교에서 학급의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c't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c't는 장애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3) 주호소 내용

본 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등록을 위한 초기상담 시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등록 후 지속적 사정을 통해 c't가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욕구들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문제점과 욕구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장애자녀의 양육과 치료의 부담감이었으며 이로 인한 c't의 스트레스였다. 또한 상담을 통해 c't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2년 10월 2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3. 사례선정 사유

2012년 10월 경제적 어려움을 주욕구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등록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t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재사정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문제점과 욕구들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문제점과 욕구는 장애자녀의 양육과 치료의 부담감이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c't의 스트레스였다. 이와 함께 c't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c't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t는 상담 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답답해요.”, “남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등 낮은 자아존중감을 추측할 수 있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에 본 담당자는 c't가정에 사회적지지(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써 c't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한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은 큰 변화이지만 장애를 지닌 자녀의 출생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자녀로 인한 부모의 양육부담은 커지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애자녀의 부모는 정상자녀의 부모의 비해 2~3배 수준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배광웅·송산천, 1986)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장애자녀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차별 등이 가정에 영향을 끼쳐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장애자녀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충격은 장애자녀를 낳았다는 죄의식과 사회로부터 받는 냉대감과 함께 어우러져 장애자녀 어머니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과 함께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경우, 자식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깊은 죄의식과 좌절감에 빠져든다.(이삼연, 1999)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장애로 부정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장애자녀를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하고 있으며,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감소시키는 가이다. 여기에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한다고 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정하고 자기 지식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지게 할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해준다면 장애자녀 어머니가 갖는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정추영, 2004)

연구대상인 c't는 장애자녀의 출생과 양육으로 낮은 자존감과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c't에게 사회적지지(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c't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 ① c't의 양육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
- ② c't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2) 단기목표

- ① c't가 주1회 이상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c't에게 월 3회 이상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례 개입 계획

1) 현상태 파악

- ① 설문지를 통한 분석(3개월에 1회 검사)
 -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도구
 -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전해인(2006)이 재구성한 도구
- ② 현 양육과 감정에 관한 상담진행

2) 진행과정 계획

- ① 주 1회 이상 양육 및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 진행
- ② c't의 욕구에 부합한 사회적지지(사례관리) 제공

3) 사후평가 계획

- ① 설문지를 통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 평가	질문지법 검사	개입전, 개입 후 4개월, 개입 후 8개월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척도 평가	질문지법 검사	개입전, 개입 후 4개월, 개입 후 8개월

② 진행과정평가

- 주1회 이상 상담을 통한 변화 체크

4. 사회적지지(사례관리)

사회적지지(사례관리) Progress		
날짜	개입유형	내용
2/6	상담	사회적지지(사례관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사회적지지 대한 동의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지지를 받기로 하였음.
	측정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 측정 (개입전)
2/10	상담	c't와 양육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발견됨. 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지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소개 및 활동지원급여이용 절차 안내 *즉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함.
2/17	상담	c't와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이에 인천내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지지	인천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 실시
2/25	상담	c't와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장애등급판정 절차와 Biedl-Bardet syndrom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2/25	사회적지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판정 절차 안내 및 Biedl-Bardet syndrome 관련 의학정보 제공 실시
3/4	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고3 아들의 진학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함.
3/6	상담	c't와 고3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고3아들은 현재 사회복지과와 재활치료과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이에 관련정보를 문서화하여 c't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지지	사회복지과, 재활학과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c't에게 전달함.
3/6	상담	c't와 사례관리와 사례연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사례관리와 사례연구에 동의를 하였고 개입전 측정을 하기로 함.
3/10	상담	c't의 정신과치료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매월 정신과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최근 고3아들의 진로가 걱정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함.

사회적지지(사례관리) Progress		
날짜	개입유형	내용
3/12	사회적지지	지역장애인대표자 간담회 초청 및 참여 *c't의 욕구 및 건의사항을 간담회에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c't는 간담회 주제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또한 간담회 참석자 및 직원들과 함께 식사에 참여하였음.
	사회적지지	c't는 복지관 내관시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였음.
	상담	아들의 진로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함.
3/17	상담	c't와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자녀들의 진료에 대한 걱정감을 표출함. c't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 수원에 있어 진료날짜가 다가오면 걱정이 많다고 함. 이에 재가복지서비스의 외출지원을 통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림.
3/24	상담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음. 상담을 통해 c't의 가정이 곧 이사계획이 있음을 확인함.
4/2	상담	c't의 정신과치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음. 최근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이 든다고 호소함. 이에 이용하고 있는 정신과병원 방문을 권유하였음.
4/10	상담	c't의 불면증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4월 7일 정신과병원에 방문하여 불면증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약처방을 받았다고 함. 약복용후에는 수면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함.
4/14	상담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사회적지지	저소득가정 장학금지원사업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지원함.
4/22	사회적지지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정 이사지원사업을 연계함.
5/2	상담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음. 외출준비중이며 친구와 인근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함.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아보였음.

사회적지지(사례관리) Progress		
날짜	개입유형	내용
5/9	상담	외출지원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5월 13일 수원아주대학교병원에서 유전학과 검사가 예정되어 외출지원을 요청하였음. 이에 외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5/13	사회적지지	외출지원서비스제공(수원아주대학교병원 이동 및 진료지원)
5/15	상담	c't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재판정 전에 Biedl-Bardet syndrome 관련한 의학정보 재전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함. 이에 담당자가 관련 의학정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지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Biedl-Bardet syndrome 관련 의학정보 전달 실시
5/28	사회적지지	현물(휴지)지원
	측정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 측정 (개입후 4개월)
5/29	상담	c't가족의 가족여행참여 권유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음. c't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함.
6/5	상담	c't와 가족여행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녀와의 상의결과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이에 가족여행 관련 정보를 안내하였음.
6/13	사회적지지	c't가 요청한 가전제품정보 문서화하여 전달
	상담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6/23	상담	c't와 LGU+에서 진행하는 장애가정지원사업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기로 함.
	사회적지지	c't와 함께 LGU+ 장애가정지원사업 신청 실시
7/4	상담	c't와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나눈후 본 관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교실에 대해 정보를 안내함. 이에 c't는 관심을 보이며 신청을 하겠다고 함.
	사회적지지	여름방학교실 'The+하다 시즌2' 신청완료
7/5	사회적지지	장애인가족여행 참여
7/6	사회적지지	장애인가족여행 참여

사회적지지(사례관리) Progress		
날짜	개입유형	내용
7/9	상담	c't와 여름방학교실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본 관의 여름방학교실은 대기로 접수되었으며 타기관의 여름방학교실도 신청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함. 이에 타 기관의 여름방학교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안내하기로 하였음.
	사회적지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여름방학교실 신청 완료
7/11	상담	여름방학교실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본 관의 여름방학교실 이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림.
7/13	상담	c't와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음. c't는 자녀와 함께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올 예정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방학교실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함. 또한 어머니가 계시는 지역 근처에 펜션을 알아보달라고 요청함.
7/24	사회적지지	펜션 정보 안내 및 예약 실시
8/1	상담	일상생활과 c't의 정신과 치료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또한 c't는 8월 4일 수원아주대학교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지원을 요청함
8/4	사회적지지	외출지원서비스제공(수원아주대학교병원 이동 및 진료지원)
8/8	상담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음.
8/19	상담	c't딸의 이비인후과 치료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상담결과 적합한 병원을 알아본 후 c't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8/20	사회적지지	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정보 안내 실시
8/21	사회적지지	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전달 실시
9/1	사회적지지	명절서비스 쌀 10kg 지원
9/2	상담	c't아들의 대학입시 면접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음.
9/11	사회적지지	대학입시 면접 관련 서류 전달
9/13	사회적지지	장애인 가족모임 참여

사회적지지(사례관리) Progress		
날짜	개입유형	내용
9/24	상담	c't의 아들이 입시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음. 입시 관련 상담 후에는 사회적지지(사례관리) 관련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9/30 가정방문하여 측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9/30	상담	사회적지지(사례관리) 관련 평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t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양육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함.
	측정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 측정 (개입후 8개월)

5. 평가

1)단기목표

① c't가 주1회 이상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사례관리)는 총 33주간 진행이 되었다. c't와 사회적지지(사례관리)제공기간동안 총 상담을 31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목표달성율은 93.9%달성할 수 있었다.

[표-1] 상담참여

목표달성율

93.9%

연구의 목적인 c't의 스트레스 완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c't자녀의 양육, c't의 가족체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상담이 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상담을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c't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요소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c't는 남편과의 사별 후 난치성희귀병을 갖고 있는 두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부담감이 있지만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이었다. 둘째는 c't에 대한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였다. 이에 본 담당자는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제공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발견된 욕구에 적합한 지지(사례관리)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 초기에는 부정적 단어사용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줄어들고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② c't에게 월 3회 이상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8개월 진행동안 사회적지지를 총 24회 제공하였으며 목표달성율은 100%이다.

[표-2] 사회적지지 제공

목표달성율
100%

사회적지지는 상담을 통해 발견된 욕구에 적합한 사회적지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지지는 양육지원, 경제적지원, 치료지원, 심리적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양육지원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지원은 현금과 현물을 중점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치료지원은 의학정보제공과 외출지원이 진행되었으며 심리적지원은 c't의 정신과치료 관련하여 진행하였다.

2)장기목표

① c't의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

c't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전해인(200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시기는 개입전, 개입후 4개월, 개입후 8개월이었다. 양육스트레스척도(PSI)는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관련 고민,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 아동의 특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측정에 대한 점수가 낮은 점수 일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음을 나타낸다. c't의 측정에 대한 점수변화는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3] 양육스트레스

시기	개입전	개입후 4개월	개입후 8개월
측정점수	63점	69점	78점
증감률	-		

사회적지지(사례관리)제공 후 측정점수가 증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제공시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사회적지지외에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지지(사례관리)후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점수가 증감됨에 따라 사회적지지가 c't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한다.

② c't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c't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시기는 개입전, 개입후 4개월, 개입후 8개월이었다. 도구는 4점 척도의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t의 측정에 대한 점수변화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표-2] 자아존중감

시기	개입전	개입후 4개월	개입후 8개월
측정점수	17점	19점	23점
증감률	-	+12%	+35%

측정을 통해 c't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점수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 사회적지지와의 외적영향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지지가 제공되면서 c't의 자아존중감 측정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계획

1)결론

본 연구는 장애자녀의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자녀 어머니의 개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및 외적 자원인 사회적지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c't의 양육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약 8개월동안 c't에게 사회적지지(사례관리)를 제공하였다. c't에게 사회적지지(사례관리)를 제공하기전과 제공후 4개월, 제공후 8개월에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각각 비교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c't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사회적지지(사례관리)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c't와의 상담결과 c't의 가정환경, 주위환경에 변화는 없었다. 이에 사회적지지(사례관리)는 c't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c't와 같이 장애아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양육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낮아지는 자아존중감의 완화를 위해 사회적지지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비롯된 어머니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다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또 다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가중

되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지지체계가 없는 장애아 어머니에게 사례관리보다 광역의 사회적지지가 제공된다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저하를 완화하고 그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향후계획

본 담당자는 c't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순차적으로 사회적지지(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화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적 사회적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담당자의 개입없이 지지체계들이 c't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인옥 (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 이경옥 (2008).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구일숙 (2008).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사회적지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척도를 중심으로 -



팀 명	직업재활팀
연구자	이주미 직업재활사
연구기간	2014.03.01.~2014.10.31./ 465회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이주미

◎ 주 제 :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척도를 중심으로 -

I. 서론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여 사회적으로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장애인의 직업을 가지고 근로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 취업률이나 고용률 증가라고 하는 양적인 측면 이외에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규, 2000).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의 부족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취업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환경과 부적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직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 사업주, 본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응지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같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직원간의 화목과 응집력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여가활동이 어려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및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료상담효과를 줄 수 있는 취업자자조모임의 진행이 필요하다.

취업 후 적응지도는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조절해줌으로써 장애인이 만족스럽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장애인개발원, 2010).

또한, 장애인이 배치된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원과 비장애인 혹은 동료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포함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겪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비지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고용장려금 지원과 같은 정보제공도 포함이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작업생산성 문제, 시간관리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기관리 문제 등이다(직업재활서비스 표준모형 개발 및 원가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본관에서는 2001년부터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년마다 취업자들을 배출하며 취업 후 적응지도사업을 실시해왔다. 취업자 중에서도 취업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이직경험이 많은 자, 직장생활 무경험자,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었던 자, 연령이 낮은 자 등)을 위주로 연중 수시로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된 목적은 취업알선, 지원고용을 통하여 취업된 장애인들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고 적응상의 문제해결 및 고용유지와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소식지 발송 및 취업자자조모임을 통해 주말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었다.

2013년부터 본관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은 기존과 다르게 취업자들이 서비스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원활한 사업진행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을 하였는데 지난해에도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와 관련해서 ‘근속년수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로인해 2014년에는 서비스 적정기간이 아닌 비용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오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취업자들이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취업자들은 이미 담당자와 수년간 라포가 형성되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년 지원고용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는 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은 접수, 진단 및 평가, 직업 전 훈련, 직업훈련, 직업배치, 적응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응지도는 직업재활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장애인이 취업된 이후 직장의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 장애정도, 본인의 필요, 기업의 필요 등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환경과 직무 자체에 잘 적응하고, 직능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독립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김기원,1995).

적응지도는 전 단계의 직업재활 과정인 직업상담과 직무배치 상의 고용계획이 실제 취업 후 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고용주나 장애인근로자, 동료 근로자가 만족된 관계를 형성하여 고용안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위영, 나운환, 2001).

적응지도는 고용유지를 위해 제공되며 어떤 재활서비스도 포함할 수 있고 고용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하며, 새로운 고용계획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적응지도를 '적응지도라 함은 취업자의 원만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일체의 상담 및 지도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응지도는 취업한 장애인이 조직생활이나 작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써, 내담자의 직업배치 이후에 일정기간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상황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잠재력을 증가시켜 직무와 작업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고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 판단을 위하여 3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첫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고 둘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이며, 셋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또 근로자는 매월 15일 이상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0)

또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직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장애인 근로자로 규정하였다(박주영,2003).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Cobb(1976)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상호 책임을 갖는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Lin(1979)등은 사회적 지지를 '사람, 집단,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라고 정의 내렸으며 원조, 긍정성, 애정이라고도 명명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면서 기본적 욕구충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유무,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이라고 언급하였다. 박지원(1985)은 '인간의 기본

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여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상호작용 등 여러 측면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크게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구조적인 측면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지지체계로 세분화하여 개념화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은 결혼상태, 지역사회 참여여부 등으로 측정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긍정적 지지와 상호작용으로 개념화되어 체계의 크기, 다양성, 접촉빈도, 동질성 등으로 측정된다(김윤정, 최혜경, 2000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지지체계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긍정적 차원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Caplan(1974)는 사회적 지지를 내용면으로 구분을 지어 설명하였는데 타인이 개개인에게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고 정서적 부담을 극복하도록 돕는 정서적지지, 돈을 주거나 일을 돕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의 기구적지지, 문제점을 대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사이의 애착형성을 사회적 지지로 설명하였다(이숙, 1988 재인용).

MOS(Medical Outcomes Study)연구팀은 사회적 지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념을 정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로 긍정적 정서표현, 감정 이입적 이해 그리고 감정표출의 격려,

둘째는 정보적 지지로 조언이나 정보, 지침 제공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구체적 지지로 물질적 혹은 행동적 보조제공이 있다.

넷째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섯째 애정적 지지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Whittaker&Tracy는 개인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 교류되는 사회적 지지는 격려와 따뜻한 사랑, 삶에서 필요할 실질적 도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우해 주는가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뿐만 아니라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사례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계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다. 지원고용 취업자 중에서 적응지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신규취업자이더라도 제외되었다.

2. 연구도구

1)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취업자자조모임	취업자	① 시기 : 월 1회 ② 세부내용 ▶취업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연합활동, 여가 활동, 휴양지 연수, 송년회 등 장애인들 간의 정보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실시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자 및 가족	① 시기 : 연중 수시 ② 세부내용 ▶정기적인 취업자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소식지 발송, 업체방문을 통한 적응상황 확인, 취업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안정적인 고용유지

위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적응지도 서비스를 통해 취업자의 애로사항 및 직장 내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고 상담기록을 통한 직장 내 적응상황을 파악한다. 적응지도 상담을 취업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한 사회적지지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가지며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연수(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사례연구 목표

1) 장기목표

-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통해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지한다.

2) 단기목표

- 정기적인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
-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
- 취업자에 대한 담당자의 사회적 지지도를 사전/사후 검사결과 5점 이상 향상한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2014년 3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중 지원고용으로 취업 이 된 후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계약서 작성을 실시한 지적장애인 9명에게 실시되었다.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회적 지지척도검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에서 나오는 ‘그들’은 복지관 서비스 담당자임을 사전에 설명해주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따라 문항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지수준으로 인해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복응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대면 방식으로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10~1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0월 말경 서비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사회적지지척도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일자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의 시기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의 차이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사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9명의 취업자에게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업체방문, 전화 및 문자상담, 취업자연수, 취업자자조모임, 보호자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진행되었다. 개별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 1회씩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개입의 필요성이 적은 취업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적응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진 적도 많이 있다.

IV. 연구의 결과

1. 지원고용 취업자현황

연번	이름	업체명	훈련기간	취업일자	적응지도 서비스 신청여부
1	임*재	프라임마리스	14.02.07 ~ 02.28	14.03.07	×
2	박*기	프라임마리스	14.02.07 ~ 02.28	14.03.07	○
3	김*래	논현신도시주유소	14.03.03 ~ 03.24	14.03.25	○
4	전*연	논현신도시주유소	14.03.03 ~ 03.24	14.03.25	○
5	김*수	명동보리밥	14.04.14 ~ 05.02	14.05.03	○
6	이*선	티티아이	14.04.11 ~ 05.02	14..05.07	×
7	권*경	애슐리 연수점	14.06.09 ~ 06.30	14.07.01	×
8	이*호	롯데마트 부평점	14.07.07 ~ 07.25	14.07.28	○
9	이*규	논현신도시주유소	14.07.07 ~ 07.28	14.07.29	○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은 총 9명임. 9명의 취업자 중에서 적응지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인 6명만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적응지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유는 수년간의 직장생활 후 이직을 위한 지원고용이었기에 복지관에서 개입이 필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직장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적응지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사회적지지 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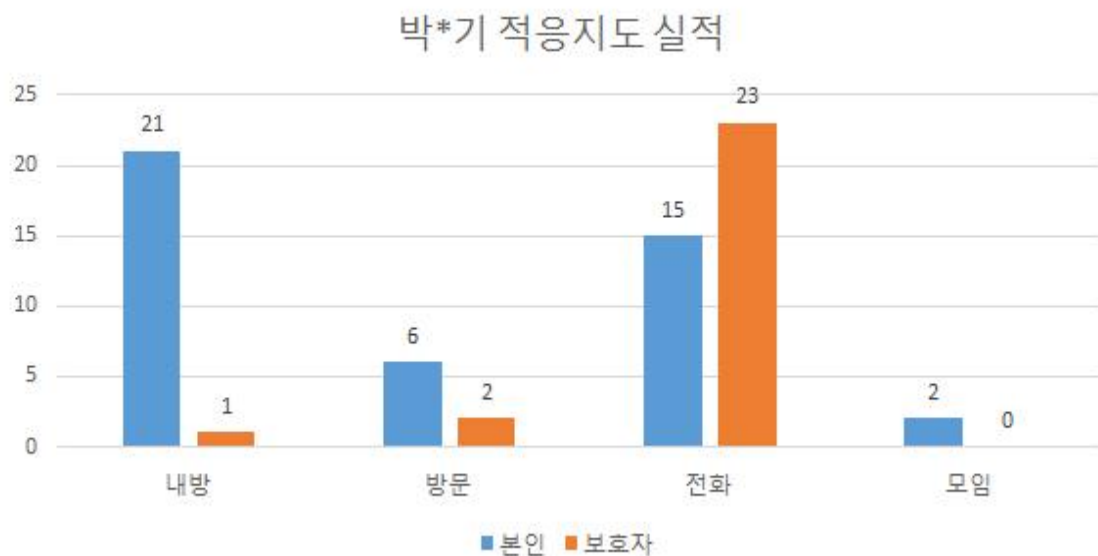
취업자들에게 지원고용 현장훈련이 종결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체결하면서 사회적지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하면서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척도를 검사한 후 향후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한 후 어떻게 지지척도의 점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연번	이름	업체명	훈련기간	취업일자	사회적지지척도
1	박*기	프라임마리스	02.07 ~ 02.28	14.03.07	58점
2	김*래	논현신도시주유소	03.03 ~ 03.24	14.03.25	61점
3	전*연	논현신도시주유소	03.03 ~ 03.24	14.03.25	75점
4	김*수	명동보리밥	04.14 ~ 05.02	14.05.03	118점
5	이*호	롯데마트 부평점	07.07 ~ 07.25	14.07.28	67점
6	이*규	논현신도시주유소	07.07 ~ 07.28	14.07.29	82점

상대적으로 담당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취업자들은 사전검사에서도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평소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취업자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척도 검사를 실시할 때도 담당자들에게 본인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2014년 10월말 기준)

1) 박*기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3.07 ~ 2014.10.26(7개월)

－ 개입내용

- ① 동성애성향으로 인한 대인관계기술 지도 및 성상담 연계
- ② 어린 시절 시설에서 생활로 인해 원가정으로 복귀 후 母와의 올바른 대화기술 및 애착관계 형성 지원
- ③ 취업 전 핸드폰 기기값 및 미납요금, 카드 이용료 연체금 관련 신용불량자 방지
- ④ 무분별한 소비습관(과소비,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사용) 개선을 위한 금전 관리
- ⑤ 업체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근태관리를 통한 주말 스케줄 조정 - 여가활동지원
- ⑥ 가출 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연계 및 업체에서의 지원요청
- ⑦ 독립생활을 위한 적금 및 금전관리기술 교육 및 실천지원

－ 개입결과

동성친구와의 부적절한 문자메세지 및 사진전송으로 인해 가정성폭력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주 1회씩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순 성상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

자와는 시간관계상 전화상담으로 주로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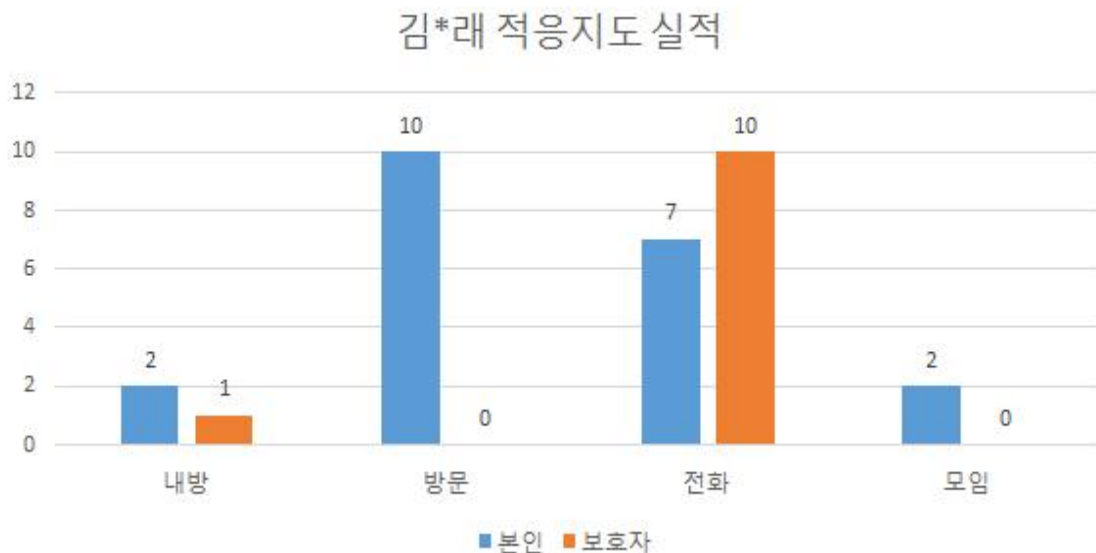
성상담 4회기 때 직접적인 성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성상담을 종결하고 추후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또다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상담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보호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담당자와 보호자와의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나, 너무 긴 시간동안 따로 지냈고 불신이 형성되었고 서로의 거부반응이 지속되어 개입의 의미가 크게 없었다.

급여와 관련해 개입한지 4개월만인 7월경 본인의 월급으로 체불된 핸드폰 기기값 및 미납요금, 카드연체료인 280만원가량을 모두 지불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급여사용계획을 세워 적금 30만원,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 30만원, 본인의 용돈(핸드폰 비용, 교통비 포함) 30만원가량을 지출하겠다고 하여 용돈기입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급여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월 생활비를 70만원을 요구하여 2개월가량 금전적인 문제로母子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9월 초 母의 요구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되어 10일가량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담당자의 개입을 통해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9, 10월 담당자와 주 1회씩 만나 생활비 및 월급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0월 25일, 회사에서 동료와 다툰 후 담당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10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에서도 더 이상 박*기씨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퇴사를 받아들여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종결되었다.

2)김*래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3.25 ~ 2014.10.31(7개월)

- 개입내용

- ① 체력으로 인한 근태 개선(조퇴 및 결근)
- ② 회사 동료와의 이성관계 및 스킨십 문제
- ③ 과도한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생활습관 개선
- ④ 스스로 필요한 의사소통 하기

- 개입결과

김*래씨는 직업적응훈련반을 2년 가량 이용한 후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이 진행되었다. 직업적응훈련반을 이용할 때도 피부립, 엄살, 신체적 통증(생리통)을 호소하며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아프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언어로 표현하기보다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는데 취업 후에도 이러한 행동들은 지속이 되었다.

취업 후 2주정도 지났을 때부터 배가 아프다며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담당자나 보호자를 통해 회사에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에 대해 초반에는 아파도 출근을 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출근횟수가 증가할 무렵부터는 아플 때 회사에서 30분 정도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제공하다가 휴식시간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담당자나 보호자를 통한 신상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할 때 눈치를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무 특성상 주 1회 휴무라 체력적으로 고단한 것은 이해되지만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입으로 현재는 직장생활에 적응해서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6월 이후에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성관계와 관련해서는 업체 내 동료 2~3명과 서로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입을 실시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성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올바른 이성관이 확립되어 한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남성들과 서로 번갈아가며 교제한다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어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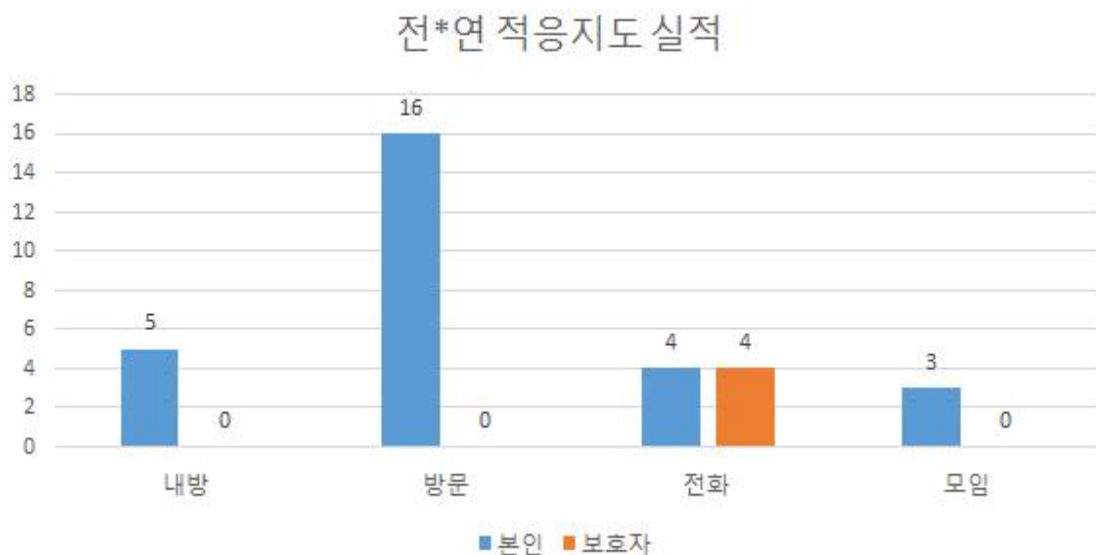
직업적응훈련반을 이용할 때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올바른 이성교제를 했었기에 훈련반을 다니면서 받았던 성교육 내용들을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결과 교제를 하는 수준이 서로 이성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는 수준이고 따로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메신저 프로필에 서로 사진을 해놓는 것이 사귀는 수준이기에 깊게 개입은 하지 않았다. 이성관계의 이점과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였고 취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근태와 관련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적도 있지만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원인을 파악해보니 온라인게임을 즐겨해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개입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집에 오면 저녁도 먹지 않고, 보호자와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방에서 게임만하는 습관이 있어 생활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母와 공유하고 게임은 늦어도 저녁 11시까지 실시하고, 1일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약속을 정하고 어길 경우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니 약속을 잘 지켰고 母와의 대화시간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 내부세차는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으며 장시간 입식작업과 야외에서 작업하는 환경임에도 피병을 부리거나 결근을 하는 일 없이 잘 적응하여 근무하고 있다.

3) 전*연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3.25 ~ 2014.10.31(7개월)

－ 개입내용

- ① 직업적응훈련반 재이용 욕구가 있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회사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기술 향상
- ③ 독립생활능력 향상(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 개입결과

전*연씨는 취업 후 출근시간이 오전 11시이고 평일에 휴무를 하니 보람터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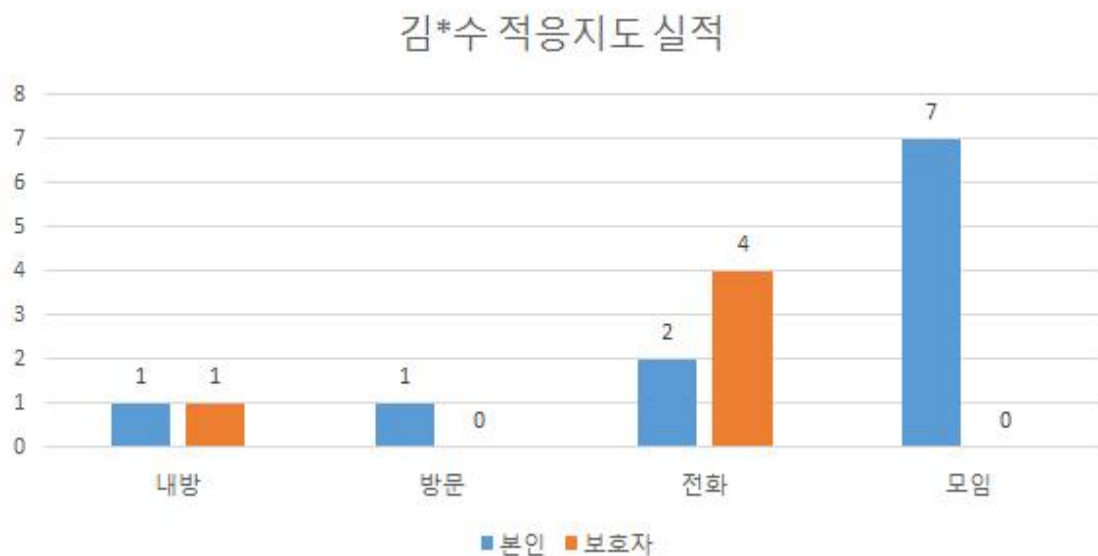
적으로 찾아오는 등 회사에 적응하기보다 복지관에 계속 다니고 싶다는 욕구를 보였다. 아예 퇴사를 하고 훈련반을 재이용하는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보제공도 했지만 취업을 한 것 자체는 매우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부모 인해 평소에 혼자서 생활을 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생관리 및 작업복 세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을 오전 9시로, 월 5만원의 식비를 납부하고 회사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휴무일에 복지관에 오는 것은 담당자와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나 잠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만 주고 작업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관을 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점차 복지관에 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아침, 점심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복관리도 퇴근하자마자 세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본인을 조금 더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동료들이 전*연씨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웃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개입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퇴근 길에 버스에 자리가 없어 동료 2명이 같이 앉고 전*연씨 혼자서 앉게 되었는데 본인과 같이 가기 싫어한다며 동료의 모자를 창문 밖으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동료 간 서로 ‘일주일에 한가지씩 칭찬하기/장점찾기’를 실시하여 매주 방문하여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니 현재 장난도 치며 잘 지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외부세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청소, 워셔액교체 등 고기능적인 직무들도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즐겁게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다.

4) 김*수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5.03 ~ 2014.10.31(5개월)

- 개입내용

①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작업하기

② 손님응대방법

- 개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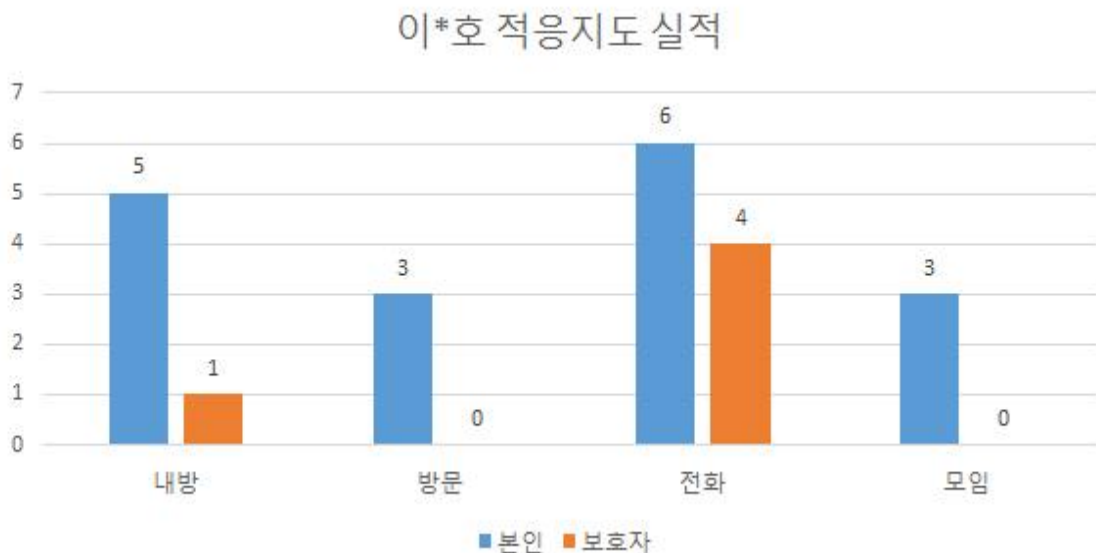
김*수씨의 경우 기존에 직장생활을 5년이상 했거나 기본적인 근무태도나 직무수행에 있어 개입할 필요가 크게 없어 내방 및 방문의 적응지도 횟수보다 모임에 참석하여 근황을 파악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신규로 취업한 업체에서 운반직무를 도맡아 했는데 가끔 바쁠 때 그 외의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요구했는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운반직무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달리 식당업종에서는 변수가 많기에 상사들이 지시하는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지낼 수 있도록 적응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히 물품들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있는 식당이기에 서비스에 적합한 대화방법, 손님응대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부드럽게 대화하기, 양해구하기, 미소짓기 등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지도하였다.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와 환경이 매우 달라 초반에 걱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업체에서 개입요청도 거의 없을 정도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5) 이*호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7.28 ~ 2014.10.31(3개월)

- 개입내용

① 근무스케줄 숙지하고 이행하기(평일휴무/주말근무)

② 직장생활과 여가활동 구분하기

③ 직장 선택 및 상사들과의 의사소통방법

- 개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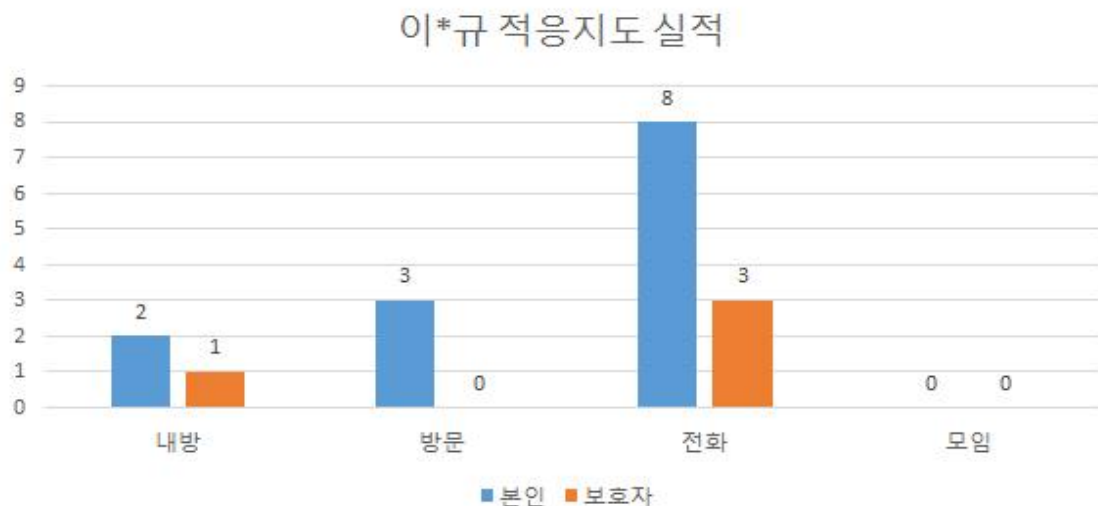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동안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고,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 취업 후 1달정도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후부터 주말근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전에 여가활동으로 즐겼던 축구를 다시 하고 싶어하면서 주말에 휴무를 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거나 근무 중 거친 행동을 종종 보였다.

이에 대해 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들을 설명하고 이*호씨가 근무하는 마트의 경우 서비스 직종이니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욕하는 성향인데 회사에서도 그런 태도가 지속된다면 근무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여가활동과 직장생활 중 어떠한 것이 본인의 삶에서 더 중요한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계속 하고 싶기는 하나 주말에 쉬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조건에 맞지 않으니 퇴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으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며 계속 다니고 싶다고 결정을 하였다. 어떤 업체도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100%로 적합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여가활동은 본인의 휴무일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1회씩 주말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일에 적응하고 근무할 때는 예의바른 태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주로 복지관에 내방하여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가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례이기에 보호자와의 상담도 중시하며, 보호자도 본관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찾아주시고 담당자도 종종 전화상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6) 이*규



-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기간 : 2014.07.29 ~ 2014.10.31(3개월)

- 개입내용

- ① 근무조건 숙지하기
- ② 근무시간 중 지나친 장난, 동료들과의 올바른 대인관계 지원
- ③ 위생관리

- 개입결과

취업 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한다며 유예기간(직업적응훈련반 이용 후 지원고용으로 취업이 된 경우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부터 2달이 된 시점까지 적응훈련반을 종결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었다. 어느 회사이던지 입사를 하자마자 휴가가 발생하는 회사는 없다고 설명해주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이*규씨의 근무조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인지가 좋아 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2016년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금방 숙지할 수 있었다. 연차사용이 아니더라도 정말 급한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리고 기본적으로 예쁨을 받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근무시간 중 지나치게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르신들에게 ‘돼지, 똥똥이, 꼬부랑이’라는 언어들을 사용하여 대인관계 및 직장 선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사 내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직급이 있고 그에 따라 대우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입사 초기에 직급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 실수가 잦았으나 현재는 그러한 일은 없다. 다만, 장난을 치는 습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 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서비스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면도도 하지 않고 양치질도 하지 않아 본인의 위생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얼굴을 위주로 사진을 찍어 점검할 수 있도록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었더니 서툴지만 양치질을 하고 면도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올바르게 양치질을 하지 않아 추후에 양치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면도도 거울을 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는 휴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업체에서 세차차량이 더 기다려진다고 업체에 적응된 모습을 보이며 출결상황이 가장 뛰어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4. 사회적지지 사후검사

연번	이름	업체명	훈련기간	취업일자	사회적지지척도
1	박*기	프라임마리스	02.07 ~ 02.28	14.03.07	79점
2	김*래	논현신도시주유소	03.03 ~ 03.24	14.03.25	72점
3	전*연	논현신도시주유소	03.03 ~ 03.24	14.03.25	81점
4	김*수	명동보리밥	04.14 ~ 05.02	14.05.03	112점
5	이*호	롯데마트 부평점	07.07 ~ 07.25	14.07.28	82점
6	이*규	논현신도시주유소	07.07 ~ 07.28	14.07.29	93점

2014년 10월 27일부터 업체에 방문하거나 취업자가 내방하여 사회적지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자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면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담당자가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자원봉사자 및 업체동료들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취업 초기에 이와 비슷한 검사를 했던 것 같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7월에 취업을 한 취업자들은 3개월만에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 문항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5. 사회적지지 사전/사후검사 결과

이름	사전검사	사후검사	비교
박*기	58점	79점	+21점
김*래	61점	72점	+11점
전*연	75점	81점	+6점
김*수	118점	112점	-6점
이*호	67점	82점	+15점
이*규	82점	93점	+11점



각자 취업한 시기에 실시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했더니 총 6명의 취업자 중 5명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향상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총 25개의 문항들 중에서 특히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의 주된 내용들이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이 주로 진행되고, 상담 내용이 문제해결 및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취업자로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장점, 자부심 등 심리적인 지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이전이 수혜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을 강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담당자가 결정사항을 결정하고 취업자에게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기에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물질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들은 돈이나 물건과 관련된 질문사항들이라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와는 적합하지 않아 점수가 대부분 '1'점으로 기록되었다.

사전/사후 검사 시 문항에 '그들'을 본관 직원들이라고 칭해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점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보면 취업 후 적응지도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사회적지지 척도의 점수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점수에 향상정도를 보면 최근에 취업을 해서 적응지도가 사후검사 이전에 가장 빈번하게 제공된 취업자와 많은 문제행동으로 개입을 많이 한 취업자가 점수 향상의 폭이 높았다.

6명 중에 박*기 취업자는 문제행동이 가장 많아 주 1회정도로 면담을 통한 적응지도가 이루어졌고 단순하게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금전관리, 성 문제, 심리적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6명의 취업자 중에 가장 많은 점수향상 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호 취업자의 경우 7월에 취업을 해서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서비스가 제공된 취업자였고 특히나 9~10월에 문제행동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담을 많이 실시했더니 사후 검사 시기에 본인에게 많은 관심과지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15점 정도가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목할 점은 총 6명의 취업자 중에서 점수가 오히려 하락한 김*수 취업자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이직을 해서 재취업을 한 사례이기에 적응지도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제공이 되더라도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조모임 참석 및 근황상담만 이루어졌을 뿐 다른 취업자들에 비해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업체방문을 통한 적응상황 파악이 비교적 덜 이루어졌기에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척도가 향상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를 보면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따라 취업자들이 담당자에게 느끼는 사회적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남동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제공되고 있는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2013년부터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월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서비스 비용 대비 취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복지관의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겠지만 사회적지지와 관련해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으며 담당자의 개입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취업자들이 담당자에게 어느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3월부터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을 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척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로 내방, 방문, 전화 및 문자상담, 자조모임 참석의 방법으로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단순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지원한 내용이란 가족지원, 이성문제(성문제), 일생상활지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지원, 위생관리, 금전관리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인기이다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는 단순한 직장생활이 아니라 위치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결과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에 따라 취업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적응지도 서비스를 다양하고 자주 제공한 취업자들이 담당자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적응지도 서비스게 적게 제공된 취업자는 오히려 사전보다 사후검사 시 사회적 지지척도의 점수가 감소하는 결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취업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고, 성인인 취업자들은 가정에서도 어린 시절보다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무래도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자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보호자들은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잘 한다고 생각하기에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그로 인해 장애인 취업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곧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져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에 취업을 한 장애인들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히 직업유지만 아니라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 강위영,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서울 : 도서출판 나눔의 집.
- 이현아(2006).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경하(2008). 뇌졸중환자의 사회적지지, 독립기능수행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정(2009).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대학원.
- 이승희(2012). 후천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2012). 직업재활서비스 표준모형 개발 및 원가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극 활동을 접목한 지적장애인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성



팀 명	직업재활팀
연구자	이지혜 직업재활사
연구기간	2014.1.2. ~ 2014.9.30. / 총 13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 보고서

◎ 제 출 자 : 이지혜

◎ 주 제 : 연극 활동을 접목한 지적장애인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성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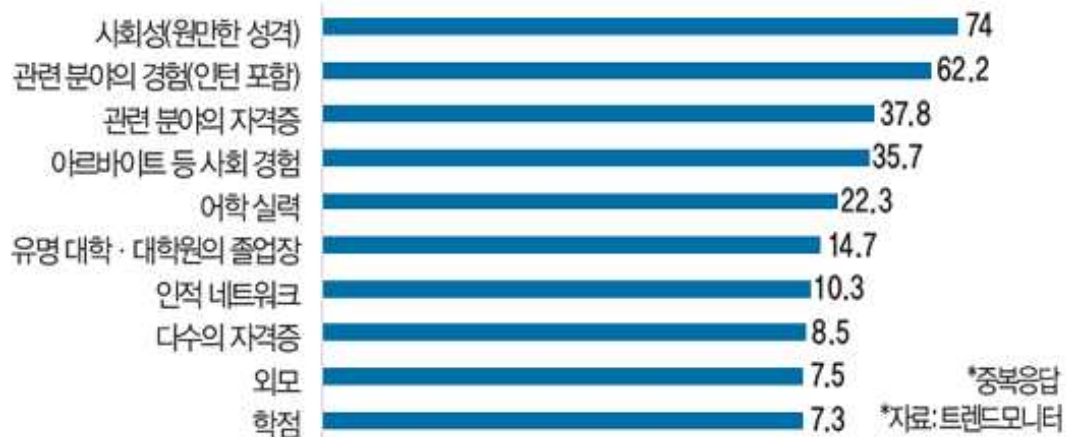
1. 연구배경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지능지수가 70이하로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비장애인보다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성 훈련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취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사로 지난 1년간 시, 청각 자료를 이용한 사회기술훈련을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였으나 현실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는 이용인은 매우 드물었다. 이에 연극 활동을 접목하여 사회기술훈련을 진행할 경우 직접 연극으로 실천해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 요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은 ‘원만한 성격 등 사회성(74%)’을 제1요건으로 꼽았다. 무려 4명 중 1명이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사회성에 몰표를 던졌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취업 성공 요건’ <단위: %>



< 윤자영. (2013.05.06.) “[Opinion] 취업엔 경험보다 사회성이...” MK News. 2014.3.3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47943> >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성은 직장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들보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조직 생활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 및 청각적 자료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극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사회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연극 활동을 접목한 사회기술훈련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 지적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취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관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 중 관찰 평가 결과 사회기술훈련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표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이름	성별	연령	특성
이*래	여	24	공격적인 성향, 배려심이 없음, 자기중심적
이*호	남	25	공격적인 성향, 자기중심적
남*현	남	22	선택적 관계 형성,
최*석	남	23	소극적,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음
이*복	남	24	자기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하며 소극적 성격
권*경	여	29	소극적이며 눈맞춤이 되지 않음
이*환	남	25	일방적인 관계 형성, 소극적이고 예민한 성격
김*동	남	22	관계 형성의 의지가 없음, 반복 질문, 소극적 성격
방*원	남	25	반향어 사용, 경청이 잘 되지 않음, 지시 수행의 어려움

2. 연구 방법

연극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대학원생 4명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4년 1월 13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12시, 금요일 1시~3시까지 두 시간씩 총 13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각 회기별로 주제와 관련된 놀이 또는 활동을 실시하여 주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사회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극을 만들어보며 직접 사회기술을 실시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세부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차시	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1	자기 소개하기	연극놀이를 통해 구성원 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 할 수 있다.	- 연극의 이해 및 규칙정하기 - 여기 여기 모여서 소개하기 - 신체로 인사하기 - 공 던지며 이름 말하기 - 반가웠습니다. 인사하기	이름표 텅텅볼 음악 호루라기
2	나의 일상을 통해 자신 바라보기	신체표현활동으로 자신의 일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	- 자기이름으로 세발뛰기 - 공 던지며 자신의 일상 말하기 - 자신의 하루(24시간)일상 조각상 만들기 - 생활공간 속 조각상 만들기 - 살아있는 조각상	이름표 텅텅볼 조각자료
3	타인과 협력하기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공동의 과제를 협력하며 수행할 수 있다.	- 공 건네며 인사 나누기 - 따라 쟁이 술래잡기 - 1인1조 미션/ 2인 1조 미션 - 4인1조 미션/ 5인 1조 미션 (동물/ 주변사물/ 주방용품 만들기) -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은 것들 만들기	이름표

차시	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4	상관관계 속 질서 알기	사물의 공통성을 찾아 배열해 보고 상호 연관성 있게 구성해 볼 수 있다.	- 조각으로 인사 나누기 - 셸러드 게임 - 우리의 공통점 찾기 - 배열된 물건의 공통점 찾기 - 주어진 물건으로 연관성 있는 이야기 구성하기 - 장면으로 발표하기	과일그림 이름표 여러 가지 소도구
5	적절한 대화법 찾기	대인관계 속에서 말의 중요성을 알고 적절한 사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 조각으로 인사나누기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낱말 열거하고 구별하기 - 좋은 말/ 나쁜 말로 이야기 구성하기 - 장면으로 발표하기 - 칭찬 릴레이	낱말카드 바구니
6	다양한 감정 표현하기	감정의 다양함을 알고 감정에 따른 적합한 표현법을 찾아 볼 수 있다.	- 조각으로 인사 나누기 - 이심 저심게임 - 자신의 4가지 (희노애락)방 조각상 만들기 - 한 가지 방 상황 극 만들기 - 자신의 4가지방 느낌 그리기	낱말카드 스케치북 매직 색연필
7	갈등 상황 인식하기	일상 속 갈등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 의미를 인지 할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의자를 지켜라 게임 - 그림으로 갈등 인식하기 - 자신의 일상 속 갈등상황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 상황 극 발표하기	의자. 음악 갈등사진 자료,

차시	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8	갈등 해결안 찾기 (타협하기)	대인관계 속 양보의 중요성을 알고 갈등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적절한 대처법을 찾아 해결해 볼 수 있다.	- 인사나누기 - 런닝맨 게임 - 문제 상황극 보기 - 문제 행동 파악하기 - Magif if~ 해결 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적절한 해결방법 예시 관람하기	빨간카드 파란카드 인물의상
9	갈등 해결안 찾기 (오해풀기)	대인관계 속에서 오해의 갈등상황을 체험해 보고 자신의 방법대로 적절한 대처법을 찾아 해결해 볼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벽 뚫기 게임 - 문제 상황 극 보기 - 문제 행동 파악하기 - Magif if~ 해결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적절한 해결 방법 예시 관 람하기	여러 가지 소도구, 인물의상
10	잘못된 행동 수정하기	대인관계 속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알고 갈등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적절한 대처법을 찾아 해결해 볼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손님 모셔오기 - 문제 상황극 보기 - 문제 행동 파악하기 - Magif if~ 해결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적절한 해결 방법 예시 관 람하기	의자, 음악, 인물의상
11	스스로 해결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서 해결할 때를 구별하고 가상의 상황 극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OX게임 - 문제 상황 극 보기 - 문제 행동 파악하기 - Magif if~ 해결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혼자서도 잘해요 카드 만들 기	전지, 필기구, 스케치북

차시	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12	도움 청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구별하고 가상의 상황 극을 통해 도움 청하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도와주세요! 게임 - 도움청하기 매뉴얼 익히기 - 일상(직장)에서의 HELP맨 이 필요한 상황 극 보기 - Magif if~ 해결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다시 한 번 OX게임	전지, 매뉴얼 학습지, 여러 가지 소도구, 인물의상
13	거절하기	대인관계 속에서 거절의 갈등 상황을 체험해 보고 자신의 방법대로 적절한 거절 법을 찾아 해결해 볼 수 있다.	- 인사 나누기 - 제발, 싫어 게임 - 문제 상황 극 보기 - 문제 행동 파악하기 - Magif if~ 해결방안 모색해 시연해 보기 - 적절한 해결 방법 예시 관람 하기	색깔모자 , 여러 가지 소도구, 인물의상

4. 평가 도구

1) 자기표현검사

1	* 평가일 : 2014-01-13 * 대상 :			* 성별 :		* 평가자 :		
	구분	번호	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								
3	내용 적 자 기 표 현	1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4		2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한다.					
5		3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6		4	잘못했다는 말을 자주 한다.					
7		5	예의 바르지 못하다.					
8		6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을 한다.					
9		7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0		8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11	음 성 적 자 기 표 현	9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12		10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3		11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14		12	말을 입안에서만 중얼거린다.					
15		13	억양이 어색하다.					
16		14	"에-", "음-" 등의 말을 자주하고,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17		15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 한다.					
18		16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19	체 언 적 자	17	말할 때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한다.					
20		18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21		19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구르는 등 말할 때 태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22		20	말할 때 몸이 어딘가 굳어 있다.					
23	평점소계	총점(100점)/수행률 :		점/	%	0	0	0
24	소견							

[그림1] 자기표현검사지

위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표현검사지는 내용적자기표현력, 음성적자기표현력, 신체언어적 자기표현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자기 표현력을 파악하는 평가 도구이다.

2.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검사

부록 II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검사

검사일 : _____

성명 : _____ (MLF) 연령 : 만 _____ 세 장애명 : _____ 검사자 : _____

사회화 기술, 부적절한 행동, 작업관련 기술을 다음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기능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평가기준

0 - 문제가 없다.

2 -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4 - 문제가 있다

사회화 기술	관찰된 행동	0	2	4
1. 비난에 대한 반응	충고를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금방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해 지거나 운다.			
2. 다른사람과의 협력	집단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수업을 하지 못한다.			
3. 도움 요청하기	혼자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혼동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4. 간섭하기	다른 사람의 대화에 부적절하게 끼여 들어 간섭한다.			
5. 낯선 사람 대하기	처음 보는 사람은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악수를 하거나 적절한 인사를 하지 못한다.			
6. 다른 사람과의 교제	혼자 있거나 위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길적거리거나 괴롭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			
	싫어하는 때도 지나치게 친밀감을 보이고 피부 접촉이나 키스를 시도한다.			
	관심을 끌기 위하여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7. 정직성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공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이나 장비를 훔친다.			

[그림2]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검사지

(평가기준 : 0 = 문제가 없다 / 2 =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 4 = 문제가 있다)

부적절한 행동	관찰된 행동	0	2	4
1. 과다행동	자리에서 안절부절 한다.			
	서서 배회하거나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			
	의자에 앉아 계속 흔들이 연다			
	동료 학생을 따라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닌다.			
2. 방해행동	다른 사람의 일이나 물건 또는 도구를 빼앗는다.			
	도구나 물건을 적상 밖을 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사물이나 작업한 물건을 부순다.			
3. 언성높이기	동료나 선생님 또는 자신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언성을 높인다			
4. 자발적인 대화	동료나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야 말을 한다.			
5. 억지행동	억지를 부리며 옮거나 호느른다.			
	큰소리로 옮거나 핑퐁머 또는 물건을 차거나 집어던지며 억지를 부린다.			
6. 자기자극 행동	의자에 앉아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자신을 머구 쥐어짜는다.			
	자위행동을 한다.			
	스스로 붙여 뜯거나 위험한 도구로 자위행동을 한다.			

- 45 -

(평가기준 : 0 = 문제가 없다 / 2 =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 4 = 문제가 있다)

작업관련 기술	관찰된 행동	0	2	4
1. 주의집중	주의를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			
2. 예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도 될까요? 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손한 자세로 부탁을 하지 않는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3. 작업완수	부여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			
4. 생산성	활람을 최소화하며 계획된 생산물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5. 지시 이행하기	선생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한다.			
6. 안전성	도구를 위험하게 다룬다.			
	안전표시를 인식하지 못한다. 정해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7. 재료/도구의 선정	부여된 과제에 적합한 도구와 재료를 선정하지 못한다.			
	과제를 막치고 사용한 도구와 재료를 제자리에 따르게 정리하지 못한다.			
8. 시간 지키기	수업에 지각한다.			
	쉬는 시간이 끝나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9. 여가활동	자유시간을 효과적으로 격렬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구조화된 시간 외에는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 46 -

[그림2]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검사지

위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검사지는 사회화 기술, 부적절한 행동, 작업관련 기술을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평가지로 전체적인 사회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지이다. 해당 평가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사회성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사회화 기술의 경우 비난에 대한 반응, 다른 사람과의 협력, 도움 요청하기, 간섭하기, 낯선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교체, 정직성까지 총 7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 정도를 평가한다. 두 번째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 과다행동, 방해행동, 언성높이기, 자발적인 대화, 억지행동, 자기자극 행동 총 6가지로 부적절한 행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작업관련 기술은 주의집중, 예

절, 작업완수, 생산성, 지시 이행하기, 안전성, 자료/도구의 선정, 시간 지키기, 여가 활동 총 9가지를 평가하며 수업 시간의 집중 정도 파악 및 수업 시간 내 동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진행 사항

1. 프로그램 진행

차시	주제	관찰 및 소견
1	자기 소개하기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9명 중 활발한 성격을 가진 3명을 제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어색해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음.
2	나의 일상을 통해 자신 바라보기	일상생활(버스, 미용실)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연극으로 꾸며 진행해보도록 하였음. 실제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며 극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데 다소 격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됨.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타인과 협력하기	협동 활동으로 함께 몸으로 일상 물품, 동물, 주방용품, 세상에 없는데 있으면 좋겠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에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소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에 동료들과 협의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4	상관관계 속 질서 알기	물건의 공통점을 알고 상호 연관성 있게 극으로 표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극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극 속에서 2회기 시와 같이 다소 거친 표현을 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5	적절한 대화법 찾기	대인관계 속에서 말의 중요성을 알고 적절한 사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긍정적인 말(사랑해, 좋아해, 잘한다 등)을 가지고 극을 만드는 것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부정적인 말(짜증나, 싫어, 하지마 등)을 가지고 극을 만드는 것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 관찰됨.

차시	주제	관찰 및 소견
6	다양한 감정 표현하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에 다양함을 알고 감정에 따른 적절한 표현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감정 표현에 있어 매우 서툰 모습을 보였음.
7	갈등 상황 인식하기	갈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재연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상대방의 갈등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역할극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됨.
8	갈등 해결안 찾기 (타협하기)	공동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재연해 보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짐. 갈등 상황은 직장 동료들끼리 연수 장소를 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두 직원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음. 두 사람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임.
9	갈등 해결안 찾기 (오해풀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재연해보고 해결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짐. 갈등 상황은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했다는 오해로 인하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었음. 꾸지람에 당황하거나 오히려 같이 화를 내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본 후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해결해볼 수 있도록 지도함.
10	잘못된 행동 수정하기	작업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동료의 행동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 대부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한 행동을 보았을 때의 느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차시	주제	관찰 및 소견
11	스스로 해결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청할 때와 혼자서 해결해야 할 때를 구별해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하나의 예로 복지관 내에서 활동 중 상처가 났을 때, 귀가 중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두 가지 중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을 골라보도록 하였을 때 고르지 못하는 이용인들이 많이 있었음. 이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결해보는 상황을 연극으로 실시해보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짐.
12	도움 청하기	지난 시간과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위급한 상황에 따른 도움 청하기 상황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대응법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함.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를 잘 못하는 이용인들이 있어 반복적인 연극을 통해 설명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13	거절하기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용과 거절을 구별하고 가상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 거절법을 체험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함.

IV. 결과

1. 관찰 평가

이름	성별	연령	평가 결과
이*래	여	24	프로그램 시작 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부족하였음. 1회기 인사 때부터 집중도가 낮고 타인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음. 총 13회기 중 8회기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었으나 9회기부터 끼어드는 행동이 점차 소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진행자들과의 관계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임. 공격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 또한 아직 부족하나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기보다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으로 관찰됨.
이*호	남	25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하나 3회기 이후부터는 매우 큰 변화를 보임. 타인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 역할 분배 시 공격적인 역할은 다소 피하고 선한 역할을 담당하게 지도한 것이 변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관찰됨. 참여자에게 본 프로그램이 매우 적합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남*현	남	22	프로그램 초기 공격적인 언어 사용도 많이 관찰되고 극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음. 이에 극 안에서도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극 안과 밖에서 올바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초기보다 일관성이 많이 관찰됨.
최*석	남	23	동료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컸음. 이에 사회성 형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나 협동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진행한 결과 동료 관계를 인정하고 밝은 표정으로 극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됨.

이름	성별	연령	평가 결과
이*복	남	24	초기 자기표현력에 상당한 약점을 보였음. 이에 자기표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8회기 이후부터는 다소 표현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임.
권*경	여	29	라포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프로그램 초기에는 눈 맞춤도 되지 않고 자기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보임. 이에 눈 맞춤 및 자기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눈 맞춤 시간이 늘고 목소리가 커지고 밝은 표정이 많이 관찰됨. 또한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이*환	남	25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가장 감정 기복이 크고 감정 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에도 어려움을 보일 정도의 문제를 보임. 이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룹 분위기에 어울려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회기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중 감정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소거되었음.
김*동	남	22	자폐성향이 있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크게 어려움을 보였음.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과 자발적인 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음. 그러나 연극 속에서는 뛰어난 연기 실력과 표현력이 관찰되었으며 유연성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연극 속에서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과 연극 밖에서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료와의 관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함. 자발적인 대화에는 장애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타인이 먼저 말을 걸었을 때에는 알맞게 대답하고 동료와 함께 있고자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방*원	남	25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문장 이해력에 제한이 있으며 반향어가 있어 오랜 시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프로그램 초기 연극 활동에 굉장한 제한을 보임. 또한 향상 정도도 타 참여자들에 비해 느린 편에 속하였음.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부가 되자 자발적으로 연극 활동에 참여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동료에게 말을 건내고 함께 협동하고자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2. 과정평가

연극활동 사전사후 검사 비교(단위:%)

검사도구 이름	대인관계/사회기술		자기표현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래	38.6	23.8	73	78
이*호	42	27.2	70	83
남*현	27.2	7.9	63	83
최*석	17	13.6	69	89
이*복	2.2	1.1	82	92
김*동	13.6	11.3	79	94
권*경	9	4.5	73	97
이*환	29.5	25	63	80
방*원	42.5	17	74	87

[표2] 연극활동 사전사후 검사 비교표

대인관계/사회기술 검사의 경우 점수가 %가 낮을수록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참여자들이 대인관계/사회기술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임. 9명 중 3명이 20%가까이 향상되었으며 10% 이상 향상된 참여자가 1명 있었다.

자기표현검사의 경우는 %가 높을수록 향상을 나타내며 대인관계/사회기술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참여자들이 자기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었으므로 1년 이상의 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된장 · 고추장 담그기가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직업재활팀
연구자	최용수
연구기간	2014.03.31.~2014.11.21 / 총 36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 제 출 자 : 최용수

◎ 주 제 : 된장 · 고추장 담그기가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내 용

1. 이론 및 배경

I. 서론

Bitter(1979)는 장애아들에게 직업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 가정이나 사회는 비사회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사회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실무능력 회복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실제적인 능력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달지체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훈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도 정신지체인은 단순한 기능습득이 가능하지만, 중도 정신지체인은 단순기능의 습득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참작하여 수행능력 범위 내에서 지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간단한 기술, 즉 미숙련, 반 숙련의 작업습득으로 사회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을 논하는 것은 그들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 근본 기저를 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의도적인 직업지도와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실제적인 생산 활동의 직업교육 참여로 사회가 이바지하는 존재, 수용하는 존재,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의 직업제도 교육방향은 사회 · 경제적인 문화와 더불어 서비스직 분야를 비롯한 새로운 직종의 증가와 낮은 수준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풍부해짐에 따라 정신지체인 직업지도 또는 교육 측면에서 생활수단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인간발달의 극대화라는 생각으로 근무논리가 변화될 것이다. 정신지체인의 직업지도는 기술적인 진보와 더불어 다양하고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술지도 내용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²⁾

2) 인용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직업준비에 미치는 효과, 이현숙, 2013,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II. 이론적 배경

1. 이론

김환희, 장문영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시행할 때, 대상자 능력에 맞춘 직무분석과 개별교육이 소근육 기능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재활을 통해 도움의 양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15명의 성인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1급이 9명, 2급이 5명, 3급이 1명이였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개별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2010년 4월 5일 ~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2시 ~ 3시까지 총 28회 수행하였다.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듀 페그보드 검사(Purdue pegboard test),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사용하였고, 도움의 양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재 후 소근육의 민첩성을 평가한 퍼듀 페그보드 검사에서 오른손, 양손, 협응 영역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5$),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은 0.84세, 사회지수는 3.82점이 증가하여 사회성 향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도움의 양 정도는 중재 전 3.40점에서 중재 후 1.53점으로 감소됨이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소근육 기능 증진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①퍼듀 페그보드 검사 결과(Purdue pegboard test)

	중재 전	중재 중	중재 후	F	P
	M±SD	M±SD	M±SD		
오른손(점)	7.55±2.98	9.45±2.88	10.73±2.65	3.503	0.043*
왼손(점)	7.00±3.38	9.18±3.92	10.55±2.54	3.176	0.056
양손(점)	5.73±4.13	9.73±5.18	12.45±5.96	4.764	0.016*
협응(점)	7.27±4.17	12.09±4.97	14.36±6.82	4.634	0.018*

* $p<.05$,

자료출처 : 개별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환희·장문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1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②사회성 평가

	중재 전	중재 후	F	P
	M±SD	M±SD		
사회연령(세)	3.48±2.15	4.32±2.41	-3.436	0.006*
사회지수(점)	15.00±8.92	18.82±10.8	-3.274	0.008*

* $p<.05$,

자료출처 : 개별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환희·장문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1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③도움의 양 측정

	중재 전	중재 후	F	P
	M±SD	M±SD		
도움의 양(점)	3.40±0.74	1.53±0.64	-3.502	0.000*

*p<.05,

자료출처 : 개별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환희·장문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1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 연구방법

가. 연구목적

2013년부터 된장과 고추장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훈련비로 지급하고 있다. 된장과 고추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직무가 지적·장애인에게 얼마만큼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 사례연구 목표

- 장기목표

1)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

- 단기목표

1)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향상

1-1) 된장·고추장 담그기 및 장독관리와 관련된 직무수행평가 점수 평균 1점 향상

1-2) 근협조성능력 평균 1점 향상

다. 평가방법

- 장기목표

1) ‘토.다.콩 마을’ 이용인원 취업 유·무 확인

- 단기목표

1)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향상(사전·사후 검사)

1-1-1) 상황평가

1-1-2) 영농작업수행평가지

1-2-1) 신체종합능력검사지

라. 연구경과

1) '토.다.콩 마을' (된장 · 고추장 담그기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현황

연번	성명	성별	장애유형	등급	중증/경증	취업여부
1	이*복	남	지적장애	3급	중증	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2	김*동	남	지적장애	3급	중증	미취업
3	남*현	남	지적장애	3급	중증	미취업

2) 된장 · 고추장 담그기 및 장독관리 훈련 진행 일지

훈련일	훈련주제	훈련내용
04.03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4.04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4.15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4.22	고추장담그기	- 엿기름을 물에 불려 삭히고, 각종 재료들을 넣어 고추장을 만듦.
05.02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작업함.
05.08	된장담그기	- 간수에 불려진 메주를 손으로 잘게 으깨어 된장으로 만듦.
05.09	된장담그기	- 간수에 불려진 메주를 손으로 잘게 으깨어 된장으로 만듦.
05.14	된장담그기	- 간수에 불려진 메주를 손으로 잘게 으깨어 된장으로 만듦.
05.16	된장담그기	- 간수에 불려진 메주를 손으로 잘게 으깨어 된장으로 만듦.
05.19	된장담그기	- 간수에 불려진 메주를 손으로 잘게 으깨어 된장으로 만듦.

훈련일	훈련주제	훈련내용
05.22	장독관리	- 향아리를 햇볕이 잘 보이는 농장 외부로 옮겼음.
07.10	장독관리	- 향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향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향아리 외부를 닦아 향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7.17	장독관리	- 향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향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향아리 외부를 닦아 향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8.13	고추수확	- 고추장 만들기에 사용할 홍고추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함.
08.14	고추수확	- 고추장 만들기에 사용할 홍고추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함.
08.20	장독관리	- 향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향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향아리 외부를 닦아 향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8.25	장독관리	- 향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향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향아리 외부를 닦아 향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8.26	고추수확 및 건조	- 고추장 만들기에 사용할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홍고추를 수확하고 건조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
08.27	고추수확 및 건조	- 고추장 만들기에 사용할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홍고추를 수확하고 건조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
08.29	고추수확 및 건조	- 고추장 만들기에 사용할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홍고추를 수확하고 건조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

훈련일	훈련주제	훈련내용
09.01	고추담기	- 건조시키고 있는 홍고추를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도록 지도하였음.
09.02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09.18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10.01	판매준비	-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판매할 판매용기를 물에 씻은 후 마른 행주로 닦을 수 있도록 지도함.
10.06	장류판매	- 주문 받은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우체국에서 택배로 배송할 수 있도록 지도함.
10.15	장독관리	-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항아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걸레로 항아리 외부를 닦아 항아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함.
10.20	고추장만들기 준비	- 건조한 고추의 꼭지를 따고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도록 지도함.
10.21	고추장만들기 준비	- 건조한 고추의 꼭지를 따고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도록 지도함.
10.22	고추장만들기 준비	- 건조한 고추의 꼭지를 따고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도록 지도함.
10.23	고추장만들기 준비	- 건조한 고추의 꼭지를 따고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도록 지도함.

3) 관련평가결과

(1) 사전 상황평가

성명 : 이*복					생년월일 : 1991년 11월 2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④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4
1	2	3	④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4
1	2	③	4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3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③	4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3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3	④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5
총점						39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④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4
1	2	3	④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4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4	⑤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5
1	2	③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3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5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②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2

1	②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2
총점						76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②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2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2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4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4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④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4
1	2	③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2	3	④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4
총점						66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3	4	⑤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5
1	2	3	4	⑤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5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다.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2
1	2	3	④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2	3	4	⑤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5
총점						53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39	78%
직업기능		16		80	76	95%
직무관련기능		18		90	66	73%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53	88%
계		56		280	234	84%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김*동					생년월일 : 1993년 07월 02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3	4	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5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④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4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3
총점						40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4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③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3
1	2	③	4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3
①	2	3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1
1	2	③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3
①	2	3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1
1	2	③	4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3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4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②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2
①	2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1
총점						63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①	2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1
①	2	3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1
1	2	3	④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4
1	2	3	4	⑤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5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①	2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1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5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③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①	2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②	3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2
총점						62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2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①	2	3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1
1	2	③	4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3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①	2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1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①	2	3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1
총점						39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일상생활기능		10		50		40
직업기능		16		80		63
직무관련기능		18		90		62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39
계		56		280		204
						73%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남*현					생년월일 : 1993년 09월 1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②	3	4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2
1	2	③	4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3
1	2	③	4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3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④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4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2	3	④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4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2	3	4	⑤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5
총점						37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④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4
1	②	3	4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2
①	2	3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1
1	②	3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2
1	2	③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3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③	4	5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3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②	3	4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2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③	4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3
①	2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1
①	2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1
총점						59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①	2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1
1	②	3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2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①	2	3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1
①	2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1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3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5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③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①	2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1	2	③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3
1	2	③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3
총점						55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2
1	2	3	4	⑤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5
①	2	3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1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④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4
1	②	3	4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①	2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1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②	3	4	5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
1	2	3	4	⑤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5
총점						39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37	74%
직업기능		16		80	59	74%
직무관련기능		18		90	55	61%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39	65%
계		56		280	190	68%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2)사후 상황평가

성명 : 이*복					생년월일 : 1991년 11월 2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④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4
1	2	3	④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4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④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4
1	2	3	④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4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3	④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5
총점						42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④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4
1	2	3	④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4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4	⑤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5
1	2	③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3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5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2	③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3
1	②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2

총점										77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②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2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2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4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4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④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4
1	2	③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2	3	④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4
총점										58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3	4	⑤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5
1	2	3	4	⑤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5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3	4	⑤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2	③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3
총점						45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일상생활기능		10		50		42
직업기능		16		80		77
직무관련기능		18		90		66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53
계		56		280		119
						85%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김*동					생년월일 : 1993년 07월 02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3	4	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5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④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4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3
총점						40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4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③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3
1	2	③	4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3
①	2	3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1
1	2	3	④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4
①	2	3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1
1	2	③	4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3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4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②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2
①	2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1
총점						64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2	③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3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3	④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4
1	2	③	4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②	3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2
①	2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1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4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③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②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2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2	③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3
총점						65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①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1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2
①	2	3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②	3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2
총점						41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일상생활기능		10		50		40
직업기능		16		80		64
직무관련기능		18		90		65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41
계		56		280		210
						75%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남*현					생년월일 : 1993년 09월 1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④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4
1	2	3	④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4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③	4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3
1	2	3	④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4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3	④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5
총점						41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④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4
1	2	3	④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4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③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3
1	2	3	④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4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4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2	③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3
①	2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1
총점						73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5	
1	2	③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3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3	④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4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1	②	3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2	
1	2	③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3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4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③	4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3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④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4	
1	2	③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2	3	④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4	
						총점	70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③	4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3	④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1	2	③	4	5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
1	2	3	4	⑤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5
총점						48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41	82%
직업기능		16		80	73	91%
직무관련기능		18		90	70	77%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48	80%
계		56		280	232	83%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3)사전 된장 · 고추장 만들기 영농작업수행평가

성명 : 이*복		생년월일 : 1991년 11월 2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①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①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솔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 기						④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③	
3	③ 숟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 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갠 메주에 같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 을 넣은 후 잘 섞기				②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체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 육 수 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①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 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 기				③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④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 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③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③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③	
4	인사하기					⑤
5	상품 포장하기				③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김*동		생년월일 : 1993년 07월 02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①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①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솔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기					④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②		
3	③ 숯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갠 메주에 갈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을 넣은 후 잘 섞기			②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채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①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기			②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④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②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②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②			
4	인사하기				③		
5	상품 포장하기				③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성명 : 남*현		생년월일 : 1993년 09월 1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①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①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솔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기					④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③	
3	③ 숯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깬 메주에 갈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을 넣은 후 잘 섞기			②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채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①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기				③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④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②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②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①			
4	인사하기					④
5	상품 포장하기				③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4)사후 된장 · 고추장 만들기 영농수행평가

성명 : 이*복		생년월일 : 1991년 11월 2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②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②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솔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 기					④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③	
3	③ 숟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 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갠 메주에 같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 을 넣은 후 잘 섞기				③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채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 육 수 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②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 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 기				③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⑤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 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③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③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③	
4	인사하기					⑤
5	상품 포장하기				④	

성명 : 김*동		생년월일 : 1993년 07월 02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②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②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솔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기							⑤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②			
3	③ 숟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깬 메주에 갈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을 넣은 후 잘 섞기				②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채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①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 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 기			②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④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 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②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②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②			
4	인사하기				③		
5	상품 포장하기				③		

성명 : 남*현		생년월일 : 1993년 09월 19일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3급)		
직무명	재료준비하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알기				②	
2	항아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닦기				③	
3	염도계를 확인하여 18~19보메의 간수 만들기				②	
직무명	된장 · 간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만들기 ① 술을 사용하여 메주에 묻은 먼지 제거하기					④
2	② 항아리에 메주를 넣은 뒤 간수 붓기				③	
3	③ 숯과 고추 등을 항아리에 넣기					⑤
4	④ 40일~50일이 지나면 불은 메주를 항아리에서 꺼내기					⑤
5	⑤ 부은 메주를 손으로 으깨기				③	
6	⑥ 으깬 메주에 갈은 고추씨와 메주가루, 소금을 넣은 후 잘 섞기			②		
7	⑦ 항아리로 옮겨 담기				③	
8	간장 만들기 ① 간수로 사용한 소금물을 냄비에 붓기				③	
9	② 소금물 끓이기					⑤
10	③ 끓인 소금물은 고운채에 거르기				③	
11	④ 거른 소금물을 항아리에 붓기				③	
직무명	고추장 만들기		자격요건		-	
교육 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5일	근무 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엿기름을 1시간 동안 물에 불리기					⑤
2	불린 엿기름을 성근채와 고운채로 거르기				③	
3	걸러준 엿기름 물 냄비에 모으기				③	
4	엿기름물을 고운채로 거르기				③	
5	거른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넣은 후 끓이기					④
6	끓인 엿기름물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매실액을 넣은 후 섞기			②		
7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어가며 저어주기			①		

직무명	장독관리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1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점수			
1	된장 · 간장 ·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햇별이 잘 들고 환풍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기				③	
2	항아리에 벌레 차단망 씌우기					④
3	낮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밤에는 항아리 뚜껑을 닫아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⑤
직무명	판매하기	자격요건	-			
교육수준	관계 없음	훈련 및 숙련기간	3일	근무시간	09:30 ~ 15:30	
연 번	수행작업					
1	판매 개념에 대해 알기			②		
2	화폐 가치에 대해 알기			②		
3	금액 및 거스름돈 계산하기			②		
4	인사하기					④
5	상품 포장하기				③	

(5)사전 · 사후 신체종합능력평가

소속 : 보람터	이름 : 이*복
----------	----------

기본신체검사결과			
신장	1차 : 179 cm	체중/ 비만도	1차 : 60.3
	2차 : 179 cm		2차 : -
시력	1차 : 좌 0.4 우 0.4	색각 이상	1차 : 무
	2차 : 좌 0.4 우 0.4		2차 : 무
약력	1차 : 좌 17 우 10	배근력	1차 : 42
	2차 : 좌 18 우 12		2차 : 43

협조성검사결과			
영역	평가항목	1차	2차
평형협조성검사	발을 모으고 선다.	4	4
	한다리로 선다.(최대 10초)	2	2
	서서 허리를 굽힌다.	4	4
	발꿈치와 발가락이 닿도록 하며 걷는다.	2	2
	걸을 때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출발하도록 한다.	4	4
	발바닥을 모두 바닥에 붙인 채로 쪼그려 앉기를 한다. (최대 10초)	2	3
	큰 의자(예 : 책상의자)에 앉았다 선다.	4	4
	작은 의자(예 : 목욕탕의자)에 앉았다 선다.	4	4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	4	4
비평형협조성검사	양팔을 벌리고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 끝으로 코 대기(손떨림, 정확성)	3	3
	손-코-손을 내담자의 코와 검사자의 손으로 검사	3	3
	2지의 양 끝이 서로 만나게 하는 동작	4	4
	엎어라 뒤집어라 동작	4	4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	4	4
	엄지와 각 손가락을 대립	4	4
	간격의 점을 두 개 찍어 선을 그려보도록 하는 평가	4	4

척도수준	
4	정상수행
3	약간의 어려움으로 운동 수행
2	활동 수행에 있어서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동이 율동적이지 못하고 속도가 빨라지며 수행력 떨어짐
1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운동이 매우 비율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진동이 있으며, 의외의 운동이 일어남
0	활동 수행이 불가능

소속 : 보람터	이름 : 김*동
----------	----------

기본신체검사결과			
신장	1차 : 161 cm	체중/ 비만도	1차 : 51.7
	2차 : 161 cm		2차 : -
시력	1차 : 좌 0.3 0.5	색각 이상	1차 : -
	2차 : 좌		2차 : 무
악력	1차 : 좌 10 우 18	배근력	1차 : 48.5
	2차 : 좌 10 우 18		2차 : 48

협조성검사결과			
영역	평가항목	1차	2차
평형협조성검사	발을 모으고 선다.	4	4
	한다리로 선다.(최대 10초)	4	4
	서서 허리를 굽힌다.	3	3
	발꿈치와 발가락이 닿도록 하며 걷는다.	3	3
	걸을 때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출발하도록 한다.	4	4
	발바닥을 모두 바닥에 붙인 채로 쪼그려 앉기를 한다.(최대 10초)	4	4
	큰 의자(예 : 책상의자)에 앉았다 선다.	4	4
	작은 의자(예 : 목욕탕의자)에 앉았다 선다.	4	4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	4	4
비평형협조성검사	양팔을 벌리고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 끝으로 코 대기(손떨림, 정확성)	3	3
	손-코-손을 내담자의 코와 검사자의 손으로 검사	3	3
	2지의 양 끝이 서로 만나게 하는 동작	3	3
	엎어라 뒤집어라 동작	3	3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	3	3
	엄지와 각 손가락을 대립	3	3
	간격의 점을 두 개 찍어 선을 그려보도록 하는 평가	4	4

척도수준	
4	정상수행
3	약간의 어려움으로 운동 수행
2	활동 수행에 있어서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동이 율동적이지 못하고 속도가 빨라지며 수행력 떨어짐
1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운동이 매우 비율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진동이 있으며, 의외의 운동이 일어남
0	활동 수행이 불가능

소속 : 보람터	이름 : 남*현
----------	----------

기본신체검사결과			
신장	1차 : 151 cm	체중/ 비만도	1차 : 45.5
	2차 : 151 cm		2차 : -
시력	1차 : 좌 0.8 0.7	색각이 상	1차 : -
	2차 : 좌 0.8 0.7		2차 : 무
약력	1차 : 좌 15 우 11	배근력	1차 : 24.5
	2차 : 좌 16 우 10		2차 : 26

협조성검사결과			
영역	평가항목	1차	2차
평형협조성검사	발을 모으고 선다.	4	4
	한다리로 선다.(최대 10초)	4	4
	서서 허리를 굽힌다.	2	3
	발꿈치와 발가락이 닿도록 하며 걷는다.	3	3
	걸을 때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출발하도록 한다.	1	2
	발바닥을 모두 바닥에 붙인 채로 쪼그려 앉기를 한다. (최대 10초)	0	1
	큰 의자(예 : 책상의자)에 앉았다 선다.	4	4
	작은 의자(예 : 목욕탕의자)에 앉았다 선다.	2	3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	4	4
비평형협조성검사	양팔을 벌리고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 끝으로 코 대기(손떨림, 정 확성)	3	3
	손-코-손을 내담자의 코와 검사자의 손으로 검사	3	3
	2지의 양 끝이 서로 만나게 하는 동작	4	4
	엎어라 뒤집어라 동작	4	4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	3	3
	엄지와 각 손가락을 대립	3	3
	간격의 점을 두 개 찍어 선을 그려보도록 하는 평가	4	4

척도수준	
4	정상수행
3	약간의 어려움으로 운동 수행
2	활동 수행에 있어서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동이 율동적이지 못하고 속도가 빨라지며 수행력 떨어짐
1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운동이 매우 비율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진동이 있으며, 의외의 운동이 일어남
0	활동 수행이 불가능

(6)전 평가영역 사전·사후 점수 비교

(A)상황평가 사전·사후 비교

	영역	사전		사후		목표달성
이*복	일상생활	39	78%	42	84%	O, 평균 1점 향상
	직업기능	76	95%	77	96%	
	직무관련기능	66	73%	66	73%	
	사회행동	53	88%	53	88%	
	총합	234	84%	238	85%	
김*동	일상생활	40	80%	40	80%	O, 평균 1.5점 향상
	직업기능	63	79%	64	80%	
	직무관련기능	62	69%	65	72%	
	사회행동	39	65%	41	68%	
	총합	204	73%	210	75%	
남*현	일상생활	37	74%	41	82%	O, 평균 10.5점 향상
	직업기능	59	74%	73	91%	
	직무관련기능	55	61%	70	77%	
	사회행동	39	65%	48	80%	
	총합	190	68%	232	83%	

(B)영농작업수행평가 사전·사후 비교

	영역	사전		사후		목표달성
이*복	재료준비	5	33%	7	46%	O, 평균 1.2점 향상
	된장·간장 만들기	39	70%	40	72%	
	고추장만들기	21	60%	22	62%	
	장독관리	12	80%	13	86%	
	판매기술	17	68%	18	72%	
	총합	94	64%	100	68%	
김*동	재료준비	5	33%	7	46%	X, 평균 0.6점 향상
	된장·간장 만들기	38	69%	39	70%	
	고추장만들기	21	60%	21	60%	
	장독관리	11	73%	11	73%	
	판매기술	12	48%	12	48%	
	총합	87	60%	90	62%	
남*현	재료준비	5	33%	7	46%	X, 평균 0.6점 향상
	된장·간장 만들기	39	70%	39	70%	
	고추장만들기	21	60%	21	60%	
	장독관리	12	80%	12	80%	
	판매기술	12	48%	13	52%	
	총합	89	61%	92	63%	

(C)신체종합능력평가 사전·사후 비교

	영역	사전	사후	목표달성
이*복	악력	좌17, 우10	좌18, 우12	X
	배근력	42	43	
	평형	30	31	
	비평형	26	26	
김*동	악력	좌10, 우18	좌10, 우18	X
	배근력	48.5	48	
	평형	34	34	
	비평형	22	22	
남*현	악력	좌15, 우11	좌16, 우10	X
	배근력	24.5	26	
	평형	24	28	
	비평형	24	24	

3. 연구결과

된장·고추장 담그기 직업훈련을 진행한 결과 상황평가 및 된장·고추장 담그기 직무능력, 신체능력이 조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상황평가의 경우 3명의 이용인 평균 6% 향상되었음. 이*복의 경우 일상생활영역과 직업기능영역이 각각 5%, 1% 향상되어 총 1%가 향상되었음. 김*동은 직업기능영역 1%, 직무관련기능영역 3%, 사회행동 3%, 총합 2%가 향상되었음. 가장 많이 향상된 남*현은 일상생활영역 4%, 직업기능영역 14%, 직무관련기능영역 15%, 사회행동 9%가 향상되어 모든 이용인의 상황평가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된장·고추장 담그기 영농작업수행평가에서는 이*복이 평균 1.2점이 향상되었음. 김*동, 남*현은 평균 0.6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목표치인 평균 1점이 향상되지는 않았음.

신체종합능력검사에서는 3명의 이용인 모두 근력은 어느 정도 향상은 되었으나, 소근육과 대근육의 협조성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평가결과를 보면, 된장·고추장 담그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지관들이 진행해오던 일반적인 부업형식의 제조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직업경험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무거운 항아리나, 메주, 기타 다른 재료들을 나르고 제조하면서 근력은 향상되나 근협조성 능력은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된장·고추장 담그기 직업훈련은 근력이 약하고, 직업적 경험이 부족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1)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직업준비에 미치는 효과, 이현숙, 2013,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2) 개별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환희·장문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1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4 전문자료집 - 사례연구

남동발간 2014-11호

■발행일 : 2014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편집인 : 정 은 지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6동1007번지)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